
학생생활연구

제 23권 <비매품>

발 행 인	김 희 수
편 집 인	엄 기 영
발 행 처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발 행 일	2020년 12월 일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ISSN : 2635 - 5604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상담분야의 연구논문과 신입생 실태자료를 게재한다. 학생생활연구는 무료로 배부된다. 구독관계는 학생상담센터 T(031-450-5173)로 문의하기 바란다.

본 학술지는 21권부터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학생생활연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학생생활연구

제 23 권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인 사 말

우리 한세대학교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의·진리·사랑의 대학’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형 교육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한국 속의 세계대학’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인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상담센터에서도 한세인의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헌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적인 자기 계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온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COVID-19에 따라 전 세계의 활동이 마비되고, 사람들과의 대면이 통제되는 사상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어 우리 대학도 엄청난 혼란 속에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한세인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여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생생활연구지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에 도움이 되는 학술 논문과 한세인의 신입생 실태조사와 상담소의 이용실태를 정리하여 엮었습니다. 본 학술 연구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과 조사 연구들을 수록하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세인들의 학생생활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 12.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김 희 수

목 차

인 사 말	학생생활상담센터장
-------------	-----------

I. 연구논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손 영 임 · 김 희 수
30~40대 기혼남성이 경험하는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엄 기 영 · 김 희 수
대학생 발표불안 조절을 위한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김 은 숙 · 김 희 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 하 늘 · 김 희 수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정 영 주 · 김 희 수

II.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2020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	장각자· 엄기영
--------------------------	----------

<부 록>

- 2020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 2019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 2020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계획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손 영 임*

김 희 수

한세대 학교

본 연구는 SQ(Spiritual Quotient)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생 18명으로 이 중 절반인 9명은 실험집단으로 남은 9명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학생용 주관적 안녕감 척도(Keyes, C. L. 2006; 도남희, 2009)와 진로정체감 척도(박아청, 1984; 조은주, 2001)를 사용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였고, 척도의 사전-사후검사에서 적용한 통계방법은 공분산 분석(ANCOVA)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유의수준 $*p<.05$ 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상승을 측정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수준 $**p<.01$ 라는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따라서 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과 진로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SQ진로집단상담, 주관적안녕감, 진로정체감

* 본 연구는 손영임(2019)의 한세대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손영임, agamdong@naver.com

I. 서 론

지능의 대명사로 알려진 IQ(Intelligence Quotient)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방면의 지능으로 확대되었다. Goleman(1995), Mayer & Salovey(1993)의 감성지능 EQ(Emotional Quotient), Sternberg(1988)의 성공지능 SI(Successful Intelligence), H. Gardner(1983)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등 지능의 영역을 유전적인 요인에서 환경적, 문화적 요인까지 발전시켰다. 특히 Gardner는 25년에 걸친 다중지능이론 연구의 총결산인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에서 9번째 후보지능을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Spiritual-Existential Intelligence)’이라고 명명했다(이소윤 외, 2015).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두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그동안 인간이 연구해온 모든 지능의 최고봉이라 할만큼 혁명적이다. 이미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챗봇(chatter rob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형 로봇과 경쟁하거나 상생하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프라임 사업)’을 도입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그들에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프라임 사업 등으로 실용학문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기초학문, 순수학문(academism)이 위축된다는 지

적도 나오고 있다(2015년 국정감사 자료).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2015)를 보면, 어문학계열의 입학정원이 2,778명(10.8%) 감소했고 학과도 59개가 없어졌다. 반면 공학계열(정밀·에너지 415% 증가)과 의료계열(치료·보건 221% 증가) 등 취업과 직결되는 실용학문은 학과 수가 늘고 입학정원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성세대의 과업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돕는 방법은 거시적이지만 제한적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발굴하려면 실용학문 분야에 입학하여 성적을 내든지 프라임 사업을 통해 두각을 보여야 유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예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류와 무관하게 ‘장래희망이 없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청소년들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JTBC 방송사에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6.1%,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3명인 30%에 가깝게 꿈이 없다고 답했다(2016). 이 통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을 표집한 것이어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수치지만 대도시의 결과치인만큼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 혼란스럽고 꿈이 없는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실시하되 영성지능(Spiritual Quotient, SQ)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서두에 소개한 Gardner(1983)의 다중지능 이론의 9번째 지능으로 소개된 SQ는 실존지능(Spiritual-Existential Intelligence)으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성품을 뜻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이다(Zohar & Marshal, 2000). SQ는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본질을 보게 하고 한계 상황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며(김복영, 2017: 여지영, 2017), IQ와 EQ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지능이기도 하다(박다송이, 2017). 인간의 일반지능(IQ)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이길 수 없다.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인간 고유의 창의력과 상상력에서 나오며 이 지능의 토대가 곧 SQ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SQ를 접목한 진로 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한 것 같다.

한편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NGO 단체로 글로벌 미래를 연구하는 그룹인 ‘미래니엄 프로젝트’는 정보화시대 이후, 이성과 지식의 다음 시대로 영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며 그 시기를 2050년으로 예측하였다(박영숙 외, 2017). 저명한 미래학자 John Naisbitt(메가트렌드, 2010)와 William Halal(조지워싱턴대) 교수 등도 영성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어, 향후 SQ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영성을 토대로 한 지능인 SQ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근본 지능으로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들을 통합시키며 타인과의 간격 역시 초월적 관점에서 통찰

할 수 있도록 해준다(여지영, 2017).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SQ를 통해 삶의 궁극적 목적과 안정을 찾는다면(제영갑, 2017), 물질 만능이나 성공지향,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실이나 좌절 등으로 인한 주관적 안녕감의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만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즐거움 혹은 삶의 가치와 만족 등을 의미한다(황혜선, 2010).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 발달 단계상 혼란스런 과도기를 겪게 되는 예민한 시기인데,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더해진다면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배민영, 2014). 본 연구자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을 꼽고 있다(안지혜 외, 2016: 장경아, 이지연, 2014). 진로의 방향이 정해지고 적절한 노력과 성취가 동반될 때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도 향상된다는 것이다(서진숙 외, 2010: 양난미, 이은경, 2008: 이강모, 2015). 그러므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에는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상관관계에 ‘SQ’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고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으로 특정하였다. 이유는 중학생이 인지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있

고 추상적, 논리적, 가설적 사고가 가능해지며(Piaget), 진로 탐색이 본격화되는(Erikson, 1968) 청소년기의 핵심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다(김경애, 2017). 이 시기에 SQ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고 통합적인 사고까지 하게 된다면 진로정체감이 상승하고 주관적 안녕감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유재봉, 2013).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과 진로정체감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프로그램 전과 후에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처음에 경기도 S시에 소재하는 S교회의 중등부 학생 12명과 동일 지역의 J교회의 중등부 학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S교회의 실험집단으로 참여한 중학생 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6일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동의

서, 부모동의서를 배부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안내와 소개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9명이 실험집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총 7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주 2회, 회기당 90분씩 진행하였다.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인 9월 16일에 실시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검사 실험통제 집단 설계(pretest-posttest experiment control group design)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인 두 집단은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처치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검사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 척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2. 처치 프로그램

본 연구의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중지능 이론의 선구자인 H.Gardner(1983)가 제시한 9번째 지능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진로 교육에 접목시키는 과정으로, 이 9번째 지능을 이름하여 영성지능(SQ) 혹은 실존지능이라 명하였다. SQ를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물이 간혹 있지만 특정 종교의 철학이 담겨 있어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학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SQ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전국 150여개의(2018년 7월 기준) 학교에서 SQ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SQ연구소의 프로그램을 개발자

의 동의를 얻어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중학생 실험집단에 맞게 SQ진로집단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첫째, 진로 탐색의 시기를 맞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일깨워주고 시각을 확장하여 거기에 맞춰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게 한다.

둘째, 대상 학생들의 잠재된 근본지능인

SQ를 찾아내고 자신들이 가진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직업군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직업군에 대해 검증된 자료로 학습하면서 대상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유현실, 2018).

SQ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활동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회기	SQ 향상 프로그램	회기별 세부 활동	비고
1	-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 AI 시대의 SQ진로프로그램 이해	- 라포 형성 - 참여 동기 유발 -IQ, EQ, 다음은 SQ!	- 프로그램 참여 및 학부모 동의서 배부 - 사전 검사 실시
2	-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존 -눈에 보이는 세계 VS 안보이는 세계	- 자기 이해 확장 - 나의 잠재력 찾기 - 에피지놈 프로젝트1 -뇌구조 활동지	- SQ: 실존적 사고 영역 -주관적 안녕감 경험
3	- 현실 너머의 고차원 -유전자를 바꾸는 에피지놈, 중력과	- 자기 탐색 - 에피지놈 프로젝트2 -긍정 유전자 만들기 - 고차원 존재와 만남 -중력과 침으로 카카오톡을?	SQ: 초월적 자각 영역
4	- 사실과 진실 -관찰자, 이중슬릿 실험 -고정관념 탈피	- 진로정체감 경험하기 -입자 & 파동 실험 -버킷 리스트 작성	- SQ: 본질적 의미 추구 -진로정체감 경험
5	- 관계 속의 에너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욕설 침과 쥐 실험 -텔레파시도 과학이다	- 자기 자신 돌보기 - 긍정, 부정 언어 사용의 결과 -긍정 언어 남발하기 -롤링 페이퍼	- SQ: 관계적 통찰 영역 -주관적 안녕감 경험
6	-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생각과 꿈의 진단! - 설계와 선포!	- 자기 고백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 경험해 보기 - 타인의 꿈과도 소통하기 - 4단계 마인드맵	- SQ: 내면의식 활용 -진로정체감 경험
7	- 미래의 직업 탐구 -직업 세계의 역사 -나의 선택 그리고 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업 - 집단 참여 소감 나누기 및 평가하기	- SQ: 진로, 직업의 탐색 - 사후 검사 실시 - 평가, 소감, 파티

3. 연구도구

1) 주관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Keyes, C. L. (2006)가 성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 SWBS)를 도남희(2009)가 12-18세의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변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곽민경, 2015). 본 연구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도남희의 수정안을 연구 대상에게 적합하도록 다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 12문항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응답자가 평소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자기보고식 검사지로서 ‘항상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곽민경(2015)의 주관적 안녕감 검사지 신뢰도는 .925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58이다.

2) 진로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Gottfredson & Power(1980)의 진로정체감 척도와 전윤식, 이성해, 정영홍, 박선자, 김상구(1988)의 자아정체감 검사, Dignan(1965)이 제작한 자아정체감 검사를 바탕으로 박아청(1984)이 개편한 검사를 참고하였고 이를 진로 관련 문항으로 재구성한 조은주(2001)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조경미, 2018). 총 30문항 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정·보완하는 과정

에서 24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이 중 5문항은 역산 처리 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 항목에서 ‘보통이다’ 항목을 제외시켜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를 배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경미(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8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Q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 실험집단 설계를 이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둘째, 사전검사에서 집단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주관적 안녕감,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에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여 사전점수를 통제된 교정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넷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주관적 안녕감,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SQ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

로그래미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를 이용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사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측정도구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사전-사후 척도 득점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기술하였다.

1.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통제 두 집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사전-사후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기술통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된 사후	
		M	SD	M	SD	M	SE
실험집단	9	2.90	.448	3.39	.425	3.36	.126
통제집단	9	2.79	.498	2.90	.429	2.92	.126

실험집단의 사전 주관적 안녕감 평균 점수는 2.90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3.36점으로 사전 평균 점수보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통제 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는 2.79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2.92로 소폭 상승하였다. 실험-통제집단 간의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변인	변산원	SS	df	MS	F
주관적 안녕감	공변량	.774	1	.774	5.426*
	집단	.855	1	.855	5.993*
	오차	2.140	15	.143	
	합계	181.868	18		

* $p < .05$

<표 3>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 주관적 안녕감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 주관적 안녕감 점수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해보면 사후검사 결과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9^*$).

실험집단의 주관적 안녕감 점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평균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사전검사에 비해 처치 이후의 사후검사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4>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분석

측정변인	사전(n=9)		사후(n=9)		t
	M	SD	M	SD	
안녕감	2.90	.448	3.39	.425	-2.508*

* $p<.05$

2. 진로정체감의 변화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통제 두 집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사전-사후 주관적 진로정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진로정체감에 대한 기술통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된 사후	
		M	SD	M	SD	M	SE
실험집단	9	2.91	.466	3.33	.487	3.29	.115
통제집단	9	2.72	.302	2.69	.172	2.73	.115

실험집단의 사전 진로정체감 평균 점수는 2.91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3.29점으로 사전 평균 점수보다 상승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는 2.72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2.73점으로 매우 근소한 변화를 나타냈다.

실험-통제집단 간의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진로정체감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변인	변산원	SS	df	MS	F
진로정체감	공변량	.407	1	.407	3.528
	집단	1.298	1	1.298	11.250**
	오차	1.730	15	.115	
	합계	167.200	18		

** $p<.01$

<표 6>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 진로정체감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 진로정체감 점수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표 6>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후검사 결과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25^{**}$).

실험집단의 주관적 진로정체감 점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평균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이 사전검사에 비해 처치 이후의 사후검사에서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7>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 분석

측정변인	사전(n=9)		사후(n=9)		t
	M	SD	M	SD	
진로	2.91	.466	3.33	.487	-2.561*

* $p<.05$

IV. 논 의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은 사전 평균이 2.90에서 사후 평균 3.36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나 사전평균 2.79에서 사후 평균 2.9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적인 안녕감(spiritual well-being)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김은정, 2006; 박지아, 2002; 유성경 외, 2004, 이해리, 조한익, 2005; 조현영, 2013; 천정웅, 2011; Chapman, 1986)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서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낸 이유에 대하여 참여대상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평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불안이 높았던 집단원의 경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재한다는 게 신기하다’며 ‘내가 가진 보이지 않는 잠재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써보고 발표해 보니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또한 집단에 열심히 참여하면 서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던 한 집단원도 6회기 활동인 마인드맵을 하면서 현재의 나와 변화될 나, 꿈을 이룬 나를 떠올려보니 진지해지고 기대도 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상승을 측정한 결

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은 사전 평균은 2.91에서 사후 평균 3.29로 높은 상승 값을 보였고, 통제집단은 사전 평균 2.72에서 사후 평균 2.73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이 진로정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김관호, 2017; 김보경, 2017; 박지순, 2016; 서진숙 외, 2010; 양난미·이은경, 2008; 이강모, 2015; 장경아·이지연, 2014)의 결과와도 일치성을 보인다.

한편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두 가지 척도 중에서 주관적 안녕감 향상 보다 진로정체감 상승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한 것을 볼 때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상승에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집단원들 대부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원은 첫 회기에 요리사가 꿈이라고 대충 말했다가 4회기 때는, 실은 학교 대표로 사격부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히며 관찰자 효과를 통해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따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또 다른 집단원은 노벨상을 받겠다는 꿈이 허황되지 않도록 자신의 유전자 지도를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였다. 매 회기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집단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던 한 집단원의 경우도 결론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꿈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도 중학교 3학년인 집단원 대부분은 미래의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자신의 진로와 연결 지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하였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태이다 보니 직업

탐색 부분을 구체화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시각을 넓혀준 것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닌 SQ의 가치로 바라본 삶의 모습, 가치, 태도를 인식하면서 이상과 현실을 조율해보며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 시켰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도 시도해보기로 약속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변화에 대해 가늠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AI로 일컫는 인공지능 로봇이 주는 생활의 편의와 이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상생해 갈지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SQ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앞서가기 위해 필요한 긴장감이나 부담감도 때에 따라 수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집단원들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SQ활동 중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을 서로 간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잠재력이 실현되도록 긍정 언어화 작업을 함으로써 진로정체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 서로를 향한 덕담 등이 개인의 가능성을 깨울 뿐 아니라 집단이나 공동체도 성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넷째, SQ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안에서 발생하였던 건강한 역동을 경험함으로써 좋은 관계 맺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집단 구성원 중에 경미한 정신지체 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주 끼어들고 종종 돌발 행동을 하여 흐름을 끊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SQ의 요소 중 하나인 공동체가 빚어내는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하고자 독려했을 때, 자진해서 규칙을 정하고 비난하기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NDE(임사체험)을 입증하는 동영상 보면서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학습하는 등 짧은 회기에 비교적 많은 효과들을 경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정 도시의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제한한 것이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양한 지역, 집단, 학교, 환경 등을 고려한 표집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집단이 종교를 가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SQ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종교성을 배제시킨 채 진행하였으나 집단의 특성이 갖는 한계는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SQ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이 부족하여 축적된 연구물과 비교·검토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 영성이라는 주제를 특정 종교가 아닌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여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SQ라는 분야 역시 연구가 초기 단계라서 비교·검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SQ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고 진로정체감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

담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진로 외에도 SQ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유익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알차게 응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강은실, 조향숙, 송양숙, 강성년 (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09-199.
- 강찬석 (2013). **성인학습인의 영성체험을 통한 영성리더십 개발 과정 탐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12). 창의적 체험활동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맵(중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17-41, 122-124.
- 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미래 교육 보고서**. 파주: 광문각.
- 글로벌SQ연구소 (2015). <https://gsq.ff.or.kr/>
- 김보경 (2017). **청소년의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복영 (2000.10). 또 하나의 지능, Q-영성지능 이론. **교육개발**, 124, 124-129.
-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윤정, 김영빈, 김희수,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2013). **진로상담 = Career counseling**. 서울: 학지사.
- 김영찬 (2018). **다중지능 프로파일 진단에 의한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경험의 의미 :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진호 (2015).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이버특성과 영성지능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희수 (2017). **자기이해와 진로탐색: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지침서.** 서울: 학지사.
- 도남희 (2009).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 :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아청, 김창대 (1996). **청소년 발달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영숙, 제롬 글렌 (2017). **세계미래보고서 2018.** 서울: 비즈니스북스.
- 소현옥 (2017). **중학생의 삶의 목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연지 (2015).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 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탄력성의 조절효과와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신하영 (2017).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현실 (2018). 4차 산업혁명과 진로상담. 한국카운슬러협회. **상담과 진로. 53.**
- 윤매리 (1996). **진로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경 (2012).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42(12), 161-206**
- 이향은 (2017).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미술 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석민 (2001).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진로교육연구. 30(1), 1-16.**
- 조병환. (2013).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문제행동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혜정 (2001). **도나 조하, 이안 마셜 공저. SQ 영성지능: 인간 지능의 완성, SQ의 과학적 규명과 증진법.** 서울: 룩스
- 차경호, 김명소 (2002). 청소년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1), 203-209**
- 하창순, 박주하 (2012). 정서표현 갈등과 대인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인간연구. 22, 173-19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사례집(중학생).**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31.
- 황희정 (2017). **자유학기제 경험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Allport, G. W. (1960).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Macmillan.

- Ben-Zur, H. (2003). Happy adolescents: The link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internal resource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2(2), 67-79.
- Gardner, H. (198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1980). Some diagnost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 Keyes, C. L. (2006).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 Family Health*, 4(1), 3-11
- Myers, D. G.,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berle, E., Schonert-Reichl, K. A., & Zumbo, B. D. (2011).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7), 889-901.
- Vondracek. F. W., & Porfeli, E. J. (2003). The world of work and careers. In G. R. Adams & M. D. Berzonsky (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100-108. New York: Blackwell.
- Wallace-Brosious, A., Serafica, F. C., & Osipow, S. H.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 Relationships to self-concepts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127-150.

<Abstract>

The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and its impa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Shon, Young-im

Kim, Hee-sue

Ha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examine the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and its impa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this research have examined 18 middle school students of S church and J church located in S city of Gyonggi province which is divided by 9 experimental group students and other 9 control group students. Preliminary inspec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career identity was carried out before the main research.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was conducted twice in the week totalling 7 week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tween 26th of August and 16th of September, 2018. Post test of subjective well-being and career identity was conduc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on the 16th of September which was the day of last examination.

Following results are revealed.

Firstly, experimental group has better subjective well-being which shows the efficiency of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Secondly, experimental group possesses better career identity which reveals the efficiency of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In conclusion,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career identity.

Key words : *Spiritual quotient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Subjective well-being, Career identity*

30~40대 기혼남성이 경험하는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엄 기 영*

김 희 수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30~40대 기혼남성이 경험하는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0~40대 기혼 남성 404명을 대상으로 결혼불만, 스마트폰 중독, 우울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와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40대 기혼 남성의 결혼불만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이 증가하고, 우울이 높아지면 스마트폰 중독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30~40대 기혼 남성의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30~40대 기혼남성에 있어서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기혼 남성, 결혼불만족, 스마트폰 중독, 우울

* 교신저자 : 엄기영,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E-mail : huma7102@naver.com

I. 서 론

스마트폰(smartphone)은 통신 및 정보, 방송, 컴퓨터 등이 하나로 결합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communication technology)이며, 사용자에게 최적화되어 다양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첨단 미디어 단말기이다(황경호·권상희, 2011; 김현숙, 2019).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Pew Research(2018)에서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100%였으며, 이들 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95%로 조사국가 중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공유활동 증가와 학업, 업무 생산성 증대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성과 금단을 가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정의하였고, 2011년부터 학술연구에서 일반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과 업무, 학업 등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데(한주리·허경호, 2004; 최현석·이현경·하정철, 2012; 김은영외 2016),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증상과 내성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손목터널증후군이나 거북목증후군, 상지통증, 파콘브레인 등의 신체적 문제, 그리고 심리적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제 등이 보고되고 있다(한주리·허경호, 2004; 윤주영 외, 2011; 김동현 외, 201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남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7%가 건강문제, 50.2%가 가족과의 다툼, 42%는 사회적 갈등, 44%가 업무나 학업지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들을 뒷받침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특히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 남성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3년 조사에서는 8.2%와 5.0% 정도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18.9%와 16.8%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이러한 결과는 30~40대 남성의 스마트폰 중독이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30~40대 남성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와 동시에, 가족을 구성하고 지속하는 일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또한 남성의 생애 중 가장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각 역할에 대한 수행 중요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은영·서영주, 2011). 하지만 남성근로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어 가족생활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사이에서의 갈등은 이들의 심리와 가족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환경은 자녀를 가진 30~40대 남성근로자에게 가족생계의 유지자 역할과 직업적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강조하

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성의 가치나 양육자, 가족생활 유지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은 ‘사회적인 일’과 비교하여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문은영·서영주, 2011). 이로 인해 30~40대의 기혼남성들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 및 남성과 여성의 역할경계의 변화를 통해 배우자와의 갈등경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김양희·김진희·박정윤, 2001; 이소희 2019),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결혼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단 연구 결과에서도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이 배우자를 위한 우호적인 행동 경향성은 감소시키는 반면, 비난하는 행동 경향성은 증가하게 만들어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Neff & Karney, 2009; 원수경, 2016).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8.7세로 나타났으며, 그 중 30대와 40대의 이혼율이 5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30~40대 기혼 남성의 결혼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19). 결혼불만족(Marital dissatisfaction)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부터 불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평가라고 정의된다(서현자·주은선, 2015). 결혼불만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결혼만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은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태도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및 만족의 주관적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권정혜·채규만, 1999; 장문선, 2004).

위의 내용과 같이 30~40대의 기혼 남성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결혼불만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게 된다. 현실 세계의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는 시간을 더 즐겁게 느끼는 ‘가상세계 지향성’을 가지게 되기도 하며,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세계에 빠져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들은(고기숙·이민재·김영은, 2012), ‘스마트폰 과부, 홀애비’와 같은 신조어 들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병완, 2014). 이러한 이유는 결혼생활의 불만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SNS를 통한 가상 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하거나, 배우자에게서 느끼지 못한 만족감을 인터넷을 통해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이정은, 2005; 김남희, 2016). 결혼만족도가 스마트폰 사용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결혼생활에 더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은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정병완, 2014; 최승미, 2015).

한편 연구에 따르면 30~40대 기혼 남성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양립의 어려움과 부부간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낮게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

은정, 2001; 조은경, 정혜정, 2008).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30~40대 기혼남성의 결혼불만족은 우울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여기서 우울(depression)이란 기분의 급격한 변화, 슬픈 느낌, 무관심과 고독감에 빠지며 자기비하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우울은 기분장애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기분 변화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기분과 감정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권경미, 2009). 우울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며, 증상이 심화되면 인지장애나 행동장애, 정서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임양화·오경자, 19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체 우울증 환자의 5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남성의 우울증 환자의 비율은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백승순, 2016). 하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심한 우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연구 결과(장휘숙, 2006)가 보고되었고, 우울과 관련이 높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성은 38.5명, 여성은 14.8명으로 나타나 남성의 자살률이 약 2.6배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남성들은 우울한 정서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우울증과 자살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기혼 남성의 경우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별거와 이혼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이 증가하고 자살사고에도 영향 미치기 때문에 남성의 결혼불

만족에 따른 우울의 심각성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김희숙·유경자·박경란, 2013),.

마찬가지로 우울은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적 욕구를 가상공간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경향을 발생시켜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높일 수 있다(서지혜, 2012; 황경혜외, 2012; 김병년, 2013). 높은 수준의 우울은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 미디어의 중독적 사용 경향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써 다른 변인들에 비해서 중독적 사용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되는 예측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병년, 2013),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부정적 정서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중독적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김민정, 2014). 따라서 30~40대 기혼 남성의 우울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져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30~40대 기혼 남성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결혼불만족,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미국시장조사 기관인 Pew Research(2018)에서 진행한 나이와 스마트폰 소유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50대 이하의 세대가 국가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스마트폰 사용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스마트폰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30~40대 성인, 특히 남성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과 대학생에 비해 문제적 사용이 적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왔기에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40대 기혼 남성의 결혼불만족은 스마트폰 중독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수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30~40대 기혼남성의 스마트폰 중독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이들의 예방교육과 상담의 접근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40대의 기혼남성의 결혼불만족, 우울,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30~40대의 기혼남성에게 우울은 결혼만족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30~40대 기혼남성들의 결혼불만족이 우울과 연관되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혼불만족 척도, 우울척도, 생활 스트레스 척도,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성인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 2020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30~40대 기혼 남성만을 대상으로 설문참여를 요청하여 404명의 설문결과를 확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결혼불만족

이경성(2001)이 개발한척도를 사용하여 결혼불만족의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점수는 긍정문항(2, 4, 6, 10번 문항)을 역산한 뒤 모든 문항의 응답점수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불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경성(2001)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30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40로 나타났다.

2)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된 성인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해 스마트폰 중독의 측정을 진행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과 내성 등 총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원점수가 총 44점 이상일 경우 또는 일상생활장애 15점, 금단 13점, 내성 13점 이상일 경우는 고위험 사용자로 분류하였고, 고위험 사용자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총점의 표준화 점수가 66점과 99점 사이로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장애의 표준화점수가 66점 이상인 집단일 경우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1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11로 나타났다

3) 우울

Re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우울의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표준화한 한국판 CES-D의 단축한 형식인 CESD-10을 사용하였는데, CESD-10은 Andresen(199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CES-D의 20문항을 10문항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CES-D와 비교했을 때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kappa=.97$, $p<.001$, Andresen, Malmgren, Carter, & Patrick, 1994). 본 척도는 신체 및 행동둔화, 우울감정, 긍정감정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본인이 경험한 우울증상 빈도에 대한 질문으로 각 문항은 '극히 드물었다(0점)'부터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의 4점 리커트 식으로 제작하였고, 총점이 7점 이상으로 확인된 대상은 우울이 높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최민희(20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10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96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1버전과 AMOS 21버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문항의 반응경향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 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결혼불만족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경로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잠재변수 측정지표의 증가는 모형이 복잡해지고, 적합도와 추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문항꾸러미 제작을 하였다. 문항꾸러미 제작은 관측변수의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 관측변수를 합치거나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3개 또는 4개의 문항꾸러미가 추천된다(우종필, 2015;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꾸러미는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절대값이 가장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순차적으로 묶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김수영, 2017; 차경환·하정희, 2019), 총 3개의 문항꾸러미가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불만족에 대한 문항꾸러미 작업을 하여 측정지표로 사용하였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은 각 하위척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을 진행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χ^2 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CFI, TLI는 .90이상은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되며, RMSEA는 .10 이상일 경우 좋지 않은 적합도로 간주하며, .10 미만이면 보통의 적합도, .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로 분류한다

(우종필, 2015). 여섯째, 결혼불만족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로 진행되었다(Shrout & Bolger, 2002).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사용되어진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ML)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법이며, 변인들이 정규분포성을 충족시킬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Skew) 및 첨도(Kurtosis)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 $-.27 \sim 1.09$, 첨도 $-.68 \sim .73$ 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크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큰 경우에는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Klein, 2011), 본 연구에선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이며, 첨도의 절대값이 7이하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가 정상분포의 가정에 만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표 1에 제시하였다. 결혼불만족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r=.52, p<.01$),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r=.31, p<.01$)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r=.44, p<.01$)을 보였다.

<표 1> 모형에 투입된 변인의 상관분석 (N=404)

변 인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3.4
1. 결혼불만족	1.00												
1.1. 불만족1	.96**	1.00											
1.2. 불만족2	.95**	.87**	1.00										
1.3. 불만족3	.95**	.86**	.86**	1.00									
2. 우울	.52**	.48**	.47**	.53**	1.00								
2.1. 신체행동둔화	.45**	.41**	.41**	.46**	.94**	1.00							
2.2. 우울감정	.44**	.41**	.40**	.46**	.91**	.83**	1.00						
2.3. 긍정감정	.46**	.43**	.42**	.46**	.66**	.42**	.45**	1.00					
3. 스마트폰중독	.31**	.29**	.29**	.30**	.44**	.45**	.38**	.24**	1.00				
3.1. 일상생활장애	.28**	.27**	.26**	.27**	.41**	.43**	.37**	.19**	.89**	1.00			
3.2. 가상세계지향성	.37**	.35**	.35**	.37**	.46**	.46**	.42**	.26**	.77**	.63**	1.00		
3.3. 금단	.24**	.22**	.24**	.24**	.34**	.35**	.28**	.20**	.82**	.54**	.64**	1.00	
3.3 내성	.19**	.20**	.18**	.17**	.31**	.32**	.25**	.17**	.87**	.73**	.53**	.60**	1.00

평균	1.87	1.89	1.86	1.87	1.89	1.74	1.63	2.64	2.12	2.01	1.81	2.18	2.37
표준편차	.63	.65	.65	.69	.60	.63	.69	.82	.56	.65	.67	.67	.65
왜도	.79	.87	.68	.67	.79	1.01	1.09	-.27	.22	.35	.64	.31	-.11
첨도	.32	.41	.21	.04	.18	.73	.53	-.68	-.32	-.32	-.12	-.23	-.46

** $p < .001$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결혼불만족,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후,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평가는 χ^2 값, 상대적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 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함께 평가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52.483(p<.001)$, $df=32$, TLI=.939 CFI=.957, RMSEA=.097 으로 나타나 TLI와 CFI는 좋은 적합도, RMSEA는 보통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 모형	152.483	32	.000	0.939	0.957	0.097 (.082~.112)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491~.930, 유의성(t값)은 10.251~33.215 AVE는 .739~.933, C.R.은 .888~.977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울의 하위요인인 긍정감정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하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요인부하량 및 유의성, AVE 및 C.R.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측정모형이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긍정감정을 제거하지 않고 연구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어서 모형에 투입된 잠재변인이 서로 변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는 AVE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클수록 판별타당도가 높다고 해석된다(우종필, 2015).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잠재변수의 상관계수와 $\sqrt{AVE}$ 를 비교하였고,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sqrt{AVE}$ 값이 상관계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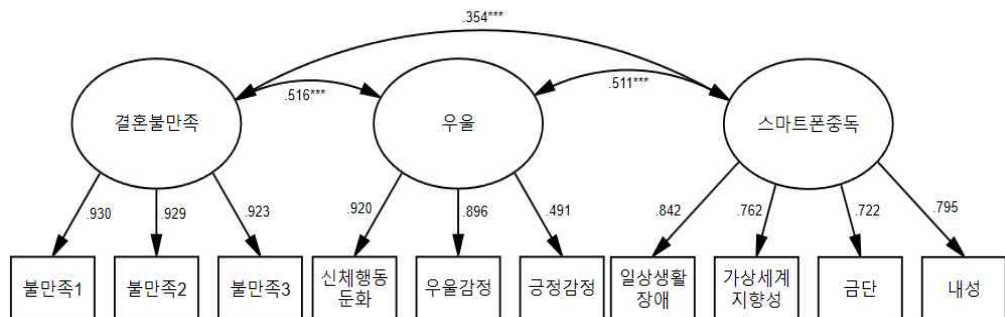
<표 3>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수	B	β	S.E	t	AVE	C.R.
결혼불만족	→ 불만족1	1	0.930				
	→ 불만족2	0.99	0.929	0.03	33.215***	0.933	0.977
	→ 불만족3	1.047	0.923	0.032	32.649***		
우울	→ 신체행동둔화	1	0.92				
	→ 우울감정	1.069	0.896	0.051	21.067***	0.739	0.888
	→ 긍정감정	0.695	0.491	0.068	10.251***		
스마트폰중독	→ 일상생활장애	1	0.842				
	→ 가상세계 지향성	0.944	0.762	0.057	16.487***	0.782	0.935
	→ 금단	0.882	0.722	0.057	15.428***		
	→ 내성	0.954	0.795	0.055	17.318***		

<표 4> 잠재변수간 상관계수와 $\sqrt{AVE}$ 의 비교

변인	1.	2	3	$\sqrt{AVE}$
1.결혼불만족	1			.966
2.우울	0.516***	1		.860
3.스마트폰 중독	0.354***	0.511***	1	.884

*** $p < .001$



<그림 1>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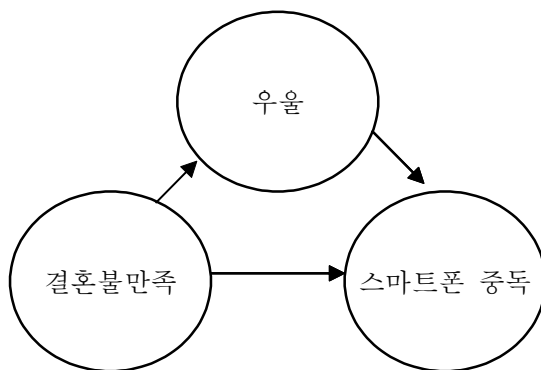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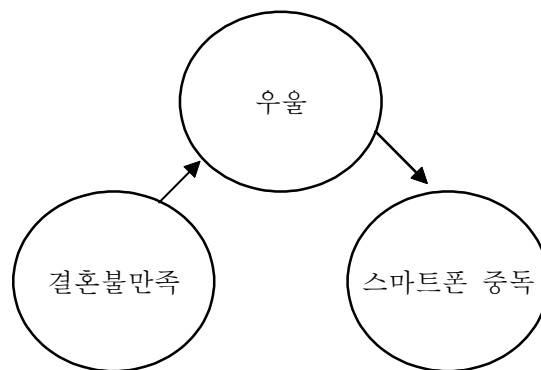
측정모형이 양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결혼불만족, 우울,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관계검증을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은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와 결혼불만족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간접효과 경로를 설정한 부분 매개모

형이다. 경쟁모형은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 결혼불만족이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간접효과 경로를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이다.

연구모형(그림 2)과 경쟁모형(그림 3)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그림 3> 경쟁모형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152.483(p<.001)$, $df=32$, $TLI=.939$, $CFI=.957$, $RMSEA=.097$, 경쟁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156.869(p<.001)$, $df=33$, $TLI=.939$, $CFI=.955$, $RMSEA=.097$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위계적 관계에 있는 양모형의 적합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χ^2 차이값($\Delta\chi^2$)검증을 통해서 모형의 비교가 가능하다(우종필, 2015).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간의 자유도 차이는 불과 1밖에 되지

않지만, 연구모형의 카이스퀘어 값이 작아 적합도에서는 더 좋고, 자유도는 경쟁모형이 크기 때문에 더 간명한 모형으로 확인됨. 이런 경우 카이스퀘어 값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했는지를 보아야 하며, 유의수준 .05, 자유도 1일 때 카이스퀘어 값이 3.84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도 1 차이에 카이스퀘어 값은 4.386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으로 보여져 연구모형이 선택되었다. (홍세희, 2000)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모형	χ^2	df	$\Delta\chi^2(\Delta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52.483***	32	-	0.939	0.957	0.097
경쟁모형	156.869***	33	4.386(1)	0.939	0.955	0.09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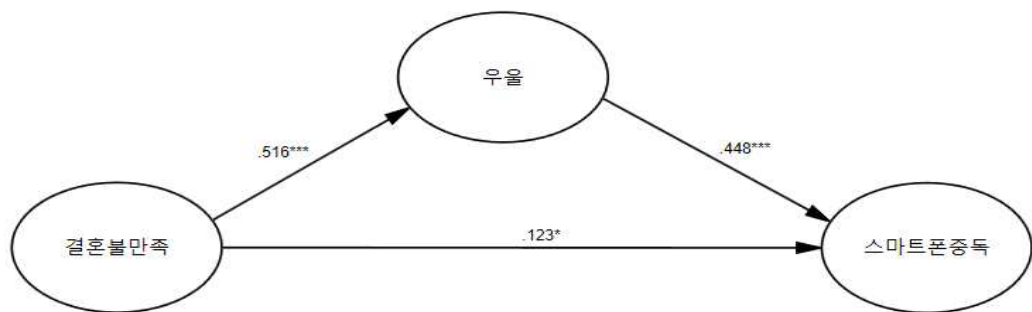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선정된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표 6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불만족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51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불만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우울은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448, p < .001$), 결혼불만족은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123,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불만족과 우울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6>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B	β	S.E	t
결혼불만족 → 우울	0.494	0.516	0.047	10.501***
우울 → 스마트폰 중독	0.419	0.448	0.058	7.205***
결혼불만족 → 스마트폰 중독	0.110	0.123	0.052	2.106*

* $p < .05$, *** $p < .001$



<그림 4> 구조모형 검증결과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 < .05$,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결혼불만족은 우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N=404)에서 무선 표집을 통해 생성한 5,000개의 부스트랩 표본을 사용하여 모수 추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결혼불만족이 우울

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1$, $CI=.158 \sim .318$, $p<.001$). 이는 결혼불만족이 증가하는 경우 우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때,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므로($\beta=.123$, $CI=.009 \sim .246$, $p<.05$),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우울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혼불만족이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표 7> 매개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결혼불만족	우울	스마트폰	.123*	.231***	.354***
	→	중독	(.009 ~ .246)	(.158 ~ .318)	(.240 ~ .464)

* $p<.05$, ***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30~40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결혼불만족, 스마트폰 중독, 우울 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전제로,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을 매개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불만족, 스마트폰 중독,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사람

들은 결혼생활에 더 큰 만족을 얻고자 하며,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를 근거한다(정병완, 2014; 이정은, 2005). 이러한 결과는 30~40대의 기혼 남성의 결혼불만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빈도를 높여 중독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불만족을 회피하거나 대치하고자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상담을 진행할 때 결혼에 대한 상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불만족과 우울간의 관계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불만족이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의 불화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으며(Whisman et al., 2006), 결혼불만족이 높으면 우울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김효정, 2007; 김선영, 2012; 김성령, 2016). 이는 30~40대 기혼남성의 결혼불만족의 문제가 우울의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우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불만족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울의 경험 이 스마트폰 중독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며, 우울과 같은 심리적 위험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최진, 2016; 정경아, 2016; 정희진, 2014; 노석준, 2013). 이러한 결과는 30~40대 기혼남성의 우울 상승이 스마트폰 중독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상담에서는 심리요인인 우울을 다루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우울의 매개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 결혼불만족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여 우울은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불만족의 수준이 클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중독 역시 증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혼불만족의 결과에서 파생된 정서인 우울로 설명할 수 있으며, 결혼불만족이 우울을 경유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생활의 질에 우울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30~40대 기혼남성의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 상담현장에서는 심리적 문제인 우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의 우울은 여성의 우울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으로는 남성의 우울증 환자의 수가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심한 우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장휘숙, 2006)와 우울과 관련이 높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6배가 높게 나타난 통계를 보면(통계청 2019) 남성은 자신의 우울을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월간 음주율과 월간 폭음률은 각각 70.5%, 50.8%로 여성의 51.2%, 25%보다 월등히 높고(질병관리본부, 202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Help-Line'을 통해 도박 중독 상담을 받는 남성의 비율이 95.7%로 4.3%인 여성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이러한 결과들과 회피성향이 높을 수록 알코올, 도박, 휴대폰 중독이나, SNS 등의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다양한 연구들을 대입하

여 본다면(이동준, 2007; 김연주, 2013; 최재천, 2014; 성요안나·현명호, 2016; 서은진, 2020), 남성들의 중독률이 높은 것은 회피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들이 자신의 결핍이나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 또는 행위중독으로 빠지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중독 경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30~40대 기혼 남성의 스마트폰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혼생활과 우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남성의 우울을 다룰 때는 그 특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치유상담 현장에서는 결혼불만족과 우울의 진단이 필요하며, 치료 목표에도 이러한 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불만족이 스마트폰 중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30~40대의 기혼 남성의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요인으로 제시된 우울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30~40대 기혼 남성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 않다. 연령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상담경험을 보면 유아(만 3~9세)는 33.2%, 청소년(만 10~19세)은 49.4%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30대는 18.3%, 40대는 11.2%로 30대 이후의 성인들의 접근성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따라서 성인들의 스마트폰 예방교육 및 상담의 접근

성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둘째, 기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연구는 청소년과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성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30~40대의 기혼 남성만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연계한 연구는 전무하였기에 본 연구가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첫 연구라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라 할 것이다. 셋째, 결혼불만족 지수가 높은 30~40대 기혼 남성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낮출 수 있도록 변인간 탐색과 분석,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결혼불만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결과는 기혼남성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활동 및 치료적 상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밖에도 부부상담, 우울상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진행되었다. 질문지의 결과는 참여자의 주관에 의존되었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자료에 기초한 결혼불만족, 우울, 스마트폰 중독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특히 우울의 경우에는 남성만이 가진 우울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더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마트폰이 가진 매체의 특성상 스마트폰 중독 내에서도 인터넷 검색,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이 이용되어진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여 연구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내에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중독의 가능성 탐색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내의 다양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횡단적으로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또는 실험적인 설계를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기숙·이면재·김영은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경험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3(4), 501-51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질병통계자료**.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경미 (2009).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우울증 및 대인관계(성격장애) 척도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권정혜·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한국심리학회**, 18(1), 123-139.
- 김남희 (2016).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 중독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김동현·이경은·이유진·차서현·임성환·원창연·권혁민·한미아 (2013). 일부 대학생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7(1), 105-112.
- 김민경 (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아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시설행정학회**, 12(2), 117-126 .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9(3), 49-81.
- 김선영 (2012). **은퇴 남성의 은퇴스트레스, 성격강점, 결혼불만족이 은퇴 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연주 (2013). **외상과 알코올 중독 : 경험 회피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양희·김진희·박정윤 (2001). 중년기 남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과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57-172.
- 김성령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수영 (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은영·김정기·최승애·남태현 (2016).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97-118.
- 김현숙 (2019).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 우울**

- 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김효정 (2007).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김희숙·유광자·박경란 (2014).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2), 347-358.
- 노석준 (2013). 고등학생의 환경 및 개인심리요인, 스마트폰 이용동기,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659-691.
- 문은영·서영주 (2011). 서울시 30, 40대 자녀양육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4.
- 백승순 (2016). **중년기 남성의 우울 구조모형 : 스트레스 대처 모델 적용**.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2019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서은진 (2020). **정서강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교통감내력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 서지혜 (2012). **고등학생의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 동기 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서현자·주은선 (2015). 결혼불만족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8, 31-64.
- 성요안나, 현명호 (2016).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대한스트레스학회**, 24(4), 257-263.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원수경 (2016). **일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 관계에서 공동대처의 매개효과 : 지지위임 공동대처와 부정 공동대처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주영·문지숙·김민지·김예지·김현아·허보름·정선아·정지은·정현지·이은하·최정혜·홍서영·배정아·박현주·홍희정 (20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3(2), 92-104.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2), 97-119.
- 이동준 (2007). **경주스포츠 참가자의 도박동기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중독성향 및 사회적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소희(2019). **직장 내 대인관계와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남성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이은정 (2001). **분리 경험, 애착, 결혼만족도가 기혼 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정은 (2005). **주부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부부의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지현·김수영 (2016). **문화체육**. 한국심리

- 학회지 : 일반**, 35(2), 327-353.
- 임양화·오경자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8(1), 69-76..
- 장문선 (2004). **결혼만족 및 우울에 대한 인지-대인관계 접근과 그 치료적 개입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장휘숙 (2006). 주관적 연령이 노인의 자기 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죽음공포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3(4), 1-15.
- 정경아 (2016).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병완 (2014). **30~40대 기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부공감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정희진 (2014). **우울과 불안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조맹제·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은경·정혜정 (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 질병관리본부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20년간(1998-2018) 변화**. 서울: 질병관리본부
- 차경환·하정희 (2019). 이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침투적 반추 및 탈중심화와 이별 후 성장간의 관계: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7(2), 197-217
- 최민희 (2014). **부모의 우울여부에 따른 12~15개월 부모-영아 간 상호작용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최승미 (2015). **결혼만족도, 스마트폰 중독 및 외도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 : 매개된 조절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1) : 55-75
- 최재천 (2014). **의존성, 회피성 성격특성이 청소년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을 매개로**.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 최현석·이현경·하정철 (2012).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5), 1005-1015.
- 최진 (2016).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통계청 (2019).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9). **혼인, 이혼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주리·허경호 (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6), 138-165.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황경호·권상희 (2011). 스마트폰의 진화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4(2), 3-33.
- 황경혜·유양숙·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2(10), 365-375.
- Andresen E. M., Malmgren J. A., Carter, W. B., & Patrick, D. L. (1994). Screening for depression in well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2), 77-8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63p
- Neff, L. A., & Karney, B. R. (2009). Stress and reactivity todaily relationship experiences: How stresshinder sadaptive processesin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3), 435.
- Pew Research Center(2018). <https://www.pewresearch.org/>.
- Redloff, L, S.(199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39(11),89-106.
- Whisman, M. A., Uebelacker, L. A., Tolejko, N., Chatav, Y., & Mckelvie, M. (2006). Marital discord and well-being in older adults: Is the association confounded by personality?. *Psychology and Aging*, 21, 626-631.

<Abstract>

The Influence of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Marital dissatisfaction on
Smartphone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

Eum, Ki-young

Kim, Hee-sue

Hansei University

In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dissatisfa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experienced by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For the research, 404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collected data on marriage complaints,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tatistical techniques for data analysis were used in the SPSS 21.0 program, and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nd the effectiveness of paramet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marital dissatisfaction of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the higher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increases the verified so that it also increases the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Depression has been shown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The results mean that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have a direct impact on smartphone addiction and can indirectly affect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 makes a suggestion for limitations and points for further research

Keyword : *married men, Marital dissatisfaction, depression, smart phone addiction*

대학생 발표불안 조절을 위한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김 은 숙*

김 희 수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비대면으로 대학생들에게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 발표불안이 높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효과성을 알아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례연구 참여에 동의한 28명의 학생을 집단상담 실험집단, 통제 집단에 14명씩 배정하고 실험집단에 총 4회기의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하고, 사후검사의 점수에 있어 집단상담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대면으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발표불안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언택트(untact)시대에 발표불안 및 불안 조절과 관리를 위한 상담 현장에서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의 제안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비대면 집단상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학생 발표불안

* 교신저자 : 김은숙,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kimestiger@daum.net

I. 서 론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감염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인 ‘언택트(untact)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언택트는 원격학습과 원격근무, 원격의료, 유통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배영임·신혜리, 2020).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상담 분야에서도 사이버 상담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전면적인 비대면 상담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당면하면서 상담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에도 그 변화는 이어지고 있는데,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 모든 강의와 비교과 프로그램들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형태 상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영미(2001)는 사이버상담과 면접상담, 전화상담을 이용 실태를 제시하면서 상담에 있어서 사이버상담이 보조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형태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상담시스템 설계와 구현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조현민, 2002; 이인섭, 2006; 김정순, 2009; 임지현, 2012; 고화곤, 2018). 이재훈(2018)은 비대면 상담

서비스 품질 6차원 즉,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접근성, 상호작용을 도출한 바 있다. 황매향과 황희산(2020)은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상담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방안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체계적 빅데이터 구축, 대화와 다른 형태의 변화 기제에 대한 탐구,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의 통합적 접근 지향, 상담학 지식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시장 확장을 강조하였다.

비대면 집단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대면 집단상담의 효과를 규명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고대곤, 남윤희(2007)는 화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집단상담은 내적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집단상담의 사이버 영역을 한 단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이재영과 정영윤(2001)은 공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사이버 집단상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현아와 안창일(2003)은 사회공포증에 대한 사이버 집단상담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비대면 집단상담이 우울과 시험불안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임효숙, 2001, 한은수, 2005). 비대면 수업 개발 및 운영을 실제적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방역’을 위해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 졌다.

대학생은 수업, 동아리 활동 등의 대학 생활에서는 물론 아르바이트, 공모전 준비 등 대외활동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응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직장에서도 의사소통능

력이나 리더십은 중요한 직업적 역량으로 등장하면서 대학교 수업방식이 기존의 강의 중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발표와 토론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변화 및 중점을 두어 활용되고 있다(신희선, 2006). 따라서 발표능력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Amett(2000)는 18세부터 25세의 시기를 ‘출현하는 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제안하면서 안정된 성인 역할과 책임을 맡기 이전의 성인기 진입을 위한 과도기로,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사이에 있는 새로운 발달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장휘숙, 2008).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 자아정체감 확립, 진로와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의 과업 달성을 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노출된다(기현정, 2011).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생들은 질병 감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제한적 삶에 대한 답답함, 상황에 대한 체념과 포기, 현상황에 대해 심리적 정서변화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노성동, 2020).

더구나, 대학생들의 비대면으로 인한 단절된 대인관계는 사회적 상황의 회피나, 관계의 어려움을 갖는다. 심각한 경우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라는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며, 이들의 사회생활에서 발표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공포증 평생 유병률은 2011년 0.5%에 비해 1.6%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로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나타나고 있다(홍진표, 2016). 교육현장에서도 그 변화는 이어지고 있는데, 비대면 강의와 수업이 온

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비대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변화의 흐름속에서 사회불안장애의 하위요소인 발표불안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는 비대면 집단상담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절실하겠다. 이렇듯 집단상담에서도 비대면으로 서로의 의견과 관계를 맺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발표불안이 감소된다면, 성인의 사회불안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발표장면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형주, 2019). 발표 수행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적절한 긴장, 초조, 불안 등은 발표 수행에 있어 적절한 동기와 성취 욕구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발표불안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껴 회피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타인의 평가 대상으로 예상되고 발표를 잘해야 한다는 과도한 의식 때문에 불안해 하는 상태라 하였다(신나민, 박종향, 2009;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특히 발표불안은 발표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으로 앞으로의 의사소통 할 것을 예상하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이다(McCroskey, 1975). 허재홍과 조용래(2005)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불안과 긴장은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어 대학생들에게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발표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연구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지행동적인 여러 방법을 종합한 방법과 같은 다면

적인 연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지적 인방법과 행동적인 방법을 병용한 다면적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밝힌 연구들(김규탁, 1992; 임만택, 1994; 형임순, 1997; 김옥순, 2000 이교신, 2005; 이기옥, 2008)이 있다.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델들이 제시되었는데 과거 Clark와 Wells의 인지모델(1995)에 발표불안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왜곡을 다루고 있다. Clark와 Wells(1995)은 사회불안장애의 발생과정을 사회불안장애 인지모델에 따르면, 발표불안이 있는 사람은 발표상황이라는 사회적 장면에 놓일 때 부정적 내용의 자기진술, 내적대화나 독백의 형태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보인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내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다(조용래, 1998).

이러한 자동적 사고와 자동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적 신념, 특히 부정적 자기개념 등은 발표상황에서 자신의 수행을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부적절감에 더 집중하게 되는 역기능적 인지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자신의 수행을 비합리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타인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관찰자들은 이들이 스스로를 지각하고 있는 것보다 덜 불안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어 발표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왜곡된 인지처리를 통해 발표상황을 실제보다 위협적이고 두려운 상황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은정, 1999). 이런 역기능적 인지들은 상황을 보다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불안을 유지시키고 가속화

시키며 발표상황에 대한 회피행동을 강화하고 예기불안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이정윤, 최정훈, 1996).

따라서 발표불안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는 왜곡된 인지에 대한 개입과 안전행동 및 회피행동에 대한 개입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발표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되어온 다양한 치료(예: 이완훈련, 명상훈련, 자기주장훈련, 노출치료,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중에서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이들 요소를 갖춘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져 왔다(이정윤, 1996; 김은정, 1999; 박기환, 안창일, 2001; 조용래, 2001; Feske & Chambless, 1995). 인지행동집단치료를 주로 역기능적 인지의 내용이나 빈도, 강도 등을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인지적 전략과 두려운 상황에서의 노출을 촉진하는 행동적 전략들로 구성된다(이정윤, 1996; 조용래, 1998; 김은정, 1999; 박기환, 안창일, 2001; 조용래, 2001). 조용래(2001)의 연구에서는 발표불안이 심한 대학생들에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인지재구성 훈련, 노출훈련으로 구성된 인지행동집단치료를 실시한 결과, 인지행동집단치료가 발표불안의 감소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Heimberg 등(1990)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유발하는 인지를 찾아내어 범주화하고 논박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훈련, 치료회기 내 개인적으로 두려운 사회적 사건에의 노출, 모의노출 전후에 실시하는 인지재구성 훈련, 불안상황에서의 노출과제 등으로 구성된 집단인지치료를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행동적 접근의 발표불안 감소훈련은 발표불안의 정서적 측면을 해결하려는 훈련방법이다. 이것은 발표상황에서 발표자가 떨림과 긴장 등으로 인해 발표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근육 이완법과 체계적 둔감 절차인 불안 위계표를 이용한 훈련방법이다. 체계적 둔감법은 Guthrie(1935)의 학습이론 중 양립불가능설에 근거해 Wolpe(1973)가 발전시킨 것으로 상호억제 원리와 이완훈련에 기초하고 있다. Wolpe(1973)의 불안을 일으키는 상호억제 원리는 자극과 함께 불안에 대항 할 원인을 제공하므로 불안을 일으킨 요인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으로 불안의 습관화 된 원인이 점진적으로 신경을 자극해 완화된 신체적 상태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안으로 긴장된 신체를 자극하여 불안을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 발표불안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접근법을 이용하여 주제와 활용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10년의 집단상담 경험으로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훈련방법인 Jacobson(1938)의 점진적 이완 기술과 Wolpe(1958)의 체계적 둔감법 그리고 Beck(1976)의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CT)나 Ellis (1962)의 합리적 정

서치료(Rational Emotive Therapy: RET)로, 인지치료(CT)와 합리적 정서치료(RET)는 행동기법과 결합하면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와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 REBT)의 통합적 이론의 배경으로 반구조화 집단상담으로 발표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에게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 하였다. 대학생의 발표불안 조절을 비대면으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의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발표불안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집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교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14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발표불안 집단상담 프로그램 집단 14명, 통제집단 14명에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명)

구 분	성 별		학 년(빈도%)			전 체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실험집단	0	14	6(42.9)	4(28.6)	4(28.6)	14
통제집단	0	14	7(50.0)	3(21.4)	4(28.6)	14
전 체	0	28	13	7	8	28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검사를 비교하는 사전, 사후검사 연구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에만 발표불안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실험설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설계는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생 발표불안 집단상담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집단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실험집단	Q1	X	Q3
통제집단	Q2		Q4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참여자를 모집할 때, 학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발표불안과 함께 성장하기”로 자발적인 지원자를 실험집단으로 배치하였고, 학교에 참여중인 캠프(진로캠프 및 연애학 개론3)에서 통제집단을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은 사전면담을 진행하여 연구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실험집단을 4주동안 매주 1회 2시간씩 총 8시간의 발표불안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는 한국판 발표불안척도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1~2회기와 3~4회기 종료시 만족도를 2회 실시하여 질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통제집단은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실험집단과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발표불안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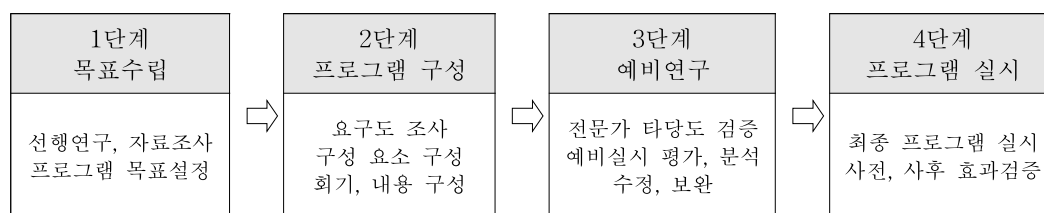
단 계	기 간	내 용
준비단계	2020. 9.10~10.20	주제선정 및 선행연구 고찰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계획 선정 및 수정·보완 프로그램 구성 및 수정·보완 전문가 자문 및 내용 타당도 검증
수행단계	2020.10.20~10.29 2020.10.30~11.20 2020.11.20~11.24	통제·실험집단 사전검사 실시 실험집단 프로그램 실시 통제·실험집단 사후검사 실시
분석단계	2020.12	자료 수집 및 결과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

4.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으로 대학생 발표불안 조절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개발되었다.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의 발표불안을 낮추는 것이다.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김창대 외(2011)가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근거하여 목표수립, 프로그램의 구성, 예비연구, 프로그램의 실시와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구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1단계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대학생의 발표불안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보완점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발표불안 감소를 목적으로 첫째, 집단 안에서 안전한 공감을 얻고 신뢰감을 형성하여 발표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둘째, 발표불안을 표현하고 해소 경험으로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한다 셋째, 자신의 수용과 긍정적 개념을 가지고 ‘완벽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불안을 수용하는 경험을 한다. 넷째, 발표불안과 함께 성장하는 적극적인 대학생활과 취업활동으로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목표’를 가진다.

2단계에서는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개인상담을 진행하는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참여 욕구와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재정리, 요구 확인

및 발표불안 알아차리기, 불안 경험하고 표현하기, 평가 불안 내려놓기, 발표불안 수용하기의 내용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안내와 라포형성, 불안 이해·수용, 발표상황 연·비합리적 사고 찾기, 발표불안과 함께 성장 다짐하기로 크게 구성 할 수 있었다.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회기수, 프로그램 내용, 진행 시간 구성 등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타당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틀,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에 대한 상담학과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중인 전문 상담 전문가 6인의 자문을 받았다.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으로 운영 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운영과,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방식 활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자문 내용을 바탕

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론적 타당성 확보와 프로그램 활동지와 질문내용을 구조화하였다.

4단계에서는 전체적 준비물-서약서(성장 목표), 감정색 활동지 3장을 통하여 사고변화과정 표현하기(분홍색활동지:불안한 감정 표현-‘상황’, 파랑색활동지:비합리적 신념찾기-‘수용’, 그린활동지:발표할 때 나의 모습(변화) 목표 연상하기-‘성장’), 불안 목록작성 활동지, 회기별 간식, 색연필세트, 네임

펜등을 개인별 주소를 확인하고 우편 발송하여 집상담 시작 일주일전 수령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구안 단계를 거쳤다.

5.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회기구성과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발표불안 프로그램 내용

회기	프로그램명	회기별 목표	활동내용	
1	만나서 반가워요	안내와 라포형성	도입 (30분)	프로그램 안내 자기소개하기-‘친구 초대하기’ 별칭 정하고 발표하기
			전개 (50분)	자신의 성장목표-불안목록 적기 목표-목록 발표하기 색시트지 1차 감정-‘상황’나누기
			마무리 (40분)	집단서약(비밀유지약속)하기 기대(Want), 소감 나누기
2	나의 불안은	불안을 이해·수용	도입 (30분)	한주 기대(Want)와 감정표현하기1 ‘사회불안장애’관련 DSM-5이해(PPT)
			전개 (50분)	자신을 드러내기(별칭-의미주기) 발표불안을 ‘상황’→‘수용’ 경험 나누기1 상황시트지 작성과 발표
			마무리 (40분)	서로 피드백 공감해주기 자신의 이해와 불안 수용하기1, 소감 나누기
3	불안해도 괜찮아!	발표상황 시연 비합리적 사고 찾기	도입 (30분)	한주 기대(Want)와 감정표현하기2 ‘발표불안’과 관련한 심리적 이해하기(PPT)
			전개 (50분)	모의 발표 불안상황을 시연 발표불안관련 자신 이해 발표불안을 ‘상황’→‘수용’ →‘성장’ 경험 나누기2
			마무리 (40분)	서로 피드백과 구체적 희망목표 재 정리 회기 소감 나누기

			도입 (30분)	앞으로 기대(Want)와 감정표현하기3 모의 발표 불안한 상황에 기대성장 상황을 시연
4	불안과 함 께 성장하기	발표불안과 함께 성장 다짐하기	전개 (50분)	‘상황’→‘수용’→‘성장’ 경험 나누기3 자신의 이해와 수용 변화 나누기
			마무리 (40분)	발표불안과 함께 성장(목표)발표 총제적 변화 및 활동 소감 나누기

구체적으로 회기별 내용을 보면, 1회기 도입에서는 집단원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집단원들에게 참여 동기와 기대를 개방함으로써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회기 전반에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해 ‘친구 초대하기’로 자연스러운 참여 규칙을 만들었다. 또한 자신의 표면적 1차 발표불안 목표를 정하고 불안 목록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라포를 형성하며 서로 피드백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2회기는 좀 더 직접적 감정표현을 하도록 질문하였다. 자신을 드러내는 낮은 긴장발표를 하며, 사회불안장애의 범주에 대해 이해를 하며 불안이 확장되는 이해를 도와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갖는 교육적 시간을 15분정도 PPT를 활용하여 활동하였다. 전개에 개인의 낮은 불안을 드러내고 공감과 안전한 공간임을 인식하는 계기로 감정색 활동지 활동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상황’→‘수용’ 1단계 활동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수용하는 경험을 나누며 이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별칭에서 자신의 숨겨진(의도, 지향) 심리적 암시를 함께 하는 시간에서 구체적이 자기이해를 도왔다.

3회기는 표현하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도

입을 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감정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회기를 이끌며, 불안의 심리적 기저를 이해하고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니야!, 불안해도 괜찮아”라는 직접적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도록 이론과 시연이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완적 강의를 10분정도 하였으며, 전개에서 발표상황을 떠올리며 왜 불안하였는지, 신체적 불안의 징후를 자각하게 하며, 이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피드백으로 ‘보편화’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자신의 불안을 깊이 수용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불안을 자각(상황)하고 ‘수용’하여, 좀 더 깊이 다음 발표불안에서 변화되는 ‘성장’ 경험을 연상하도록 하며 이를 활동지에 회기마다 변화되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씩 누적되어 적도록 하였다. 이를 발표하고 불안한 감정을 유지하여 시연하여 자신의 발표불안에 상황에서 머물러 불안의 좁은 시야에서 넓게 상황을 인지하도록 수용과 성장경험을 강조하여 발표와 질문으로 깊이를 주었다.

4회기는 전체적 자신의 초기 활동지와 그동안 활동하고 감정의 변화를 하나씩 적어나간 것들을 모두 한사람씩 발표하게 하고 자신의 변화와 이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발표불안에서 감정의 ‘상황’→‘수용’→‘성장’ 경험 나누기 3에 자연

스럽게 인지가 되도록 개인의 반복된 경험
이 소중하고 각각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
을 인식하게 하였다. 반복된 집단의 발표
에서 자신의 이해와 수용을 더욱 깊게 하여
변화와 ‘발표불안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완벽한 발표보다는 불안해도 이를
견디어 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전체적인
발표불안의 상황에 자신의 인지와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천천히 집어가도록 ‘상황’
→ ‘수용’ → ‘성장’ 경험 나누기로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이 끝나도 자신이 적
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발표해보는 경험
을 갖게 했다.

회기마다 공통된 것은 자신의 발표불안의
단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점진적 상황
과 반복되는 사고에서 자신의 이해를 도
와 심리적 불안의 기저를 찾도록 하였다.
또한 반구조화된 집단상담으로 개인의 개별
적 피드백을 주고 상황에 몰입하도록 질문
과 피드백을 구성원으로 받도록 하였다. 또
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집단에 돌아
가면서 공감과 지지를 주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기 마지막에는 건의 및 프리토킹
시간으로 자신의 의사를 어필하는 시간과
집단구성원에게 표현하는 기회를 주자 용기
를 내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라고 표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체 프로그램 참여
소감과 평가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다.

6. 측정도구

한국판 발표불안척도 (ASA)

Gilkinson(1942)이 발표불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04개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를
Paul(1996)이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여 단축

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
래 등(1999)이 발표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
행동, 생리적 불안반응인 발표불안을 측정
하기 위해 Paul(1996)의 단축형 척도를 우
리나라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발표불안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발표불안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불안 척도는 ‘발표상황 즐거움’ 14문항
과 ‘발표상황 긴장’ 14문항 총 28문항으로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발표상황
즐거움’의 문항들은 역채점 되어 발표불안 점
수에 합산된다. 조용래 등(199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94였고, 각 하위 척
도에서 ‘발표상황 즐거움’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86 ‘발표상황에 대한 긴장’은 .88이
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내적합치도 계
수는 .93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발표상
황 즐거움’은 .91, ‘발표상황 긴장’은 .90로 나
타났다.

7.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쳤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문항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사전과 사후 검
사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하기 전에 실험집
단, 통제집단이 비슷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사전점
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전검
사를 통제하고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한편 통계검증으로 인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1~2회기와 3~4회기 종료시 만족도 조사 및 매회기마다 참여도,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아쉬웠던 점에 관해 10점 척도 질문을 하였고, 발표 및 피드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결 과

1.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동질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test(독립표본)을 돌렸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분산 동질성을 보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등분산을 이룬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발표불안이 $P=.07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보기 위한 t-검정의 결과로 발표불안이 $t=-1.86$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동질성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발표 불안	등분산이 가정 됨	.003	.959	-1.86	26	.075	-12.21	6.58	-25.73	1.3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86	25.75	.075	-12.21	6.58	-25.74	1.31

*. 이것은 참인 유의확률의 하한값입니다.
a. Lilliefors 유의확률 수정

2. 실험-통제 사전사후발표불안에 따른 기술통계

통제집단 14명, 실험집단14명, 총 28명의 사전사후 발표불안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발표불안에 따른 기술통계는 통제 집단

에서의 사전평균91.28, 사후평균 89.14로 변화되었고, 실험집단은 사전평균 103.50, 사후평균 86.86으로 발표불안이 감소되었다. 표준편차 통제집단이 사전표준편차 4.88, 사후표준편차 20.30이고 실험집단이 사전표준편차16.51, 사후표준편차 18.5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사전사후발표불안에 따른 기술통계

집 단	N	사전평균	사전표준편차	사후평균	사후표준편차
통제집단	14	91.28	4.88	89.14	20.30
실험집단	14	103.50	16.51	86.86	18.51

3.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공분산 분석 결과

발표불안 사전사후 공분산 분석에서는 집단간 유의확률 .000, F값 20.2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발표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발표불안 사전사후공분산분석

소 스	SS	df	MS	F	P
수정 모형	8199.708 ^a	2	4099.854	62.033***	.000
절편	100.665	1	100.665	1.523	.229
사전발표불안	8163.137	1	8163.137	123.512***	.000
집단	1339.750	1	1339.750	20.271***	.000
오차	1652.292	25	66.092		
합계	226684.000	28			
수정 합계	9852.000	27			

*** $p < .001$

4. 집단상담 프로그램 집단원의 참여 만족도 및 소감 분석

프로그램 효과검증에 대한 양적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으로 1~2회기, 3~4회기 단답형 및 서술형 만족도를 실시하였다. 단답형 만족도를 분석하여 빈도로 나타내었다. 이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1~2회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

로그램을 통해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에서 ‘그렇지 않다’가 6.7%, ‘그렇다’가 46.7%, ‘매우 그렇다’가 46.7%가 나왔다. 또한 ‘나의 발표불안 수용하기(비합리적 신념 보기)’가 도움이 되었다’에서 ‘보통이다’가 6.7%, ‘그렇다’가 53.3%, ‘매우 그렇다’가 40.0%가 나왔다. 그리고 3~4회기에서는 ‘발표불안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에서 ‘보통이다’가 7.7%, ‘그렇다’가

30.8%, ‘매우 그렇다’가 61.5%가 나왔고,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불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에서 ‘그렇다’가 15.4%, ‘매우 그렇다’가 84.6%가 나왔다.

또한 서술형 만족도 조사 및 척도질문, 발표 및 피드백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발표불안 비대면 인지 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발표 불안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면이 떨리면 떨어도 된다는 것을 수용하게 되어 발표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발표할 때 떨리면 떨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중요한 자리가 아닐 때) 억지로 내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나의 발표불안 수용하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발표불안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가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발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불안을 느끼는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제는 떨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 불안한 상황에서 생각을 좀 더 하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발표불안의 ‘보편화’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불안을 이해하게 되어, 발표불안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자기이해를 도와 스스로 생각하고 살펴보는 기회를 가

지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증상들을 알게 되고, 심리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를 정의할 별명을 지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만 불안한 상황은 거의 없다는 것. 내가 불안한 상황을 이야기 할 때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통 다들 이런 경우에 불안해 하니까 나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다른 증상들을 알게 되었다.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발표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면의 발표불안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발표불안 수용하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발표불안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셋째,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고 발표불안은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발표불안과 함께 성장하기”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에게 변화를 인식하며 이를 드러내는 표현력이 성장되어 보였다.

“발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면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었다. 불안을 수용할 줄 알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익숙해짐을 느껴요. 회기가 진행될수록 조금 나를 표현하는 안정감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발표불안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안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할 수 있는지 알 것 같다.”

“나의 불안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나니 해결방법 찾는 게 어렵지 않았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넷째, 집단에서 공감 받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는 발표불안이 자신이 지나치게 완벽하려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불안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표불안의 특수성이 비대면 집단상담에서 더 편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줌으로 실시하니 사람이 많지 않게 집중되는 효과를 보였다.

“오히려 줌으로 집단을 실시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집이어서 긴장도 덜하게 되어던 게 같아요. 더 안전하게 여겨졌어요.”

“마음에 안정이 생겼다.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어떨지 궁금했는데, 이야기하기 편하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았다.”

“다른 친구들의 불안을 듣고 나의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발표불안을 극복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 것 같다.”

“불안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매우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편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여 항상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섯째, 스스로 자신의 불안의 척도 점수를 매기며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은 정서 수정 경험을 통해 자신과의 불안 극복 다짐의

기회를 가져 성장목표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갖져 성장목표를 갖는 모습이 보였다. 10점 척도로 불안극복 점수를 매기며 스스로 극복상황을 가질 수 있었다.

“6점,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기”

“5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거에는 답이 없으니 실수 하더라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즐기면서 전달하기!”

“8점, 불안을 오히려 수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만의 상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8점,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점, 경험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반복된다면 극복!”

“10점,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기 보다 직면하고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수용하는 것이 불안에 대처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명심하자.”

여섯째,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과 제안이 있어,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키우려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불안을 가지고 움츠리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할 준비를 하는 성장 모습으로 보여진다.

“오래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1시간~1시간 반정도로 8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그런 것 같는데 아쉬워요.”

“서로 초대해서 말하는 방식도 좋지만 다 같이 브레이크아웃 명처럼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발표불안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에서 대학생 발표불안 감소가 유의미한 결과로 발표불안 감소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발표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발표불안 감소에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Piskurich(2004)는 면대면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 환경 등에서 고유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로 인해 면대면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던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는 적합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지사고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들의 비대면 상황에서 비합리적 사고를 논리적 사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법으로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좀 더 빠르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적어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이 발표불안의 대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면 집단상담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으며, 새로운 상담 접근으로 재미 요소로 인식되었다.

특히 개별 카톡 및 메모를 활용하여 소통과 의사전달을 프로그램 진행중 즉시 확인하였고, 발표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비대면 집단상담이 거리감이 느껴져 안정적이었고, 그 후 차츰 편안히 여겨져 집단상담으로 적은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중되고 좀더 친숙한 소통방식이라는 효과성을 사후 질문면담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이동의 번거로움이 없어 편의성이 있었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준비물과 간식을 선물 받았을 때의 감정표현이 뜨거웠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설렘과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톡으로 표현하는 등 프로그램의 참여에 기여를 했다. 도재우(2020)의 연구에서도 참여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의 대면 프로그램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발표불안의 집단상담에서 비대면하는 상황에서 회기별 준비물과 활동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으며, 또한 참여도와 소통방식을 돕기 위해 세심한 구체적 프로그램 준비와 안내가 비대면 집단상담의 한계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비대면 상담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비대면 상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족도가 서비스와 만족도에 선행된다는 황인호(2005)의 연구가 뒷받침 된다. 즉 비대면 집단상담의 사전준비의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 또한 실험집단 집단상담 참여자들은 비대면으로 집단상담을 해서 불평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적응하며, 높은 만족도

와 회기별 질문지에 드러난 것을 보면, 자신의 표현에 용기를 보이는 활동면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는 선행연구들(박종철, 권성호, 2011; 손순복, 2010; 강옥미, 2001)과 유의미하다.

둘째,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발표불안 감소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발표불안이 감소되었다. 이는 조용래 등(1999)의 연구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발표불안이 감소되었다는 연구와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발표불안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존의 인지행동집단치료와 비교해볼 때, 발표불안의 증상을 이해하고 발표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를 찾아 내는 과정에서 발표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불안의 증상을 이해하고, 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며, 그 사고를 실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인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그 사고에 휩쓸리지 않게 된 것이 치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안 감정이 기존의 자동적 사고와 융합되어 있었기에 발표불안이 발생할 때의 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표현하게 함으로써 불안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기르도록 한 것도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전념치료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이는 수용전념

치료가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 불안민감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이선영, 2009), 불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문현미, 2005)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으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발표불안 프로그램 효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하였을 때,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학생에게 발표불안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학생의 발표불안 관리와 조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 중에서 대학생의 발표불안 관리와 조절에 대한 효과에 집중하여 연구한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언택트(untact) 시대 상황에 따라 대학생의 발표불안관리와 정서조절을 지원할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 상담센터에서 활용할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사되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이다.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집단 내 개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별 차이를 둔 비교실험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14명, 통제집단 14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하였다.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할 때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수업일정, 아르바이트, 학생의 변심 등 기타 이유 등으로 탈락자가 있었고, 실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확실한 14명을 우선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진행함에 따라 동질성 확보에 엄격성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모집에 있어 무선 할당하여 실험집단을 모집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4주 동안 1주일에 1회씩 4회기 동안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 사후검사로 진행하였는데, 발표불안 관리와 조절이 단기간에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인지행동 집단상담으로 활용한 다양한 매체활용에 대한 분석을 정교화하여 프로그램 효과검증에서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장기간 프로그램 운영과 사전, 사후 검사진행과 더불어 추수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강옥미 (2001). 웹기반 언어학 협동학습

에 있어서 원격학습과 면대면 학습의 효율성 비교. 한국어학, 14, 71-92.

고대곤, 남윤희 (2007). 화상교육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집단상담의 효과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4), 213-223.

고화곤 (2018). 집단 및 개인상담을 위한 스마트폰 상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기현정 (2011).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마음챙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규탁 (1992). 행동적 인지적 주장훈련이 국민학생의 주장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 집단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옥순 (2000). 다면적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발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김정순 (2008).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한 상담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노성동 (2020).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영향과 극복요인. 신학과 실천, 0(72), 331-356.

도재우 (2020).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 구, 26(2), 153-173.
- 문현미 (2005).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기환, 안창일 (2001). 사회공포증 집단의 인지행동집단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1-18.
- 박남규 (2020).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 박종철, 권성호 (2011). 면대면 학습과 사이버 가정학습의 학습 효과 비교. **학습과학연구**, 5(1), 19-52.
- 박형주 (201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임, 신혜리 (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앤진단**, 416, 1-26.
- 신나민, 박종향 (2009). 대학생의 수업 중 발표불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심리학회**, 23, 715-734.
- 신희선 (2006).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여대생 스피치 교육의 사례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6, 70-102.
- 이교신 (2005). 인지적 및 행동적 발표 훈련이 중학생의 영어발표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기옥 (2008). 소집단 발표불안프로그램이 발표불안감소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이선영 (2009). 수용-전념 치료에서 과정변인이 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섭 (2006).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상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이정운 (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정운, 최정훈 (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583-598.
- 이재훈 (2018). 사이버대학의 상담 서비스 품질 수준이 학습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학생상담센터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재영, 정영운 (2001). 사이버 집단상담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Vol.13 No. 2**.
- 임만택 (1994). 국민학생의 발표불안감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임지현 (2012). 진로지도를 위한 모바일 웹 기반 상담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효숙 (2001). 사이버 인지행동 집단상담이 시험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

- 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손순복 (2010). 영아교사직무교육의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정의 성취도와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아교육복지연구**, 14(4), 33-62.
- 장휘숙 (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1(4), 109-126.
- 장현아, 안창일 (2003). 사회공포증의 사이버 집단상담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1), 93-108.
- 조용래 (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용래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집단인지치료 효과." **월례집담회-3** 20-37.
-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2), 165-178.
- 조용래 (2000).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831-851.
- 조용래 (2001).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행동집단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99-411.
- 조용래 (2006). 비디오 피드백이 사회불안장애 집단의 사회적 자기상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인지행동치료**, 6, 23-39.
- 조현민 (2002). XML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XML을 이용한 QUEUE의 구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영미 (2001). 사이버상담 이용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한은수 (2005). 사이버 집단상담이 인터넷 중독 아동의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황매향, 황희산 (2020). 테크놀로지 기반 상담실제의 도전과 과제. **상담학연구**, 21(4), 219-245.
- 황인호 (2005). 교육서비스 품질의 측정과 학생만족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형임순 (1997). 발표불안 극복을 위한 인지적 행동주의 집단상담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허재홍, 조용래 (2005). 자기 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홍진표 (2016).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삼성서울병원, <http://www.mohw.go.kr/> 에서 2018년 9월.
- Am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pp. 69-93). New York: Guilford.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 Feske, U., & Chambless, D. L. (1995). Cognitive behavioral versus exposure only treatment for social phobia: A meta-analysis. *Behavior Therapy, 26*, 695-72.
- Gilkinson, H. (1942). Social fears as reported by students in college speech classes. *Communications Monographs, 9*(1), 141-160.
- Guthrie, E. R. (1935). *The Psychology of Learning*. New York: Harper.
- Heimberg, R. G., Dodge, C. S., Hope, D. A., Kennedy, C. R., & Zollo, L. J. (1990). Cognitive behavioral group treatment for social phobia: Comparison with a credible placebo contro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1-23.
- Jacobson, E. (1938). *Progressive relax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rosky, J. C., Richmond, V. P. Daly, J. A., & Cox, B. G. (1975).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interpersonal attr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51-65.
- Paul, G. L. (1996). *Insight versu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iskurich, G. (2004). Preparing instructors for synchronous E-learning facilitation. *Performance Improvement, 43*(1), 23 - 29.
- Wolpe, J. (1958).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olpe, J. (1973).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 (2nd ed.)*. Oxford: Pergamon Press.

<Abstract>

Developing a Group Counseling Program on Untact Cognitive Behavior for Controlling Speech Anxiety of College Students and Verifying its Effectiveness

Kim, Eun-sook

Kim, Hee-sue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n untac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ognitive behavior with college students in the society of social distancing with the spread of COVID-19 for college students with high speech anxiety. For this purpose, of 28 students at universities in Gyeonggi-do,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a case study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14 were assigned respectively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for group counseling. With the experimental group, for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ognitive behavior in four sessions, ANCOVA was conducted. The scores of the pre-test were controll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scores of the post-tes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for group counseling. As a result, the level of speech anxiety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group that had the untac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ognitive behavior than in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study would make suggestions for practical plans for the untact group counseling program in the untact era in the future and follow-up studies in the field of counseling for speech anxiety and anxiety control and management.

Key Words : *Untact group counseling, Cognitive behavior, Group counseling program, Speech anxiety of college students*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 하 늘 김 희 수†
한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14명을 집단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 7명과 통제집단 7명으로 배치하였고, 연구도구는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2003)이 수정/개발한 자아정체감 척도와 조규형(2017)이 제작한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수준 검사 도구를 본 논문과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 있어 집단의 동질성은 비모수 검증인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Wilcoxon Signed-Rank Test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첫째,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 의사결정 수준 검사에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므로 향상에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바이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아정체감, 진로 의사결정 수준

* 본 연구는 김하늘(2019)의 한세대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희수, 한세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E-mail : kimhs@hansei.ac.kr

I. 서 론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서 직업인의 신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이 요구된다(정철영, 2002).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해 Ginzberg(1951)는 그의 이론에서 청소년 후기의 진로발달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하였는데, 진로발달은 환상기와 잠정기, 그리고 현실기라는 세 가지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발달단계상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연령으로, 사회적 책임 또는 의무에서 면제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결제를 사회 측으로부터 유예 받는 시기의 사람들임과 동시에 대학생은 미래 사회에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인생관과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직업의 선택 및 사고 체계의 정립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일관성과 사회적 요구를 잘 통합함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발달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연령층이다(Marcia, 1993). 이와 같은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 및 준비는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발휘의 기회, 거주지,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의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Tolbert, 1980).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아탐색과 직업탐색을 거쳐 이루어야 할 과업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다(Wanberg & Muchinsky, 1992).

이처럼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적인 진로결정은 자아정체감의 광범위한 발달이 일어나는 청소년 후기의 발달과업에 해당하는 자아정체감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여러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왔다(Marcia et al, 1993). 자아정체감의 개념은 유아기 이후에 형성되어 진행되어 온 다양한 동일시와 자아상이 청년기에 취사선택되어 재구성됨을 통해 성립하는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진 자아의 확립상태를 말하며, 주관적 측면의 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함으로서 자신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다른 사람이 인식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 측면의 정체감은 심리사회적 정체감으로 자신이 관계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지각된 정체감을 의미한다(Erikson, 1963).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줄곧 발달해가는 것(Jacobson, 1964)이며, 일생동안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격을 이해함을 통해 집단 속에서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촉진시키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채수호, 2002; 김연희, 문승태 2003; 박진희, 이상희, 2013; 김영숙, 조한익, 2016)을 본 논문은 기초로 활용하였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내린 한 번의 결정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직업세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성취가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사실이다(김영화, 김계현, 2011). 이와 같은 진로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진로발달과 함께 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은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시점에 있어 진행되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 상황이나 장면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선택과 결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은 계획의 진행수준과 장래에 있어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며, 대학생활 가운데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함에 있어 목표지향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개인적 특성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한 개인이 생애 과정 속에서 발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 수준의 모습을 포함하는 것을 진로의사결정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봉환, 김계현, 1987; 이현림,

천미숙, 2004; 장광원, 2012).

진로집단상담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란 진로 성숙을 위해 집단구성원들에게 상담 형식을 적용하여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진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실행되는 집단상담은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한 진로라는 주제에서의 자신에 대한 통찰과 학습, 그리고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집단 구성원간의 역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담자 각 개인의 문제해결 및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진로집단 상담과 자아정체감,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많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진로 집단상담 속에서 향상된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 가운데 진로에 대한 계획과 확신 과정의 의무 수행 수준이 향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양은정, 2002). 따라서 진로집단상담은 이와 같은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대학생들의 공통적 필요인 각종 직업에 대한 정보를 능률적으로 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진로집단 상담을 통한 자아성찰과 이해, 수용을 통한 자기개방의 결과로 자아정체감이 향상될 수 있는 활동이자 진로의사결정 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의 향상을 통한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향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활동으로서 대학생들에게 개인의 직업계획에 대한 검토의 기회를 주고, 직업세계의 중요성과 함께 전반적 오리엔테이션의 기회가 주어진다(홍현선, 2010, 이현림, 2002).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대학생 진로 집단상담에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과 진로의사결정 수준 증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A시에 소재한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9세~25세 가운데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가운데 실험집단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7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실험은 원하지 않고 설문만 희망하는 학생들로 실험집단과 대상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서 7명으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의 참가 인원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집단	전공					합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신학			
실험	학년	1학년	-	-	1	-	1
		2학년	1	-	-	-	1
		3학년	-	2	1	-	3
		4학년				2	2
	합계	1	2	2	2	7	
통제	학년	1학년	-	-	1	-	1
		2학년	1	-	-	-	1
		3학년	1	1	1	-	3
		4학년	-	-	-	2	2
	합계	2	1	2	2	7	

2. 연구절차

1)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 향상, 진로 결정 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험설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진로집단상담 실험 설계

효과검증 연구 설계			
실험집단	O ₁	X	O ₃
통제집단	O ₂		O ₄

X : 실험처치 프로그램(대학생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

O1, O2 : 사전검사(자아정체감 검사,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

O3, O4 : 사후검사(자아정체감 검사,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

2)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프로그램 개발 과정

연구 내용	기 간	비 고
자료 수집 및 문헌조사	2019년 3월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2019년 3월~4월	
실험집단 선정	2019년 3월~4월	
사전 검사 실시	2019년 5월2일	실험집단, 통제집단
프로그램 실시	2019년 5월2일 ~ 5월30일	실험집단
사후 검사 실시	2019년 5월 30일	실험집단, 통제집단
결과 분석 및 정리	2019년 6월 4일	실험집단, 통제집단

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활동목표와 내용은 김명화(2006)가 개발한 MBTI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김정미, 백사인(2011)이 개발한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지들을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에 응용하였다. 위의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대학생에게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상담전문가(상담학과 교수, 상담전문가 1급)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5회기 분량으로

구성하였고, 집단상담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1주일에 1회기씩 총 5주간 실시하였고, 1회기 소요시간은 대학

생의 사정과 상태를 고려하여 90분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별 구성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단서	프로그램 내용	비고
1	도입	진행자 소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해 진로에 대한 이해	사전 검사 실시
2	자기 이해	성격유형검사 : 자기성격 유형에 대한 지각 - MBTI 성격 지표에 대한 이해(성격적 자기이해) ① 외향과 내향의 이해 : 스트레스 대처법 ② 감각과 직관의 이해 : 지도 그리기 ③ 사고와 감정의 이해 : 상황극 ④ 인식과 판단의 이해 : 여행계획 세워보기	MBTI 자기 이해를 통한 직업적 자기 이해 로의 인식 확장
3		홀랜드 흥미 검사를 통한 자기 흥미 파악 - 자신의 직업스타일 알아보기. - 직업스타일 보고서 작성 : 홀랜드 적성탐색 검사를 통해 파악한 자신의 적성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 선호하거나 적성에 맞는다고 판단되어지는 직업적인 요소들을 탐색해보기(직업적 자기이해)	Holland 적성탐색 검사 진로, 직업의 탐색
4	진로 결정	“나의 경실치 나무 그리기” - 이상적 직업 가치관과 현실적 직업가치관의 차이 바로 알기 - 진로 결정과 관련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연습해보기	직업적 가치관 바로 알기.
5	마무리	“나의 미래일지” - 나의 미래의 직업적인 모습에 대한 상상을 통한 계획해보기 - 진로에 대해 가상으로 결정해보고 미래의 직업을 가진 나에게 다짐의 말을 건네어 보기.	진로, 직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 사후검사 실시 평가, 소감, 파티

1회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에 서명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공란에 적게하고 집단 과정 중에 이러한 목표를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도록 집

단원들 간에 독려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진로의 방향”, “졸업 후 취업”, “진로 탐색”이라고 적었다. 또한 집단원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집단원들에게 참여 동기와 기대를 개방함으로써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으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해와 진로에 대한 이해를 진행함으로 진로와 진로집단상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

2회기는 MBTI검사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성격 유형에 대한 지각과 함께 성격 유형에 대한 지각을 통해 직업적인 자기 이해로의 확장의 시간을 가졌다. MBTI 성격 지표에 대한 이해과정에서 외향과 내향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나열해보는 활동을 통해 외향과 내향의 에너지 방향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도 그리기 활동을 통해 감각과 직관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감각과 직관 유형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역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을 지도로 그리게 함으로써 각 성향의 인식기능에 대한 이해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판단기능인 사고와 감정의 이해를 위해 같은 상황을 던져주고 같은 성향끼리 팀을 이루어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성향이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였고, 인식과 판단의 이해를 위해 각 성향별로 여행계획을 세워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각자의 성향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 함께 반대 성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3회기에는 홀랜드 흥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흥미 파악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직업스타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홀랜드 적성탐색 검사를 통해 파악한 자신의 적성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 선호하거나 적성에 맞는다고 판단되어지는 직업적인 요소들을 탐색해봄으로서 직업적인 자기 이해의 과정을 가졌으며, 차후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직업적인 흥미와 일

하는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진로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스타일 보고서를 작성 후 집단원들에게 나누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4회기에는 “나의 경실치 나무 그리기” 작업을 하였는데, 경험과 현실과 가치에 대한 나무를 그려보면서 이상적 직업 가치관과 현실적 직업가치관의 차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 인해 진로 결정과 관련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기반으로 집단상담 현장에서 결정을 연습해보았고, 집단원들에게 자신이 그린 경실치 나무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진로 결정에 있어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 고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민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나의 고민이 답이 되기도 하는 경험을 서로 나누기도 하였다.

5회기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계획서인 “나의 미래일지”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미래의 직업적인 모습에 대한 상상을 통한 계획해보고 진로에 대해 가상으로 결정해봄으로서 미래의 직업을 가진 나에게 다짐의 말을 해보는 결심과 결정의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러한 결심에 집단원들은 좋은 점들을 서로 집중적으로 나누었고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면서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아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

해 박아청(1996)이 개발한 자아정체감 검사지를 수정 보완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지’(박아청, 2003)를 채택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지’(박아청, 2003)에서 실험 처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하위요인을 위주로 수정하여 총 25문항에서 하위요인 주제성, 수용성, 확신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수정결과 본 논문에 쓰인 자아정체감척도는 총 19문항이고, 설문 문항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박아청(2003)이 수정/개발한 자아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자아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0$ 이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주제성은 Cronbach's $\alpha = 0.821$, 수용성은 Cronbach's $\alpha = 0.799$, 확신성은 Cronbach's $\alpha = 0.809$ 로 나타났다.

2) 진로 의사결정 수준 검사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규형(2017)이 제작한 진로 의사결정 수준 검사지인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2017)를 채택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조규형, 2017)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을 수정한 기준은 본 논문의 주제와 연관 있는 하위요인을 위주로 수정하여 총 29문항에서 하위요인 진로인식, 진로정보 분석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수정결과 본 논문에 쓰인 진로 의사결정 수준 척도는 총 9

문항이다. 각 문항은 자기평정식의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조규형(2017)이 수정/개발한 진로 의사결정 수준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진로 의사결정 수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03$ 이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진로인식은 Cronbach's $\alpha = 0.913$, 진로정보 분석은 Cronbach's $\alpha = 0.817$ 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연구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단기준을 5%로 사용하며, 자아정체감, 진로 의사결정 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를 하였다.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작과 후에 각각 실시된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집단의 사전 능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지 비모수 검증인 Mann-Whitney U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Wilcoxon Signed-Rank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SPSS Window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처치 전 동질 집단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값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는 맨 휘트니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결과

척도	집단	N	M(SD)	평균순위	순위합	Z(p)
자아정체감	실험	7	2.67 (4.61)	8.43	59.00	-.833 (.405)
	통제	7	2.52 (6.57)	6.57	46.00	
진로의사 결정수준	실험	7	2.63 (3.09)	7.43	52.00	-.065 (.949)
	통제	7	2.60 (3.15)	7.57	53.00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이 두 변인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두 집단은 본 연구에서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인의 사전과 사후 변화에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대인관계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정체감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5>을 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자아정체감 전체 사전평균값이 $M = 2.67$ 에서 사후평균값이 $M = 3.11$ 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027으로 $p < .05$ 수준에서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6>에서 실험집단은 처치를 통하여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척도가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하지 않은 집단이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처치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되었다.

<표 6> 자아정체감에 대한 사후 비교

변인	집단	M(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자아정체감	실험(N=7)	3.11(6.46)	10.71	75.00	2.00	-2.88*
	통제(N=7)	2.36(5.73)	4.29	30.00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 사후 평균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향상하였음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진로 의사결정 수준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대인관계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표 7>을 보면 실험

집단의 경우 진로 의사결정 수준의 사전검사 평균점수가 M = 2.63에서 M = 3.73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018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8>에서 실험집단은 처치를 통하여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 의사결정 수준 척도가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하지 않은 집단이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처치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되었다.

<표 7>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비교

변인	집단 (N=7)	사전		사후		사전-사후
		M	SD	M	SD	Z
전체	실험	2.63	3.09	3.73	5.46	-2.37*
	통제	2.60	3.16	2.51	2.07	1.09

* $p < .05$

<표 8>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사후 비교

변인	집단	M(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진로 의사 결정 수준	실험(N=7)	3.73(5.46)	11.00	77.00	3.00	-3.14*
	통제(N=7)	2.51(2.07)	4.00	28.00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사후 평균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하고자 구안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내린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은 지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집단 상담이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구창모, 2005; 김현정, 2006; 이정우, 2014; 이형득, 1980)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인데, 진로집단 상담을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의 경험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기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정체감 향상의 자기이해를 높이기 위해 MBTI 성격유형 검사를 이용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켰다. 그

리고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같이 진행함을 통해 선행연구의 제언을 보완하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초기단계 자신의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선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자아정체감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을 측정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을 향상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강혜영, 2011; 김진희, 2012; 박인희, 2011; 박예영, 2014, 하혜숙, 1999)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과 동시에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향상을 진로집단 상담을 통해 실험집단의 경우 유의함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고향자, 1992; 김계현, 김인규, 민경화, 2000; 김지영, 이현림, 2002; 김태순, 2009, Maw & Jepsen, 1992)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향상에 있어 홀랜드 적성탐색 검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직업적 가치관 활동을 활용하여 직업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을 통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하였으며, 집단 상담을 통해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진로의사결정수준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낸 이유를 분석해보면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보고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매개로 자신이 알게 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이해를 결부시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결정해보는

활동이 직업 및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대학생들에게 지각된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수행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는지의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수행능력 향상 여부의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상 모집 과정에서 여학생만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성대학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자 대학생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대학생 이외에도 이보다 더 낮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수준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하며 진로상담 현장에서 실천 용이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경기도 A시의 A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5회기 프로그램으로 1달이라는 기간에 걸쳐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변화를 본다는 것 또한 부족하며 추후검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따라서 지역별로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검사 도구의 개

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계현 (2001).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 김계현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김연희 (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1-16.
- 박진희, 이상희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자아정체감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성숙의 차이**. **상담학연구, 14(2)**
- 이현림 (2000). **진로상담의 이해**. 경북 :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현림, 천미숙(2004). **고등학생의 의사결정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17(2)**
- 장광원 (2012). **진로의사결정 타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생활적응의 차이**.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3(2)**, pp. 59-79
- 장욱희 (2007). **대학생의 진로관련 효능**

- 감이 직업탐색행동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철영 (2002).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운영 체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진로교육*, 15(1), 1-28
- 조한익, 김영숙(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적 구조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30(4)
- 채수호(2002). *MBTI 집단활동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 수용도 및 타인 용도와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선(2010).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rikson, E. H.(1963),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 1-86.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Harper & Row.
- Jacobsen(1964), *Reaching out interpersonal effectiveness and self-actualization(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acia, J. E, Waterman, A. S., Matteson, D. R., Archer, S. L, & Orlofsky, J. L. (1993). *Ego Identity :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tch*. New York LSpringer-Verlag.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Abstract>

The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College Students

Kim Ha Neul

Kim Hee sue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areer counseling program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s implemented by setting it as a research question to see if it is effective for improving student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order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career counseling program, 14 university students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counseling program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led groups, respectively. Experimental and controlled groups were tested for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s before the program was implemented, but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career group consultation programs five times a week from May 2 to May 30, 2019. Post-examination of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was conducted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e program was 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est groups that have implemented career group consultation program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t a level $p < .05$ in self congestion tests compared to control groups, indicating that they are effective in improving self conges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Secondly, the number of experimental groups implementing career group consultation programs increased significantly at a significant level $p < .05$ compared to the controlled group, indicating that they are effective for improvement. Accordingly, career counseling programs are effective in improving student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andards.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s can be identified.

Key words : *MBTI test, Holland test, ego identity, career decision type*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정 영 주*

김 희 수

한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실험 참여에 동의한 학생 12명 중 6명의 실험집단과 6명의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 1회 2시간씩 총 3회기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이해·수용·개방 척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 척도 검사를 두 집단에 모두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모수 검증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 검증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애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의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연애 집단상담, 대학생, 이해·수용·개방 정도, 이성 관계 만족도

* 교신저자 : 정영주,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joo10869@hanmail.net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18세-35세)에 속하며, 한 개인이 심리적·사회적·생물학적 측면을 통합하여야 하는 과도기 인생과정을 말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것은 이후 인생의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나 취업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정서적 유대감 및 지지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이루고 그에 맞는 발달 과업들 과정에 맞게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를 벗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나아가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는 다양한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그 대상은 친구, 동료, 연인 등으로 확대되어진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 Erikson, 1959).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이성과의 연애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Lloyd & Cate(1985)에 의하면 연애 관계를 통해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 시기의 이성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결혼을 위한 준비단계이면서 사랑의 본질을 습득하고 이성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키며 인간 관계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등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전영주, 2005 ; 김진아, 2014).

이처럼 대학생의 이성 관계는 이성 교제

를 통해 형성되며, 넓은 의미의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Sippola, 1999).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정에서 이성 교제는 결혼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사랑의 본질을 터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키고 인간관계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등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 시기의 이성 파트너는 중요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들 중 하나가 된다. 이처럼 의미 있는 타인이라 함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된다(김언희, 2004 ; 정민, 2006).

즉, 20대의 이성 교제는 친밀감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건전한 적응방법을 배우고, 아울러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사회화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서로 간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고 보고되었다.. 게다가 대학생 시기의 이성 관계는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배우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실제 이 시기의 이성 교제는 결혼하기 전의 규범적 단계로서 이제는 점점 더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2002 ; 박은영, 2003).

국내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와 학업에 이어 스트레스 요인에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대학생에 대한 상담 현장이나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원만한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데 남녀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희준, 2001 ; 설기문, 1993 ; 차승희, 1993 ; 홍성미, 1998 ; Murry, 1996 ;

서울대 대학 생활 문화원, 2014). 이 시기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심리적 혼란과 우울, 외로움 그리고 분노와 같은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연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영역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김기정, 1995 ; Horowitz, 1986 ; Bagwell et al., 2005 ; 박선옥, 김미경, 2018). 이성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부적응의 문제들은 대학생들의 자아 정체감과 인격 발달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친밀감의 결핍으로 우울, 의욕상실, 고독, 감정적 분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의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인생의 전환점에 놓여 있는 대학생 시기에 이성 문제를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맞게 인지하고 지혜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서봉연, 홍상인, 김정옥, 1994 ; 권경인, 1996 ; Desutner & Thelen, 1991).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연애에서 중요한 변인은 연애 당사자 본인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이성 관계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rikson(1950)에 의하면 이성 관계를 통하여 공유된 개인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정의를 내리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정의

를 명료화하고 숙고하도록 격려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커플 관계에서 파트너와 진정한 친밀감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1999)에 의하면 커플은 서로 의존적이고 상호작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자신의 행동, 느낌, 태도, 의사소통 방식 등이 파트너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파트너의 행동, 느낌, 태도, 의사소통 방식 등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이해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수용 및 개방은 커플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건강한 연애를 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개방을 하게 하고 서로에 대하여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연애를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친밀감을 가지는데 이는 사회 적응력 발달에 도움이 되며(김은지, 1997), 서로가 성숙해지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박은영, 2003), 자신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자아정체성에 대한 통찰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1993 ; 홍대식, 1998).

또한 연애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성 관계 만족도가 있다. 이성관계 만족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이성 교제란 계약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해 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혼남녀 간의 교제이다. 그리고 남녀 간의 자연스런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

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이성 교제를 통해 두 사람은 상호작용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욕구와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한다. 이것은 상호작용과 함께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자아성장 및 성숙한 인격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면과 또 다른 측면의 부정적인 면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유영주, 김순옥, 김정신, 1996 ; 김예정, 김득성, 1999). 여기서 보면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강영희, 2013). 아울러 이성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면 공격성(Capaldi & Crosby, 1997), 우울(Fincham et al., 1997) 및 알코올 남용(Jacob & Krahn, 1998)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와 높은 관련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 연애관계의 만족은 개인의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지은선, 2014).

이성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홍대식, 1998). 그리고 대학생은 이성 관계에서 만족된 상호작용에 따라 인간의 발달과업 및 미래사회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성 교제 기간 동안의 긍정적인 대화는 결혼 후의 만족도를 예견해준다(Markman, 1981). 그리고 교제 기간 중의 갈등 수준에 따라 미래에 결혼을 한 후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의 예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선행 연구들(Kelly, Huston &

Cate, 1985)은 보고하였다(이영숙, 1993).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성 관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성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 온 바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복동,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처럼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봄으로써 대학생의 연애를 통한 관계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성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모집 당시의 연구 참여자들은 남 · 여 대학생들이었는데, 연구의 동질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만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실험 참여

에 동의한 여학생 12명 중 6명의 실험집단 대상자에 대한 구성과 빈도분석 결과는 단과 6명의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및 빈도분석

구 분		실험집단(N=6)		통제집단(N=6)	
		빈도	%	빈도	%
학년	1학년	-	-	2	33.3
	2학년	1	16.7	1	16.7
	3학년	3	50.0	3	50.0
	4학년	2	33.3	-	-
현재 연애여부	예	2	33.3	-	-
	아니오	4	66.7	6	100.0
연애당시 연애기간	1개월미만	-	-	2	33.3
	1개월~3개월	1	16.7%	1	16.7
	3개월~6개월	2	33.3%	1	16.7
	6개월~1년	3	50.0%	2	33.3

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

전-사후 실험 통제집단 설계를 하였다.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처치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설계는 <표 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처치 실험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3
통제집단	O2		O4

O₁, O₂ : 사전검사(이해·수용·개방, 이성관계 만족도)

O₃, O₄ : 사후검사(이해·수용·개방, 이성관계 만족도)

X :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절차를 보면 실험집단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2020년 11월 9일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를 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였고,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 1회 2시간씩 총 3회기로 실시하였다.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2020년 11월 10일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2020년 11월 24일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절차

단계	기간	내용
준비단계	2020.10	주제 선정 및 선행연구 고찰 연구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연구계획 및 설계 측정도구 선정 및 수정, 보완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수정, 보완 전문가 자문 및 내용 타당도 검증
수행단계	2020.11	통제집단 및 실험집단 사전검사 실시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통제·실험집단 사후검사 실시
분석단계	2020.12	자료 수집 및 연구 결과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보고서 작성

3. 측정도구

1) 이해·수용·개방 척도

이 척도는 Rogers가 제안한 적극적 경청(반영)의 개념인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모형이다. 그리고 Carkhuff(1969)는 이를 체계화 시켰다. 그리고 인간관계 기능 평가 척도의 공감적 이해 척도(1-5수준)를 바탕으로 이형득(1992)과 이장호, 금명자(1992)의 상담기법 5수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그 후 상담전공 4인 교수들의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최연화(2011)는 이해·수용·개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로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연구대상 스스로 10점 Liskert 척도로 자기평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연화(2011)가 사용한 이해·수용·개방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자기, 파트너, 커플 관계로 나누어지는 내용을 포함한 이해·수용·개방 척도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해·수용·개방 척도의 Cronbach's α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왔다.

2)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

정혜, 채규만(1999)은 한국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런 다음, 번안, 수정, 예비검사를 거쳤다. 그리고 최종 문항을 선정하여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만들었다. 이를 유소영(2000)은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하위척도 12개에서 미혼 남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7개 하위척도 93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유진(2006)은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소영(2000)이 만들어 놓은 요인분석을 토대로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수정한 척도 4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갈등, 공유시간 갈등으로 총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 합산 방법을 보면, 이성관계 만족도의 척도의 각 하위 척도들은 합산되지 않고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척도 중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 갈등과 공유시간 갈등의 2개 척도만을 사용하여 척도 18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2개 척도만을 사용한 이유

는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갈등 척도의 내용은 이해·수용·개방 척도의 내용과 중복되는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와 같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전체 신뢰도 .91이고, 하위척도 중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는 .86이고, 공유시간 갈등은 .83으로 나왔다.

4. 프로그램 구성 내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연애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국내연구들(김경순, 2000 ; 김인옥, 2010 ; 전지경, 2004 ; 정여주, 2012 ; 정혜경, 2002 ; 최연화, 2011 ; 최영, 2006)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집단상담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특히 고선주(2003)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에서 결혼 전에 필요한 교육으로 “나와 파트너에 대한 이해”의 필요가 가장 필요하다는 요구도와 일치한다.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구성내용

회기	구성	회기별목표	활동내용
1	도입 및 자기 이해	프로그램 안내 및 소개	- 사전 검사 실시 - 집단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소개 - 집단원들이 자기소개 및 친밀감 형성
		연애 경험 나누기	- 연애 경험 중 즐거웠던 점 - 연애 경험 중 잊고 싶었던 경험 - 연애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 부족했던 점 또는 보완점

2	연애 패턴 이해 및 파트너 이해 수용 개방	연애 패턴 이해	- 나의 성과 다른 성 이해하기 - 나의 성적 경험과 History 발표하기 - 나의 연애 패턴과 집단원의 차이 알기
		자신과 파트너의 이해, 수용 및 개방	-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욕구 표현하기 - 상대방 이해 및 수용하기 - 파트너의 경험에 대해 이해, 수용 및 개방하기
3	자기 성장 및 만족 스러운 이성 관계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 만족도 향상	- 성과 연애의 관계 - 커플간의 서로의 차이점 찾기 - 이성 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 연습하기
		앞으로의 만족스러운 연애 설계	- 이성 관계에서 공유시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나누기 - 나의 이상형 알아보고, 앞으로의 연애 설계하기 - 사후 검사 실시

전체 프로그램의 총 회기는 3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의 소요시간은 90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차시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1회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진행자 소개를 하며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에는 집단원들의 자기소개 및 별칭 짓기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서로의 연애경험을 나누어 자신과 타인의 연애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2회기에서는 자신의 연애 패턴을 발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나와 다른 성의 차이를 알고 자신과 파트너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 및 개방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3회기에서는 커플 간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성 관계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애관을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만족스러운 연애를 위한 계획 등을 정리해 본다. 다음으로 집단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한다.

5.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

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집단별 사례수가 6명으로 표본 사례수가 적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비모수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이훈영, 200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별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를 Wilcoxon Signed Rank Test으로 검증하고, 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전동질성 검증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변인	집단	M(SD)	평균순위	순위합	U	Z	P
이해·수용·개방	실험(N=6)	6.93(1.28)	8.33	50.00	7.00	-1.76	.09
	통제(N=6)	5.61(.93)	4.67	28.00			
이성 관계 만족도 전체	실험(N=6)	2.59(.57)	5.00	30.00	9.00	-1.44	.18
	통제(N=6)	3.03(.70)	8.00	48.00			
이성관계 만족도 하위1-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N=6)	2.69(.68)	5.25	31.50	10.50	-1.21	.24
	통제(N=6)	3.04(.61)	7.75	46.50			
이성관계 만족도 하위2-공유시간갈등	실험(N=6)	2.39(.34)	5.33	32.00	11.00	-1.15	.31
	통제(N=6)	3.00(.91)	7.67	46.00			

대학생의 연애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해·수용·개방 척도와 이성 관계만족 척도의 사전검사 점수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두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해·수용·개방 ($Z=-1.76$, $p>.05$), 이성관계만족도($Z=-1.44$, $p>.05$)는 이성관계 전체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의사소통($Z=-1.21$, $p>.05$), 공유시간 갈등($Z=-1.15$, $p>.0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2. 프로그램 효과 검증

1) 이해·수용·개방 정도의 효과 검증

이해·수용·개방에 대한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에 대해 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사후 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기 때문에 양의 순위는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음의 순위는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사전검사 점수가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동률은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가 같음을 의미한다.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8.04)는 사전 평균 점수(M=6.9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Z=-2.20$, $p<.05$).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6.17)는 사전 평균 점수(M=5.61)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Z=-1.58$, $p>.05$). 실험 처치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해·수용·개방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2.25$, $p<.05$).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 집단 내에서 이해·수용·개방의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고, 또한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임으로써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해·수용·개방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이해·수용·개방 정도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변인	집단	사전	사후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P)
		M (SD)	M (SD)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이해 수용 개방	실험 (N=6)	6.93 (1.28)	8.04 (1.19)	0	.00	.00	6	3.50	21.00	0	-2.20* (.03)
	통제 (N=6)	5.61 (.93)	6.17 (.81)	2	1.50	3	4	4.50	18.00	0	-1.58 (.12)

* $p<.05$

<표 7> 이해·수용·개방의 사후검사 비교

변인	집단	M(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이해·수용·개방	실험(N=6)	8.04(1.19)	8.83	53.00	4.00	-2.25	.026
	통제(N=6)	6.17(.81)	4.17	25.00			

* $p<.05$

2) 이성 관계 만족도의 효과 검증

대인관계만족도에 대한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에 대해 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기 때문에 양의 순위는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음의 순위는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사전검사 점수가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동률은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가 같음을 의미한다. 이성관계 만족도 전체에서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2.19)는 사전 평균 점수(M=2.59)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21$, $p<.05$).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3.03)는 사전 평균 점수(M=2.59)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Z=-1.47$, $p>.05$).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2.29)는 사전 평균 점수(M=2.69)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03$, $p<.05$).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2.54)는 사전 평균 점수(M=3.04)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Z=-1.79$, $p>.05$). 공유시간갈등에서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2.00)는 사전 평균 점수(M=2.39)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04$, $p<.05$).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M=2.67)는 사전 평균 점수(M=3.00)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Z=-1.26$, $p>.05$). 실험 처치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성관계 만족도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으며, 이성관계 만족 전체($Z=-1.12$, $p>.05$), 문제해결 의사소통($Z=-.80$, $p>.05$), 공유시간 갈등($Z=-1.61$, $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 집단 내에서 이성관계 만족 전체,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의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성관계 만족 전체와 하위 요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표 8>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비교

변인	집단	사전	사후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 률	Z(P)
		M (SD)	M (SD)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이성 관계 만족도 전체	실험 (N=6)	2.59 (.57)	2.19 (.51)	6	3.50	21.00	0	0.00	.00	0	-2.21* (.03)

이성 관계 만족도 전체	통제 (N=6)	3.03 (.70)	2.59 (.60)	5	3.50	17.50	1	3.50	3.50	0	-1.47 (.14)
하위1 -문제 해결	실험 (N=6)	2.69 (.68)	2.29 (.60)	5	3.00	15.00	0	0.00	0.00	1	-2.03* (.04)
의사 소통	통제 (N=6)	3.04 (.61)	2.54 (.67)	5	3.80	19.00	1	2.00	2.00	0	-1.79 (.07)
하위2 -공유 시간 갈등	실험 (N=6)	2.39 (.34)	2.00 (.39)	5	3.00	15.00	0	0.00	0.00	1	-2.04* (.04)
	통제 (N=6)	3.00 (.91)	2.67 (.62)	4	4.13	16.50	2	2.25	4.50	0	-1.26 (.21)

* $p < .05$

<표 9>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후 검사 비교

변인	집단	M(SD)	평균순위	순위합	U	Z	P
이성 관계 만족도 전체	실험(N=6)	2.19(.51)	5.33	32.00	11.00	-1.12	.31
	통제(N=6)	2.59(.60)	7.67	46.00			
이성관계 만족도 하위1-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N=6)	2.29(.60)	5.67	34.00	13.00	-.80	.49
	통제(N=6)	2.54(.67)	7.33	44.00			
이성관계 만족도 하위2-공유시간 갈등	실험(N=6)	2.00(.39)	4.83	29.00	8.00	-1.61	.13
	통제(N=6)	2.67(.62)	8.17	49.00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 집단 내에서 이해·수용·개방의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 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고, 또한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둘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내에서 이성관계 만족 전체,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의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통제 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와 파트너의 이해·수용·개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해를 높이고 파트너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들과 의견을 같이한다(박은영, 2003 ; 전지경, 2004 ; 최연화, 2011). 본 프로그램의 처치 이후 자기와 파트너의 이해·수용·개방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진행자 소개를 하며 사전검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집단원들의 자기소개 및 별칭 짓기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서로의 연애 경험을 나누어 자신과 타인의 연애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2회기에서는 자신의 연애 패

턴을 발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와 다른 성의 차이를 알고 자신과 파트너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 및 개방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3회기에서는 커플간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성 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연애관을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만족스러운 연애를 위한 계획 등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 집단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자기와 파트너의 이해·수용·개방이 높아지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의견을 같이 한다(김은지, 1996 ; 박은영, 2003 ; 최연화, 2011 ; 안성숙, 2018). 그러나 본 연구에는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내에서 이성관계 만족 전체,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의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성관계 만족 전체와 하위요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에 참여한 집단원들 중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다소 많았기 때문에, 이성관계 만족도를 실질적 경험을 통한 답변을 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소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의 연애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애 패턴을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양의 연애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

위의 실험집단 참여자들의 소감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연애 집단상담을 통하여 이해·수용·개방 정도와 이성 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는데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경기도에 소재한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체 대학생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표본에 의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역에 국한된 일반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기 중기는 물론 중기 성인기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처음 집단을 모집할 때는 경기도에 소재한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연애 경험이 1회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 녀 대학생이 집단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여학생만이 대상이 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다음에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동성 집단간 분석뿐만 아니라 이성 집단간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커플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는데, 남,녀 각각의 연구와 아울러 커플 간의 상호성이나 역동성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따른 상호역동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1회 이상의 연애 경험은 있었으나,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집단원보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집단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집단원만으로 구성되었다면 이성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집단 참여자를 구성할 때 이러한 점들이 고려된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양적 조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나 상황에 따른 변화가 다분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 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관찰 등과 같은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영희 (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이성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간성의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이성관**

- 계 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선주 (2003).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41(6), 47-61
- 권경인 (1996). **대학생의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3). **대학생 이성 관계에서 애착과 자의식 및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김향숙 (2018).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633-651.
- 김언희 (2004). **기독교대학생의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1996).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교제중인 미혼남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옥 (2010). **대학생 이성관계형성 자기효능감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03).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1),123-139
- 노현숙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 (2003). **미혼 남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3). **이성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 연인간 의사소통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주, 이지연 (2016).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2), 61-79
- 안성숙(2018). **진화심리학과 Bowen이론에 근거한 이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 커플의 관계와 자기 분화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명숙, 전지경 (2004).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 개발 연구-한남 통합적 커플 프로그램 : 우리 커플 이대로 좋을까요?**. **상담학연구**, 5(3), 561-582.
- 양윤영 (2018).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신애 (201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자기**

- 수용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수진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2000). 사랑 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 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1993).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영준 (2006). 대학생의 연애 경험과 일상적 자아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1).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 :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금명자(1992). 상담연습 교본. 법문사.
- 이지연 (2011). 이성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 옥선화, 이경희(2002).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 프로그램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37-49
- 전지경 (2004).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석경(2020).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관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여주 (2012). 대학생 연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1), 169-191.
- 정여주, 두경희, 김창대 (2011). 대학생 연인관계 유형 검사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2(1), 219-241.
- 정여주, 정여진 (2013). 대학생 연인관계 유형에 따른 군집분석과 남녀 비교. 상담학연구, 14(5), 2925-2943.
- 정혜경 (2002). 사랑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우 (2010). 이성관계에서 자기에 성향이 갈등대처방식, 정서 및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화 (2011). 원가족 애착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 (2006). 현실치료를 적용한 커플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대학생 커플의 내적 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서울불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선이 (200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 전략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주 (2013). 자기에 성향자의 연애태도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verill, J. R. & R. S. Lazarus(1972). Anticipatory Stress & Coping Reacions under Various Conditions of Uncertainty.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 Canary, K. J., Cupach, W. R., & Messman, S. J. (1995). *Relationship conflict: Conflict in parent-child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s*. London: Sage
- Catron, Sarah Lynne (2002). *Optimism and responses to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 337-341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ilman, R, Huebner, E, S. & Furlong, M. J. (2009).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New York: Routledge.
- Field, Nancy A. (2003). *Optimism, coping, social support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 mediational analysis*. Ph. 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Gilman, R, Huebner, E, S. & Furlong, M. J. (2009).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New York: Routledge.

목 차

I. 서론	87
II. 연구방법	88
1. 조사대상	88
2. 조사도구 및 내용	88
3. 조사기간 및 절차	89
4. 자료 분석 방법	89
III. 연구결과	90
1. 개인신상 관련	90
2. 가정생활 관련	108
3. 기타 생활	118
4. 대학 생활	122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158
6. 이성 및 성 관련	164
7. 상담센터 관련	172
8. 자살 관련	194
IV. 결론	206
<부 록>	
2020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212
2019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현황	216
2020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223
학생생활연구 발간 및 투고 규정	225

표 목차

<표 1> 성별 분포	90
<표 2> 연령 분포	92
<표 3> 건강상태 만족도	94
<표 4> 대인관계 만족도	96
<표 5> 자신의 성격 만족도	98
<표 6> 자신의 외모 만족도	100
<표 7> 흡연 경험	102
<표 8> 음주 경험	104
<표 9> 이성교제 경험	106
<표 10> 출신 고교 소재지	108
<표 11>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110
<표 12> 본인의 종교	112
<표 13> 가정의 분위기	114
<표 14>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116
<표 15> 재수경험	118
<표 16> 군 입대 예정시기	120
<표 17> 대학 진학 동기	122
<표 18>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124
<표 19> 본교를 알게 된 경로	126
<표 20> 학교의 만족도	128
<표 21>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130
<표 22> 학부 선택에 결정적 요인	132
<표 23>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134
<표 24> 학부의 결정시기	136
<표 25>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138
<표 26>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140
<표 27>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142

<표 28>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144
<표 29>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146
<표 30> 졸업 후 진로계획	148
<표 31>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	150
<표 32>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152
<표 33>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154
<표 34> 졸업 후 진로결과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156
<표 35>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158
<표 36> 핸드폰의 주된 용도	160
<표 37> 인터넷 사용 용도	162
<표 3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164
<표 3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166
<표 40>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168
<표 41>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170
<표 42-1> 외로움	172
<표 42-2> 불안	174
<표 42-3> 분노	176
<표 42-4> 우울·무기력	178
<표 42-5> 자살충동	180
<표 43>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182
<표 44>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184
<표 45>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186
<표 46>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188
<표 47>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190
<표 48> 상담센터 이용 시 받고 싶은 검사	192
<표 49>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	194
<표 50>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196
<표 51>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198
<표 52> 자살 충동이 있을 때의 대처	200
<표 53>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202
<표 54>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204

202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장각자¹⁾, 엄기영²⁾

I. 서론

신입생들은 대학입학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의존적이고 통제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비교적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다양한 과제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도하기도 한다. 특히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자율적인 학업,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적합한 진로선택 등의 과업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업을 순조롭게 해나가려면 신입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특성 등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이 이루어져야하며, 대학생활의 적응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신입생들이 이러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활의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심리적 특성, 전반적인 대학 생활 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도 등을 알아보는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들의 복지와 학사 정책 수립, 학생상담과 지도, 학생들의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년에도 신입생들의 적응실태와 신입생들의 특성 및 의식을 파악한 신입생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세우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사 지도와 진로 및 취업지도 그리고 인성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전임연구원

2)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2020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530명의 반응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입생 614명의 약 85.5%에 해당 된다.

응답자의 성별구성 및 학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2020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중복된 문항은 삭제하고,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활, PC사용, 이성 및 성(性)관련,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이용, 자살관련 문항으로 8개 영역에 걸쳐, 총 55문항(하위 문항 제외)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의 주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신상 관련 :

- | | | | |
|----------|------------|------------|----------|
| (1) 학부 | (2) 성별 | (3) 연령 | (4) 건강상태 |
| (5) 대인관계 | (6) 자신의 성격 | (7) 자신의 외모 | (8) 흡연 |
| (9) 음주 | (10) 이성교제 | | |

2) 가정생활 관련 :

- | | | |
|---------------|-----------------------|------------|
| (1) 출신 고교 소재지 | (2)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 (3) 본인의 종교 |
| (4) 가정의 분위기 | (5) 가정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 |

3) 기타 생활 관련 :

- | | |
|-----------|----------------|
| (1) 재수 경험 | (2) 군 입대 예정 시기 |
|-----------|----------------|

4) 대학 생활 관련 :

- | | | |
|-----------------------------------|--------------------------|-----------------|
| (1) 대학 진학 동기 | (2) 기독교 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 |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
| (4) 본교 입학 만족도 | (5) 입학 불만족 시 향후 계획 | (6) 학부 선택의 결정요인 |
| (7)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 (8) 학부의 결정시기 | |
| (9) 2학년 진학 시(전공학과 선택) 도움 받고자 하는 것 | (10)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 |
| (11)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신청여부 | (12) 교수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것 | |
| (13) 대학생활에서 가장하고 싶은 것 | (14)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
| (15)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 | (16) 취업에 대해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 |
| (17) 대학생활 중 걱정되는 부분 | (18) 졸업 후 진로결정의 어려운 부분 | |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관련 :

- | | |
|---------------------|-------------------|
| (1)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 (2)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 |
| (3)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 |

6) 이성 및 성(性) 관련 :

- | | |
|----------------------|---------------------|
| (1) 성추행.성희롱.성폭력의 경험 | (2) 9번 문항에 대한 대응방법 |
| (3)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도 | (4)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 |

7) 상담센터 관련:

- | | |
|--------------------------------|---------------------|
| (1) 최근 3개월간의 심리적 상태 | (2) 심리상담가의 필요 여부 |
| (3) 대학 내 갈등해결 위해 심리상담가 요청의도 여부 | |
|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 (6) 상담실 이용 시 희망하는 영역 | (7) 개인상담시 희망하는 상담내용 |

8) 자살 관련:

- | | |
|-----------------------|-------------------------|
| (1) 과거 또는 현재 자살충동 여부 | (2) 자살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 |
| (3) 자살생각이나 충동 시 진행 정도 | (4) 자살 충동이나 생각 시 하는 방법 |
| (5) 위 방법 사용의 효과 | (6) 자살생각 있는 주위사람을 도움 방법 |

3. 조사기간 및 절차

본 조사를 위한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비대면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년은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매년 3월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 배부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비대면 설문조사가 가능한 인터넷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인터넷 설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Raw Data)는 IBM SPSS Statistics 21를 활용하여 각 문항별 반응 빈도와 성별, 학부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개인 신상 관련

1) 성별 분포

신입생 전체 응답자 530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2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표에서와 같이 남학생 32.5%, 여학생 67.4%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년도 비율(남녀 각각 36.5%, 63.3%)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반면, 남학생의 비율은 다소 낮아졌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45.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35.7%), 인문사회과학부(34.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0.8%), 간호복지학부(75.7%), 예술학부(66.4%) 순이다. 또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 3의 성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1명 있었다.

<표 1> 성별 분포

단위: 명, %

	남	여	기타	전체
신학부	10	18	0	28
	35.7%	64.3%	0.0%	100.0%
IT학부	14	17	0	31
	45.2%	54.8%	0.0%	100.0%
디자인학부	10	42	0	52
	19.2%	80.8%	0.0%	100.0%
예술학부	38	77	1	116
	32.8%	66.4%	0.9%	100.0%
인문사회과학부	91	175	0	266
	34.2%	65.8%	0.0%	100.0%
간호복지학부	9	28	0	37
	24.3%	75.7%	0.0%	100.0%
전체	172	357	1	530
	32.5%	67.4%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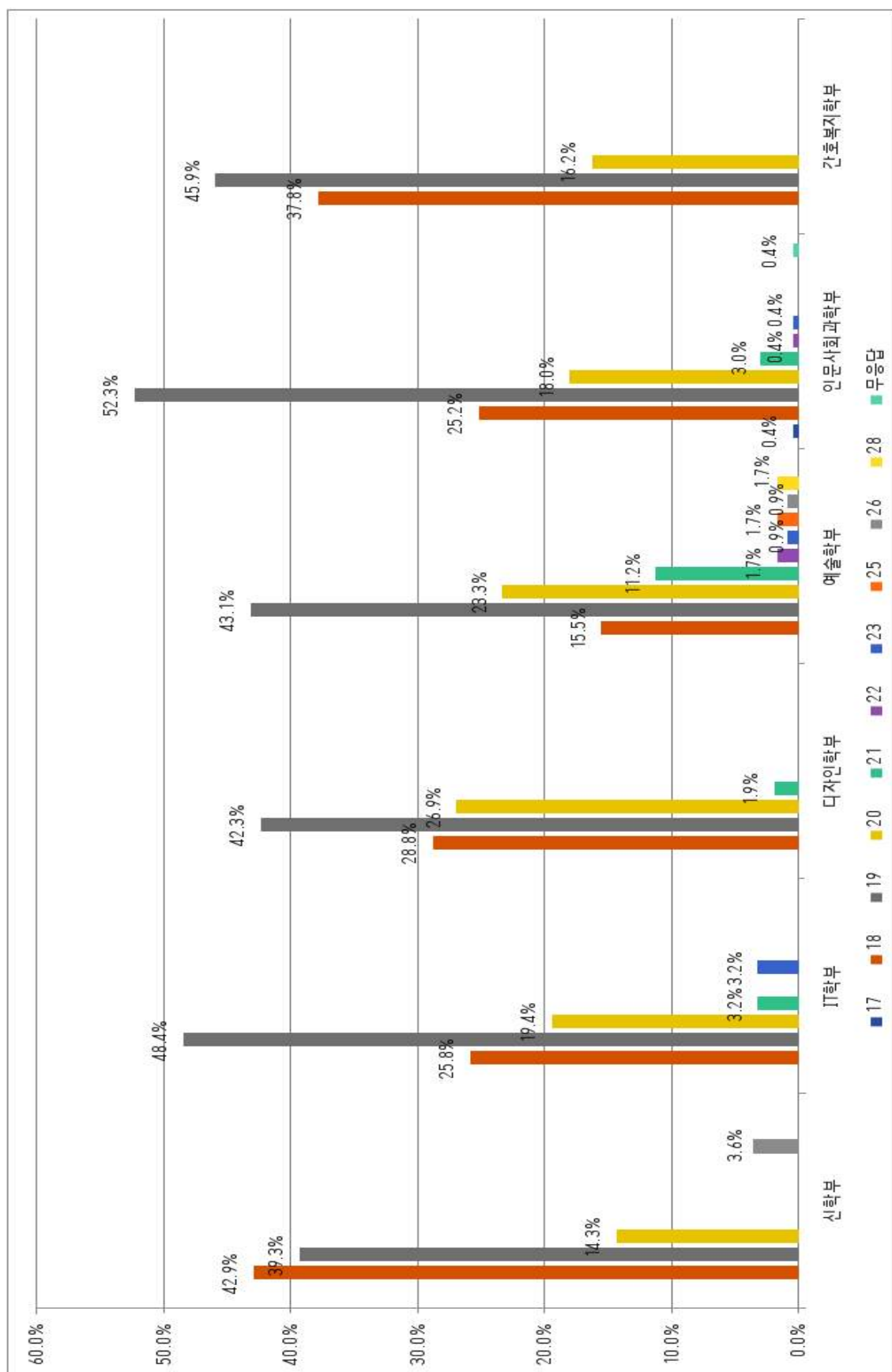
2) 연령 분포

2020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확인한 결과 만 19세(47.9%), 만 18세(25.3%) 순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후 연령대의 신입생이 없어 전년도에 비해 연령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는 신학부가 42.9%로 만 18세 신입생의 비율이 높았고, 간호복지학부(37.8%), 디자인학부(28.8%)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여학생(27.2%) 비율이 남학생(2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전 조사보다 만 18세 이하 연령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설문을 작성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로 기입한 학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표 2> 연령 분포

단위: 명, %

	17	18	19	20	21	22	23	25	26	28	무응답	전체
남	0	37	72	41	12	1	3	2	2	1	1	172
	0.0	21.5	41.9	23.8	7.0	0.6	1.7	1.2	1.2	0.6	0.6	100.0
여	1	97	182	64	11	1	0	0	0	1	0	357
	0.3	27.2	51.0	17.9	3.1	0.3	0.0	0.0	0.0	0.3	0.0	100.0
기타	0	0	0	0	0	1	0	0	0	0	0	1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0	12	11	4	0	0	0	0	1	0	0	28
	0.0	42.9	39.3	14.3	0.0	0.0	0.0	0.0	3.6	0.0	0.0	100.0
IT학부	0	8	15	6	1	0	1	0	0	0	0	31
	0.0	25.8	48.4	19.4	3.2	0.0	3.2	0.0	0.0	0.0	0.0	100.0
디자인학부	0	15	22	14	1	0	0	0	0	0	0	52
	0.0	28.8	42.3	26.0	1.9	0.0	0.0	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0	18	50	27	13	2	1	2	1	2	0	116
	0.0	15.5	43.1	23.3	11.2	1.7	0.9	1.7	0.9	1.7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	67	139	48	8	1	1	0	0	0	1	266
	0.4	25.2	52.3	18.0	3.0	0.4	0.4	0.0	0.0	0.0	0.4	100.0
간호복지학부	0	14	17	6	0	0	0	0	0	0	0	37
	0.0	37.8	45.9	16.2	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1	134	254	105	23	3	3	2	2	2	1	530
	0.2	25.3	47.9	19.8	4.3	0.6	0.6	0.4	0.4	0.4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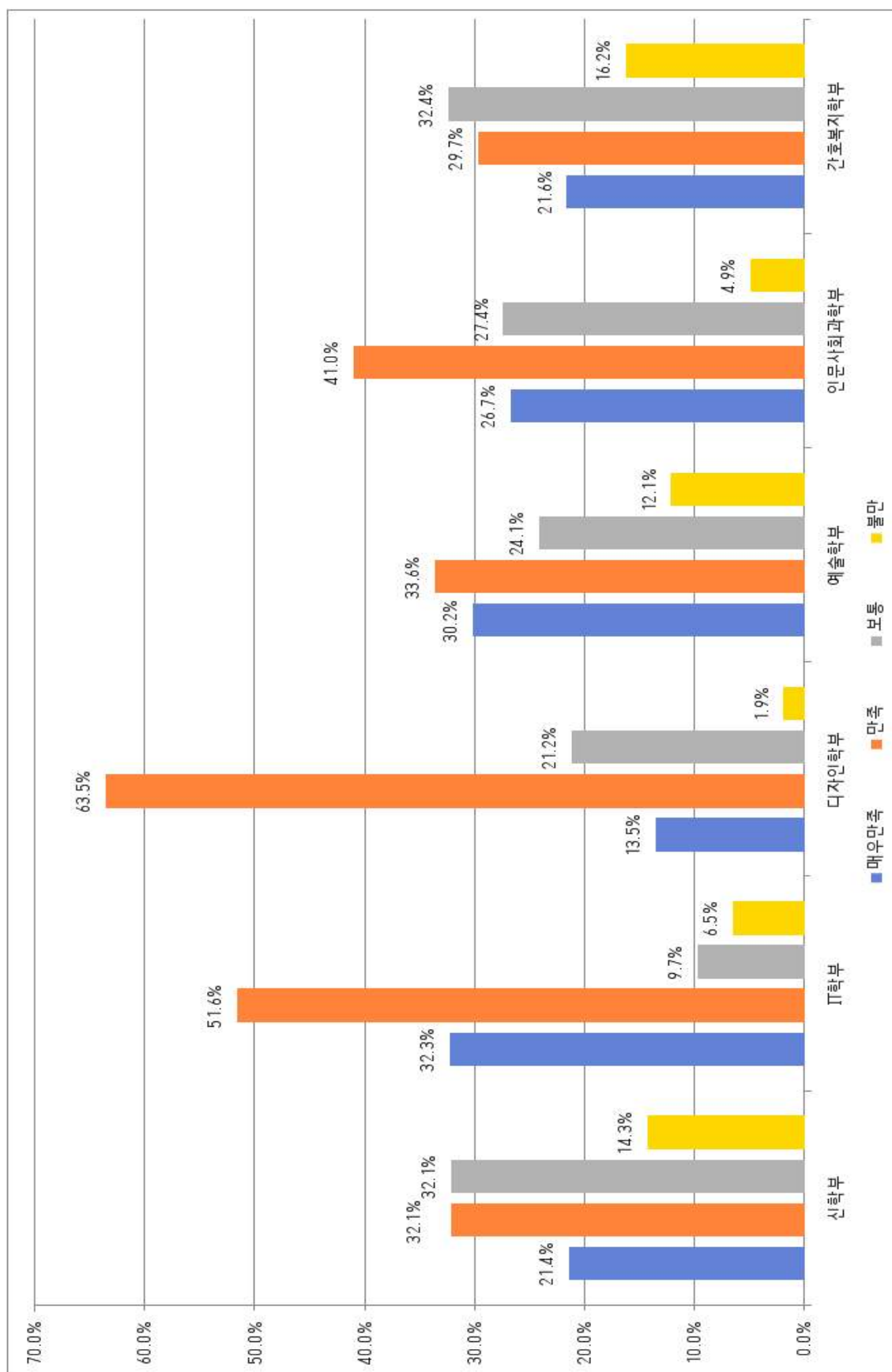
3) 건강상태

신입생들 중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만족(25.8%), 보통(25.7%) 순이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만족(41.7%), 보통 (29.1%), 매우 만족(22.1%)으로, 남학생이 경우는 만족(39.5%), 매우 만족(33.1%) 보통(18.6%), 순으로 응답하여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학생(33.1%)이 여학생(22.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전체
남	57	68	32	15	172
	33.1	39.5	18.6	8.7	100.0
여	79	149	104	25	357
	22.1	41.7	29.1	7.0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6	9	9	4	28
	21.4	32.1	32.1	14.3	100.0
IT학부	10	16	3	2	31
	32.3	51.6	9.7	6.5	100.0
디자인학부	7	33	11	1	52
	13.5	63.5	21.2	1.9	100.0
예술학부	35	39	28	14	116
	30.2	33.6	24.1	12.1	100.0
인문사회과학부	71	109	73	13	266
	26.7	41.0	27.4	4.9	100.0
간호복지학부	8	11	12	6	37
	21.6	29.7	32.4	16.2	100.0
전체	137	217	136	40	530
	25.8	40.9	25.7	7.5	100.0



4)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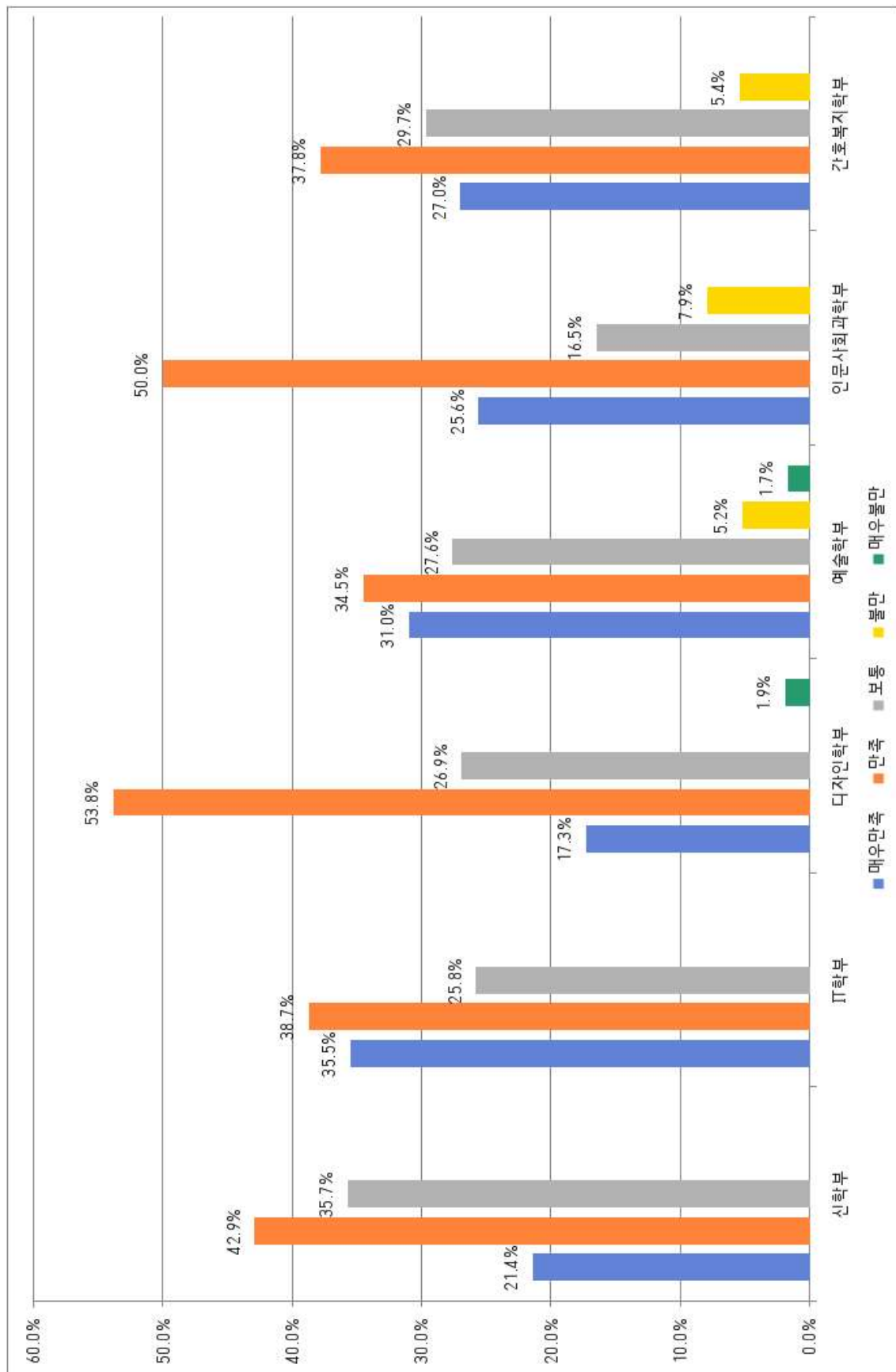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45.1%)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매우 만족(26.4%)으로 응답했으며, 보통(22.5%)이 뒤를 이었다. 대인관계 만족(매우 만족, 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75.6%)였으며 뒤를 이어 IT학부(74.2%), 디자인학부(71.1%)순이었다.

성별을 비교하면 전년도에서는 여학생(73.6%)이 남학생(68.5%)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만족(매우 만족,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올해는 남학생(71.5%)과 여학생(71.4%)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4>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남	54	69	37	9	3	172
	31.4	40.1	21.5	5.2	1.7	100.0
여	85	170	82	20	0	357
	23.8	47.6	23.0	5.6	0.0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6	12	10	0	0	28
	21.4	42.9	35.7	0.0	0.0	100.0
IT학부	11	12	8	0	0	31
	35.5	38.7	25.8	0.0	0.0	100.0
디자인학부	9	28	14	0	1	52
	17.3	53.8	26.9	0.0	1.9	100.0
예술학부	36	40	32	6	2	116
	31.0	34.5	27.6	5.2	1.7	100.0
인문사회과학부	68	133	44	21	0	266
	25.6	50.0	16.5	7.9	0.0	100.0
간호복지학부	10	14	11	2	0	37
	27.0	37.8	29.7	5.4	0.0	100.0
전체	140	239	119	29	3	530
	26.4	45.1	22.5	5.5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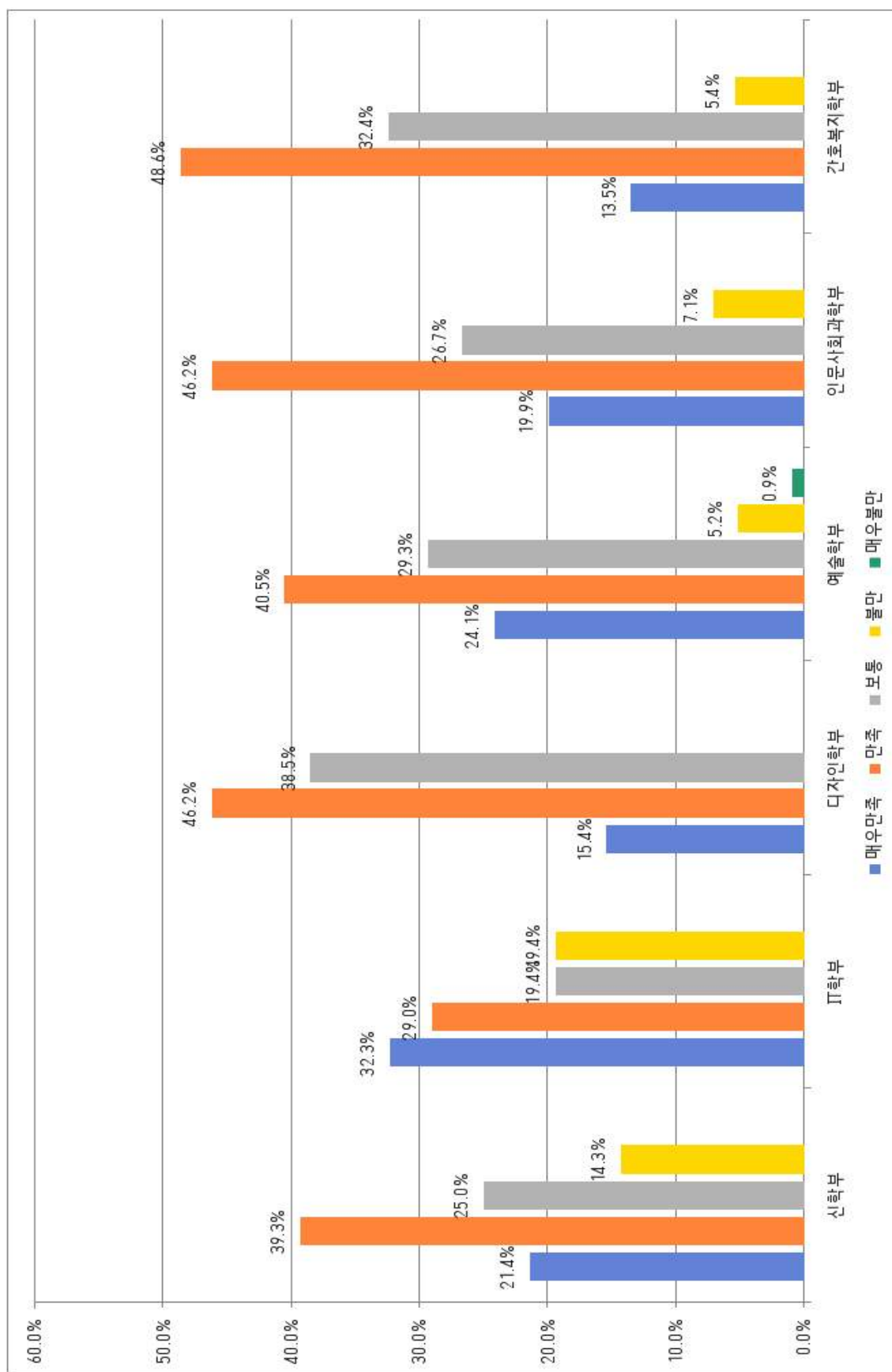
5) 자신의 성격

신입생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28.3%, 매우 만족 20.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보통이상(매우 만족, 만족, 보통)은 9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비교했을 때 자신의 성격을 만족이상(매우 만족,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인문사회과학부(66.1%), 예술학부(64.6%), 간호복지학부(62.1%), 디자인학부(6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만족(매우 만족, 만족)의 비율은 남학생(73.2%), 여학생(6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조사의 남학생(64.5%), 여학생(57.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자신의 성격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남	52	74	36	10	0	172
	30.2	43.0	20.9	5.8	0.0	100.0
여	57	158	114	27	1	357
	16.0	44.3	31.9	7.6	0.3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6	11	7	4	0	28
	21.4	39.3	25.0	14.3	0.0	100.0
IT학부	10	9	6	6	0	31
	32.3	29.0	19.4	19.4	0.0	100.0
디자인학부	8	24	20	0	0	52
	15.4	46.2	38.5	0.0	0.0	100.0
예술학부	28	47	34	6	1	116
	24.1	40.5	29.3	5.2	0.9	100.0
인문사회과학부	53	123	71	19	0	266
	19.9	46.2	26.7	7.1	0.0	100.0
간호복지학부	5	18	12	2	0	37
	13.5	48.6	32.4	5.4	0.0	100.0
전체	110	232	150	37	1	530
	20.8	43.8	28.3	7.0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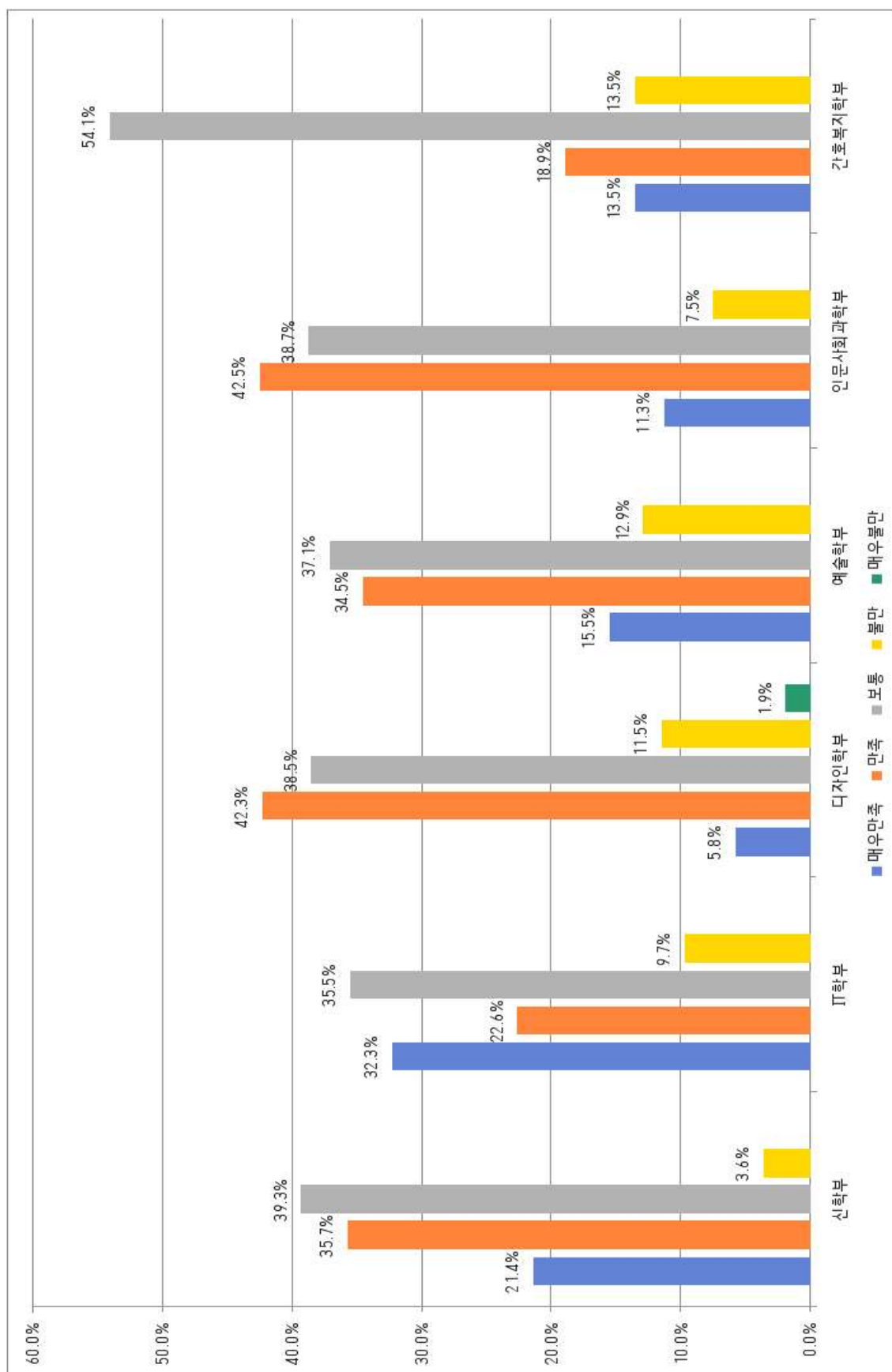
6) 자신의 외모

신입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9.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족 37.5%, 매우 만족 13.6% 순이다. 학부별로는 간호복지학부 54.1%, 신학부 39.3% 순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 이상(매우 만족, 만족)은 신학부 57.1%, IT학부 54.9%, 인문사회과학부 53.8%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외모에 만족(매우 만족,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남학생(57.0%)이 여학생(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자신의 외모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남	34	64	60	13	1	172
	19.8	37.2	34.9	7.6	0.6	100.0
여	37	135	148	37	0	357
	10.4	37.8	41.5	10.4	0.0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6	10	11	1	0	28
	21.4	35.7	39.3	3.6	0.0	100.0
IT학부	10	7	11	3	0	31
	32.3	22.6	35.	9.7	0.0	100.0
디자인학부	3	22	20	6	1	52
	5.8	42.3	38.5	11.5	1.9	100.0
예술학부	18	40	43	15	0	116
	15.5	34.5	37.1	12.9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30	113	103	20	0	266
	11.3	42.5	38.7	7.5	0.0	100.0
간호복지학부	5	7	20	5	0	37
	13.5	18.9	54.1	13.5	0.0	100.0
전체	72	199	208	50	1	530
	13.6	37.5	39.2	9.4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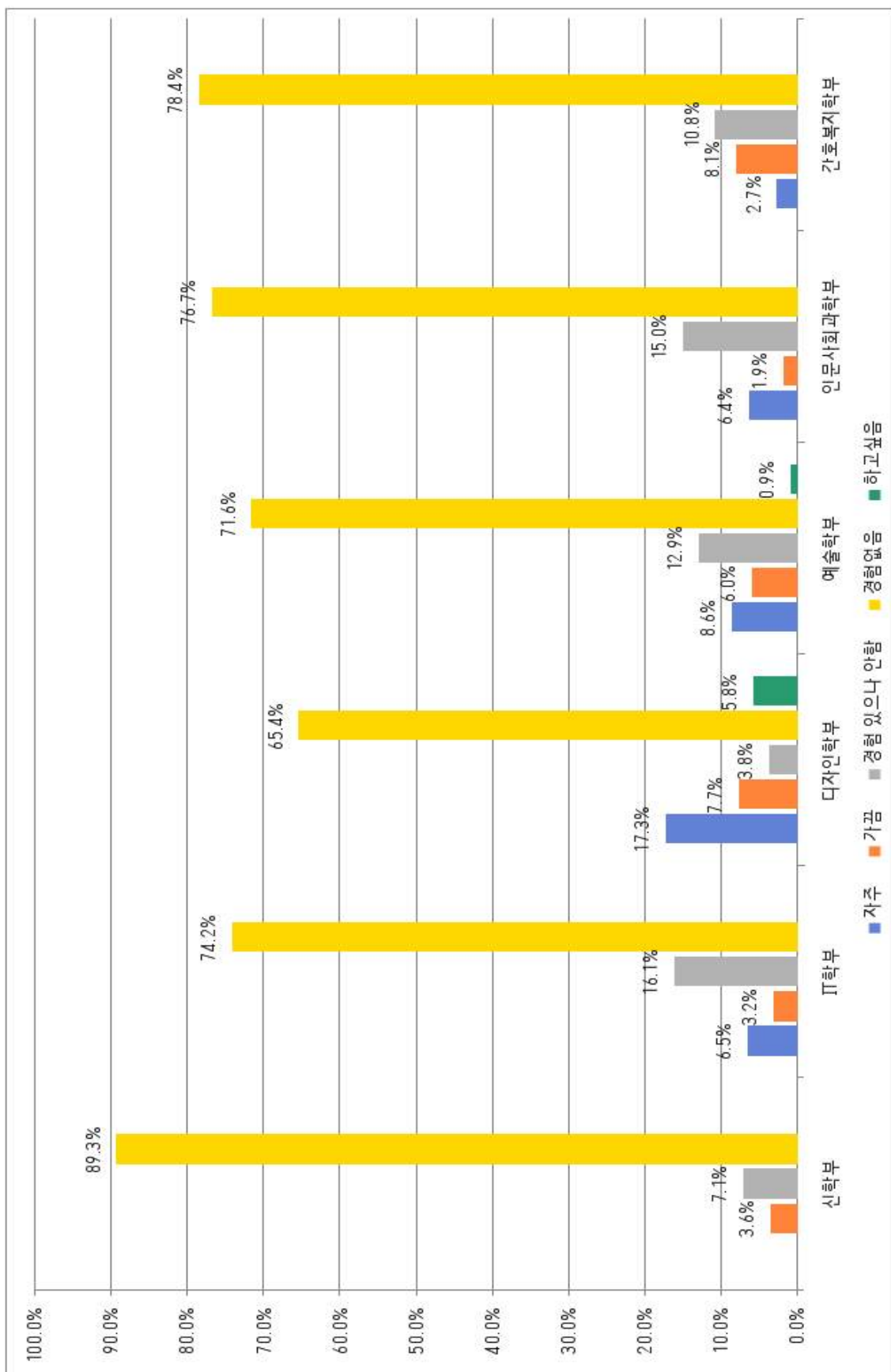
7) 흡연

신입생의 흡연경험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75.1%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자주, 가끔)은 11.4%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자주, 가끔)은 디자인학부(25.0%), 예술학부(14.6%), 간호학부(1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학부 89.3%, 간호복지학부 78.4%, 인문사회과학부 76.7% 순으로 흡연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53.5%, 여학생 85.7%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 남학생 62.1%보다 낮고, 여학생의 80.1% 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남학생의 흡연은 늘고, 여학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흡연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있으나 지금안함	경험없음	하고싶음	전체
남	27	6	47	92	0	172
	15.7	3.5	27.3	53.5	0.0	100.0
여	11	15	21	306	4	357
	3.1	4.2	5.9	85.7	1.1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0	1	2	25	0	28
	0.0	3.6	7.1	89.3	0.0	100.0
IT학부	2	1	5	23	0	31
	6.5	3.2	16.1	74.2	0.0	100.0
디자인학부	9	4	2	34	3	52
	17.3	7.7	3.8	65.4	5.8	100.0
예술학부	10	7	15	83	1	116
	8.6	6.0	12.9	71.6	0.9	100.0
인문사회과학부	17	5	40	204	0	266
	6.4	1.9	15.0	76.7	0.0	100.0
간호복지학부	1	3	4	29	0	37
	2.7	8.1	10.8	78.4	0.0	100.0
전체	39	21	68	398	4	530
	7.4	4.0	12.8	75.1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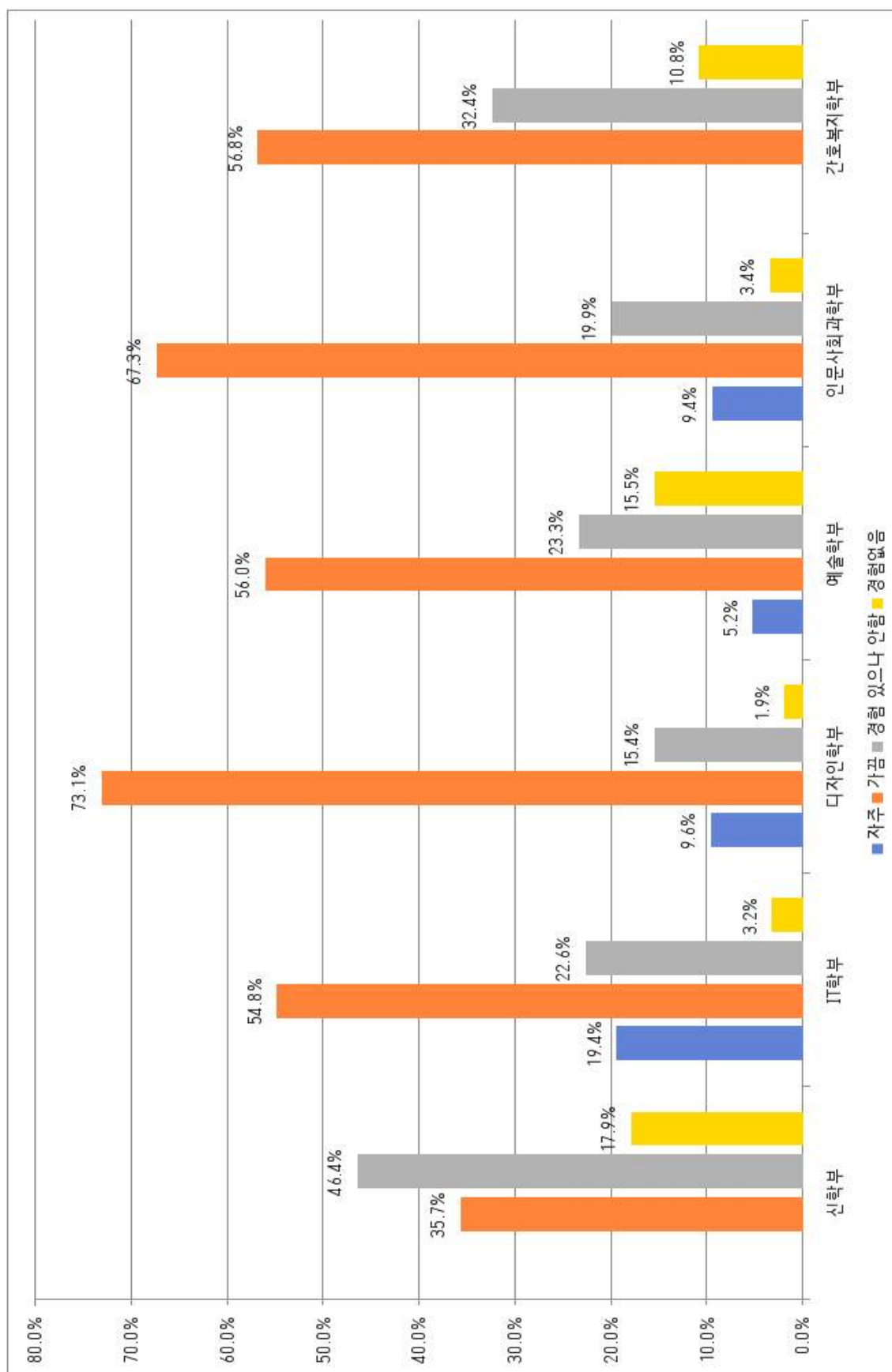
8) 음주

신입생들의 음주 경험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의 92.8%가 음주의 경험(자주, 가끔,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안함)이 있으며, 전체의 70.2%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가 82.7%, 인문사회과학부 76.7%, IT학부 74.2%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의 경우 경험 없음이 17.9%,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46.4%로 다른 학부에 비해 음주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음주를 하는 비율(자주, 가끔)이 남학생 70.9%, 여학생 69.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남학생 70.3%, 여학생 68.9%의 비율보다 다소 높아져 음주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8> 음주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있으나 지금안함	경험없음	전체
남	15	107	37	13	172
	8.7	62.2	21.5	7.6	100.0
여	26	223	83	25	357
	7.3	62.5	23.2	7.0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0	10	13	5	28
	0.0	35.7	46.4	17.9	100.0
IT학부	6	17	7	1	31
	19.4	54.8	22.6	3.2	100.0
디자인학부	5	38	8	1	52
	9.6	73.1	15.4	1.9	100.0
예술학부	6	65	27	18	116
	5.2	56.0	23.3	15.5	100.0
인문사회과학부	25	179	53	9	266
	9.4	67.3	19.9	3.4	100.0
간호복지학부	0	21	12	4	37
	0.0	56.8	32.4	10.8	100.0
전체	42	330	120	38	530
	7.9	62.3	22.6	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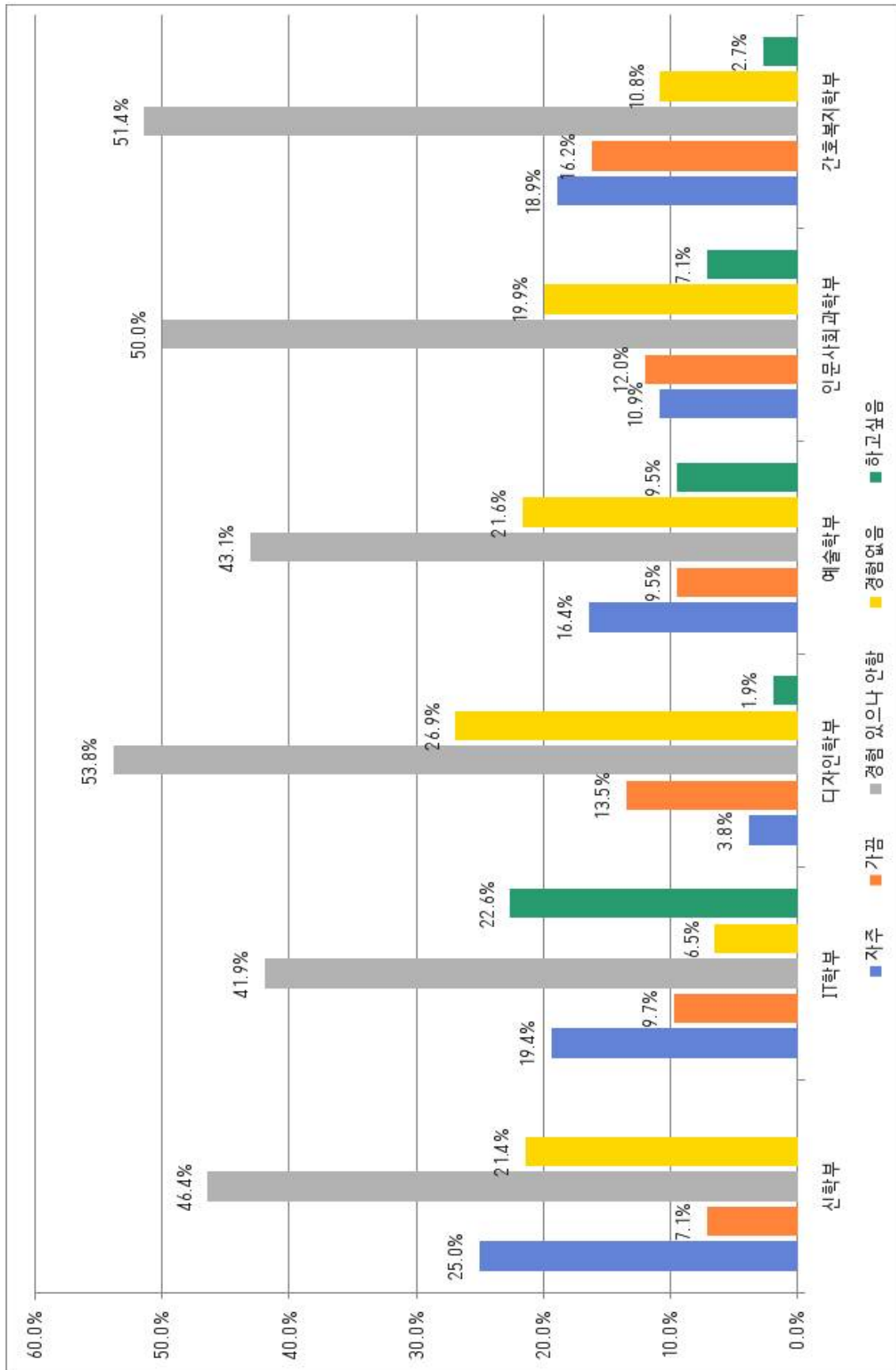
9) 연애

신입생들의 연애크험정도를 살펴보면, 연애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험 없음 19.6%, 자주 13.2%, 가끔 11.5%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 53.8%, 간호복지학부 51.4%, 인문사회과학부 50.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 49.6%, 남학생 45.9%로 나타났다.

<표 9> 이성교제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있으나 지금안함	경험없음	하고싶음	전체
남	22	20	79	35	16	172
	12.8	11.6	45.9	20.3	9.3	100.0
여	47	41	177	69	23	357
	13.2	11.5	49.6	19.3	6.4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7	2	13	6	0	28
	25.0	7.1	46.4	21.4	0.0	100.0
IT학부	6	3	13	2	7	31
	19.4	9.7	41.9	6.5	22.6	100.0
디자인학부	2	7	28	14	1	52
	3.8	13.5	53.8	26.9	1.9	100.0
예술학부	19	11	50	25	11	116
	16.4	9.5	43.1	21.6	9.5	100.0
인문사회과학부	29	32	133	53	19	266
	10.9	12.0	50.0	19.9	7.1	100.0
간호복지학부	7	6	19	4	1	37
	18.9	16.2	51.4	10.8	2.7	100.0
전체	70	61	256	104	39	530
	13.2	11.5	48.3	19.6	7.4	100.0



2. 가정생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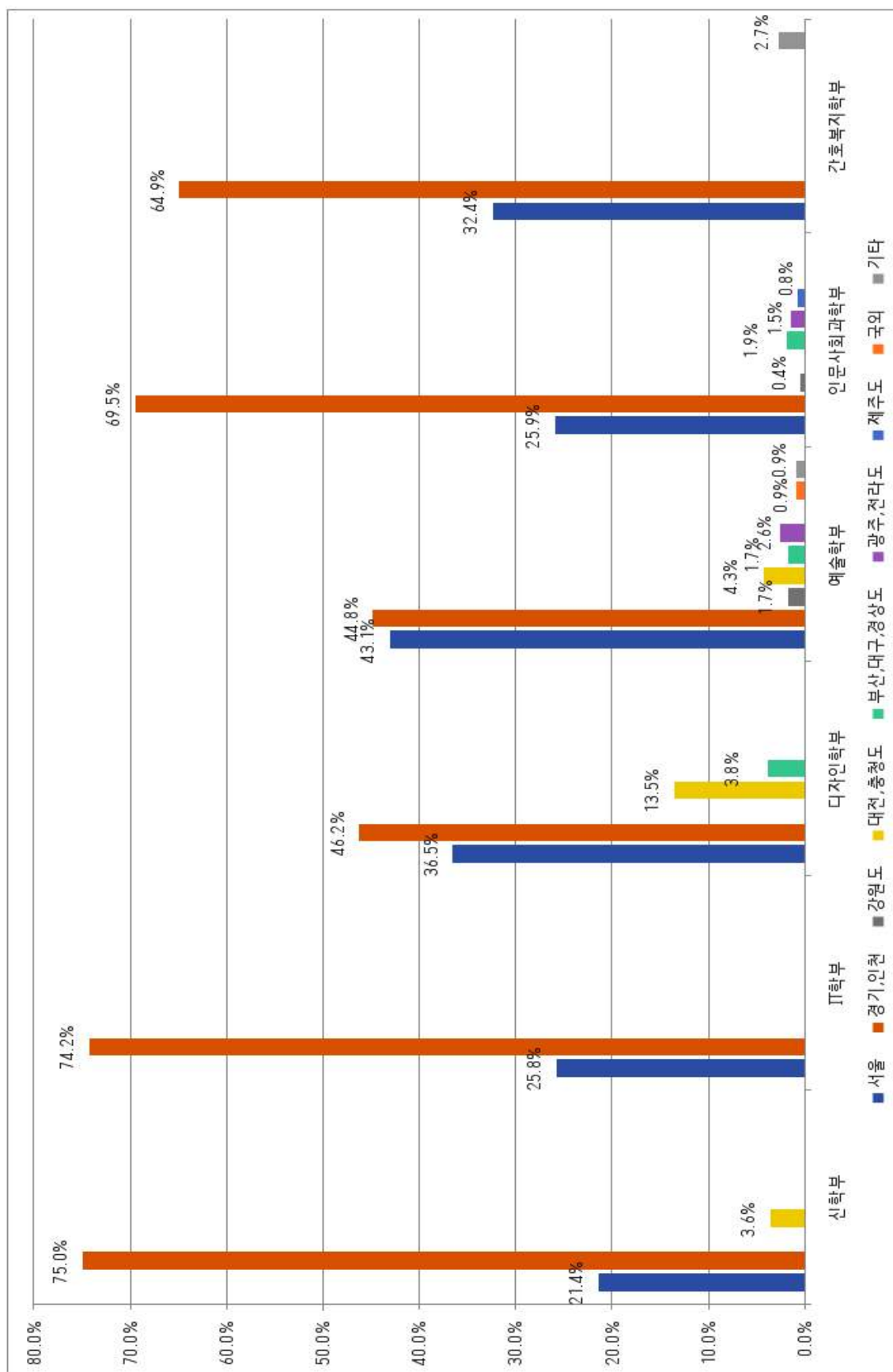
1) 출신고교 소재지

신입생들이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 인천지역이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 30.9%, 대전, 충청 2.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경기, 인천출신이 신학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IT학부 74.2%, 인문사회과학 69.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출신은 예술학부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디자인학부 36.5%, 간호학부 3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64.1%, 남학생의 57.6%가 경기, 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답하였다.

<표 10> 출신 고교 소재지

단위: 명, %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대전, 충청도	부산, 대구, 경상도	광주, 전라도	제주도	국외	기타	전체
남	58	99	0	8	2	4	0	1	0	172
	33.7	57.6	0.0	4.7	1.2	2.3	0.0	0.6	0.0	100.0
여	106	229	3	5	7	3	2	0	2	357
	29.7	64.1	0.8	1.4	2.0	0.8	0.6	0.0	0.6	100.0
기타	0	1	0	0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6	21	0	1	0	0	0	0	0	28
	21.4	75.0	0.0	3.6	0.0	0.0	0.0	0.0	0.0	100.0
IT학부	8	23	0	0	0	0	0	0	0	31
	25.8	74.2	0.0	0.0	0.0	0.0	0.0	0.0	0.0	100.0
디자인 학부	19	24	0	7	2	0	0	0	0	52
	36.5	46.2	0.0	13.5	3.8	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50	52	2	5	2	3	0	1	1	116
	43.1	44.8	1.7	4.3	1.7	2.6	0.0	0.9	0.9	100.0
인문사회 과학부	69	185	1	0	5	4	2	0	0	266
	25.9	69.5	0.4	0.0	1.9	1.5	0.8	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12	24	0	0	0	0	0	0	1	37
	32.4	64.9	0.0	0.0	0.0	0.0	0.0	0.0	2.7	100.0
전체	164	329	3	13	9	7	2	1	2	530
	30.9	62.1	0.6	2.5	1.7	1.3	0.4	0.2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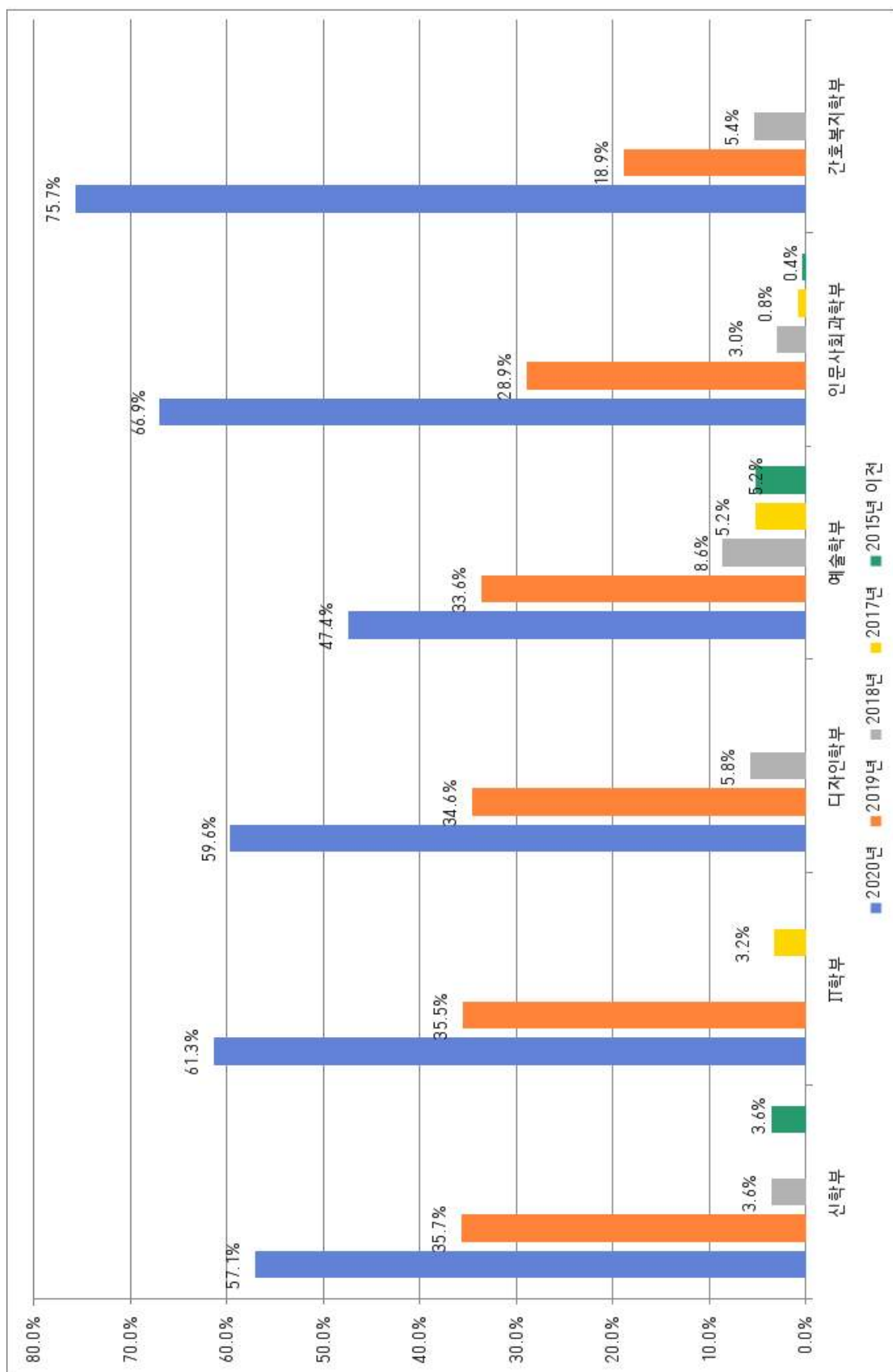
2)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신입생들의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는 2020년도가 61.7%로 가장 많았고, 2019년 30.6%, 2018년 4.5% 순이었다. 고교졸업이 2020년도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 75.7%, 인문사회과학부 66.9%, IT학부 6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 65.8%, 남학생 53.5%로 나타났다.

<표 11>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단위: 명, %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이전	전체
남	92	65	6	2	7	172
	53.5	37.8	3.5	1.2	4.1	100.0
여	235	97	17	7	1	357
	65.8	27.2	4.8	2.0	0.3	100.0
기타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16	10	1	0	1	28
	57.1	35.7	3.6	0.0	3.6	100.0
IT학부	19	11	0	1	0	31
	61.3	35.5	0.0	3.2	0.0	100.0
디자인학부	31	18	3	0	0	52
	59.6	34.6	5.8	0.0	0.0	100.0
예술학부	55	39	10	6	6	116
	47.4	33.6	8.6	5.2	5.2	100.0
인문사회과학부	178	77	8	2	1	266
	66.9	28.9	3.0	0.8	0.4	100.0
간호복지학부	28	7	2	0	0	37
	75.7	18.9	5.4	0.0	0.0	100.0
전체	327	162	24	9	8	530
	61.7	30.6	4.5	1.7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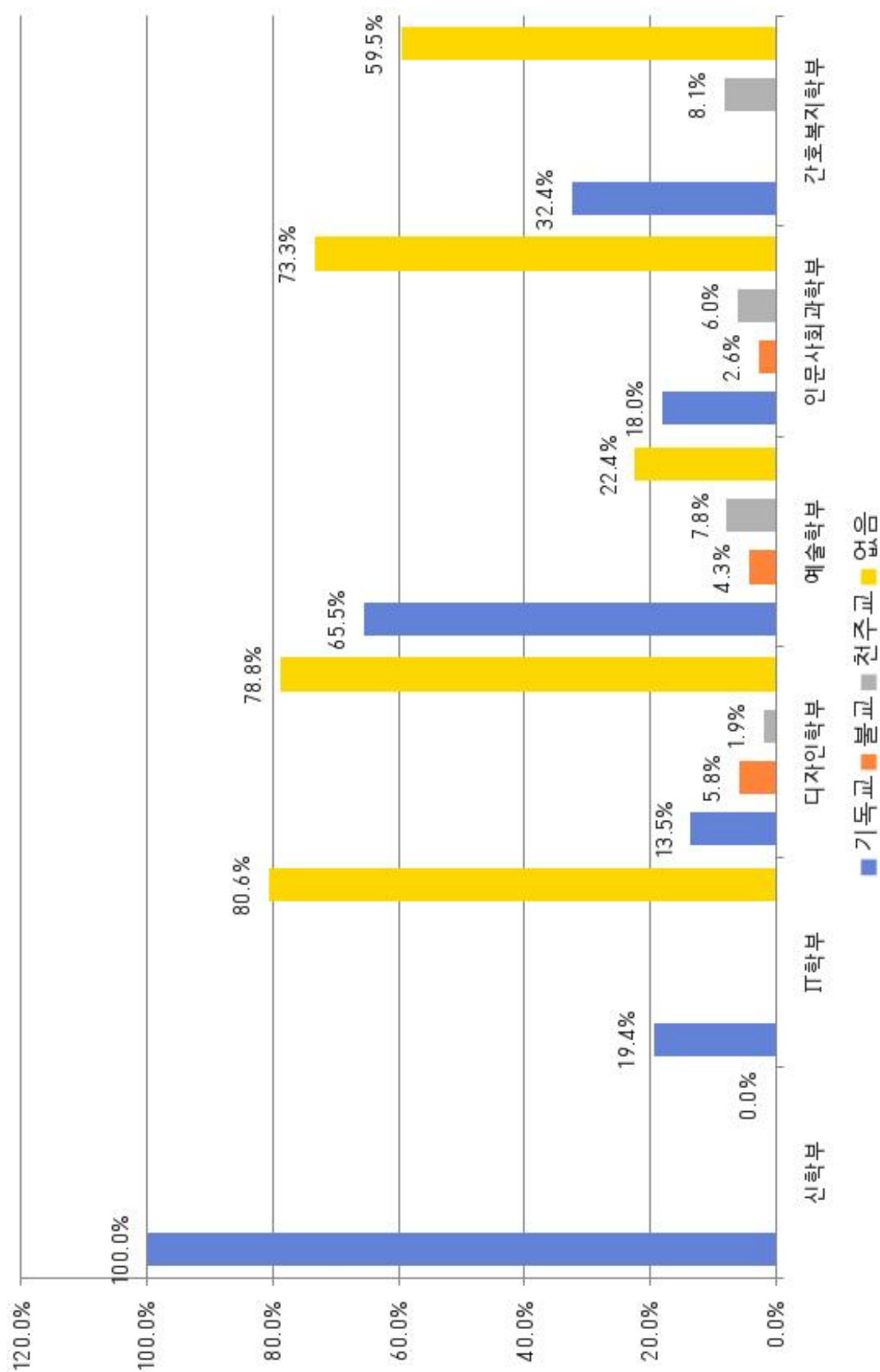
3) 본인의 종교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 33.4%, 천주교 5.5%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는 기독교 100%, 예술학부도 65.5%가 기독교라고 답하였지만 그 외의 학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종교없음 53.5%, 기독교 40.7% 천주교 3.5%, 여학생은 종교없음 60.8%, 기독교 30.0% 천주교 6.2%로 나타나 남녀 모두 종교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2> 본인의 종교

단위: 명,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없음	전체
남	70	4	6	92	172
	40.7	2.3	3.5	53.5	100.0
여	107	11	22	217	357
	30.0	3.1	6.2	60.8	100.0
기타	0	0	1	0	1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28	0	0	0	28
	100.0	0.0	0.0	0.0	100.0
IT학부	6	0	0	25	31
	19.4	0.0	0.0	80.6	100.0
디자인학부	7	3	1	41	52
	13.5	5.8	1.9	78.8	100.0
예술학부	76	5	9	26	116
	65.5	4.3	7.8	22.4	100.0
인문사회과학부	48	7	16	195	266
	18.0	2.6	6.0	73.3	100.0
간호복지학부	12	0	3	22	37
	32.4	0.0	8.1	59.5	100.0
전체	177	15	29	309	530
	33.4	2.8	5.5	5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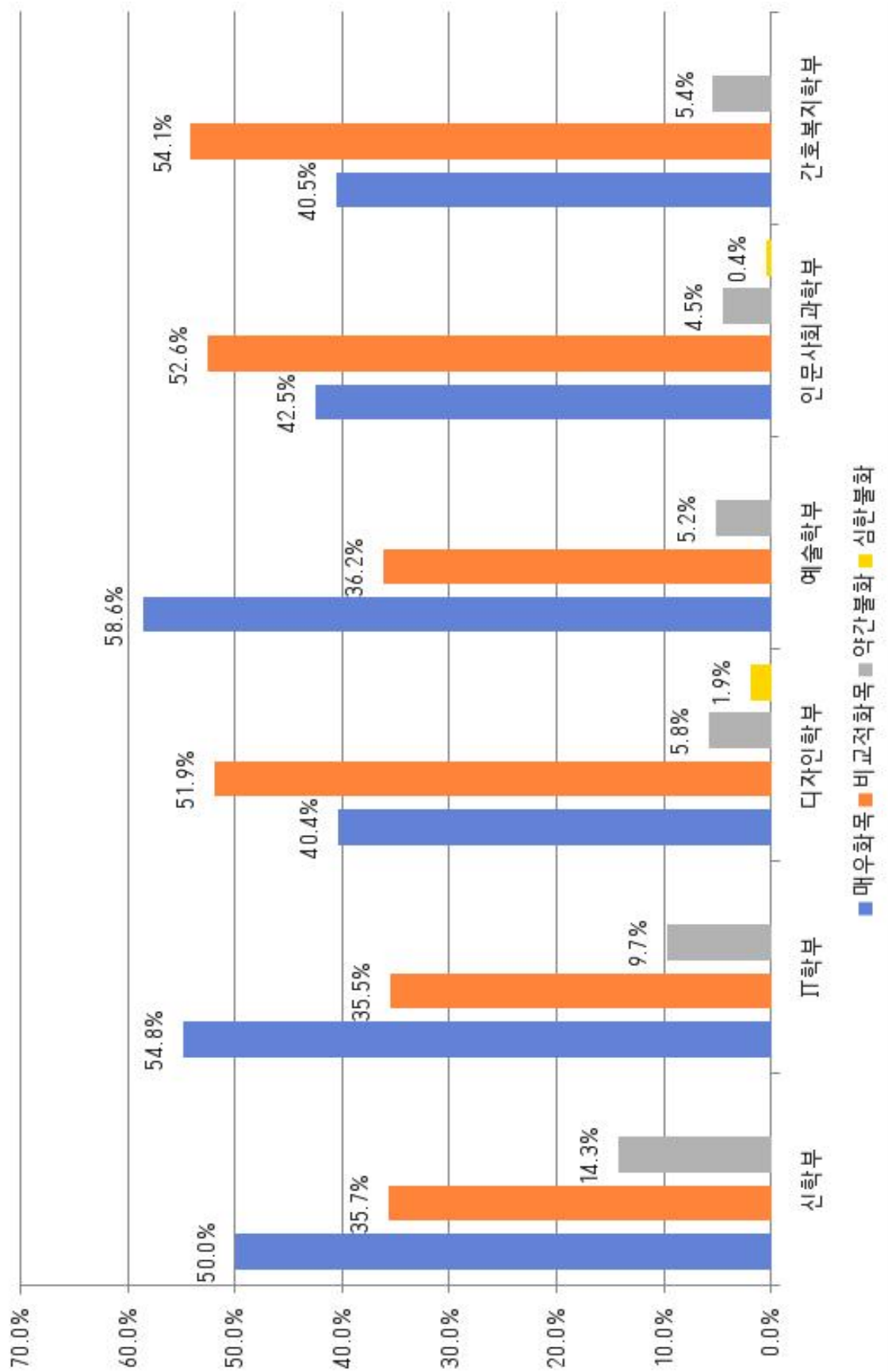
4) 가정의 분위기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교적 화목하다 47.2%, 매우 화목하다 46.8%로 응답했다. 학부별로 화목하다(매우 화목, 비교적 화목)는 응답을 보면 인문사회과학부 95.1%, 예술학부94.8%, 간호복지학부 94.6% 순으로 답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95.4%, 여학생 93.2%로 확인되었다.

<표 13> 가정의 분위기

단위: 명, %

	매우화목	비교적화목	약간불화	심한불화	전체
남	83	81	6	2	172
	48.3	47.1	3.5	1.2	100.0
여	164	169	24	0	357
	45.9	47.3	6.7	0.0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4	10	4	0	28
	50.0	35.7	14.3	0.0	100.0
IT학부	17	11	3	0	31
	54.8	35.5	9.7	0.0	100.0
디자인학부	21	27	3	1	52
	40.4	51.9	5.8	1.9	100.0
예술학부	68	42	6	0	116
	58.6	36.2	5.2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13	140	12	1	266
	42.5	52.6	4.5	0.4	100.0
간호복지학부	15	20	2	0	37
	40.5	54.1	5.4	0.0	100.0
전체	248	250	30	2	530
	46.8	47.2	5.7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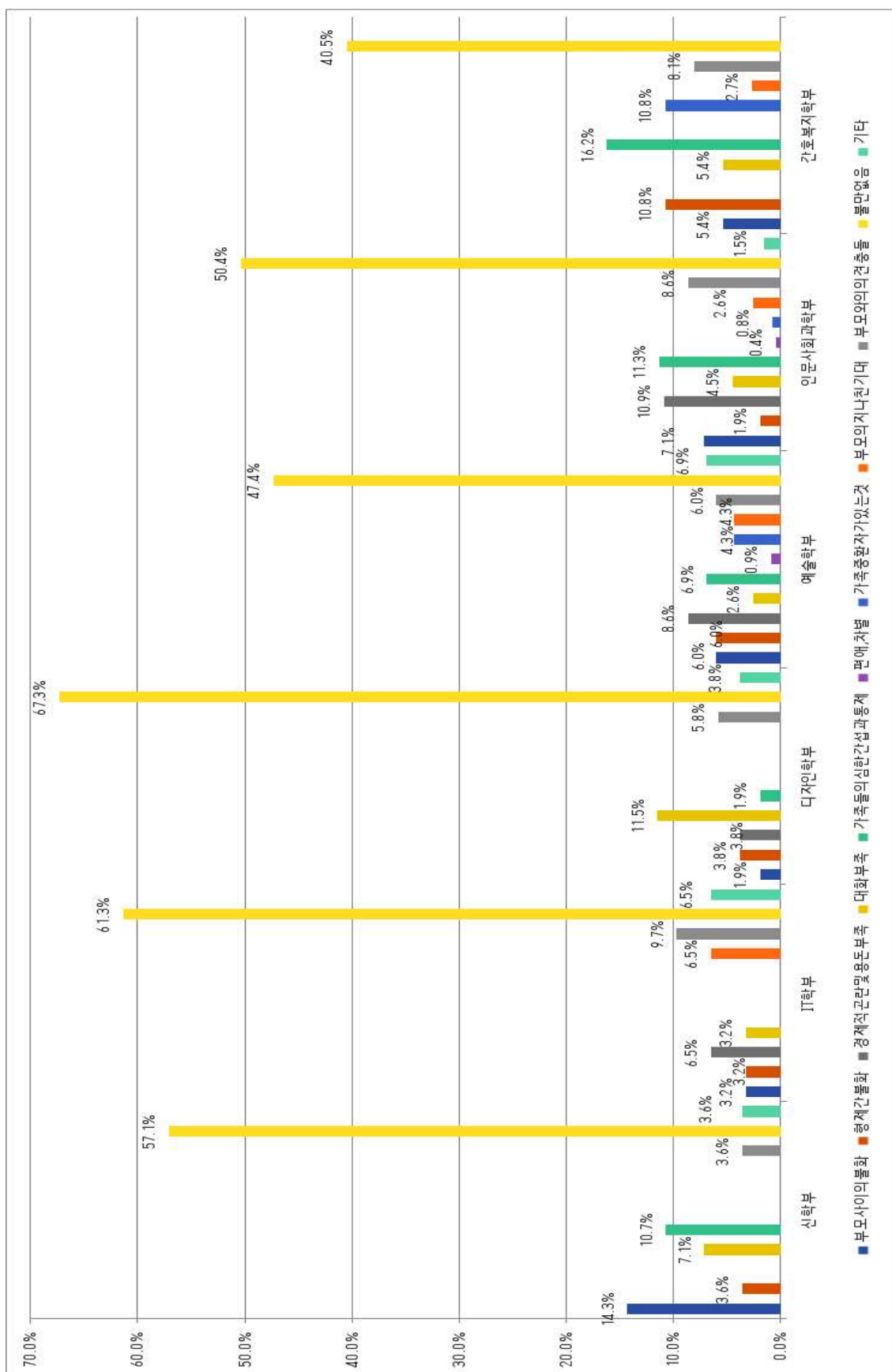
5)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신입생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9.1%,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불만 없음 비율을 살펴보면 디자인학부 67.3%, IT학부 6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복지학부가 4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53.5%, 여학생 51.0%로 가정에 대해 불만 없음으로 응답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가 9.5%로, 여학생의 경우 경제적 곤란 및 용돈부족 및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가 9.5%로 나타났다.

<표 14>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단위: 명, %

	부모 사이의 불화	형제간 불화	경제적 곤란및 용돈 부족	대화 부족	가족 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편애, 차별	가족중 환자가 있는것	부모의 지나친 기대	부모와 의의견 충돌	불만 없음	기타	전체
남	5	13	9	12	13	0	4	4	12	92	8	172
	2.9	7.6	5.2	7.0	7.6	0.0	2.3	2.3	7.0	53.5	4.7	100.0
여	29	7	34	14	34	2	7	11	28	182	9	357
	8.1	2.0	9.5	3.9	9.5	0.6	2.0	3.1	7.8	51.0	2.5	100.0
기타	0	0	0	0	1	0	0	0	0	0	0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	1	0	2	3	0	0	0	1	16	1	28
	14.3	3.6	0.0	7.1	10.7	0.0	0.0	0.0	3.6	57.1	3.6	100.0
IT학부	1	1	2	1	0	0	0	2	3	19	2	31
	3.2	3.2	6.5	3.2	0.0	0.0	0.0	6.5	9.7	61.3	6.5	100.0
디자인 학부	1	2	2	6	1	0	0	0	3	35	2	52
	1.9	3.8	3.8	11.5	1.9	0.0	0.0	0.0	5.8	67.3	3.8	100.0
예술학 부	7	7	10	3	8	1	5	5	7	55	8	116
	6.0	6.0	8.6	2.6	6.9	0.9	4.3	4.3	6.0	47.4	6.9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19	5	29	12	30	1	2	7	23	134	4	266
	7.1	1.9	10.9	4.5	11.3	0.4	0.8	2.6	8.6	50.4	1.5	100.0
간호 복지 학부	2	4	0	2	6	0	4	1	3	15	0	37
	5.4	10.8	0.0	5.4	16.2	0.0	10.8	2.7	8.1	40.5	0.0	100.0
전체	34	20	43	26	48	2	11	15	40	274	17	530
	6.4	3.8	8.1	4.9	9.1	0.4	2.1	2.8	7.5	51.7	3.2	100.0



3. 기타 생활

1) 재수경험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수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25.3%로 전년도 25.5%와 비슷했다.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 86.5%, 신학부 85.7%, 인문사회과학부 76.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59.9%, 여학생 75.9%가 재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15> 재수 경험

단위: 명, %

	없음	재수	삼수	사수이상	전체
남	103	60	6	3	172
	59.9	34.9	3.5	1.7	100.0
여	271	74	10	2	357
	75.9	20.7	2.8	0.6	100.0
기타	0	0	1	0	1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24	3	1	0	28
	85.7	10.7	3.6	0.0	100.0
IT학부	23	8	0	0	31
	74.2	25.8	0.0	0.0	100.0
디자인학부	32	19	1	0	52
	61.5	36.5	1.9	0.0	100.0
예술학부	59	43	10	4	116
	50.9	37.1	8.6	3.4	100.0
인문사회과학부	204	57	4	1	266
	76.7	21.4	1.5	0.4	100.0
간호복지학부	32	4	1	0	37
	86.5	10.8	2.7	0.0	100.0
전체	374	134	17	5	530
	70.6	25.3	3.2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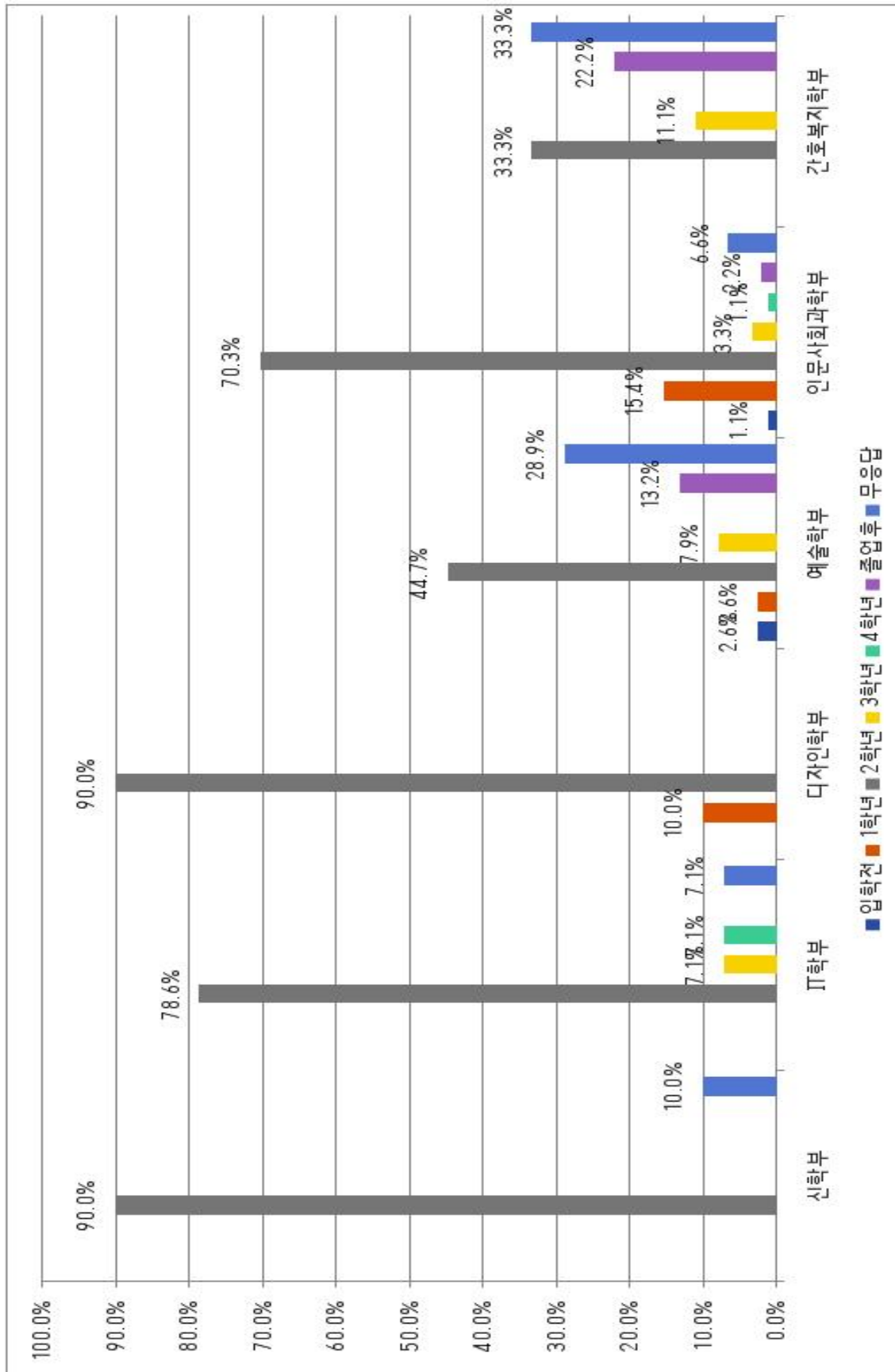
2) 군 입대 예정시기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하여는 남학생 172명이 응답했으며, 그중 22명은 무응답으로 군대를 이미 다녀왔거나 면제로 보여진다. 또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학생이 65.7%로 가장 높에 나타났다.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과와 신학부로 90.0%, IT학부 78.6% 인문사회과학부 70.3%로 나타났다.

<표 16> 군입대 예정시기

단위: 명, %

	입학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후	무응답	전체
남	2	16	113	8	2	9	22	172
	1.2	9.3	65.7	4.7	1.2	5.2	12.8	100.0
신학부	0	0	9	0	0	0	1	10
	0.0	0.0	90.0	0.0	0.0	0.0	10.0	100.0
IT학부	0	0	11	1	1	0	1	14
	0.0	0.0	78.6	7.1	7.1	0.0	7.1	100.0
디자인 학부	0	1	9	0	0	0	0	10
	0.0	10.0	90.0	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1	1	17	3	0	5	11	38
	2.6	2.6	44.7	7.9	0.0	13.2	28.9	100.0
인문사회과학부	1	14	64	3	1	2	6	91
	1.1	15.4	70.3	3.3	1.1	2.2	6.6	100.0
간호복지학부	0	0	3	1	0	2	3	9
	0.0	0.0	33.3	11.1	0.0	22.2	33.3	100.0
전체	2	16	113	8	2	9	22	172
	1.2	9.3	65.7	4.7	1.2	5.2	12.8	100.0



4. 대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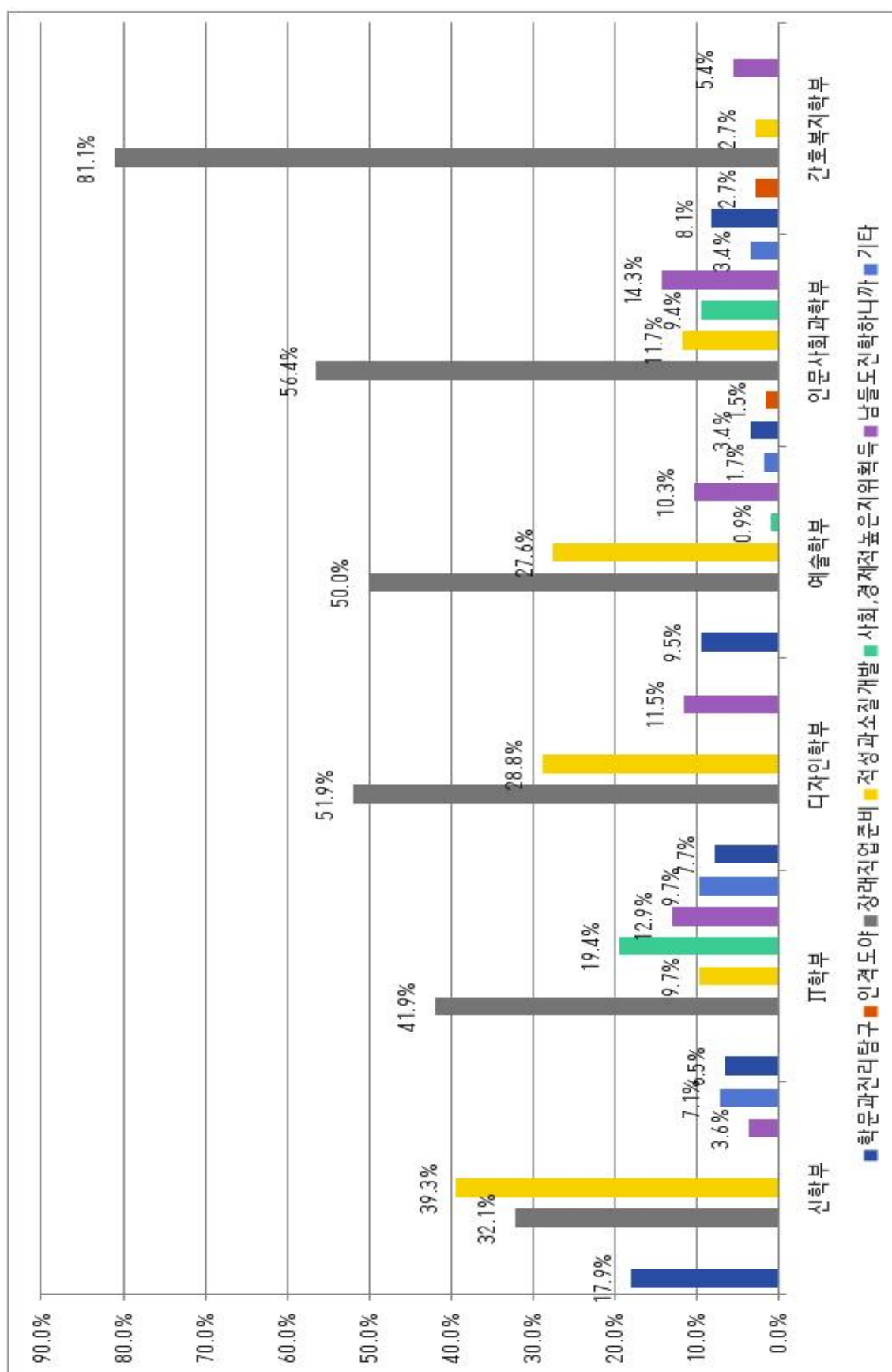
1) 대학 진학 동기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4.2%가 장래직업준비라고 답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적성과 소질개발(17.5%), 남들도 진학 하니까(11.9%)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장래직업을 위해 진학했다는 응답에 간호복지학부 81.1%, 인문사회과학부 56.4%, 디자인학부 51.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여학생 56.3%, 남학생 50.0% 모두 장래 직업준비를 위해 진학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 대학 진학 동기

단위: 명, %

	학문과 진리탐구	인격도야	장래직업 준비	적성과 소질개발	사회, 경제적 높은지위 획득	남들도 진학 하니까	기타	전체
남	18	1	86	31	9	18	9	172
	10.5	0.6	50.0	18.0	5.2	10.5	5.2	100.0
여	16	4	201	61	23	45	7	357
	4.5	1.1	56.3	17.1	6.4	12.6	2.0	100.0
기타	0	0	0	1	0	0	0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5	0	9	11	0	1	2	28
	17.9	0.0	32.1	39.3	0.0	3.6	7.1	100.0
IT학부	2	0	13	3	6	4	3	31
	6.5	0.0	41.9	9.7	19.4	12.9	9.7	100.0
디자인 학부	4	0	27	15	0	6	0	52
	7.7	0.0	51.9	28.8	0.0	11.5	0.0	100.0
예술학부	11	0	58	32	1	12	2	116
	9.5	0.0	50.0	27.6	0.9	10.3	1.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9	4	150	31	25	38	9	266
	3.4	1.5	56.4	11.7	9.4	14.3	3.4	100.0
간호복지 학부	3	1	30	1	0	2	0	37
	8.1	2.7	81.1	2.7	0.0	5.4	0.0	100.0
전체	34	5	287	93	32	63	16	530
	6.4	0.9	54.2	17.5	6.0	11.9	3.0	100.0



2)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사전에 알고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84.2%가 기독교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학부는 신학부(10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학부(90.5%), 인문사회과학부(83.5%), 간호복지학부(8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82.0%, 여학생 85.2%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41	31	172
	82.0	18.0	100.0
여	304	53	357
	85.2	14.8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28	0	28
	100.0	0.0	100.0
IT학부	23	8	31
	74.2	25.8	100.0
디자인학부	38	14	52
	73.1	26.9	100.0
예술학부	105	11	116
	90.5	9.5	100.0
인문사회과학부	222	44	266
	83.5	16.5	100.0
간호복지학부	30	7	37
	81.1	18.9	100.0
전체	446	84	530
	84.2	1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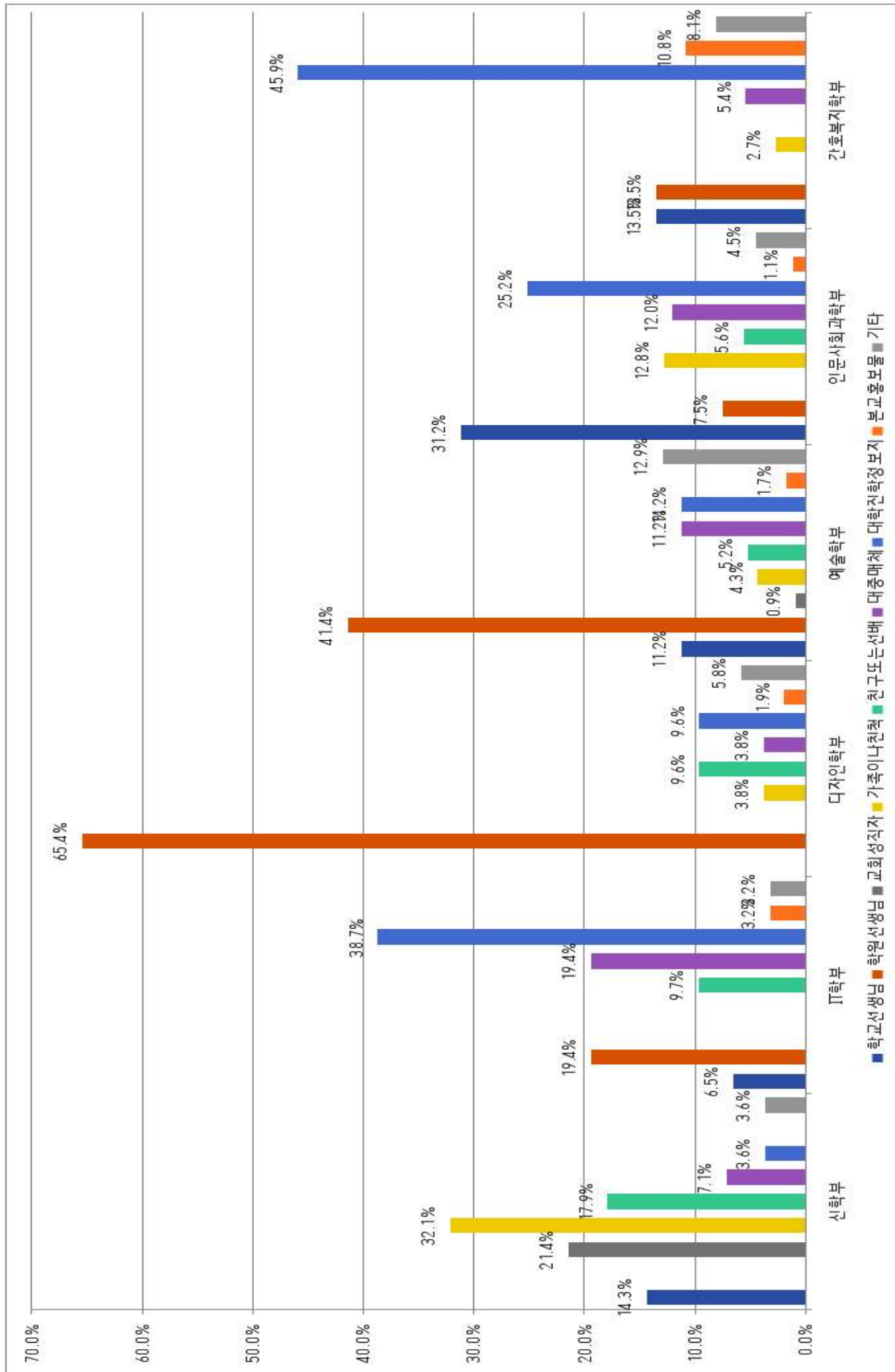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1.7%가 대학진학정보지, 21.3%가 학원선생님, 20.2%가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는 가족이나 친척(32.1%), 교회성직자(21.4%)가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65.4%)와 예술학부(41.4%)는 학원 선생님이 나타났다. 간호복지학부(45.9%)와 IT학부(38.7%)는 대학진학정보지, 인문사회과학부는 학교선생님(31.2%)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24.4%가 대학진학정보지로 여학생 21.6%가 학원선생님을 통해 본교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표 19>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성직자	가족 이나 친척	친구 또는 선배	대중 매체	대학 진학 정보지	본교 홍보물	기타	전체
남	32	36	0	13	13	20	42	3	13	172
	18.6	20.9	0.0	7.6	7.6	11.6	24.4	1.7	7.6	100.0
여	75	77	7	38	21	36	73	8	22	357
	21.0	21.6	2.0	10.6	5.9	10.1	20.4	2.2	6.2	100.0
기타	0	0	0	0	0	1	0	0	0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4	0	6	9	5	2	1	0	1	28
	14.3	0.0	21.4	32.1	17.9	7.1	3.6	0.0	3.6	100.0
IT학부	2	6	0	0	3	6	12	1	1	31
	6.5	19.4	0.0	0.0	9.7	19.4	38.7	3.2	3.2	100.0
디자인 학부	0	34	0	2	5	2	5	1	3	52
	0.0	65.4	0.0	3.8	9.6	3.8	9.6	1.9	5.8	100.0
예술학부	13	48	1	5	6	13	13	2	15	116
	11.2	41.4	0.9	4.3	5.2	11.2	11.2	1.7	12.9	100.0
인문사회 과학부	83	20	0	34	15	32	67	3	12	266
	31.2	7.5	0.0	12.8	5.6	12.0	25.2	1.1	4.5	100.0
간호복지 학부	5	5	0	1	0	2	17	4	3	37
	13.5	13.5	0.0	2.7	0.0	5.4	45.9	10.8	8.1	100.0
전체	107	113	7	51	34	57	115	11	35	530
	20.2	21.3	1.3	9.6	6.4	10.8	21.7	2.1	6.6	100.0



4) 학교의 만족도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신입생 64.7%가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전년도 75.7%보다 높은 폭으로 감소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신학부 85.7%, 예술학부 81.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IT학부 48.4%, 인문사회과학부 44.0%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68.6%, 여학생 62.7%가 본교입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학교의 만족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18	54	172
	68.6	31.4	100.0
여	224	133	357
	62.7	37.3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24	4	28
	85.7	14.3	100.0
IT학부	16	15	31
	51.6	48.4	100.0
디자인 학부	30	22	52
	57.7	42.3	100.0
예술학부	95	21	116
	81.9	18.1	100.0
인문사회과학부	149	117	266
	56.0	44.0	100.0
간호복지학부	29	8	37
	78.4	21.6	100.0
전체	343	187	530
	64.7	3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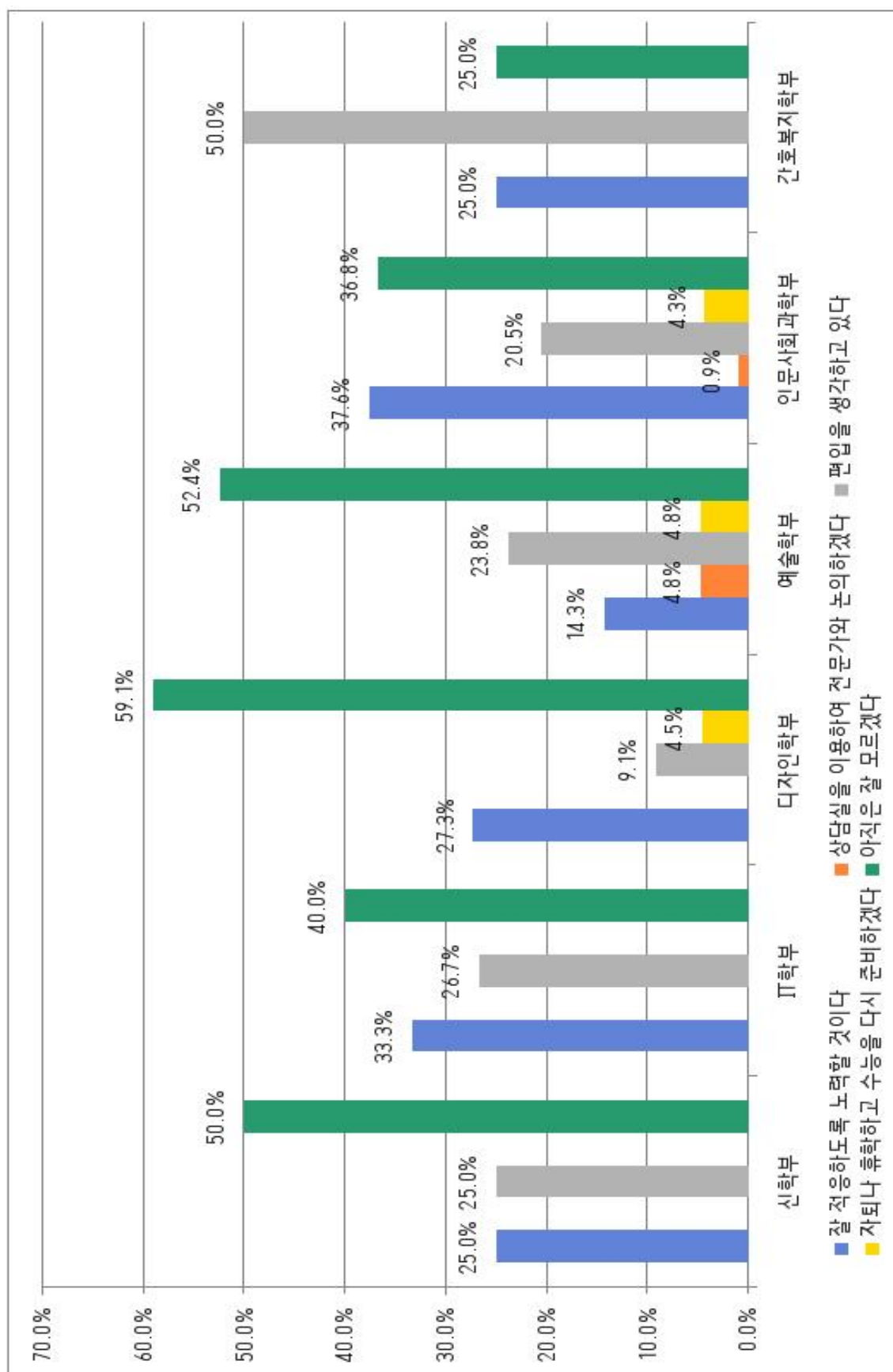
5)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4명 중,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41.2%),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6%)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21.4%),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 하겠다(3.7%)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59.1%), 예술학부(52.4%) 순으로 나타났고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사회과학부(37.6%)%, IT학부(33.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잘 적응하겠다는 남학생은 37.0%, 여학생은 30.8%로 나타났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남학생은 37.0%, 여학생은 42.9%로 나타났다.

<표 21>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단위: 명, %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담실을 이용하여 전문가와 논의하겠다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전체
남	20	2	10	2	20	54
	37.0	3.7	18.5	3.7	37.0	100.0
여	41	0	30	5	57	133
	30.8	0.0	22.6	3.8	42.9	100.0
신학부	1	0	1	0	2	4
	25.0	0.0	25.0	0.0	50.0	100.0
IT학부	5	0	4	0	6	15
	33.3	0.0	26.7	0.0	40.0	100.0
디자인 학부	6	0	2	1	13	22
	27.3	0.0	9.1	4.5	59.1	100.0
예술학부	3	1	5	1	11	21
	14.3	4.8	23.8	4.8	52.4	100.0
인문사회 과학부	44	1	24	5	43	117
	37.6	0.9	20.5	4.3	36.8	100.0
간호복지 학부	2	0	4	0	2	8
	25.0	0.0	50.0	0.0	25.0	100.0
전체	61	2	40	7	77	187
	32.6	1.1	21.4	3.7	4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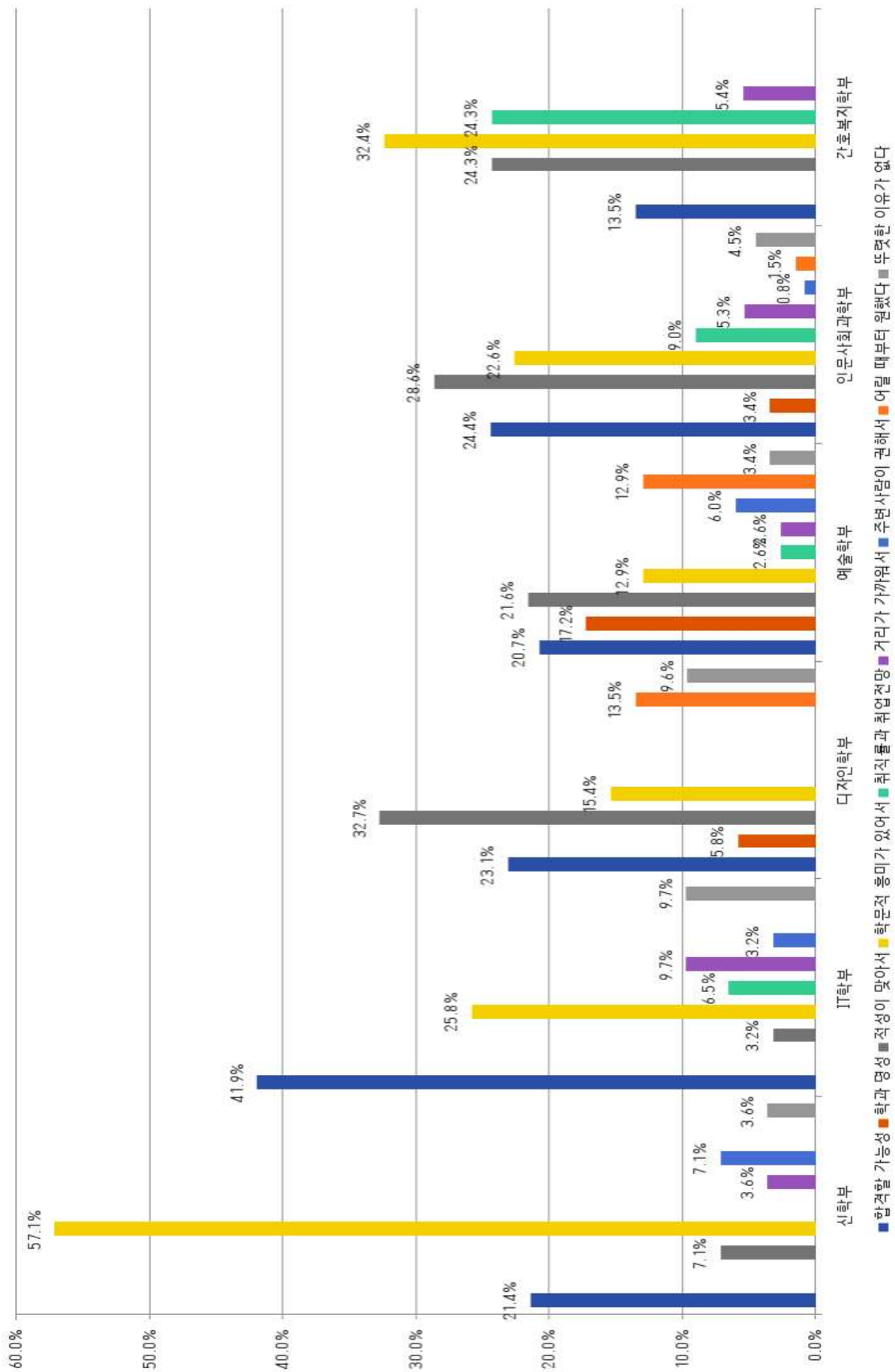
6) 학부 선택의 결정적 요인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성이 맞아서 24.0%, 합격할 가능성 23.6%,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22.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적성이 맞아서가 가장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32.7%), 인문사회과학부(28.6%), 간호복지학부(24.3%), 예술학부(21.6%)로 나타났고, IT학부는 합격할 가능성이 41.9%, 신학부는 학문적 흥미가 57.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합격할 가능성 (24.4%), 여학생은 적성이 맞아서(26.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학부 선택의 결정적 요인

단위: 명, %

	합격할 가능성	학과 명성	적성이 맞아서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취직을 과 취업 전망	거리가 가까 워서	주변 사람이 권해서	어릴 때 부터 원했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	전체
남	42	13	35	40	13	11	1	8	9	172
	24.4	7.6	20.3	23.3	7.6	6.4	0.6	4.7	5.2	100.0
여	83	19	95	79	25	12	11	17	16	357
	23.2	5.3	26.6	22.1	7.0	3.4	3.1	4.8	4.5	100.0
기타	0	0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6	0	2	16	0	1	2	0	1	28
	21.4	0.0	7.1	57.1	0.0	3.6	7.1	0.0	3.6	100.0
IT학부	13	0	1	8	2	3	1	0	3	31
	41.9	0.0	3.2	25.8	6.5	9.7	3.2	0.0	9.7	100.0
디자인 학부	12	3	17	8	0	0	0	7	5	52
	23.1	5.8	32.7	15.4	0.0	0.0	0.0	13.5	9.6	100.0
예술학부	24	20	25	15	3	3	7	15	4	116
	20.7	17.2	21.6	12.9	2.6	2.6	6.0	12.9	3.4	100.0
인문사회 과학부	65	9	76	60	24	14	2	4	12	266
	24.4	3.4	28.6	22.6	9.0	5.3	0.8	1.5	4.5	100.0
간호복지 학부	5	0	9	12	9	2	0	0	0	37
	13.5	0.0	24.3	32.4	24.3	5.4	0.0	0.0	0.0	100.0
전체	125	32	130	119	38	23	12	26	25	530
	23.6	6.0	24.0	22.5	7.2	4.3	2.3	4.9	4.7	100.0



7)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신입생들에게 지망학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충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대충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디자인학부 75.0%, 인문사회과학부 57.5%, 예술학부 56.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58.7%, 여학생의 59.4%가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에 대해 대충 안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단위: 명, %

	잘 안다	대충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남	26	101	40	5	172
	15.1	58.7	23.3	2.9	100.0
여	76	212	64	5	357
	21.3	59.4	17.9	1.4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1	15	2	0	28
	39.3	53.6	7.1	0.0	100.0
IT학부	1	19	11	0	31
	3.2	61.3	35.5	0.0	100.
디자인학부	6	39	7	0	52
	11.5	75.0	13.5	0.0	100.0
예술학부	32	66	16	2	116
	27.6	56.9	13.8	1.7	100.0
인문사회과학부	44	153	63	6	266
	16.5	57.5	23.7	2.3	100.0
간호복지학부	9	21	5	2	37
	24.3	56.8	13.5	5.4	100.0
전체	103	313	104	10	530
	19.4	59.1	19.6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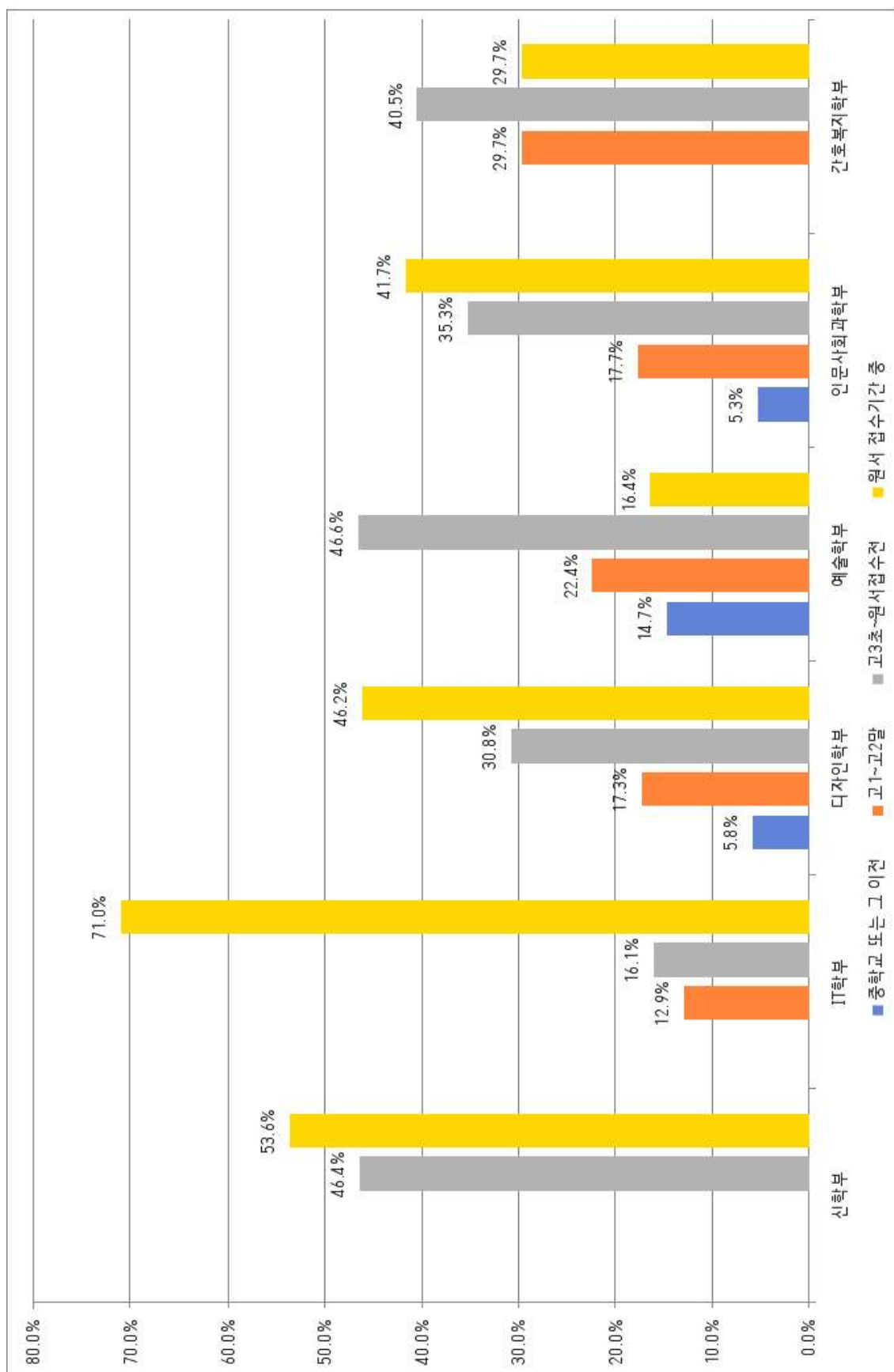
8) 학부의 결정시기

신입생들이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접수기간 중이 38.1%, 고3초~원서접수 전이 37.2%로 나타났다. 원서접수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 학부 71.0%, 신학부 53.6% 순으로 나타났고 고3초~원서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예술학부 46.6%, 신학부 46.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고3초~원서접수기간 중(고3초~원서접수 전, 원서접수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8.4%, 73.9%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학부의 결정시기

단위: 명, %

	중학교 또는 그 이전	고1~고2말	고3초~ 원서접수전	원서 접수기간 중	전체
남	7	30	62	73	172
	4.1	17.4	36.0	42.4	100.0
여	27	66	135	129	357
	7.6	18.5	37.8	36.1	100.0
기타	0	1	0	0	1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0	0	13	15	28
	0.0	0.0	46.4	53.6	100.0
IT학부	0	4	5	22	31
	0.0	12.9	16.1	71.0	100.0
디자인학부	3	9	16	24	52
	5.8	17.3	30.8	46.2	100.0
예술학부	17	26	54	19	116
	14.7	22.4	46.6	16.4	100.0
인문사회과학부	14	47	94	111	266
	5.3	17.7	35.3	41.7	100.0
간호복지학부	0	11	15	11	37
	0.0	29.7	40.5	29.7	100.0
전체	34	97	197	202	530
	6.4	18.3	37.2	3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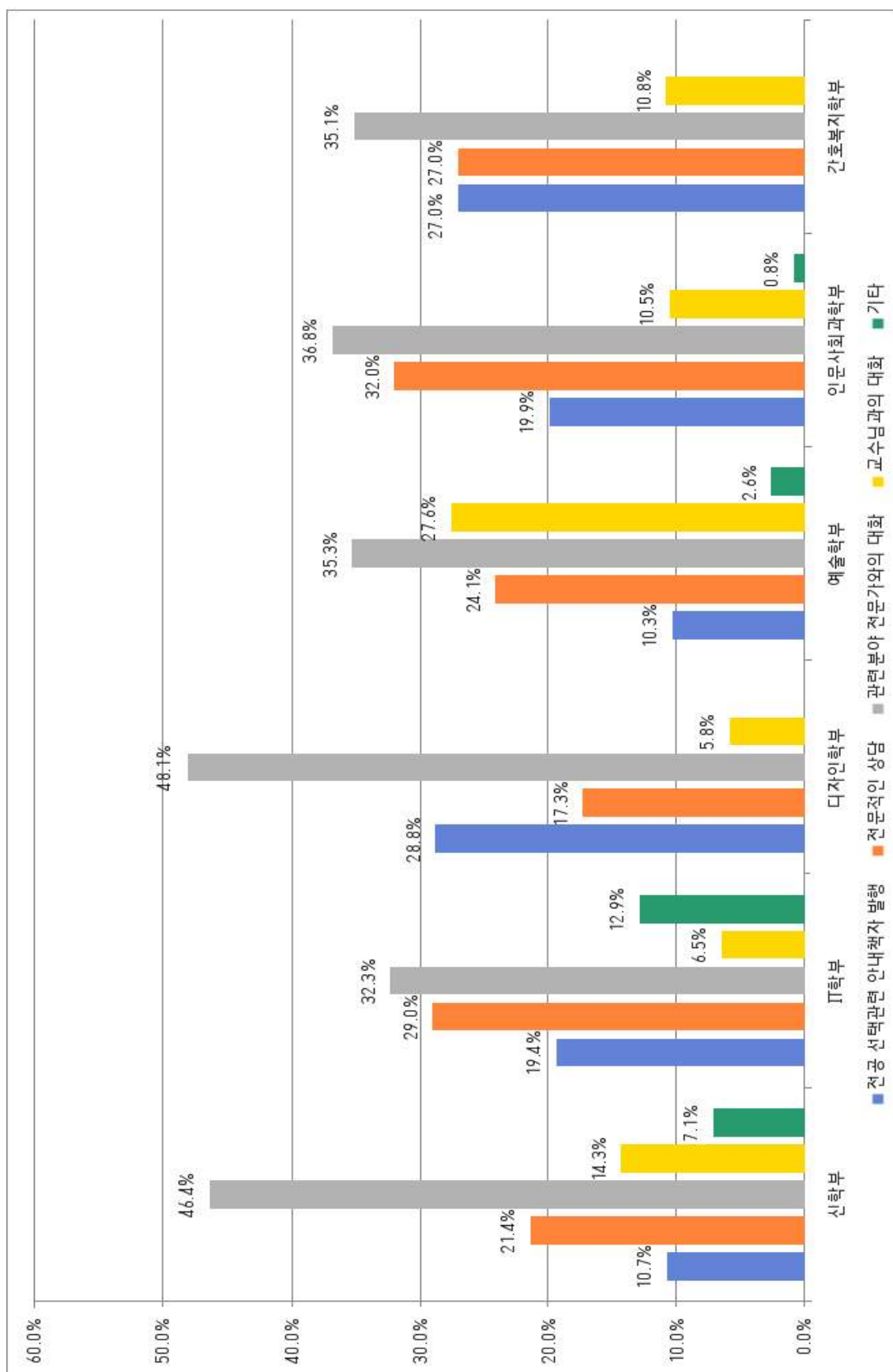


9) 2학년 진학 시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경우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37.7%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27.7%가 전문적인 상담 순으로 응답했다.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 48.1%, 신학부 46.4%, 인문사회과학부 36.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전문적인 상담(30.8%)를 가장 많이 요청하였고, 여학생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42.6%)를 선택하였다.

<표 25> 전공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단위: 명, %

	전공 선택관련 안내책자 발행	전문적인 상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기타	전체
남	35	53	47	32	5	172
	20.3	30.8	27.3	18.6	2.9	100.0
여	64	94	152	41	6	357
	17.9	26.3	42.6	11.5	1.7	100.0
기타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3	6	13	4	2	28
	10.7	21.4	46.4	14.3	7.1	100.0
IT학부	6	9	10	2	4	31
	19.4	29.0	32.3	6.5	12.9	100.0
디자인학부	15	9	25	3	0	52
	28.8	17.3	48.1	5.8	0.0	100.0
예술학부	12	28	41	32	3	116
	10.3	24.1	35.3	27.6	2.6	100.0
인문사회과학부	53	85	98	28	2	266
	19.9	32.0	36.8	10.5	0.8	100.0
간호복지학부	10	10	13	4	0	37
	27.0	27.0	35.1	10.8	0.0	100.0
전체	99	147	200	73	11	530
	18.7	27.7	37.7	13.8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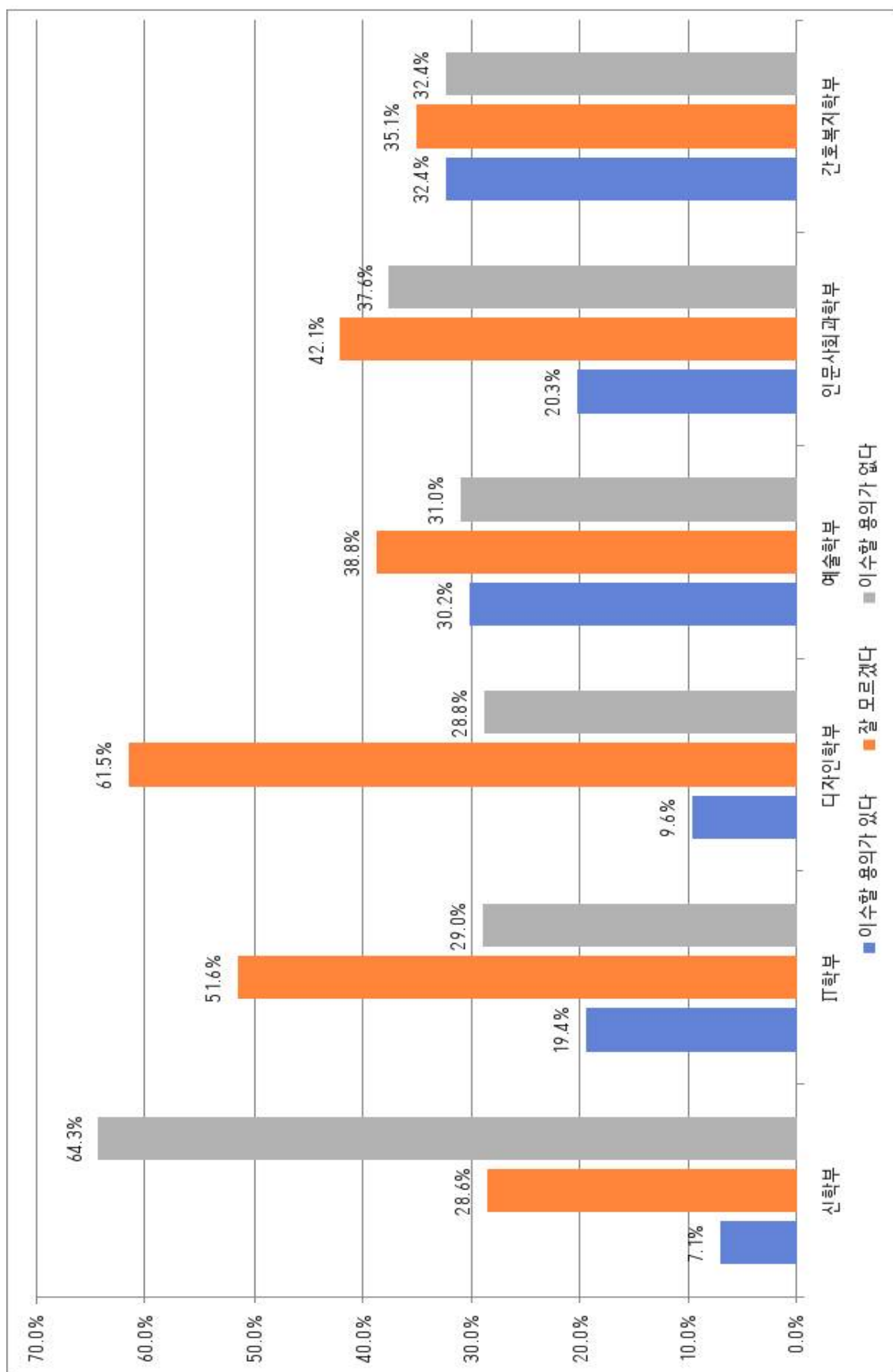
10) 복수전공(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의 이수 용의

신입생들이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6%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5.8%가 이수할 용의가 없다, 21.5%가 이수할 용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의 이수할 용의가 있다 32.9%와 이수할 용의가 없다 23.4%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61.5%), IT학부(51.6%), 인문사회과학부(42.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48.3%, 여학생 40.1%로 나타났다.

<표 26>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단위: 명, %

	이수할 용의가 있다	잘 모르겠다	이수할 용의가 없다	전체
남	38	83	51	172
	22.1	48.3	29.7	100.0
여	75	143	139	357
	21.0	40.1	38.9	100.0
기타	1	0	0	1
	100.0	0.0	0.0	100.0
신학부	2	8	18	28
	7.1	28.6	64.3	100.0
IT학부	6	16	9	31
	19.4	51.6	29.0	100.0
디자인학부	5	32	15	52
	9.6	61.5	28.8	100.0
예술학부	35	45	36	116
	30.2	38.8	31.0	100.0
인문사회과학부	54	112	100	266
	20.3	42.1	37.6	100.0
간호복지학부	12	13	12	37
	32.4	35.1	32.4	100.0
전체	114	226	190	530
	21.5	42.6	3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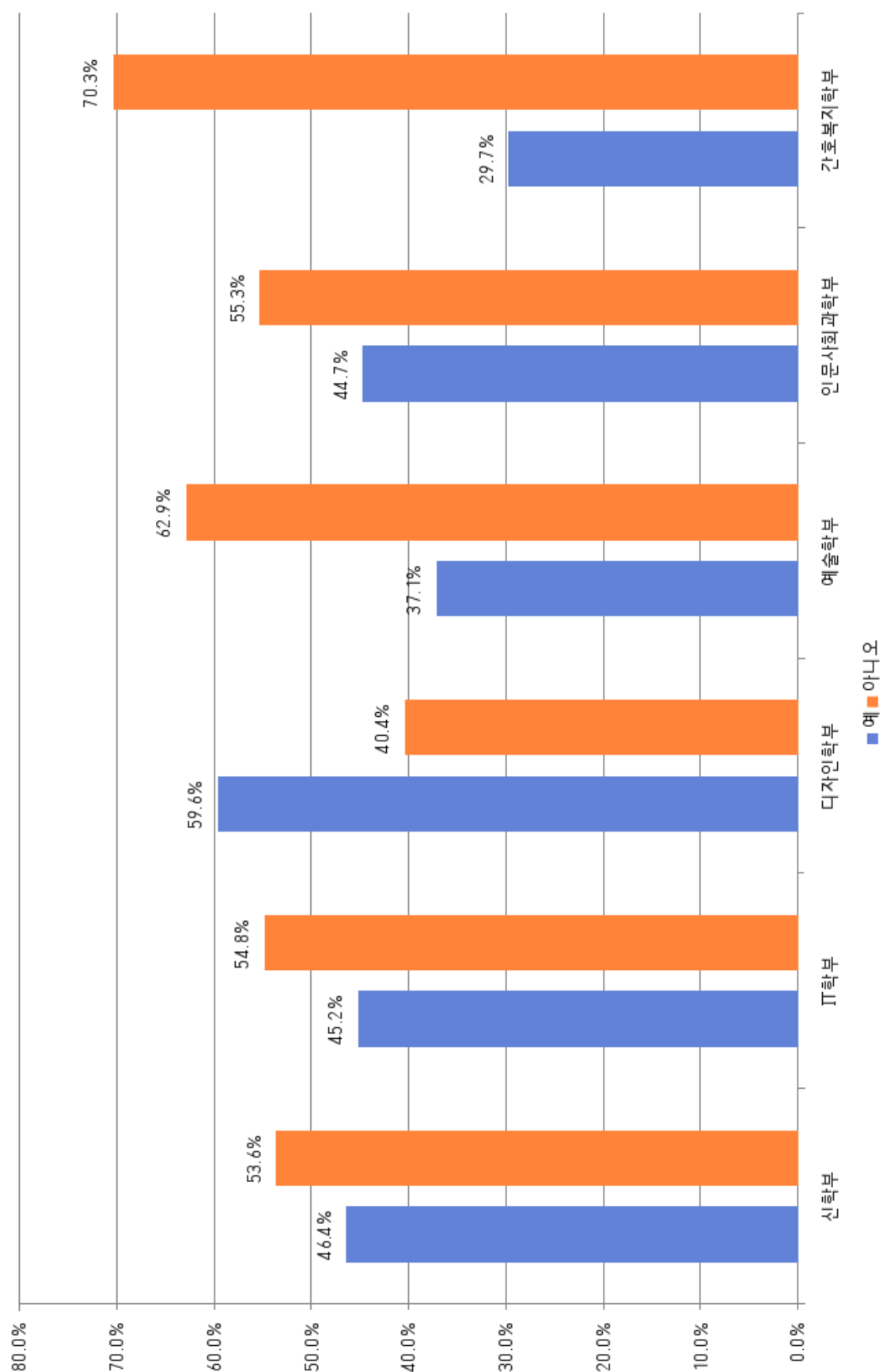
11)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43.6%,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56.4%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59.6%), 신학부(46.4%), IT학부(45.2) 순으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간호복지학부(70.3%), 예술학부(62.9%), 인문사회과학부(55.3%) 순으로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40.9% 여학생 45.2%로 전년도 남학생 55.1%, 여학생 62.5%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해외로의 출입이 어려워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여진다.

<표 27>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56	116	172
	32.6	67.4	100.0
여	175	182	357
	49.0	51.0	100.0
기타	0	1	1
	0.0	100.0	100.0
신학부	13	15	28
	46.4	53.6	100.0
IT학부	14	17	31
	45.2	54.8	100.0
디자인학부	31	21	52
	59.6	40.4	100.0
예술학부	43	73	116
	37.1	62.9	100.0
인문사회과학부	119	147	266
	44.7	55.3	100.0
간호복지학부	11	26	37
	29.7	70.3	100.0
전체	231	299	530
	43.6	5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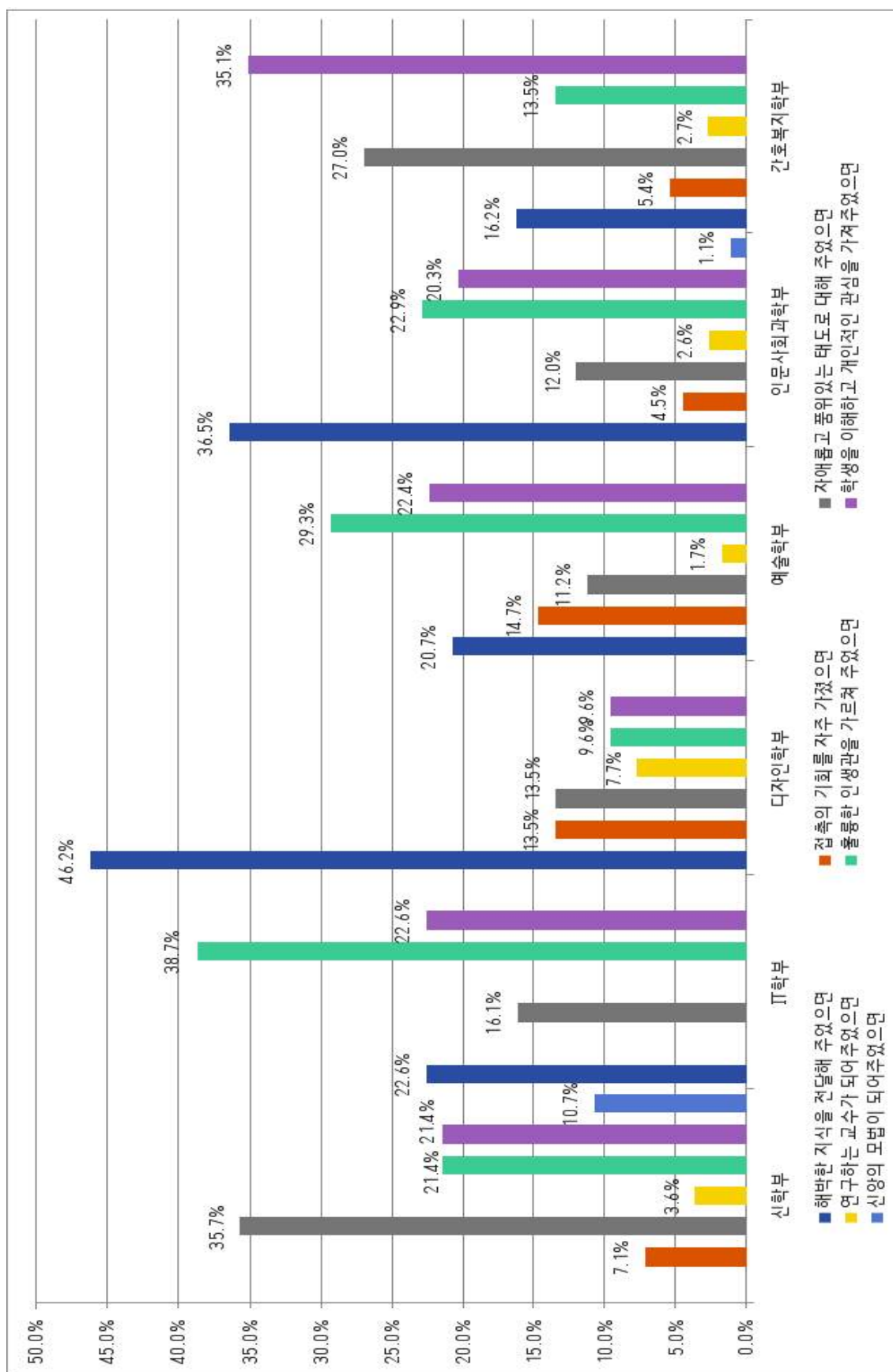
12)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29.8%)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의 27.5%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23.2%),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20.9%),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는 2014(7.2%), 2015(9.1%), 2016(13.0%), 2018(12.5%), 2019(1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이 가장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46.2%), 인문사회과학부(3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35.5%, 여학생 27.2%로 나타났다.

<표 28>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단위: 명, %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자애롭고 품위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주었 으면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 으면	신앙의 모법이 되어주었 으면	전체
남	61	17	14	3	37	40	0	172
	35.5	9.9	8.1	1.7	21.5	23.3	0.0	100.0
여	97	23	63	12	85	71	6	357
	27.2	6.4	17.6	3.4	23.8	19.9	1.7	100.0
기타	0	0	0	0	1	0	0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0	2	10	1	6	6	3	28
	0.0	7.1	35.7	3.6	21.4	21.4	10.7	100.0
IT학부	7	0	5	0	12	7	0	31
	22.6	0.0	16.1	0.0	38.7	22.6	0.0	100.0
디자인 학부	24	7	7	4	5	5	0	52
	46.2	13.5	13.5	7.7	9.6	9.6	0.0	100.0
예술학부	24	17	13	2	34	26	0	116
	20.7	14.7	11.2	1.7	29.3	22.4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97	12	32	7	61	54	3	266
	36.5	4.5	12.0	2.6	22.9	20.3	1.1	100.0
간호복지 학부	6	2	10	1	5	13	0	37
	16.2	5.4	27.0	2.7	13.5	35.1	0.0	100.0
전체	158	40	77	15	123	111	6	530
	29.8	7.5	14.5	2.8	23.2	20.9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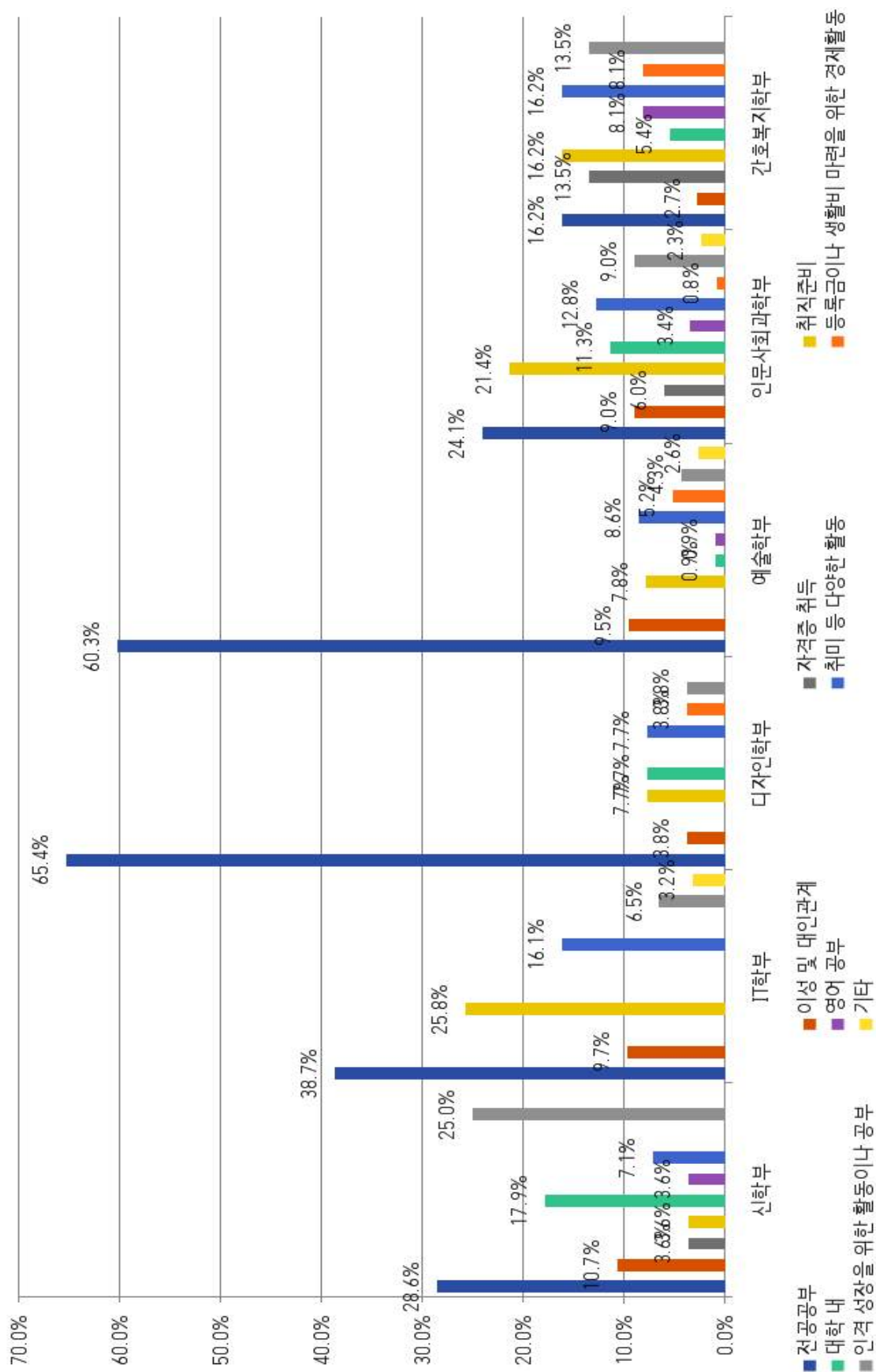
13)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36.6%)를 꼽았으나 전년의 50.9%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취직준비(16.0%), 취미 등 다양한 활동(11.5%),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8.5%)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공부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6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학부(60.3%), IT학부(38.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39.2%), 남학생(30.8%) 모두 대학생활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9>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단위: 명, %

	전공 공부	이성 및 대인 관계	자격증 취득	취직 준비	대학 내	영어 공부	취미 등 다양한 활동	등록금 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 이나 공부	기타	전체
남	53	28	12	28	10	5	16	2	14	4	172
	30.8	16.3	7.0	16.3	5.8	2.9	9.3	1.2	8.1	2.3	100.0
여	140	16	10	57	32	9	45	11	31	6	357
	39.2	4.5	2.8	16.0	9.0	2.5	12.6	3.1	8.7	1.7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8	3	1	1	5	1	2	0	7	0	28
	28.6	10.7	3.6	3.6	17.9	3.6	7.1	0.0	25.0	0.0	100.0
IT학부	12	3	0	8	0	0	5	0	2	1	31
	38.7	9.7	0.0	25.8	0.0	0.0	16.1	0.0	6.5	3.2	100.0
디자인 학부	34	2	0	4	4	0	4	2	2	0	52
	65.4	3.8	0.0	7.7	7.7	0.0	7.7	3.8	3.8	0.0	100.0
예술 학부	70	11	0	9	1	1	10	6	5	3	116
	60.3	9.5	0.0	7.8	0.9	0.9	8.6	5.2	4.3	2.6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64	24	16	57	30	9	34	2	24	6	266
	24.1	9.0	6.0	21.4	11.3	3.4	12.8	0.8	9.0	2.3	100.0
간호 복지 학부	6	1	5	6	2	3	6	3	5	0	37
	16.2	2.7	13.5	16.2	5.4	8.1	16.2	8.1	13.5	0.0	100.0
전체	194	44	22	85	42	14	61	13	45	10	530
	36.6	8.3	4.2	16.0	7.9	2.6	11.5	2.5	8.5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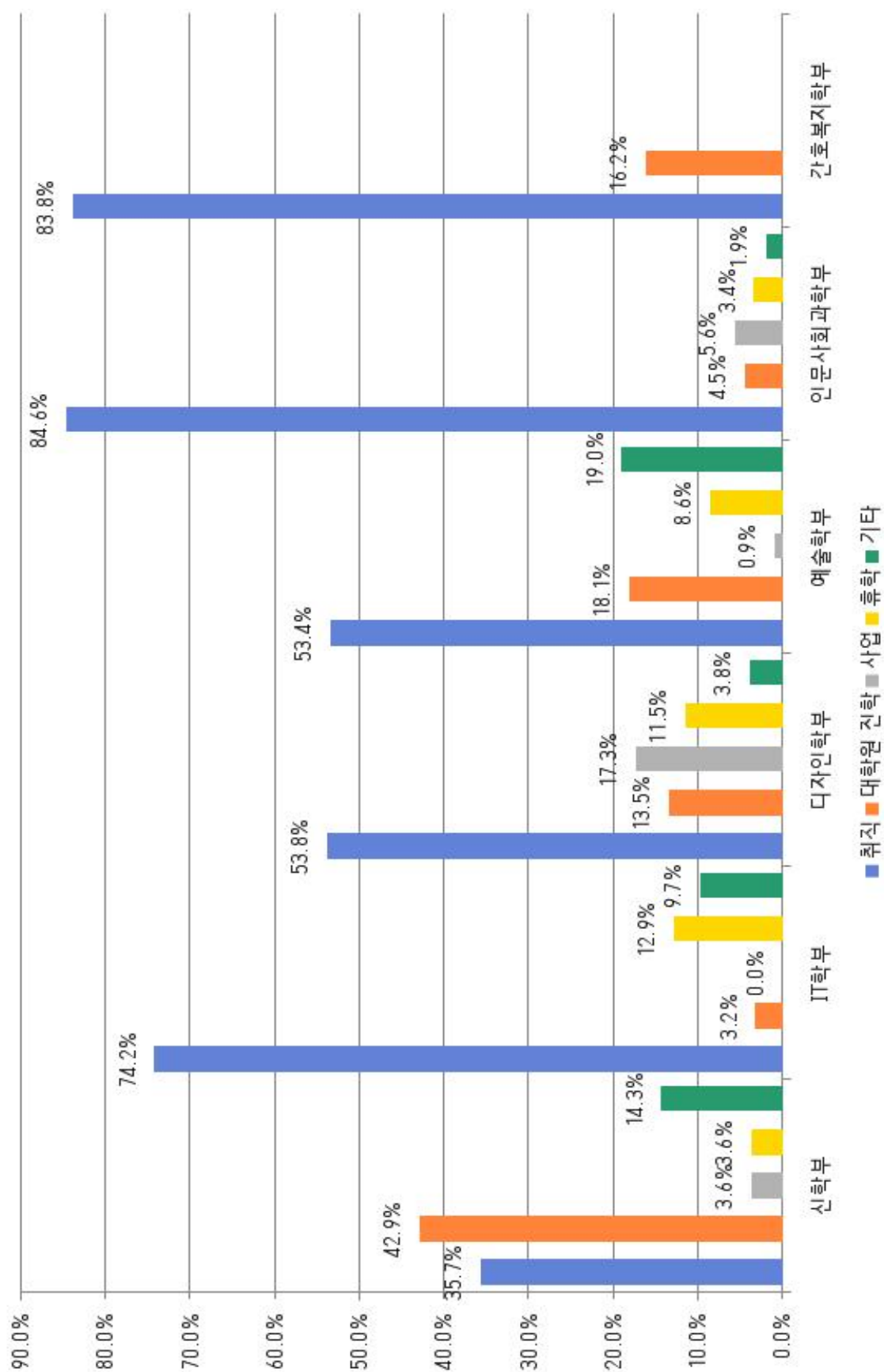
14)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1.5%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11.1%), 기타(6.8%), 유학(5.7%), 사업(4.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취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간호복지학부(83.8%), IT학부(74.2%), 디자인학부(5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학부는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70.3%), 여학생(72.0%) 모두 취직에 대한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졸업 후 진로계획

단위: 명, %

	취직	대학원 진학	사업	휴학	기타	전체
남	121	18	12	7	14	172
	70.3	10.5	7.0	4.1	8.1	100.0
여	257	41	14	23	22	357
	72.0	11.5	3.9	6.4	6.2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0	12	1	1	4	28
	35.7	42.9	3.6	3.6	14.3	100.0
IT학부	23	1	0	4	3	31
	74.2	3.2	0.0	12.9	9.7	100.0
디자인학부	28	7	9	6	2	52
	53.8	13.5	17.3	11.5	3.8	100.0
예술학부	62	21	1	10	22	116
	53.4	18.1	0.9	8.6	19.0	100.0
인문사회과학부	225	12	15	9	5	266
	84.6	4.5	5.6	3.4	1.9	100.0
간호복지학부	31	6	0	0	0	37
	83.8	16.2	0.0	0.0	0.0	100.0
전체	379	59	26	30	36	530
	71.5	11.1	4.9	5.7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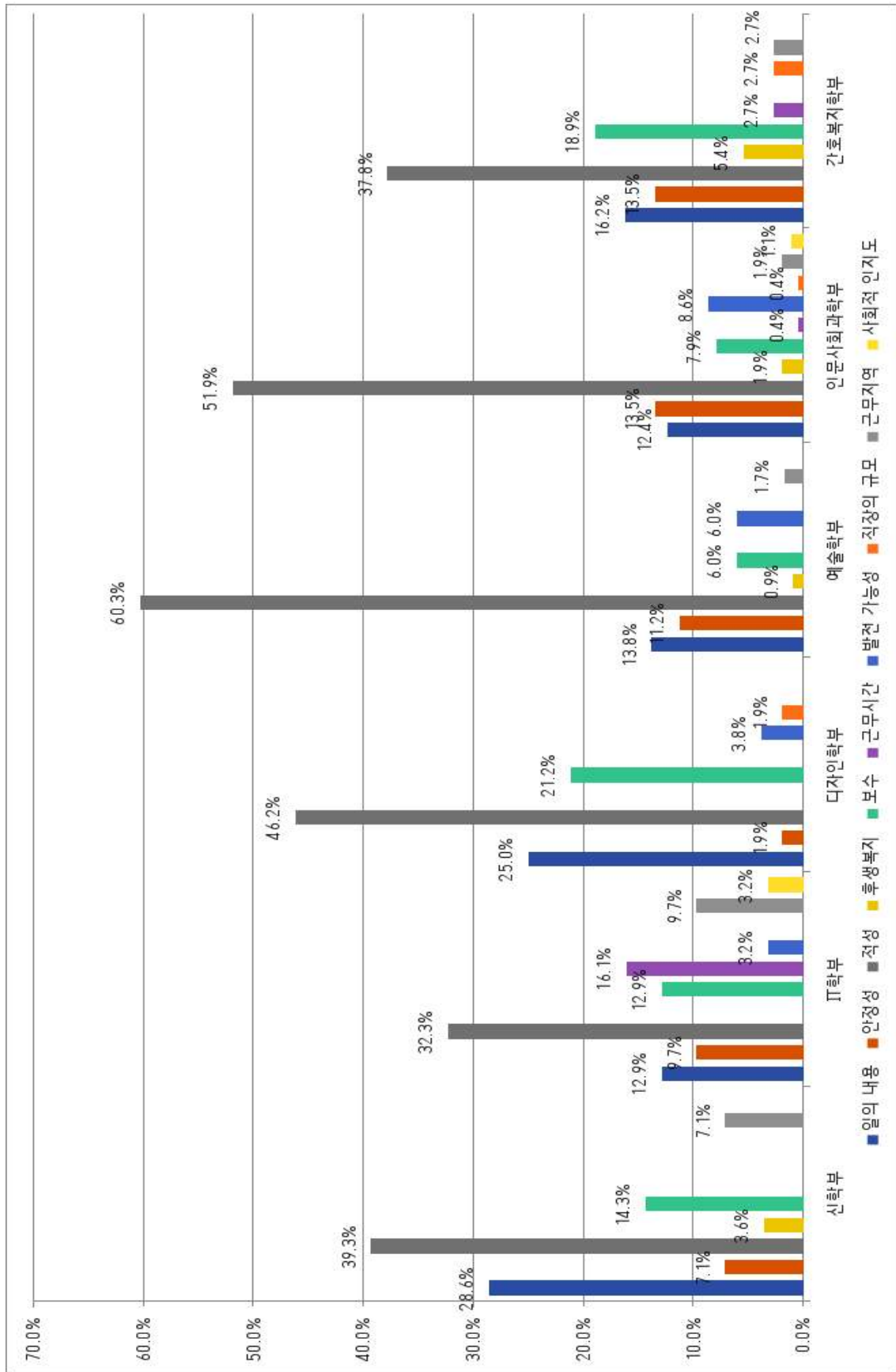
15)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은 ‘적성’(50.4%)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일의 내용’(15.1%), ‘안정성’(11.3%), ‘보수’(10.2%) 순이었다.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가 6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문사회과학부(51.9%), 디자인학부(46.2%), 신학부 (39.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3.5%), 여학생(49.0%) 모두 직업 선택 시 적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

단위: 명, %

	일의 내용	안정성	적성	후생 복지	보수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직장의 규모	근무 지역	사회적 인지도	전체
남	23	22	92	1	15	3	11	0	2	3	172
	13.4	12.8	53.5	0.6	8.7	1.7	6.4	0.0	1.2	1.7	100.0
여	57	38	175	8	39	4	21	3	11	1	357
	16.0	10.6	49.0	2.2	10.9	1.1	5.9	0.8	3.1	0.3	100.0
기타	0	0	0	0	0	0	1	0	0	0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8	2	11	1	4	0	0	0	2	0	28
	28.6	7.1	39.3	3.6	14.3	0.0	0.0	0.0	7.1	0.0	100.0
IT학부	4	3	10	0	4	5	1	0	3	1	31
	12.9	9.7	32.3	0.0	12.9	16.1	3.2	0.0	9.7	3.2	100.0
디자인 학부	13	1	24	0	11	0	2	1	0	0	52
	25.0	1.9	46.2	0.0	21.2	0.0	3.8	1.9	0.0	0.0	100.0
예술 학부	16	13	70	1	7	0	7	0	2	0	116
	13.8	11.2	60.3	0.9	6.0	0.0	6.0	0.0	1.7	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33	36	138	5	21	1	23	1	5	3	266
	12.4	13.5	51.9	1.9	7.9	0.4	8.6	0.4	1.9	1.1	100.0
간호 복지 학부	6	5	14	2	7	1	0	1	1	0	37
	16.2	13.5	37.8	5.4	18.9	2.7	0.0	2.7	2.7	0.0	100.0
전체	80	60	267	9	54	7	33	3	13	4	530
	15.1	11.3	50.4	1.7	10.2	1.3	6.2	0.6	2.5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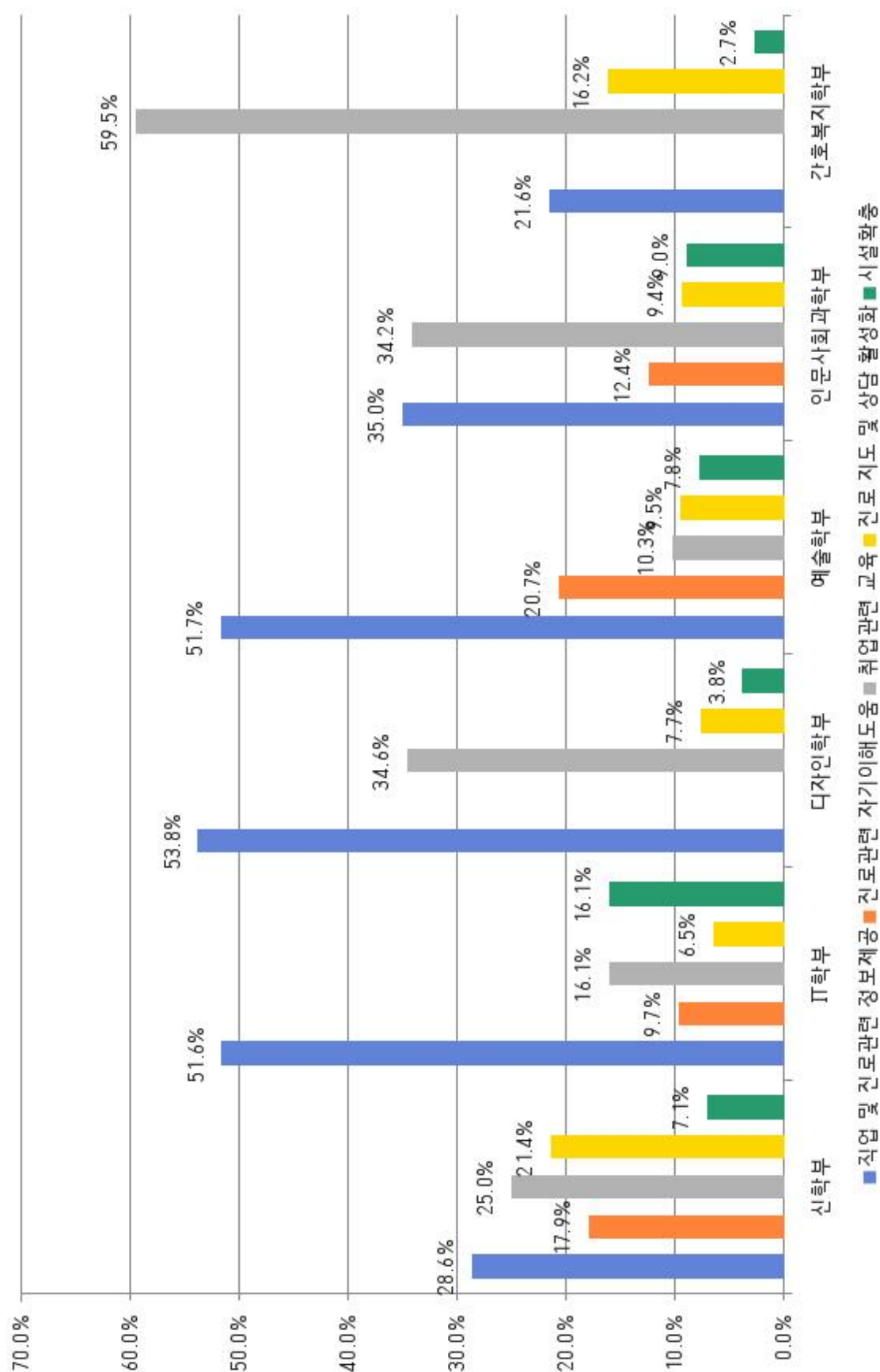
16)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40.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관련 교육’(29.2%), ‘진로관련 자기이해 도움’(12.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53.8%로 가장 높았고, 예술학부(51.7%), IT학부(51.6%), 인문사회과학부(3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4.8%), 여학생(38.1%) 모두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	진로관련 자기이해 도움	취업관련 교육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시설확충	전체
남	77	28	31	21	15	172
	44.8	16.3	18.0	12.2	8.7	100.0
여	136	36	124	33	28	357
	38.1	10.1	34.7	9.2	7.8	100.0
기타	0	1	0	0	0	1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8	5	7	6	2	28
	28.6	17.9	25.0	21.4	7.1	100.0
IT학부	16	3	5	2	5	31
	51.6	9.7	16.1	6.5	16.1	100.0
디자인학부	28	0	18	4	2	52
	53.8	0.0	34.6	7.7	3.8	100.0
예술학부	60	24	12	11	9	116
	51.7	20.7	10.3	9.5	7.8	100.0
인문사회과학부	93	33	91	25	24	266
	35.0	12.4	34.2	9.4	9.0	100.0
간호복지학부	8	0	22	6	1	37
	21.6	0.0	59.5	16.2	2.7	100.0
전체	213	65	155	54	43	530
	40.2	12.3	29.2	10.2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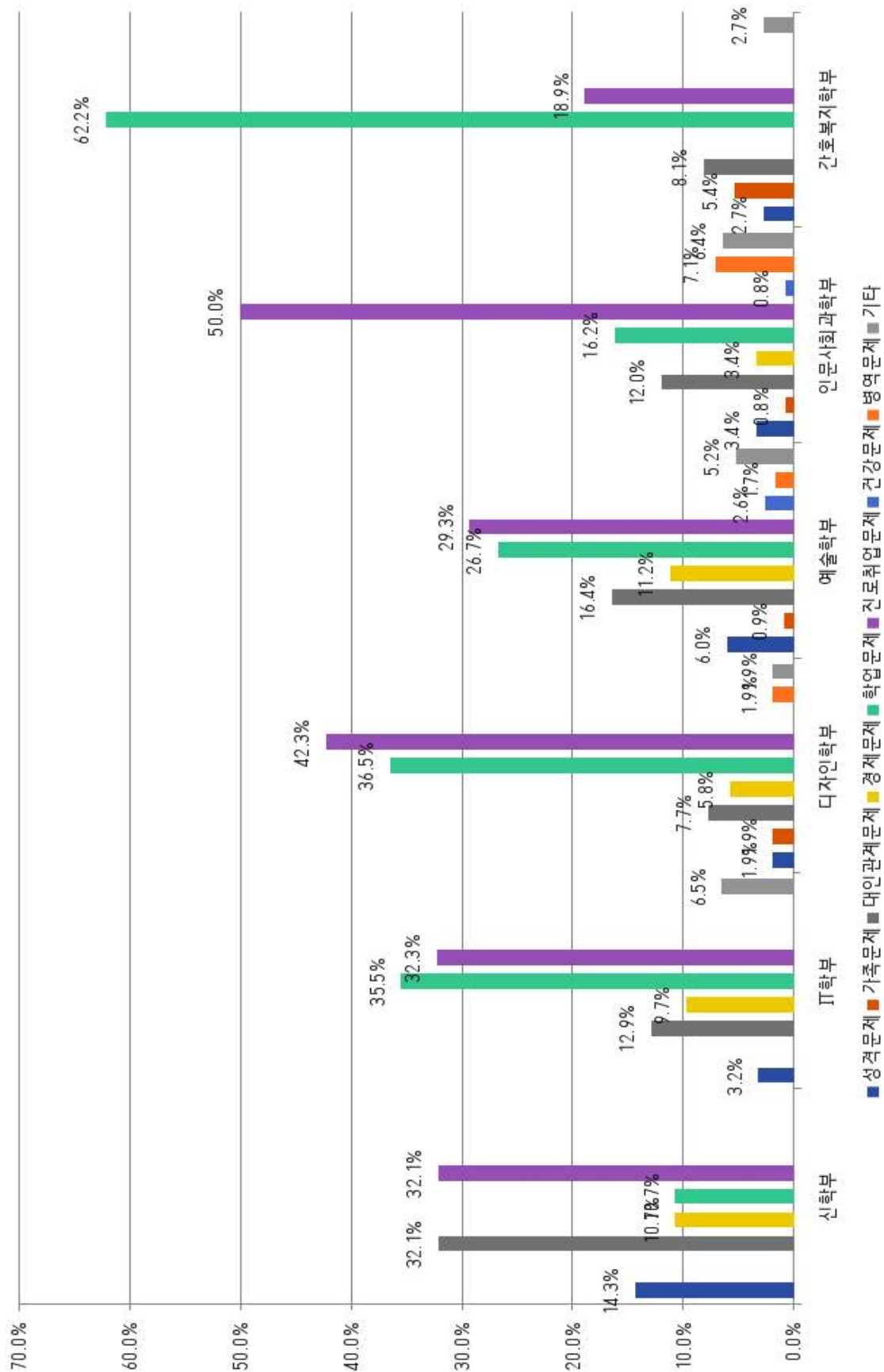
17)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진로취업문제’(40.6%)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의 15.5%보다도 매우 높아진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문제’(24.5%) ‘대인관계문제’(13.4%), ‘경제문제’(5.8%)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진로취업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50.0%), 디자인학부(42.3%), 예술학부(29.3%)순이며, 학업문제가 가장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62.2%), 대인관계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신학부(32.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6.7%), 여학생(47.3%) 모두 진로취업문제에 대해 가장 걱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작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의 가장 걱정했던 ‘학업 문제’(30.8%)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 신입생들은 학업문제보다 진로취업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3>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단위: 명, %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병역 문제	기타	전체
남	8	3	31	8	38	46	2	22	14	172
	4.7	1.7	18.0	4.7	22.1	26.7	1.2	12.8	8.1	100.0
여	15	2	40	23	92	169	3	0	13	357
	4.2	0.6	11.2	6.4	25.8	47.3	0.8	0.0	3.6	100.0
기타	0	1	0	0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	0	9	3	3	9	0	0	0	28
	14.3	0.0	32.1	10.7	10.7	32.1	0.0	0.0	0.0	100.0
IT학부	1	0	4	3	11	10	0	0	2	31
	3.2	0.0	12.9	9.7	35.5	32.3	0.0	0.0	6.5	100.0
디자인 학부	1	1	4	3	19	22	0	1	1	52
	1.9	1.9	7.7	5.8	36.5	42.3	0.0	1.9	1.9	100.0
예술학부	7	1	19	13	31	34	3	2	6	116
	6.0	0.9	16.4	11.2	26.7	29.3	2.6	1.7	5.2	100.0
인문사회 과학부	9	2	32	9	43	133	2	19	17	266
	3.4	0.8	12.0	3.4	16.2	50.0	0.8	7.1	6.4	100.0
간호복지 학부	1	2	3	0	23	7	0	0	1	37
	2.7	5.4	8.1	0.0	62.2	18.9	0.0	0.0	2.7	100.0
전체	23	6	71	31	130	215	5	22	27	530
	4.3	1.1	13.4	5.8	24.5	40.6	0.9	4.2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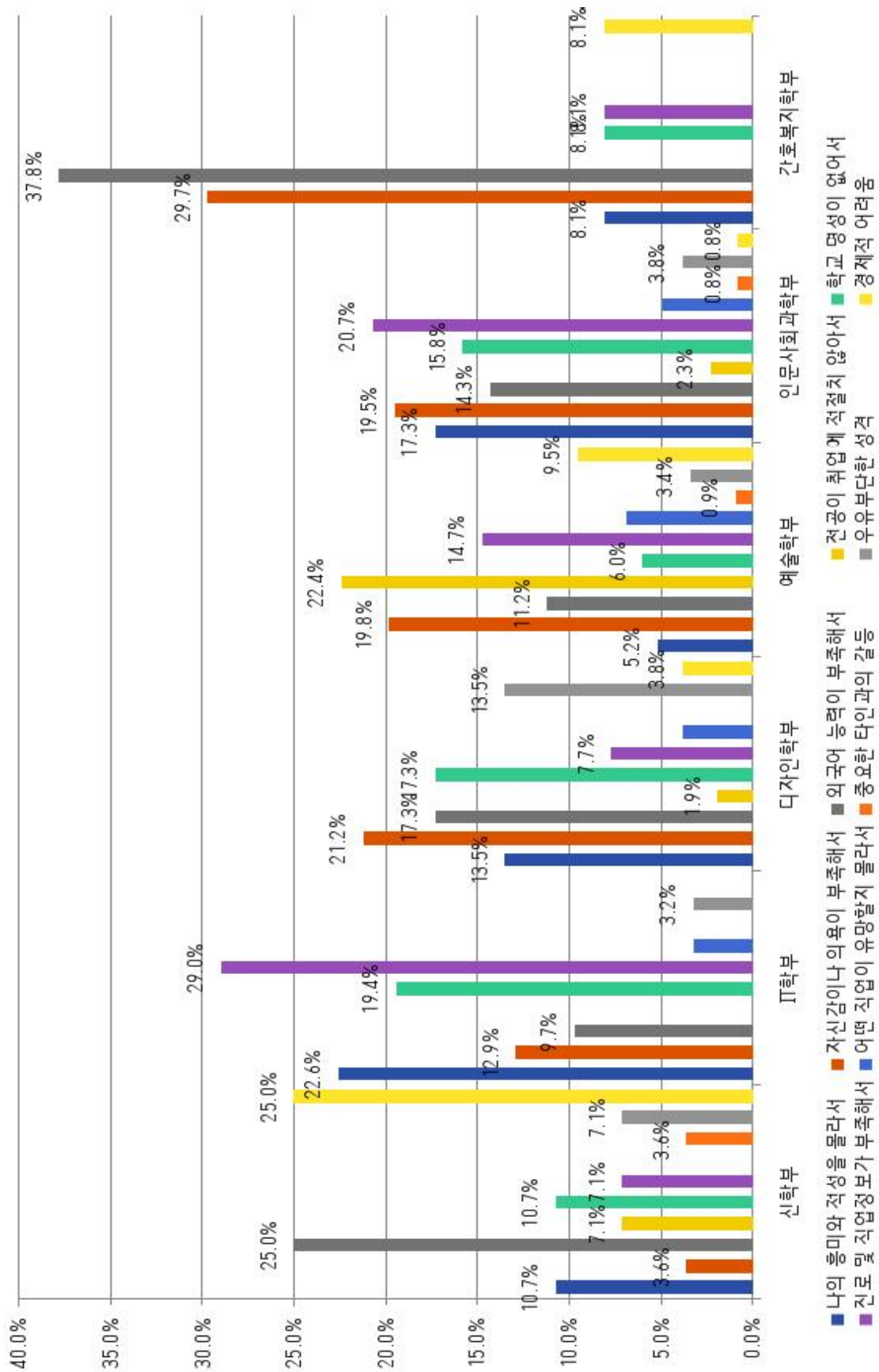


18)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17.0%),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15.8%),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3.6%), ‘학교 명성이 없어서’(13.2%) 순이었다.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가 29.7%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21.2%), 예술학부(19.8%) 순이다. 신학부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15.0%), ‘경제적 어려움’(15.0%)가 가장 높았고 IT학부는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22.6%)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의 응답이 18.5%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 응답이 25.6%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단위: 명, %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자신감 이나 의욕이 부족 해서	외국어 능력이 부족 해서	전공이 취업에 적절치 않아서	학교 명성이 없어서	진로 및 직업 정보가 부족 해서	어떤 직업이 유망 할지 몰라서	중요한 타인 과의 갈등	우유부 단한 성격	경제적 어려움	전체
남	28	44	18	10	17	27	12	2	6	8	172
	16.3	25.6	10.5	5.8	9.9	15.7	7.0	1.2	3.5	4.7	100.0
여	44	58	66	25	53	63	12	2	18	16	357
	12.3	16.2	18.5	7.0	14.8	17.6	3.4	0.6	5.0	4.5	100.0
기타	0	0	0	0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3	1	7	2	3	2	0	1	2	7	28
	10.7	3.6	25.0	7.1	10.7	7.1	0.0	3.6	7.1	25.0	100.0
IT학부	7	4	3	0	6	9	1	0	1	0	31
	22.6	12.9	9.7	0.0	19.4	29.0	3.2	0.0	3.2	0.0	100.0
디자인 학부	7	11	9	1	9	4	2	0	7	2	52
	13.5	21.2	17.3	1.9	17.3	7.7	3.8	0.0	13.5	3.8	100.0
예술 학부	6	23	13	26	7	17	8	1	4	11	116
	5.2	19.8	11.2	22.4	6.0	14.7	6.9	0.9	3.4	9.5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46	52	38	6	42	55	13	2	10	2	266
	17.3	19.5	14.3	2.3	15.8	20.7	4.9	0.8	3.8	0.8	100.0
간호 복지 학부	3	11	14	0	3	3	0	0	0	3	37
	8.1	29.7	37.8	0.0	8.1	8.1	0.0	0.0	0.0	8.1	100.0
전체	72	102	84	35	70	90	24	4	24	25	530
	13.6	19.2	15.8	6.6	13.2	17.0	4.5	0.8	4.5	4.7	100.0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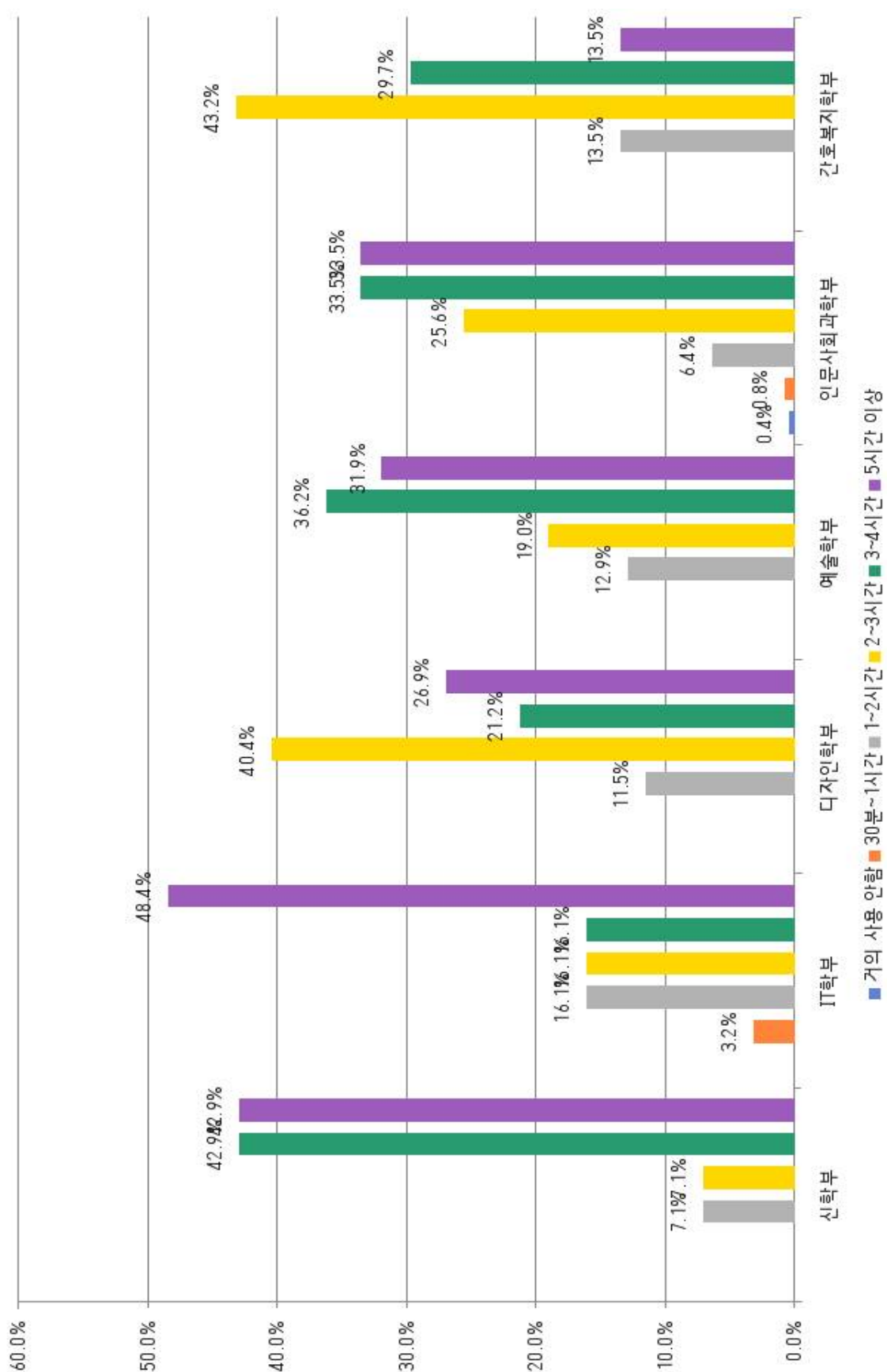
1)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신입생들의 핸드폰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32.5%)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시간(32.1%), 2-3시간(25.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IT학부가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학부가 42.9%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29.7% 2-3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남학생 12.6%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의 핸드폰 사용 시간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단위: 명, %

	거의 사용 안함	30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전체
남	1	1	29	51	49	41	172
	0.6	0.6	16.9	29.7	28.5	23.8	100.0
여	0	2	21	83	121	130	357
	0.0	0.6	5.9	23.2	33.9	36.4	100.0
기타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0	0	2	2	12	12	28
	0.0	0.0	7.1	7.1	42.9	42.9	100.0
IT학부	0	1	5	5	5	15	31
	0.0	3.2	16.1	16.1	16.1	48.4	100.0
디자인학부	0	0	6	21	11	14	52
	0.0	0.0	11.5	40.4	21.2	26.9	100.0
예술학부	0	0	15	22	42	37	116
	0.0	0.0	12.9	19.0	36.2	31.9	100.0
인문사회과학부	1	2	17	68	89	89	266
	0.4	0.8	6.4	25.6	33.5	33.5	100.0
간호복지학부	0	0	5	16	11	5	37
	0.0	0.0	13.5	43.2	29.7	13.5	100.0
전체	1	3	50	134	170	172	530
	0.2	0.6	9.4	25.3	32.1	3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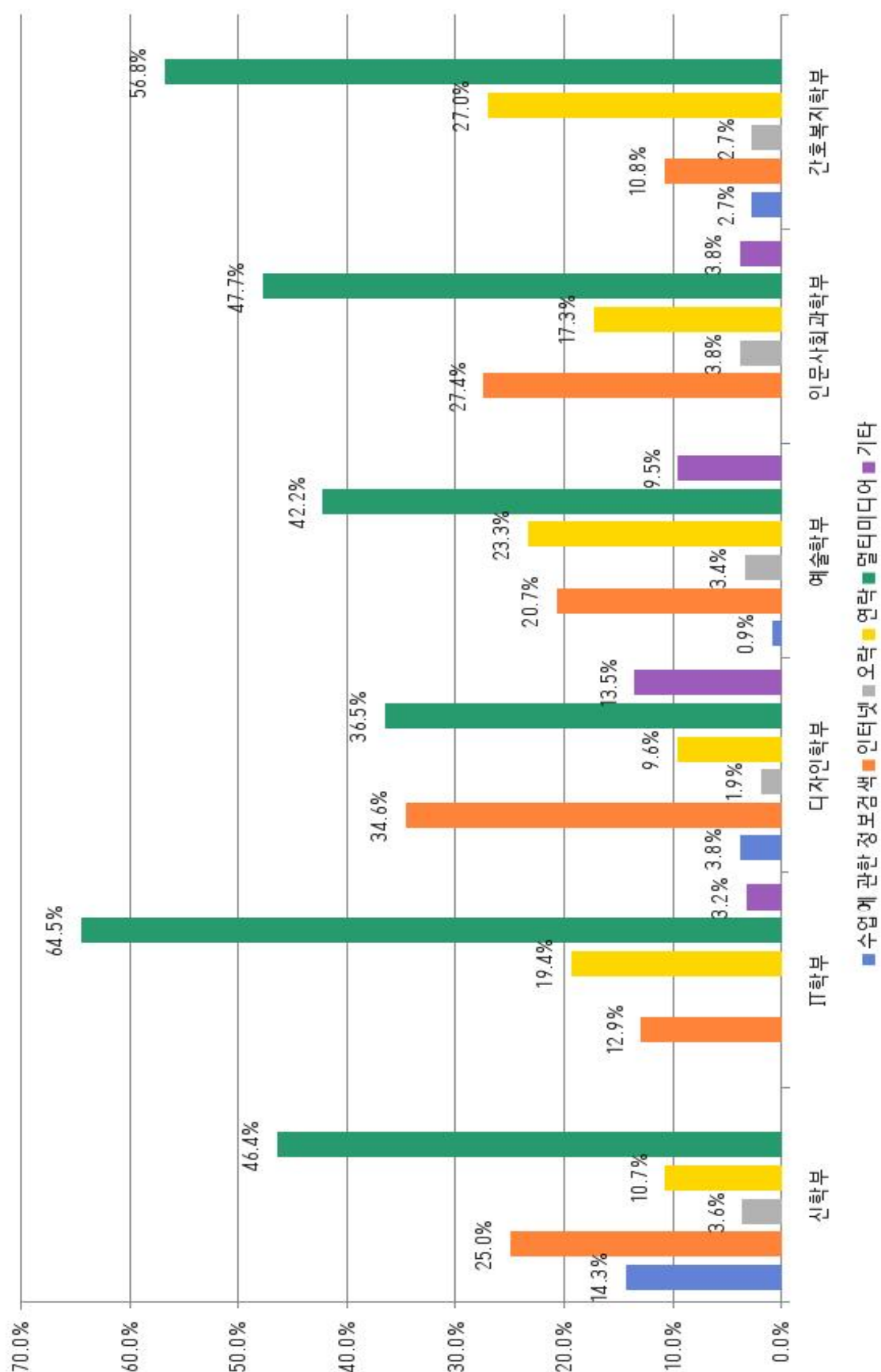
2) 핸드폰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이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멀티미디어(47.0%)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다음으로는 인터넷(24.5%), 연락(18.3%) 용도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IT학부가 멀티미디어를 64.5%로 가장 높게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은 인문사회과학부(47.7%), 신학부(46.4%), 예술학부(42.2%) 순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 이용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50.0%)이 여학생(45.7%)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6> 핸드폰의 주된 용도

단위: 명, %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인터넷	오락	연락	멀티 미디어	기타	전체
남	0	46	7	24	86	9	172
	0.0	26.7	4.1	14.0	50.0	5.2	100.0
여	8	83	10	73	163	20	357
	2.2	23.2	2.8	20.4	45.7	5.6	100.0
기타	0	1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	7	1	3	13	0	28
	14.3	25.0	3.6	10.7	46.4	0.0	100.0
IT학부	0	4	0	6	20	1	31
	0.0	12.9	0.0	19.4	64.5	3.2	100.0
디자인학부	2	18	1	5	19	7	52
	3.8	34.6	1.9	9.6	36.5	13.5	100.0
예술학부	1	24	4	27	49	11	116
	0.9	20.7	3.4	23.3	42.2	9.5	100.0
인문사회과학부	0	73	10	46	127	10	266
	0.0	27.4	3.8	17.3	47.7	3.8	100.0
간호복지학부	1	4	1	10	21	0	37
	2.7	10.8	2.7	27.0	56.8	0.0	100.0
전체	8	130	17	97	249	29	530
	1.5	24.5	3.2	18.3	47.0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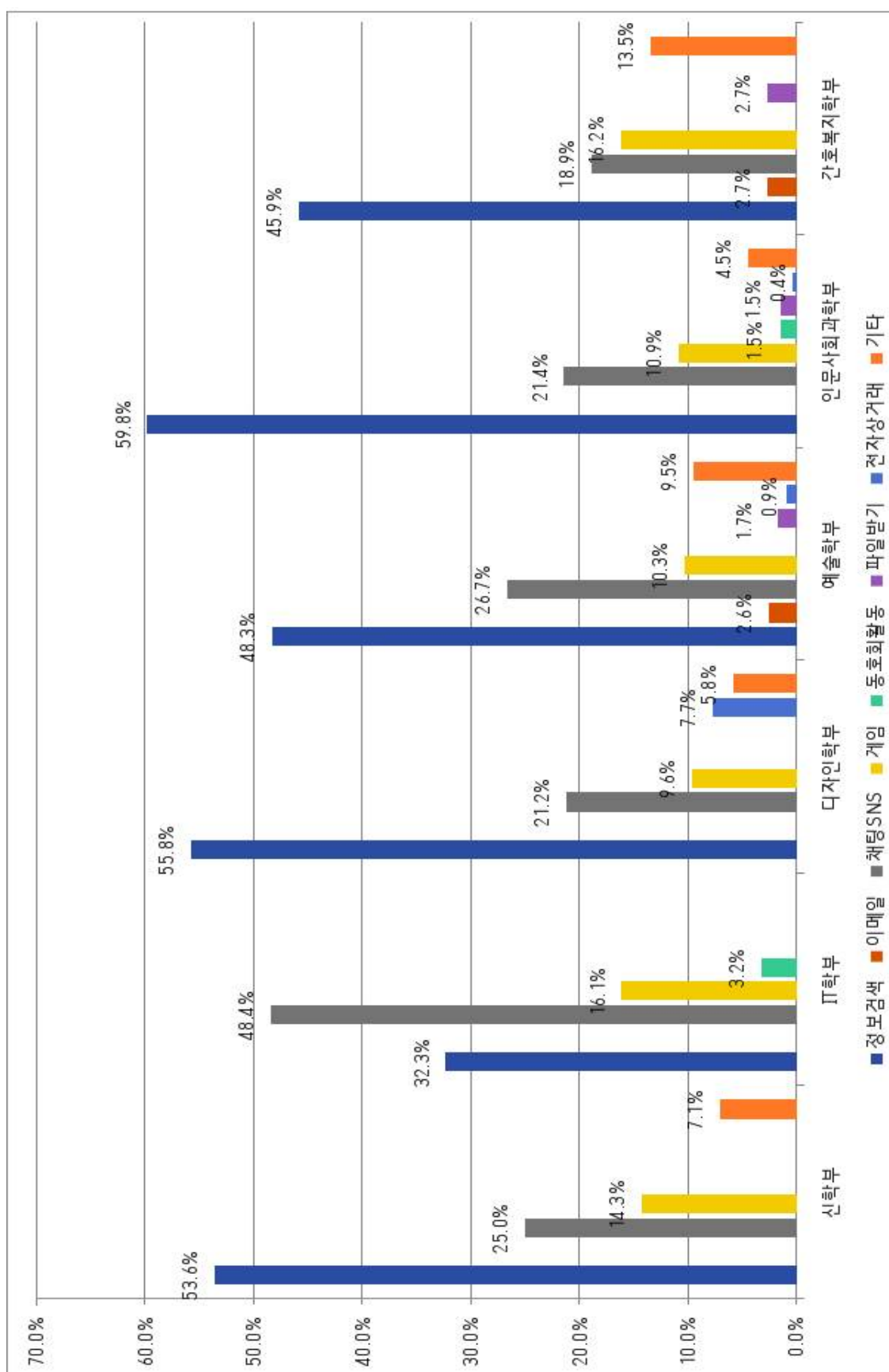
3)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에게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정보검색(54.0%)과 채팅(24.2%)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게임(11.5%), 기타(6.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정보검색을 한다는 응답에 5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55.8%), 신학부(53.6%), 예술학부(48.3%), 간호복지학부(45.9%) 순이다. 성별로는 남학생(43.6%), 여학생(59.1%) 모두 인터넷의 주된 용도로 정보검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 인터넷의 사용 용도

단위: 명, %

	정보 검색	이메일	채팅 SNS	게임	동호회 활동	파일 받기	전자 상거래	기타	전체
남	75	2	32	46	1	1	1	14	172
	43.6	1.2	18.6	26.7	0.6	0.6	0.6	8.1	100.0
여	211	2	96	15	4	5	5	19	357
	59.1	0.6	26.9	4.2	1.1	1.4	1.4	5.3	100.0
기타	0	0	0	0	0	1	0	0	1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15	0	7	4	0	0	0	2	28
	53.6	0.0	25.0	14.3	0.0	0.0	0.0	7.1	100.0
IT학부	10	0	15	5	1	0	0	0	31
	32.3	0.0	48.4	16.1	3.2	0.0	0.0	0.0	100.0
디자인학부	29	0	11	5	0	0	4	3	52
	55.8	0.0	21.2	9.6	0.0	0.0	7.7	5.8	100.0
예술학부	56	3	31	12	0	2	1	11	116
	48.3	2.6	26.7	10.3	0.0	1.7	0.9	9.5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59	0	57	29	4	4	1	12	266
	59.8	0.0	21.4	10.9	1.5	1.5	0.4	4.5	100.0
간호복지 학부	17	1	7	6	0	1	0	5	37
	45.9	2.7	18.9	16.2	0.0	2.7	0.0	13.5	100.0
전체	286	4	128	61	5	7	6	33	530
	54.0	0.8	24.2	11.5	0.9	1.3	1.1	6.2	100.0



6. 이성 및 성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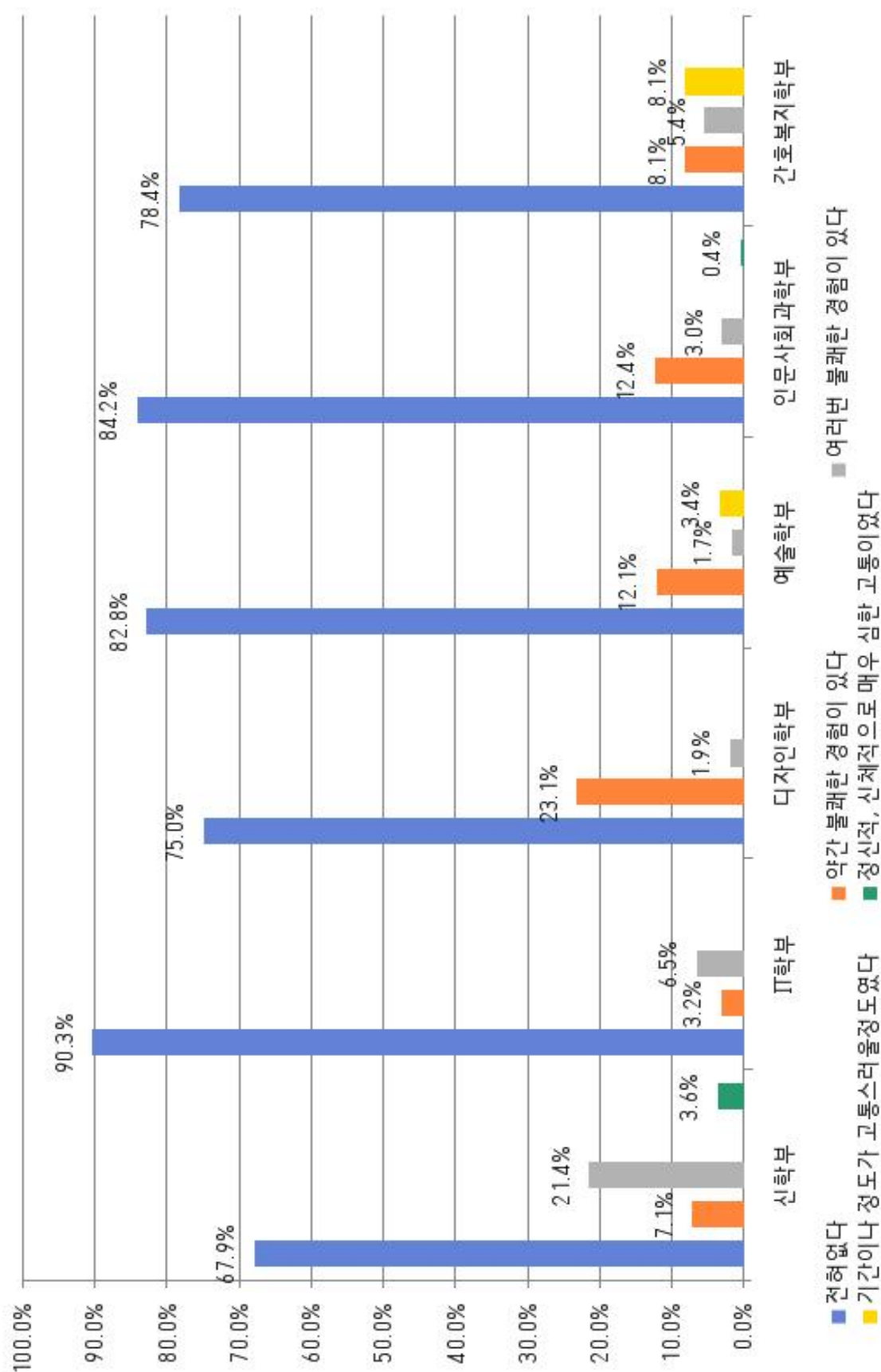
1)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82.1%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12.3%), ‘여러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4.0%),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1.3%),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0.4%)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IT학부가 9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문사회과학부(84.2%), 예술학부(82.8%), 간호복지학부(78.4%) 순이다. 성별로 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에 남학생(96.5%)이 여학생(75.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7.1%로 나타났다.

<표 3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명, %

	전혀없다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여러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전체
남	166	3	2	0	1	172
	96.5	1.7	1.2	0.0	0.6	100.0
여	269	61	19	7	1	357
	75.4	17.1	5.3	2.0	0.3	100.0
기타	0	1	0	0	0	1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9	2	6	0	1	28
	67.9	7.1	21.4	0.0	3.6	100.0
IT학부	28	1	2	0	0	31
	90.3	3.2	6.5	0.0	0.0	100.0
디자인학부	39	12	1	0	0	52
	75.0	23.1	1.9	0.0	0.0	100.0
예술학부	96	14	2	4	0	116
	82.8	12.1	1.7	3.4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224	33	8	0	1	266
	84.2	12.4	3.0	0.0	0.4	100.0
간호복지학부	29	3	2	3	0	37
	78.4	8.1	5.4	8.1	0.0	100.0
전체	435	65	21	7	2	530
	82.1	12.3	4.0	1.3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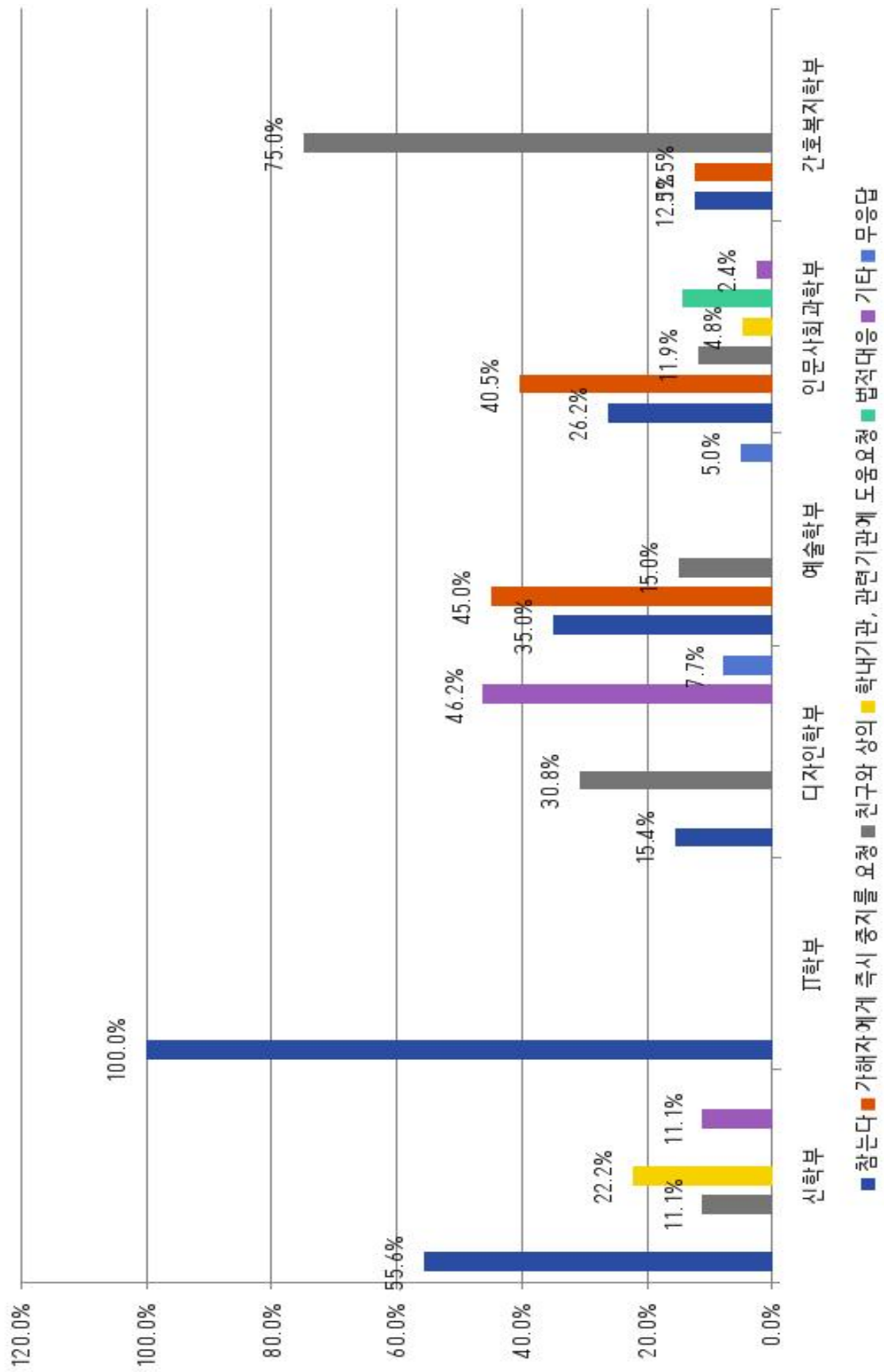
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참는다’가 30.5%,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28.4%), ‘친구와 상의’(20.0%) ‘기타’(8.4%), ‘법적대응’(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참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학부(55.6%), 예술학부(35.0%), 인문사회과학부(26.2%)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참는다’라는 응답이 29.5%, 남학생은 50.0%로 나타났다.

<표 3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단위: 명, %

	참는다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요청	친구와 상의	학내기관, 관련 기관에 도움요청	법적대응	기타	무응답	전체
남	3	2	0	0	0	1	0	6
	50.0	33.3	0.0	0.0	0.0	16.7	0.0	100.0
여	26	24	19	4	6	7	2	88
	29.5	27.3	21.6	4.5	6.8	8.0	2.3	100.0
기타	0	1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5	0	1	2	0	1	0	9
	55.6	0.0	11.1	22.2	0.0	11.1	0.0	100.0
IT학부	3	0	0	0	0	0	0	3
	100.0	0.0	0.0	0.0	0.0	0.0	0.0	100.0
디자인학부	2	0	4	0	0	6	1	13
	15.4	0.0	30.8	0.0	0.0	46.2	7.7	100.0
예술학부	7	9	3	0	0	0	1	20
	35.0	45.0	15.0	0.0	0.0	0.0	5.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1	17	5	2	6	1	0	42
	26.2	40.5	11.9	4.8	14.3	2.4	0.0	100.0
간호복지 학부	1	1	6	0	0	0	0	8
	12.5	12.5	75.0	0.0	0.0	0.0	0.0	100.0
전체	29	27	19	4	6	8	2	95
	30.5	28.4	20.0	4.2	6.3	8.4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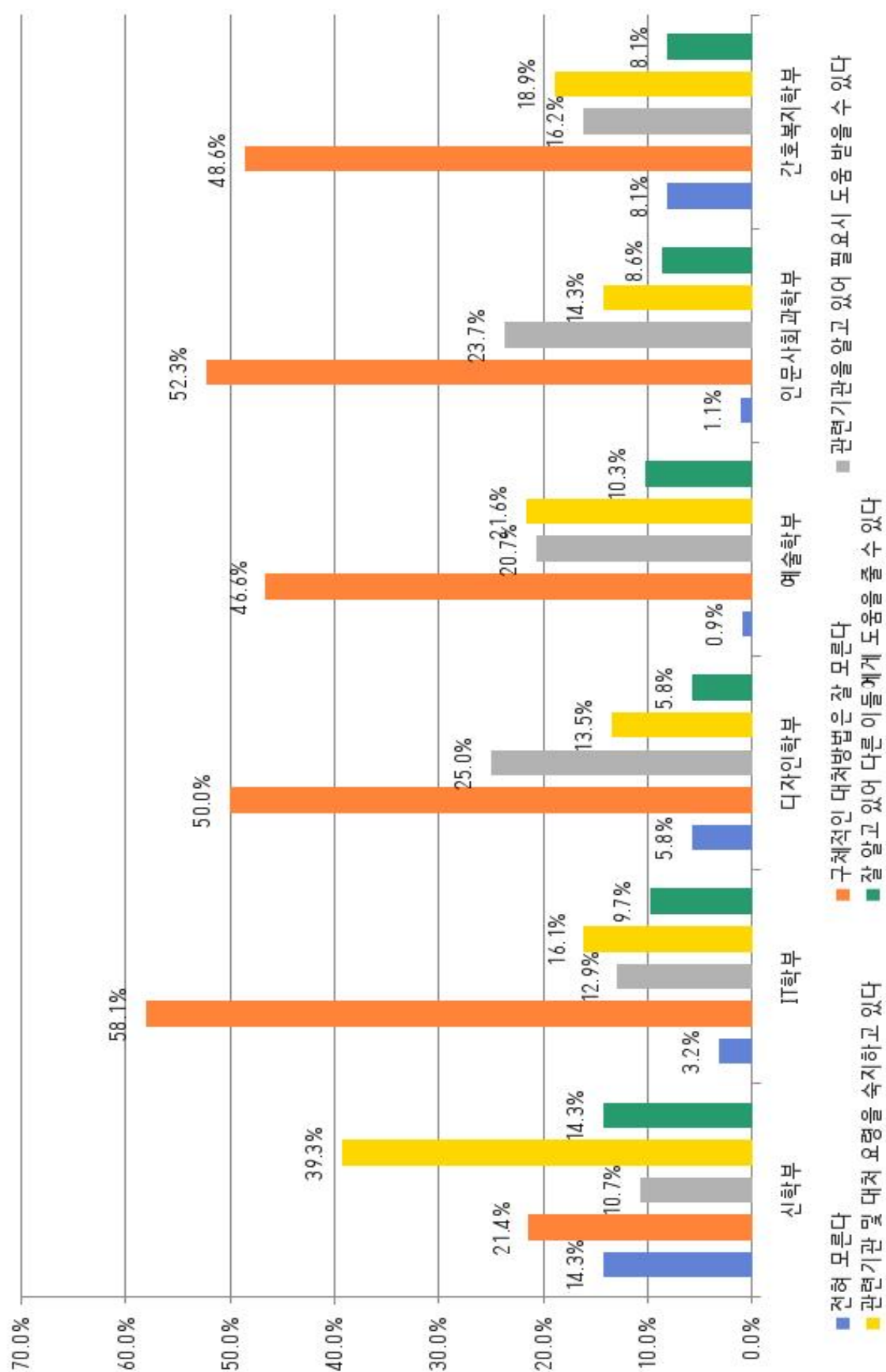
3)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21.3%),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7.5%),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9.1%), ‘전혀 모른다’(2.8%)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가 5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부(52.3%), 디자인학부(50.0%), 간호복지학부(4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7.7%), 여학생(50.1%) 모두 구체적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0>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체
남	6	82	34	23	27	172
	3.5	47.7	19.8	13.4	15.7	100.0
여	9	179	79	70	20	357
	2.5	50.1	22.1	19.6	5.6	100.0
기타	0	0	0	0	1	1
	0.0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4	6	3	11	4	28
	14.3	21.4	10.7	39.3	14.3	100.0
IT학부	1	18	4	5	3	31
	3.2	58.1	12.9	16.1	9.7	100.0
디자인학부	3	26	13	7	3	52
	5.8	50.0	25.0	13.5	5.8	100.0
예술학부	1	54	24	25	12	116
	0.9	46.6	20.7	21.6	10.3	100.0
인문사회과학부	3	139	63	38	23	266
	1.1	52.3	23.7	14.3	8.6	100.0
간호복지학부	3	18	6	7	3	37
	8.1	48.6	16.2	18.9	8.1	100.0
전체	15	261	113	93	48	530
	2.8	49.2	21.3	17.5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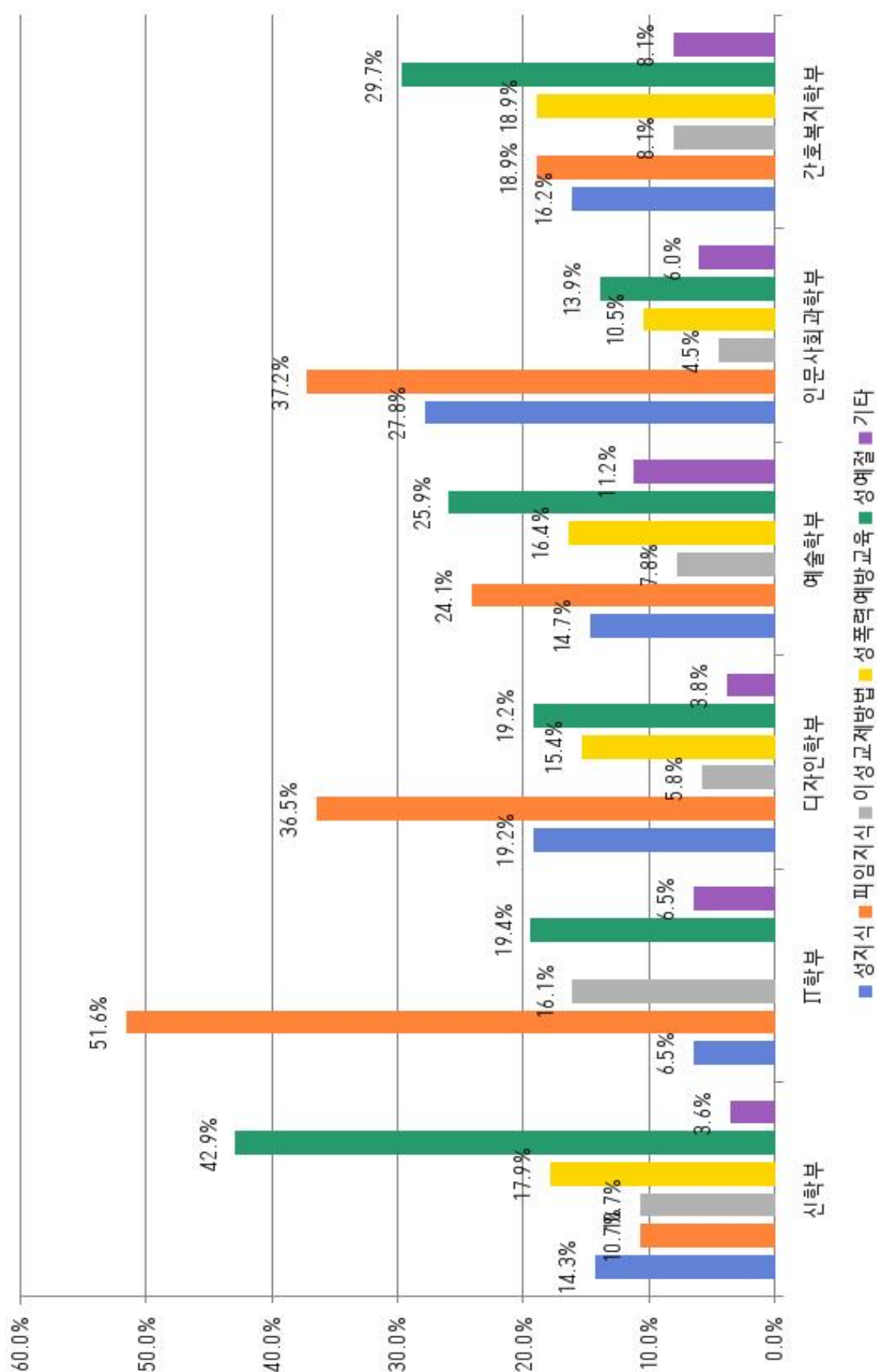
4)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피임지식’(3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성지식’(21.3%), ‘성예절’(20.0%), ‘성폭력예방교육’(12.6%), ‘기타’(7.0%)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피임지식’에 대하여 IT학부(51.6%), 인문사회과학부(37.2%), 디자인학부(36.5%)가, ‘성예절’에 대하여 신학부(42.9%), 예술학부(25.9%), IT학부(19.4%)가 가장 알고 싶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19.8%), 여학생(38.4%) 모두 ‘피임지식’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41>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단위: 명, %

	성지식	피임지식	이성교제 방법	성폭력예 방교육	성예절	기타	전체
남	29	34	23	18	51	17	172
	16.9	19.8	13.4	10.5	29.7	9.9	100.0
여	84	137	12	49	55	20	357
	23.5	38.4	3.4	13.7	15.4	5.6	100.0
기타	0	1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	3	3	5	12	1	28
	14.3	10.7	10.7	17.9	42.9	3.6	100.0
IT학부	2	16	5	0	6	2	31
	6.5	51.6	16.1	0.0	19.4	6.5	100.0
디자인학부	10	19	3	8	10	2	52
	19.2	36.5	5.8	15.4	19.2	3.8	100.0
예술학부	17	28	9	19	30	13	116
	14.7	24.1	7.8	16.4	25.9	11.2	100.0
인문사회과학부	74	99	12	28	37	16	266
	27.8	37.2	4.5	10.5	13.9	6.0	100.0
간호복지학부	6	7	3	7	11	3	37
	16.20%	18.90%	8.10%	18.90%	29.70%	8.10%	100.00%
전체	113	172	35	67	106	37	530
	21.3	32.5	6.6	12.6	20.0	7.0	100.0



7. 상담센터 관련

1)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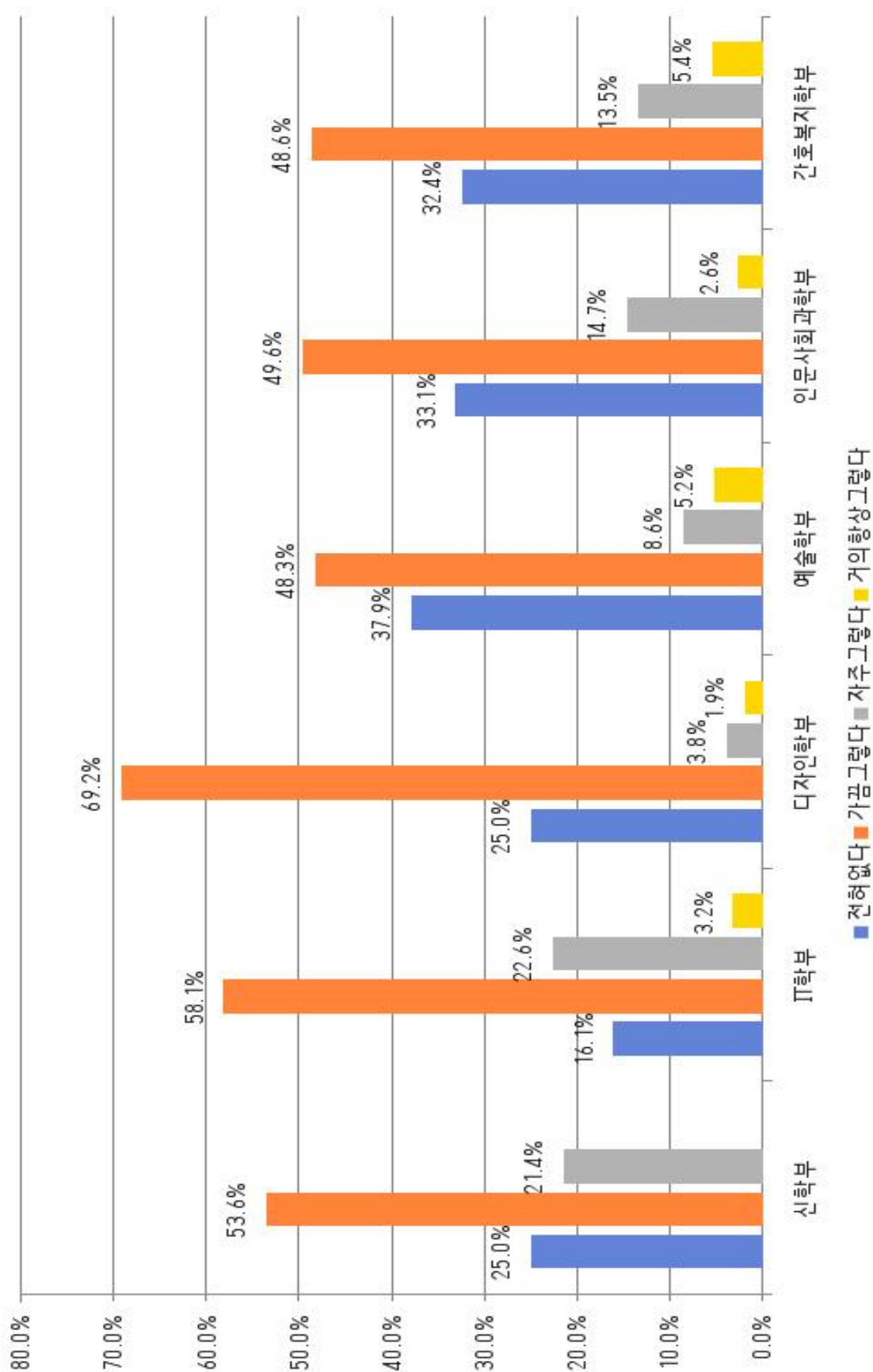
(1) 외로움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51.9%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혀없다(31.9%), 자주 그렇다(13.0%), 거의 항상 그렇다(3.2%)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디자인학부가 69.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IT학부(58.1%), 신학부(53.6%), 인문사회과학부(49.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가끔 그렇다(44.8%), 전혀 없다(36.0%)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가끔 그렇다(55.5%)와 전혀없다(3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외로움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62	77	27	6	172
	36.0	44.8	15.7	3.5	100.0
여	107	198	42	10	357
	30.0	55.5	11.8	2.8	100.0
기타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7	15	6	0	28
	25.0	53.6	21.4	0.0	100.0
IT학부	5	18	7	1	31
	16.1	58.1	22.6	3.2	100.0
디자인학부	13	36	2	1	52
	25.0	69.2	3.8	1.9	100.0
예술학부	44	56	10	6	116
	37.9	48.3	8.6	5.2	100.0
인문사회과학부	88	132	39	7	266
	33.1	49.6	14.7	2.6	100.0
간호복지학부	12	18	5	2	37
	32.4	48.6	13.5	5.4	100.0
전체	169	275	69	17	530
	31.9	51.9	13.0	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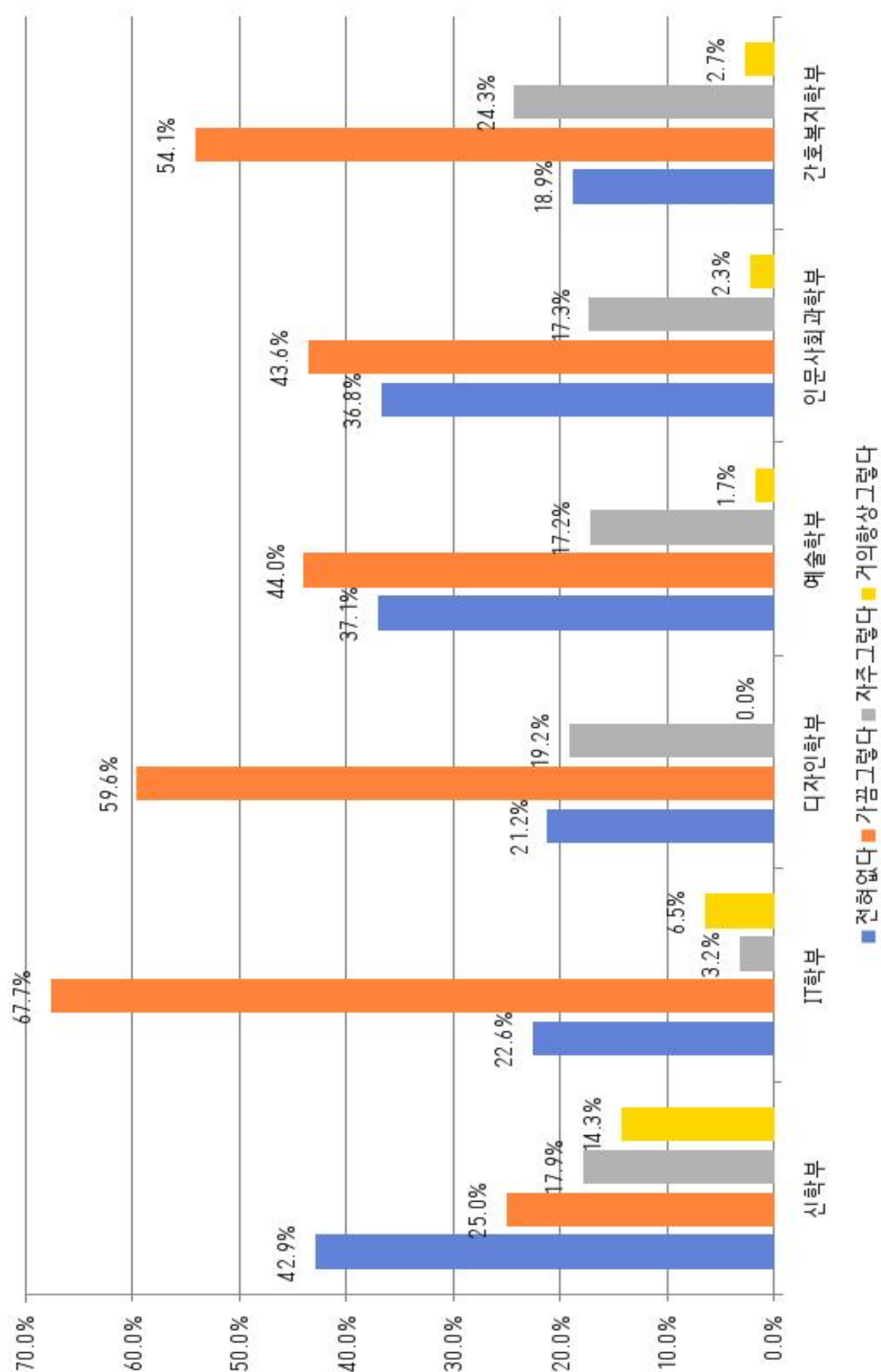
(2) 불안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6.4%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혀없다’(33.6%), ‘자주 그렇다’(17.2%), ‘거의 항상 그렇다’(2.8%)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IT학부가 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59.6%), 간호복지학부(54.1%), 예술학부(4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전혀없다’가 43.6%로 가장 높았고, 42.4%가 ‘가끔그렇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48.5%가 ‘가끔 그렇다’, 28.9%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표 42-2> 불안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75	73	20	4	172
	43.6	42.4	11.6	2.3	100.0
여	103	173	71	10	357
	28.9	48.5	19.9	2.8	100.0
기타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12	7	5	4	28
	42.9	25.0	17.9	14.3	100.0
IT학부	7	21	1	2	31
	22.6	67.7	3.2	6.5	100.0
디자인학부	11	31	10	0	52
	21.2	59.6	19.2	0.0	100.0
예술학부	43	51	20	2	116
	37.1	44.0	17.2	1.7	100.0
인문사회과학부	98	116	46	6	266
	36.8	43.6	17.3	2.3	100.0
간호복지학부	7	20	9	1	37
	18.9	54.1	24.3	2.7	100.0
전체	178	246	91	15	530
	33.6	46.4	17.2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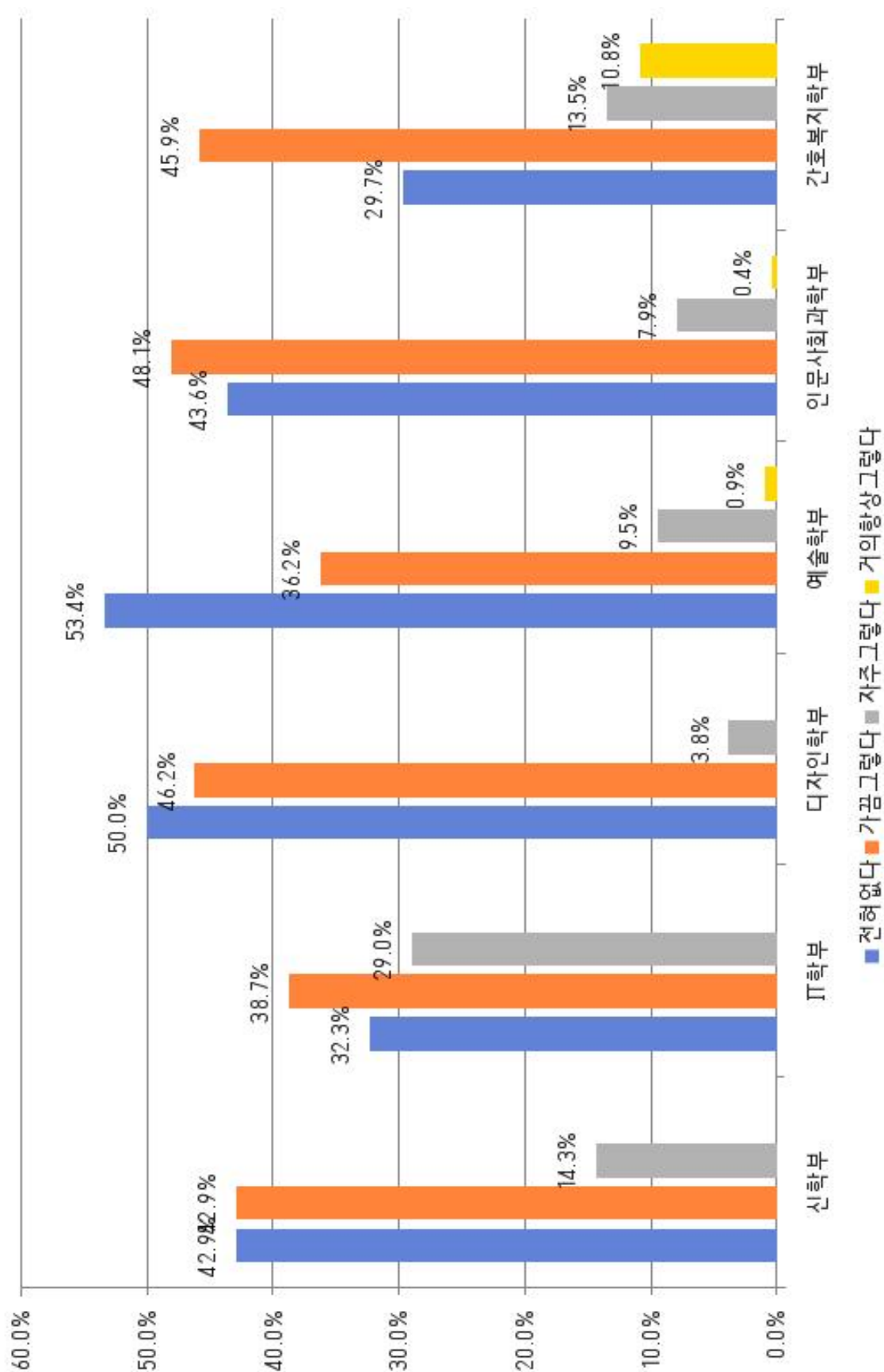
(3) 분노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7%가 '전혀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44.3%), '자주 그렇다'(9.8%), '거의 항상 그렇다'(1.1%)순이다.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48.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디자인학부(46.2%), 간호복지학부(45.9%), 신학부(42.9%)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전혀없다(57.6%), 가끔 그렇다(35.5%) 순이었고 여학생은 가끔 그렇다(48.7%), 전혀 없다(3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분노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99	61	9	3	172
	57.6	35.5	5.2	1.7	100.0
여	138	174	43	2	357
	38.7	48.7	12.0	0.6	100.0
기타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12	12	4	0	28
	42.9	42.9	14.3	0.0	100.0
IT학부	10	12	9	0	31
	32.3	38.7	29.0	0.0	100.0
디자인학부	26	24	2	0	52
	50.0	46.2	3.8	0.0	100.0
예술학부	62	42	11	1	116
	53.4	36.2	9.5	0.9	100.0
인문사회과학부	116	128	21	1	266
	43.6	48.1	7.9	0.4	100.0
간호복지학부	11	17	5	4	37
	29.7	45.9	13.5	10.8	100.0
전체	237	235	52	6	530
	44.7	44.3	9.8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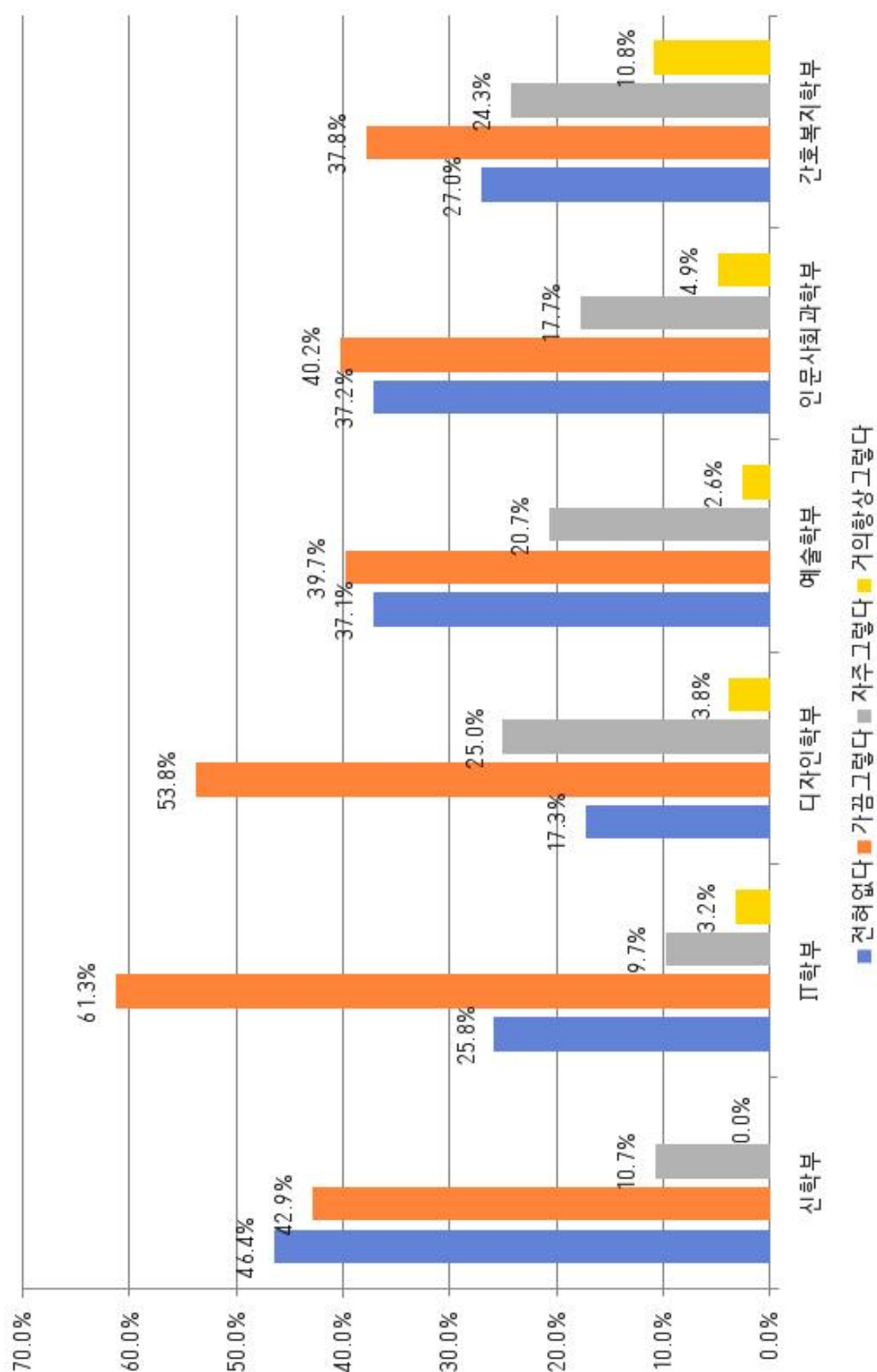
(4) 우울 · 무기력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2.6%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4.3%), ‘자주 그렇다’(18.7%), ‘거의 항상 그렇다’(4.3%)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IT학부가 61.3%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53.8%), 신학부(42.9%), 인문사회과학부(4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가끔 그렇다’(44.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전혀 없다’(46.5%)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2-4> 우울·무기력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80	69	16	7	172
	46.5	40.1	9.3	4.1	100.0
여	102	157	83	15	357
	28.6	44.0	23.2	4.2	100.0
기타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13	12	3	0	28
	46.4	42.9	10.7	0.0	100.0
IT학부	8	19	3	1	31
	25.8	61.3	9.7	3.2	100.0
디자인학부	9	28	13	2	52
	17.3	53.8	25.0	3.8	100.0
예술학부	43	46	24	3	116
	37.1	39.7	20.7	2.6	100.0
인문사회과학부	99	107	47	13	266
	37.2	40.2	17.7	4.9	100.0
간호복지학부	10	14	9	4	37
	27.0	37.8	24.3	10.8	100.0
전체	182	226	99	23	530
	34.3	42.6	18.7	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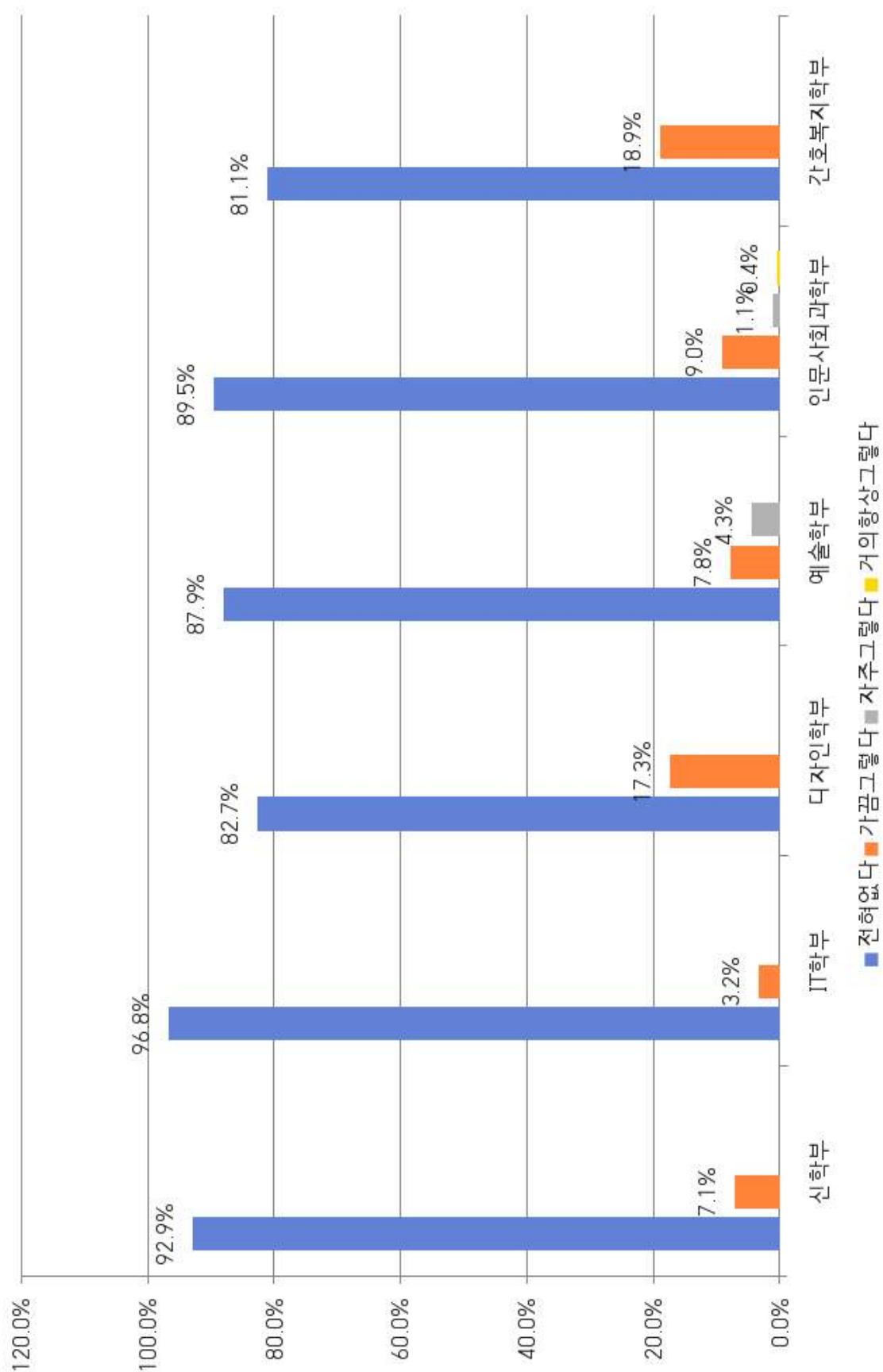
(5) 자살충동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충동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88.5%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가끔 그렇다'(9.8%), '자주 그렇다'(1.5%), '거의 항상 그렇다'(0.2%)순이다. 자살충동이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96.8%), 신학부(92.9%)순으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학부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87.8%), 여학생(89.1%) 모두 '전혀 없다'가 가장 높았다.

<표 42-5> 자살충동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151	18	2	1	172
	87.8	10.5	1.2	0.6	100.0
여	318	34	5	0	357
	89.1	9.5	1.4	0.0	100.0
기타	0	0	1	0	1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26	2	0	0	28
	92.9	7.1	0.0	0.0	100.0
IT학부	30	1	0	0	31
	96.8	3.2	0.0	0.0	100.0
디자인학부	43	9	0	0	52
	82.7	17.3	0.0	0.0	100.0
예술학부	102	9	5	0	116
	87.9	7.8	4.3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238	24	3	1	266
	89.5	9.0	1.1	0.4	100.0
간호복지학부	30	7	0	0	37
	81.1	18.9	0.0	0.0	100.0
전체	469	52	8	1	530
	88.5	9.8	1.5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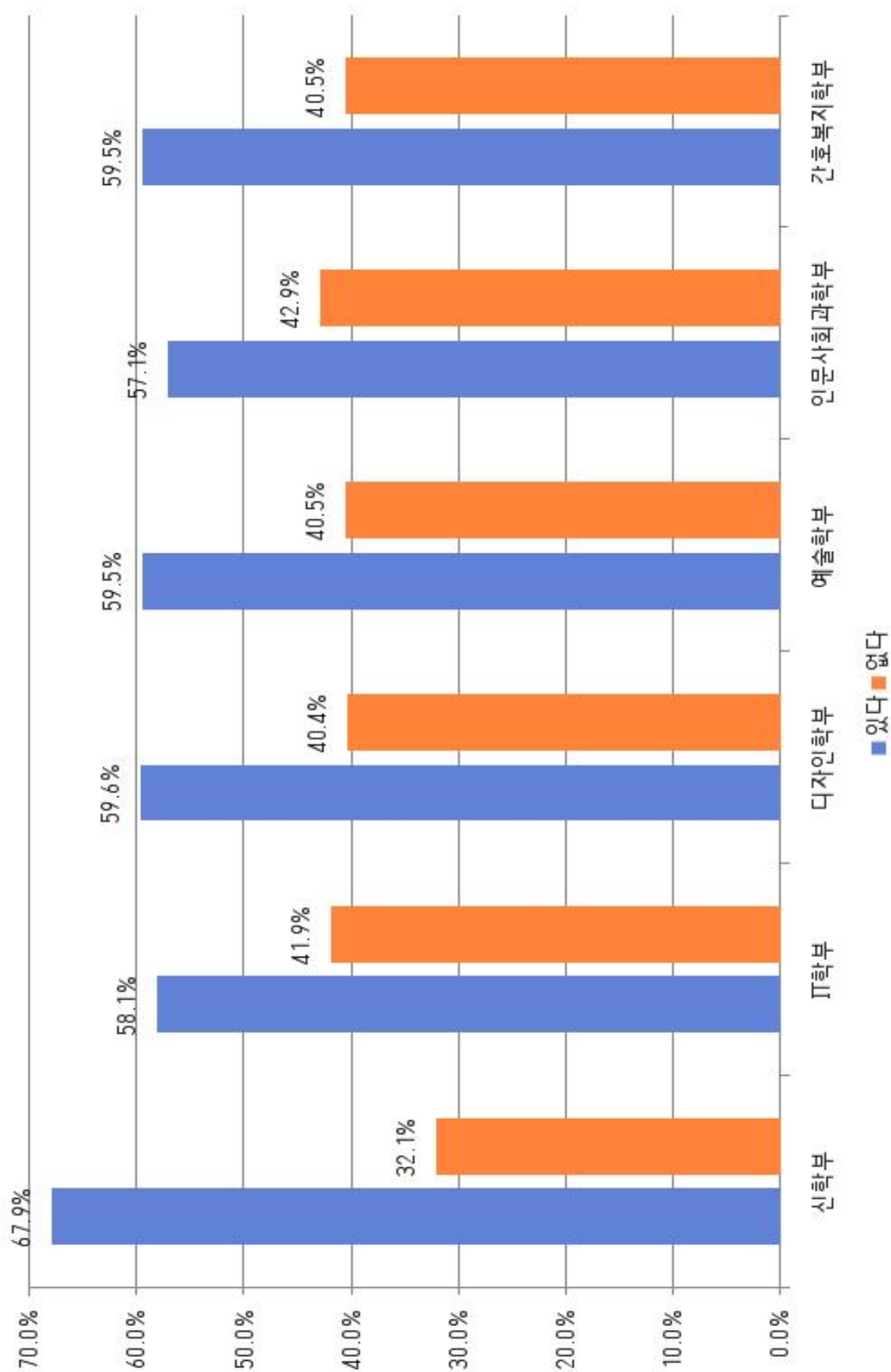


2)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신입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8.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학부가 67.9%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59.6%), 예술학부(59.5%), 간호복지학부(59.5%)로 대부분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65.5%)은 남학생(44.2%)에 비하여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작년의 55.2%에 비하여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43>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76	96	172
	44.2	55.8	100.0
여	234	123	357
	65.5	34.5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19	9	28
	67.9	32.1	100.0
IT학부	18	13	31
	58.1	41.9	100.0
디자인학부	31	21	52
	59.6	40.4	100.0
예술학부	69	47	116
	59.5	40.5	100.0
인문사회과학부	152	114	266
	57.1	42.9	100.0
간호복지학부	22	15	37
	59.5	40.5	100.0
전체	311	219	530
	58.7	4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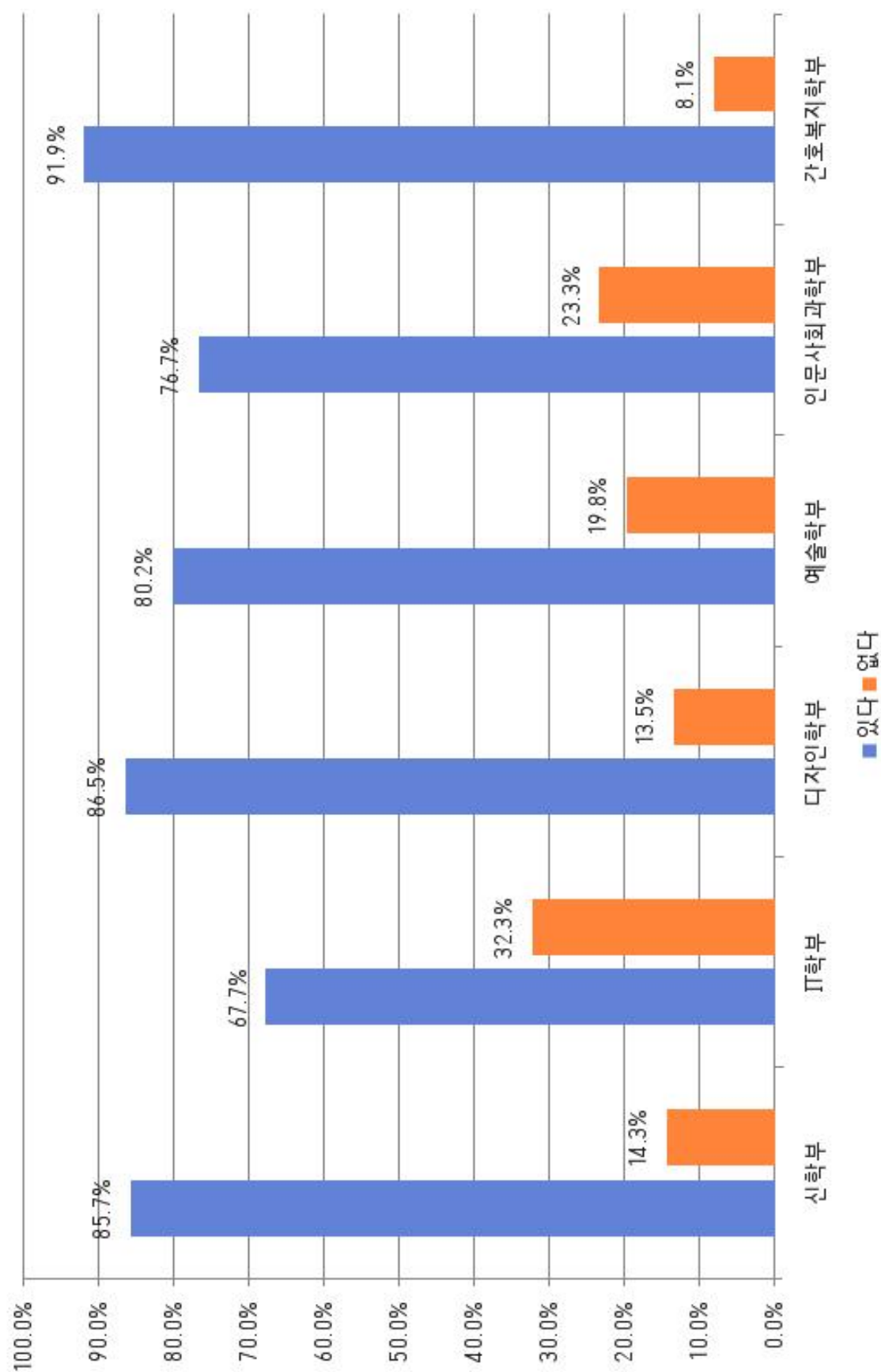


3)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79.4%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없다’라는 응답에는 20.6%가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심리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에 간호복지학부가 9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디자인학부(86.5%), 신학부(85.7%), 예술학부(8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72.7%), 여학생(82.6%) 모두 심리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25	47	172
	72.7	27.3	100.0
여	295	62	357
	82.6	17.4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24	4	28
	85.7	14.3	100.0
IT학부	21	10	31
	67.7	32.3	100.0
디자인학부	45	7	52
	86.5	13.5	100.0
예술학부	93	23	116
	80.2	19.8	100.0
인문사회과학부	204	62	266
	76.7	23.3	100.0
간호복지학부	34	3	37
	91.9	8.1	100.0
전체	421	109	530
	79.4	2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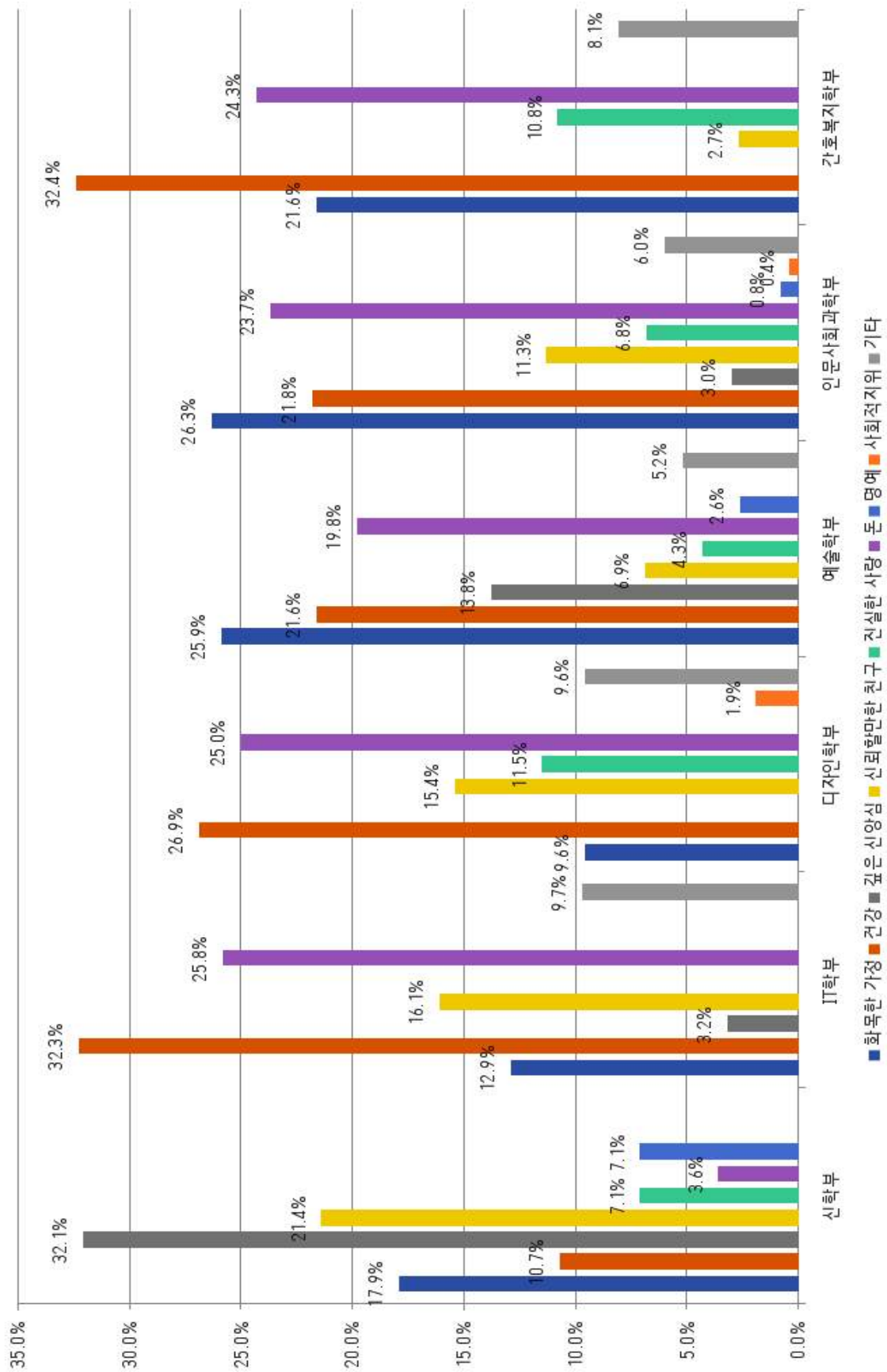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신입생의 응답 중 ‘화목한 가정’과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돈’(22.1%), ‘신뢰할만한 친구’(10.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는 응답에 인문사회과학부(26.3%), 예술학부(25.9%), 간호복지학부(21.6%)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라고 응답에는 간호복지학부(32.4%), IT학부(32.3%), 디자인학부(26.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24.4%) 높은 비율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24.9%) 높은 비율로 ‘건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5>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

	화목한 가정	건강	깊은 신앙심	신뢰할 만한 친구	진실한 사랑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기타	전체
남	42	33	6	20	19	35	3	0	14	172
	24.4	19.2	3.5	11.6	11.0	20.3	1.7	0.0	8.1	100.0
여	79	89	28	38	16	82	4	2	19	357
	22.1	24.9	7.8	10.6	4.5	23.0	1.1	0.6	5.3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5	3	9	6	2	1	2	0	0	28
	17.9	10.7	32.1	21.4	7.1	3.6	7.1	0.0	0.0	100.0
IT학부	4	10	1	5	0	8	0	0	3	31
	12.9	32.3	3.2	16.1	0.0	25.8	0.0	0.0	9.7	100.0
디자인 학부	5	14	0	8	6	13	0	1	5	52
	9.6	26.9	0.0	15.4	11.5	25.0	0.0	1.9	9.6	100.0
예술학부	30	25	16	8	5	23	3	0	6	116
	25.9	21.6	13.8	6.9	4.3	19.8	2.6	0.0	5.2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0	58	8	30	18	63	2	1	16	266
	26.3	21.8	3.0	11.3	6.8	23.7	0.8	0.4	6.0	100.0
간호복지 학부	8	12	0	1	4	9	0	0	3	37
	21.6	32.4	0.0	2.7	10.8	24.3	0.0	0.0	8.1	100.0
전체	122	122	34	58	35	117	7	2	33	530
	23.0	23.0	6.4	10.9	6.6	22.1	1.3	0.4	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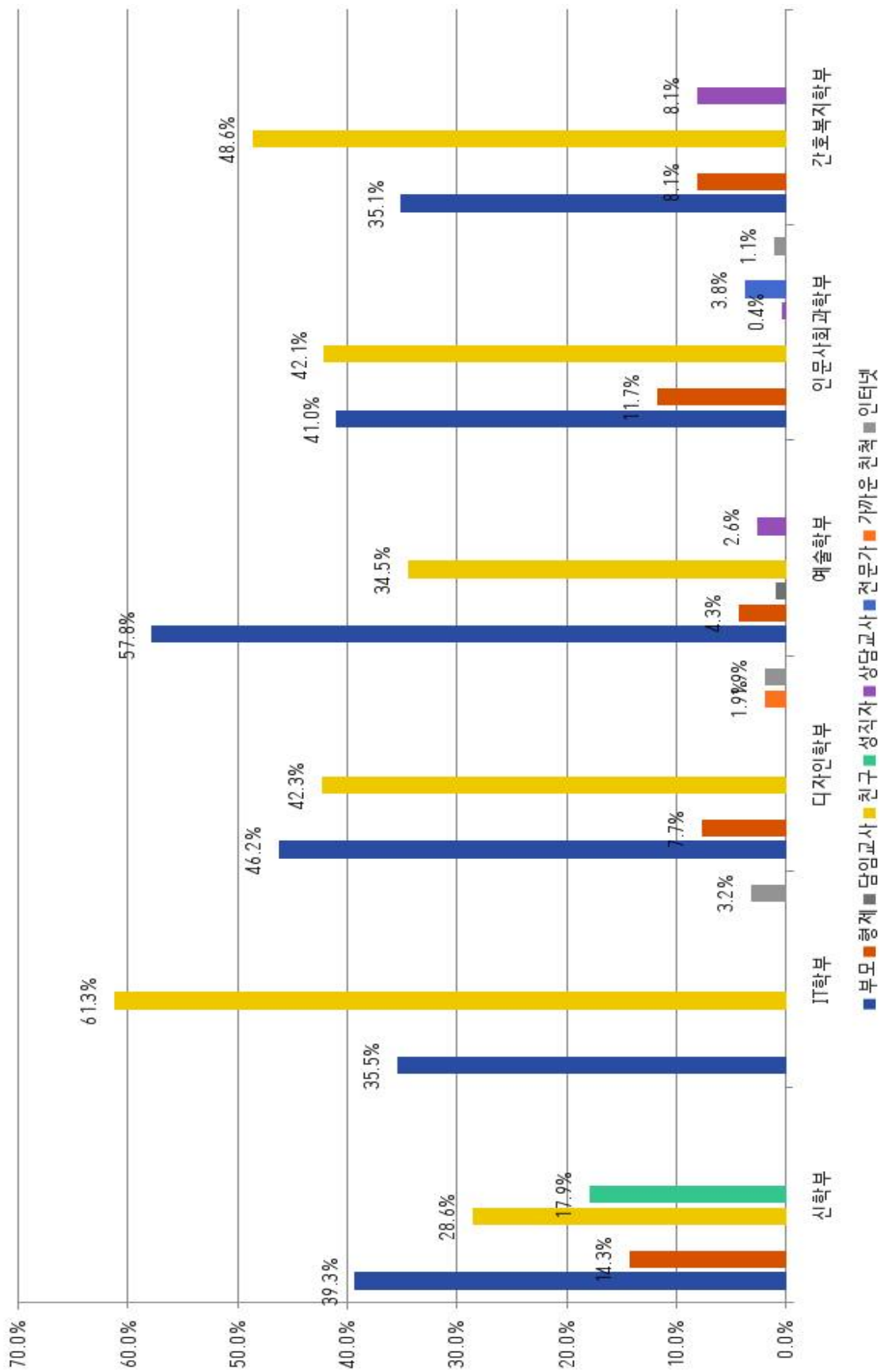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는 '부모'라는 응답이 전체의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친구'(41.3%), '형제'(8.9%), '전문가'(1.9%)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 시 의논상대가 '부모'라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57.8%), 디자인학부(46.2%), 인문사회과학부(41.0%) 순으로 나타났고, '친구'라는 응답에서는 IT학부(61.3%), 간호복지학부(48.6%), 디자인학부(42.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7.7%), 여학생(42.9%) 모두 문제 발생 시의 의논상대로 '부모'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46>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단위: 명, %

	부모	형제	담임 교사	친구	성직자	상담 교사	전문가	가까운 친척	인터넷	전체
남	82	5	1	68	1	7	3	1	4	172
	47.7	2.9	0.6	39.5	0.6	4.10	1.7	0.6	2.3	100.0
여	153	41	0	151	4	0	7	0	1	357
	42.9	11.5	0.0	42.3	1.1	0.0	2.0	0.0	0.3	100.0
기타	0	1	0	0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1	4	0	8	5	0	0	0	0	28
	39.3	14.3	0.0	28.6	17.9	0.0	0.0	0.0	0.0	100.0
IT학부	11	0	0	19	0	0	0	0	1	31
	35.5	0.0	0.0	61.3	0.0	0.0	0.0	0.0	3.2	100.0
디자인 학부	24	4	0	22	0	0	0	1	1	52
	46.2	7.7	0.0	42.3	0.0	0.0	0.0	1.9	1.9	100.0
예술학부	67	5	1	40	0	3	0	0	0	116
	57.8	4.3	0.9	34.5	0.0	2.6	0.0	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09	31	0	112	0	1	10	0	3	266
	41.0	11.7	0.0	42.1	0.0	0.4	3.8	0.0	1.1	100.0
간호복지 학부	13	3	0	18	0	3	0	0	0	37
	35.1	8.1	0.0	48.6	0.0	8.1	0.0	0.0	0.0	100.0
전체	235	47	1	219	5	7	10	1	5	530
	44.3	8.9	0.2	41.3	0.9	1.3	1.9	0.2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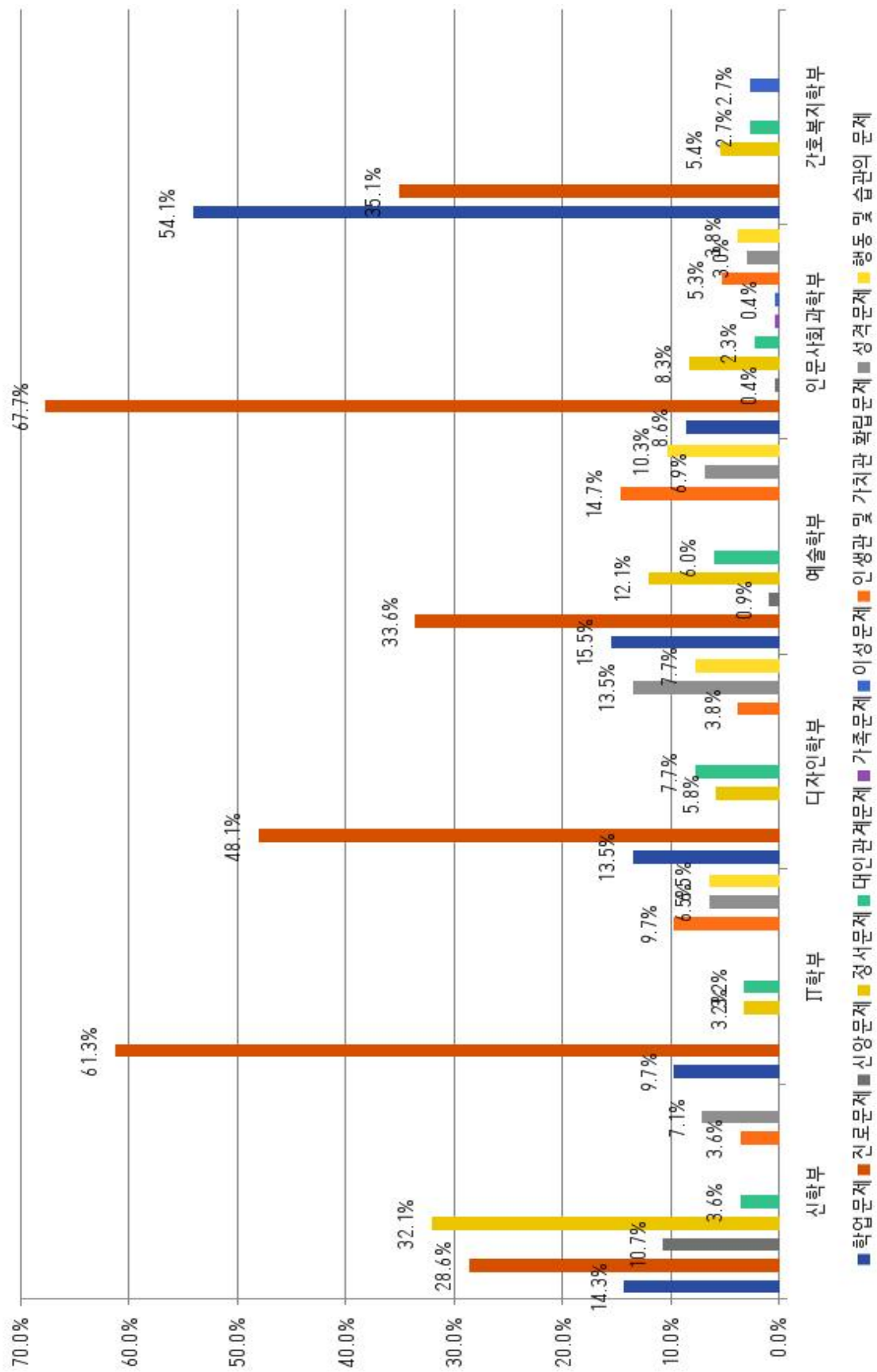
6)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3.6%가 '진로문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학업문제'(14.2%), '정서문제'(9.6%),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문제'(7.0%) 순이었다. '진로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67.7%로 가장 높았고, IT학부(61.3%), 디자인학부(48.1%), 간호복지학부(35.1%) 순이다. '학업 문제'의 경우 간호복지학부가 54.1%로 가장 높았고, 예술학부(15.5%), 디자인학부(13.5%), 신학부(14.3%)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4.1%), 여학생(53.5%) 모두 높은 비율로 '진로문제'라고 응답하였다. 타 학부에 비해 간호복지학부의 학생들만 학업문제에 과반수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표 47>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단위: 명, %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신앙 문제	정서 문제	대인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이성 문제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 문제	성격 문제	행동 및 습관의 문제	전체
남	23	93	4	9	8	0	1	16	10	8	172
	13.4	54.1	2.3	5.2	4.7	0.0	0.6	9.3	5.8	4.7	100.0
여	52	191	1	41	12	1	1	21	17	20	357
	14.6	53.5	0.3	11.5	3.4	0.3	0.3	5.9	4.8	5.6	100.0
기타	0	0	0	1	0	0	0	0	0	0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	8	3	9	1	0	0	1	2	0	28
	14.3	28.6	10.7	32.1	3.6	0.0	0.0	3.6	7.1	0.0	100.0
IT학부	3	19	0	1	1	0	0	3	2	2	31
	9.7	61.3	0.0	3.2	3.2	0.0	0.0	9.7	6.5	6.5	100.0
디자인 학부	7	25	0	3	4	0	0	2	7	4	52
	13.5	48.1	0.0	5.8	7.7	0.0	0.0	3.8	13.5	7.7	100.0
예술 학부	18	39	1	14	7	0	0	17	8	12	116
	15.5	33.6	0.9	12.1	6.0	0.0	0.0	14.7	6.9	10.3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23	180	1	22	6	1	1	14	8	10	266
	8.6	67.7	0.4	8.3	2.3	0.4	0.4	5.3	3.0	3.8	100.0
간호 복지 학부	20	13	0	2	1	0	1	0	0	0	37
	54.1	35.1	0.0	5.4	2.7	0.0	2.7	0.0	0.0	0.0	100.0
전체	75	284	5	51	20	1	2	37	27	28	530
	14.2	53.6	0.9	9.6	3.8	0.2	0.4	7.0	5.1	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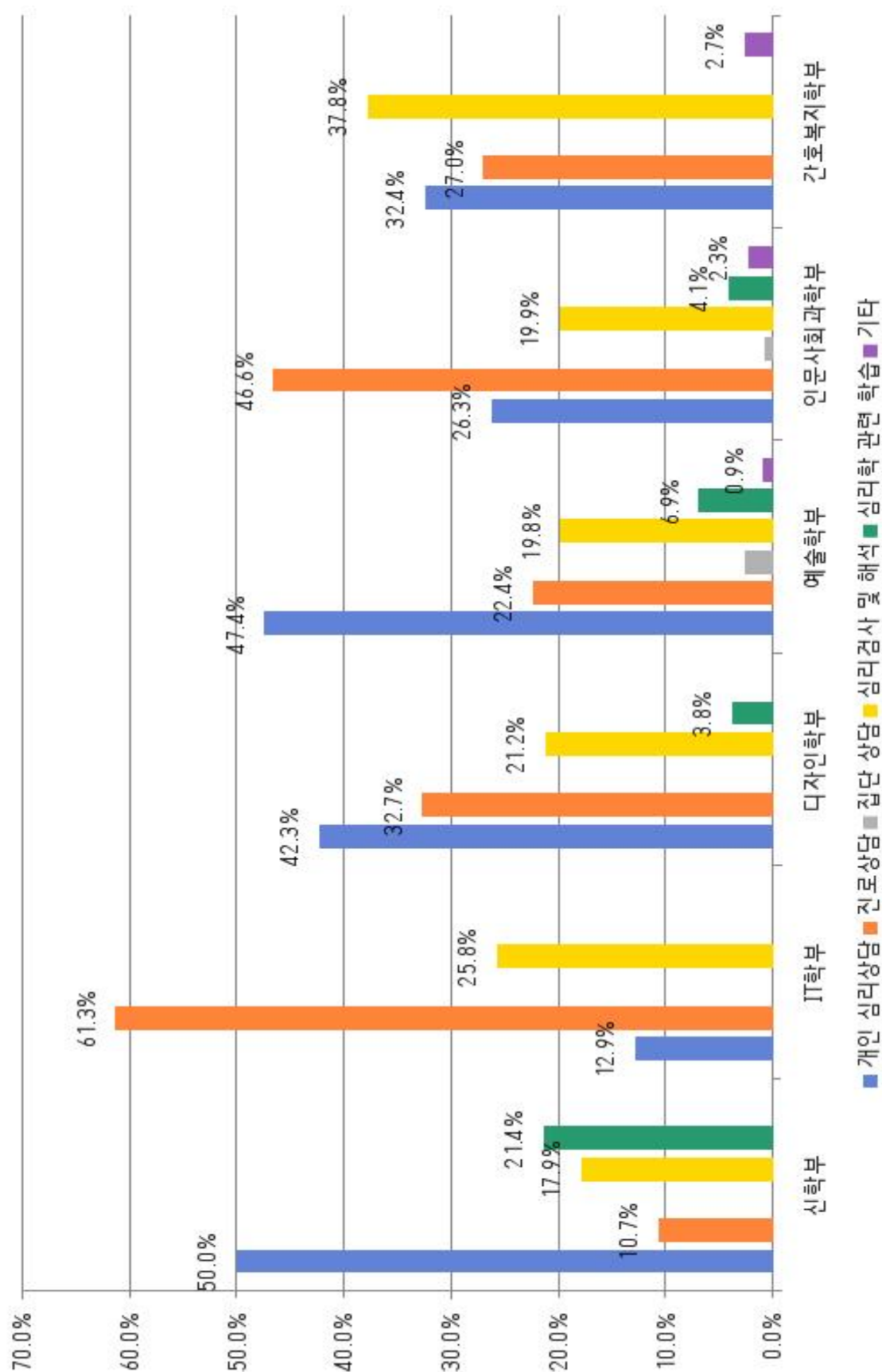
7) 상담실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신입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 상담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진로상담’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개인 심리상담’(33.4%), ‘심리검사 및 해석’(21.5%), ‘심리학 관련 학습’(5.1%)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을 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61.3%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사회과학부 46.6%, 디자인학부 32.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1.9%), 여학생(35.6%) 모두 ‘진로상담’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8> 상담센터 이용 시 받고 싶은 검사

단위: 명, %

	개인 심리상담	진로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심리학 관련 학습	기타	전체
남	50	72	5	31	9	5	172
	29.1	41.9	2.9	18.0	5.2	2.9	100.0
여	126	127	0	83	18	3	357
	35.3	35.6	0.0	23.2	5.0	0.8	100.0
기타	1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4	3	0	5	6	0	28
	50.0	10.7	0.0	17.9	21.4	0.0	100.0
IT학부	4	19	0	8	0	0	31
	12.9	61.3	0.0	25.8	0.0	0.0	100.0
디자인학부	22	17	0	11	2	0	52
	42.3	32.7	0.0	21.2	3.8	0.0	100.0
예술학부	55	26	3	23	8	1	116
	47.4	22.4	2.6	19.8	6.9	0.9	100.0
인문사회과학부	70	124	2	53	11	6	266
	26.3	46.6	0.8	19.9	4.1	2.3	100.0
간호복지학부	12	10	0	14	0	1	37
	32.4	27.0	0.0	37.8	0.0	2.7	100.0
전체	177	199	5	114	27	8	530
	33.4	37.5	0.9	21.5	5.1	1.5	100.0



8. 자살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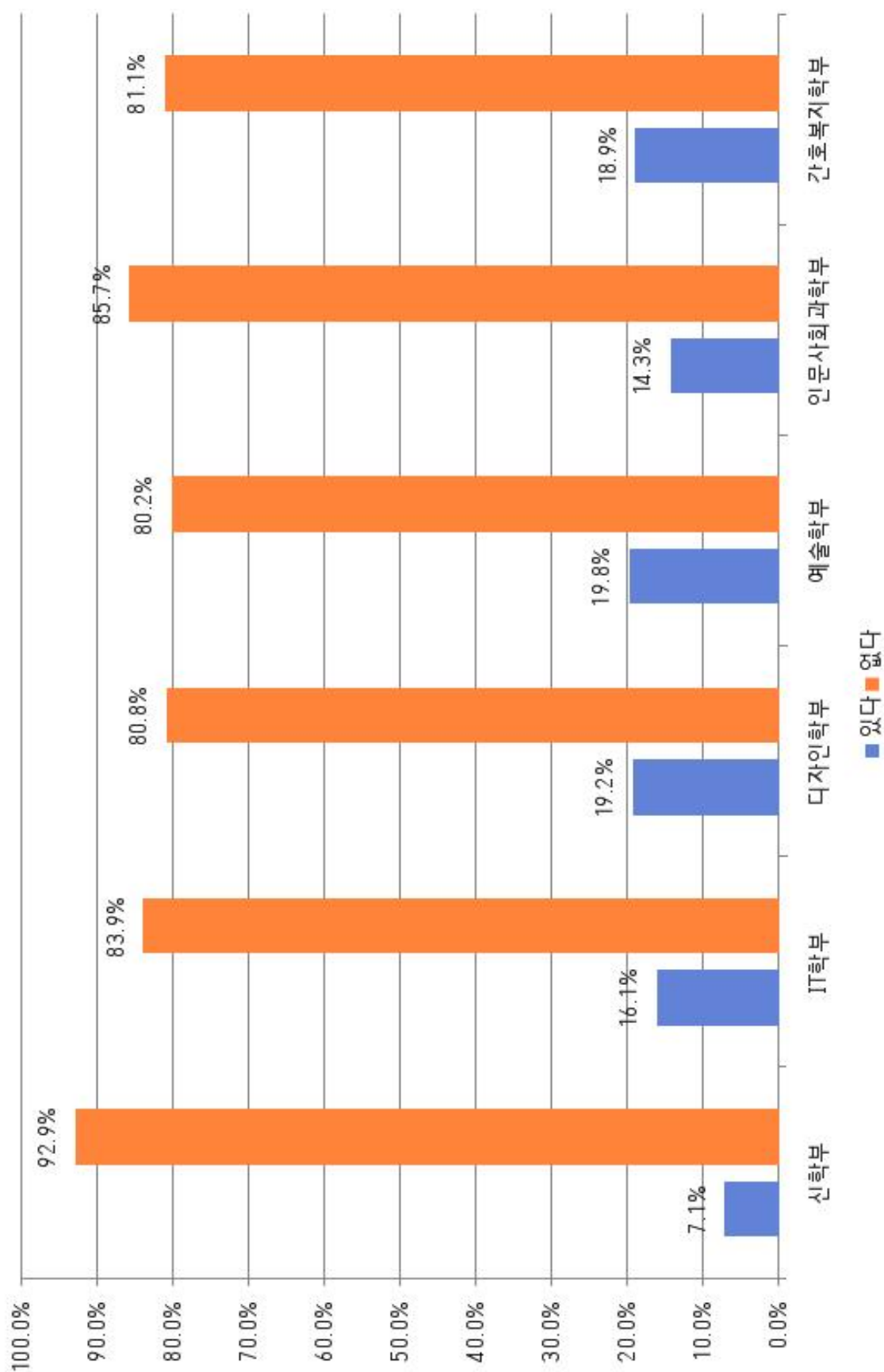
1)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 유무

신입생들에게 과거 또는 최근에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84.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92.9%)를 비롯한 모든 학부에서 과반 수 이상이 자살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과거 또는 최근 자살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남학생(90.7%)이 여학생(81.0%)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9>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있다	없다	전체
남	16	156	172
	9.3	90.7	100.0
여	68	289	357
	19.0	81.0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2	26	28
	7.1	92.9	100.0
IT학부	5	26	31
	16.1	83.9	100.0
디자인학부	10	42	52
	19.2	80.8	100.0
예술학부	23	93	116
	19.8	80.2	100.0
인문사회과학부	38	228	266
	14.3	85.7	100.0
간호복지학부	7	30	37
	18.9	81.1	100.0
전체	85	445	530
	16.0	84.0	100.0



2)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신입생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29.4%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학업문제’(16.5%), ‘대인관계문제’(14.1%), ‘정신건강문제’(12.9%)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에 디자인학부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예술학부(30.4%), 인문사회과학부(26.3%), 간호복지학부(14.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5.0%), 여학생(30.9%) 모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자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50>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단위: 명, %

	성격 문제	가정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이성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때	기타	무응답	전체
남	1	1	1	1	0	3	1	2	4	2	0	16
	6.3	6.3	6.3	6.3	0.0	18.8	6.3	12.5	25.0	12.5	0.0	100.0
여	1	8	11	1	2	11	3	9	21	0	1	68
	1.5	11.8	16.2	1.5	2.9	16.2	4.4	13.2	30.9	0.0	1.5	100.0
기타	0	1	0	0	0	0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0	0	0	0	0	0	0	2	0	0	0	2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IT학부	0	0	2	0	0	1	0	1	0	1	0	5
	0.0	0.0	40.0	0.0	0.0	20.0	0.0	20.0	0.0	20.0	0.0	100.0
디자인 학부	0	0	3	0	0	0	0	0	7	0	0	10
	0.0	0.0	30.0	0.0	0.0	0.0	0.0	0.0	70.0	0.0	0.0	100.0
예술 학부	1	5	1	0	0	3	0	5	7	0	1	23
	4.3	21.7	4.3	0.0	0.0	13.0	0.0	21.7	30.4	0.0	4.3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1	2	6	1	2	9	3	3	10	1	0	38
	2.6	5.3	15.8	2.6	5.3	23.7	7.9	7.9	26.3	2.6	0.0	100.0
간호 복지 학부	0	3	0	1	0	1	1	0	1	0	0	7
	0.0	42.9	0.0	14.3	0.0	14.3	14.3	0.0	14.3	0.0	0.0	100.0
전체	2	10	12	2	2	14	4	11	25	2	1	85
	2.4	11.8	14.1	2.4	2.4	16.5	4.7	12.9	29.4	2.4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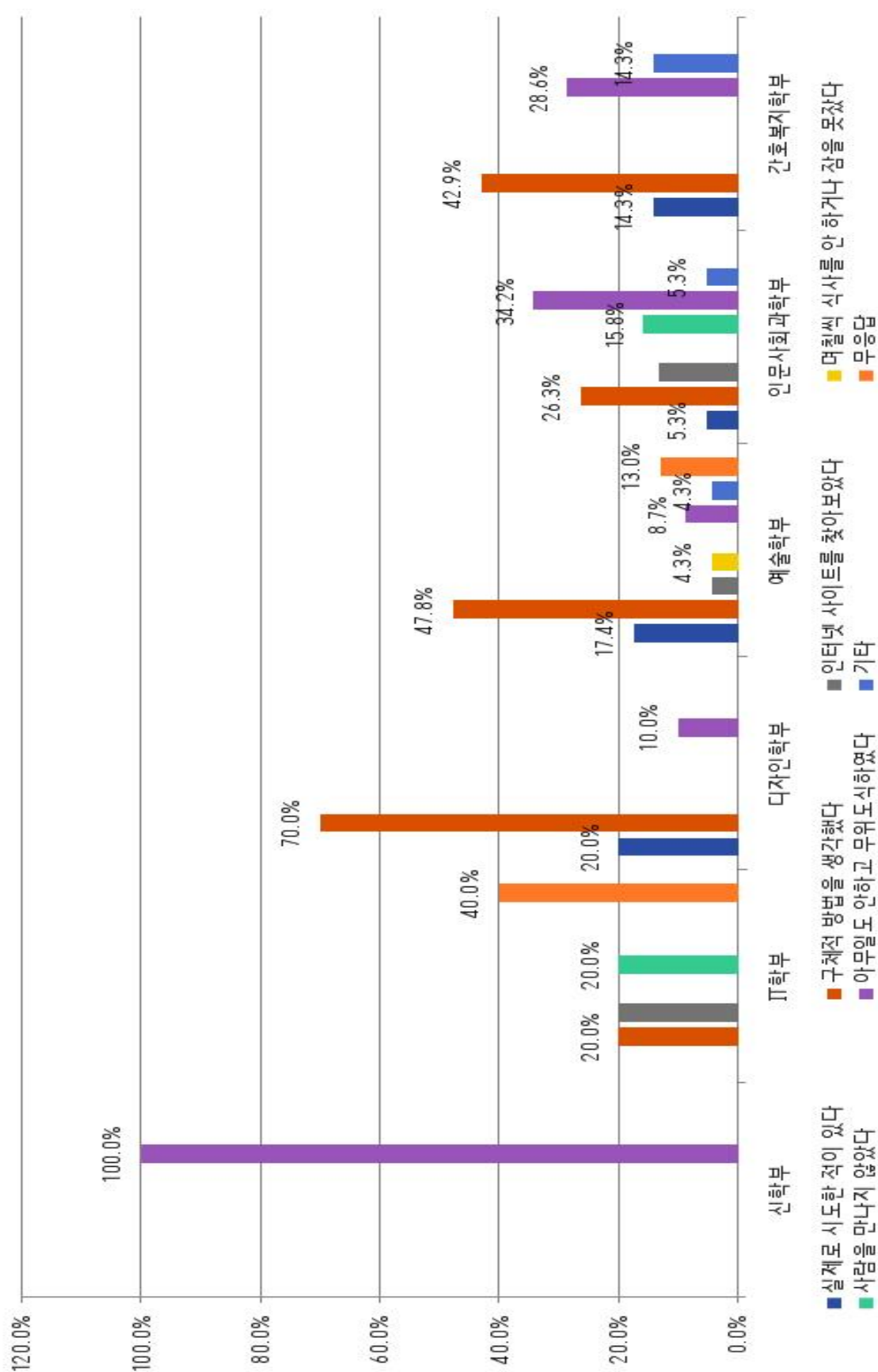
3)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37.6%가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하였다’(23.5%),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10.6%), ‘인터넷사이트를 찾아보았다’(8.2%),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8.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구체적 방법을 생각 했다’라고 응답한 학부는 디자인학부(70.0%), 예술학부(47.8%), 간호학부(42.9%)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구체적 방법을 생각 했다’는 비율은 남학생(37.5%)과 여학생(38.2%)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단위: 명, %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구체적 방법을 생각 했다	인터넷 사이트 를 찾아 보았다	며칠씩 식사를 안하 거나 잠을 못자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 도식 하였다	기타	무응답	전체
남	0	6	1	0	3	5	1	0	16
	0.0	37.5	6.3	0.0	18.8	31.3	6.3	0.0	100.0
여	8	26	6	1	4	15	3	5	68
	11.8	38.2	8.8	1.5	5.9	22.1	4.4	7.4	100.0
기타	1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0	0	0	0	0	2	0	0	2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IT학부	0	1	1	0	1	0	0	2	5
	0.0	20.0	20.0	0.0	20.0	0.0	0.0	40.0	100.0
디자인학부	2	7	0	0	0	1	0	0	10
	20.0	70.0	0.0	0.0	0.0	10.0	0.0	0.0	100.0
예술학부	4	11	1	1	0	2	1	3	23
	17.4	47.8	4.3	4.3	0.0	8.7	4.3	13.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	10	5	0	6	13	2	0	38
	5.3	26.3	13.2	0.0	15.8	34.2	5.3	0.0	100.0
간호복지 학부	1	3	0	0	0	2	1	0	7
	14.3	42.9	0.0	0.0	0.0	28.6	14.3	0.0	100.0
전체	9	32	7	1	7	20	4	5	85
	10.6	37.6	8.2	1.2	8.2	23.5	4.7	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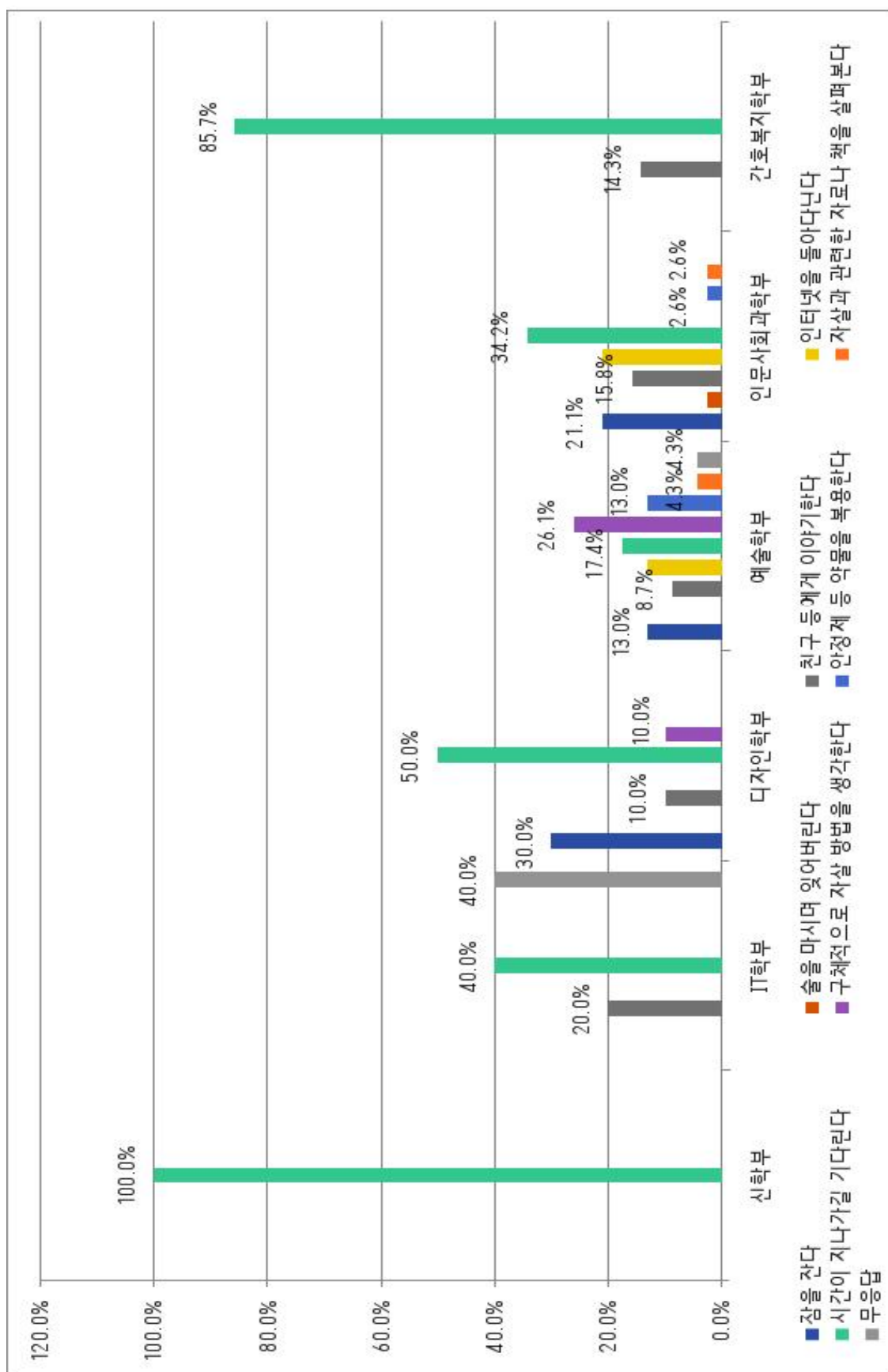
4) 자살 충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신입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37.6%)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잠을 잔다’(16.5%),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12.9%), ‘인터넷을 돌아 다닌다’(12.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대처방법으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응답에 신학부(100.0%), 간호복지학부(85.7%), 디자인학부(5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3.8%)과 여학생(35.3%) 모두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 자살 충동이 있을 때의 대처

단위: 명, %

	잠을 잔다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무응답	전체
남	2	0	4	0	7	2	0	1	0	16
	12.5	0.0	25.0	0.0	43.8	12.5	0.0	6.3	0.0	100.0
여	12	1	7	11	24	5	4	1	3	68
	17.6	1.5	10.3	16.2	35.3	7.4	5.9	1.5	4.4	100.0
기타	0	0	0	0	1	0	0	0	0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0	0	0	0	2	0	0	0	0	2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IT학부	0	0	1	0	2	0	0	0	2	5
	0.0	0.0	20.0	0.0	40.0	0.0	0.0	0.0	40.0	100.0
디자인학부	3	0	1	0	5	1	0	0	0	10
	30.0	0.0	10.0	0.0	50.0	1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3	0	2	3	4	6	3	1	1	23
	13.0	0.0	8.7	13.0	17.4	26.1	13.0	4.3	4.3	100.0
인문사회과학부	8	1	6	8	13	0	1	1	0	38
	21.1	2.6	15.8	21.1	34.2	0.0	2.6	2.6	0.0	100.0
간호복지학부	0	0	1	0	6	0	0	0	0	7
	0.0	0.0	14.3	0.0	85.7	0.0	0.0	0.0	0.0	100.0
전체	14	1	11	11	32	7	4	2	3	85
	16.5	1.2	12.9	12.9	37.6	8.2	4.7	2.4	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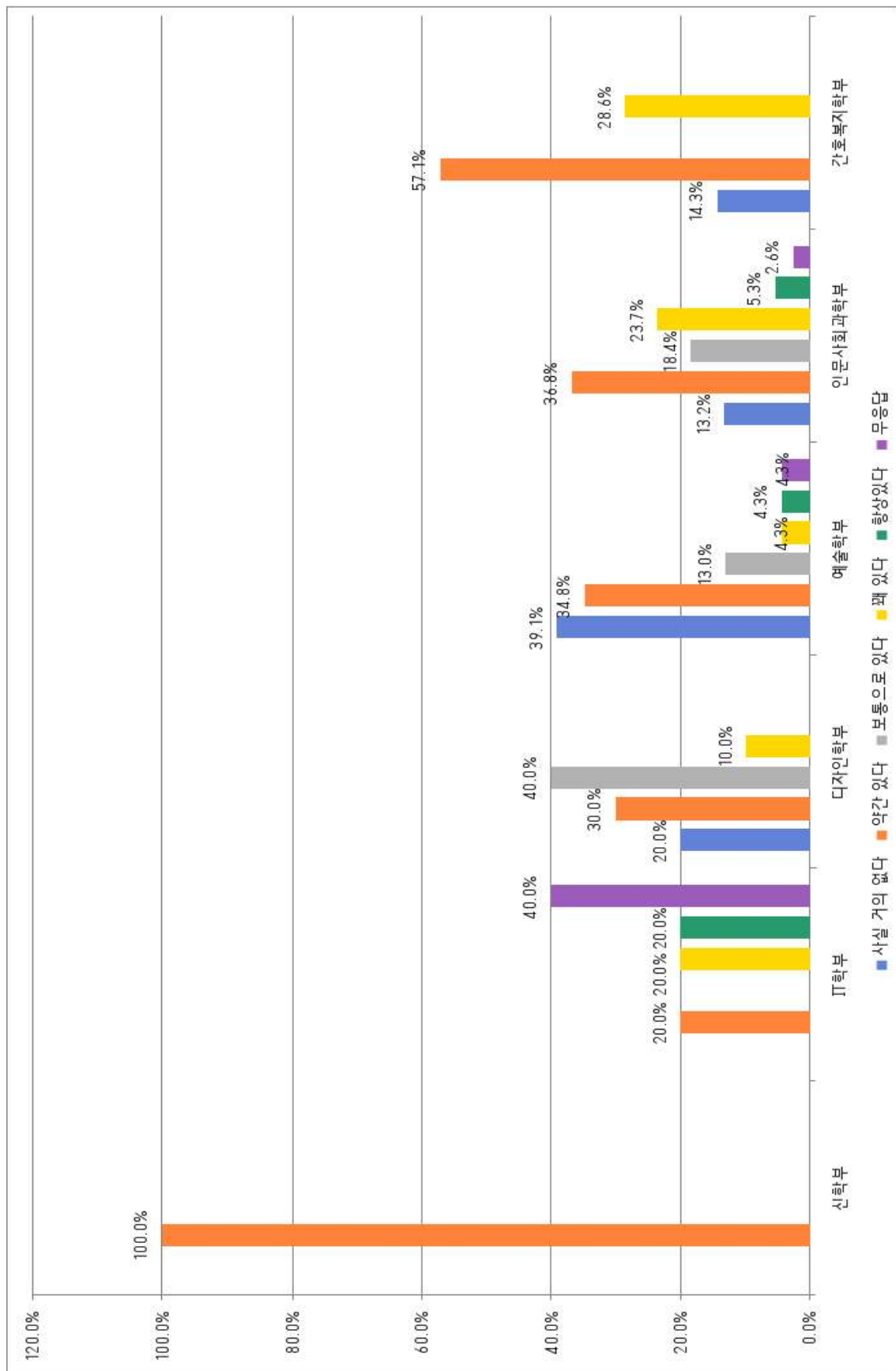
5)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대처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약간 있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실 거의 없다’(20.0%), ‘보통으로 있다’와 ‘꽤 있다’(16.5%)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호복지학부(57.1%), 인문사회과학부(36.8%), 예술학부(34.8%)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사실 거의 없다’에 31.3%, 여학생은 ‘약간 있다’가 44.1%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3>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단위: 명, %

	사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보통으로 있다	꽤 있다	항상있다	무응답	전체
남	5	2	2	4	3	0	16
	31.3	12.5	12.5	25.0	18.8	0.0	100.0
여	12	30	11	10	1	4	68
	17.6	44.1	16.2	14.7	1.5	5.9	100.0
기타	0	0	1	0	0	0	1
	0.0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0	2	0	0	0	0	2
	0.0	100.0	0.0	0.0	0.0	0.0	100.0
IT학부	0	1	0	1	1	2	5
	0.0	20.0	0.0	20.0	20.0	40.0	100.0
디자인학부	2	3	4	1	0	0	10
	20.0	30.0	40.0	10.0	0.0	0.0	100.0
예술학부	9	8	3	1	1	1	23
	39.1	34.8	13.0	4.3	4.3	4.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5	14	7	9	2	1	38
	13.2	36.8	18.4	23.7	5.3	2.6	100.0
간호복지 학부	1	4	0	2	0	0	7
	14.3	57.1	0.0	28.6	0.0	0.0	100.0
전체	17	32	14	14	4	4	85
	20.0	37.6	16.5	16.5	4.7	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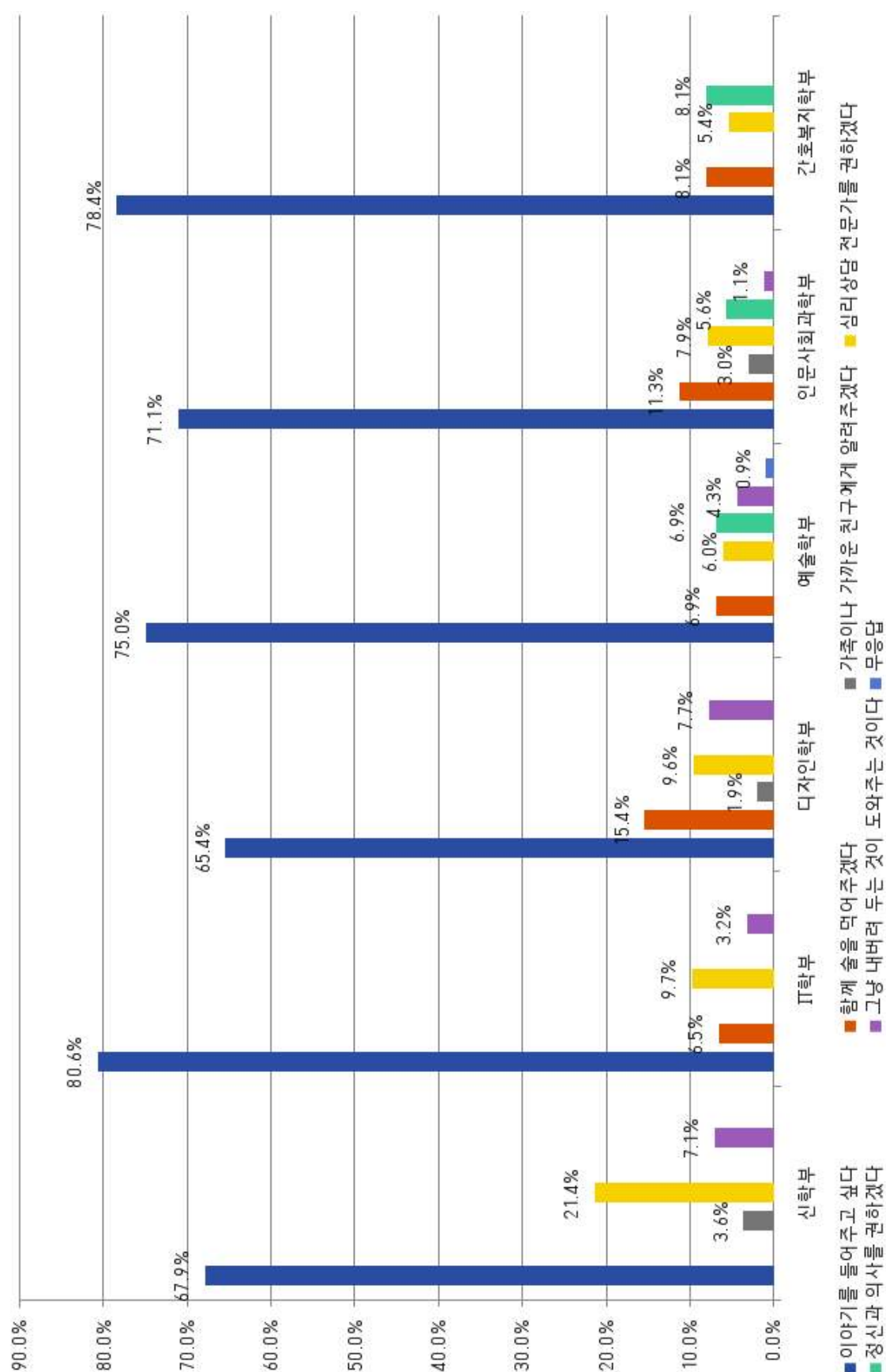


6)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72.3%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9.6%),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8.3%),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4.9%),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80.6%로 가장 높았고, 간호복지학부(78.4%), 예술학부(75.0%), 인문사회과학부(71.1%) 순이다. 성별로 보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응답에 여학생(74.8%)이, 남학생(67.4%)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4>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단위: 명, %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함께 술을 먹어 주겠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 주겠다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는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무응답	전체
남	116	29	3	9	6	8	1	172
	67.4	16.9	1.7	5.2	3.5	4.7	0.6	100.0
여	267	22	7	35	20	6	0	357
	74.8	6.2	2.0	9.8	5.6	1.7	0.0	100.0
기타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19	0	1	6	0	2	0	28
	67.9	0.0	3.6	21.4	0.0	7.1	0.0	100.0
IT학부	25	2	0	3	0	1	0	31
	80.6	6.5	0.0	9.7	0.0	3.2	0.0	100.0
디자인학부	34	8	1	5	0	4	0	52
	65.4	15.4	1.9	9.6	0.0	7.7	0.0	100.0
예술학부	87	8	0	7	8	5	1	116
	75.0	6.9	0.0	6.0	6.9	4.3	0.9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89	30	8	21	15	3	0	266
	71.1	11.3	3.0	7.9	5.6	1.1	0.0	100.0
간호복지 학부	29	3	0	2	3	0	0	37
	78.4	8.1	0.0	5.4	8.1	0.0	0.0	100.0
전체	383	51	10	44	26	15	1	530
	72.3	9.6	1.9	8.3	4.9	2.8	0.2	100.0



IV. 결론

본 연구는 2020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들의 개인 신상,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활,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이성 및 성, 상담센터 이용, 자살 관련 문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신입생들의 일반 특성과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비롯한 대학 생활 적응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과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2020학년도 신입생들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신입생 실태조사에는 신입생 총 618명 중 530명이 응답하여, 총 85.5%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항은 총 55문항이며, 그 중 상담실 관련 문항에서는 1문항이 5개 소문항으로 나뉘었다.

1)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

신입생 전체 응답자 530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2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남학생 32.5%, 여학생 67.4%의 참여율을 보였다. 학부별 남녀 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45.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35.7%), 인문사회과학부(34.2.4%)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0.8%), 간호복지학부(75.7%), 예술학부(66.4%) 순이다. 또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2020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록하여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19세(47.9%), 만 18세(2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연령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상에 관하여는 모두 10문항으로 학부, 성별, 연령을 포함한 심리적 만족도와 경험정도를 질문하였다. 심리적 만족도는 4문항으로 건강, 대인관계, 자신의 성격, 자신의 외모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만족(25.8%), 보통(25.7%) 순이었다.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학생(41.7%)이 남학생(39.5%)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입생들이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45.16%)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매우만족(26.4%)으로 응답했으며, 보통(22.5%)이 뒤를 이었다. 성별을 비교하면, 여학생(71.4%)과 남학생(71.5%)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대인관계에서 만족(매우 만족,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28.3%, 매우 만족 20.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보통이상(매우 만족, 만족, 보통)은 9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9.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족 37.5%, 매우 만족 13.6% 순이다.

경험의 정도는 흡연, 음주, 연애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먼저 흡연경험 정도를 알아보면, 전

체 응답자의 75.1%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자주, 가끔)은 11.4%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53.5%, 여학생 76.7%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또 음주 경험 정도에 대해 전체의 92.8%가 음주의 경험(자주, 가끔,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안함)이 있으며, 전체의 70.2%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음주를 하는 비율(자주, 가끔)이 여학생 69.8%, 남학생 70.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연애평경정도를 살펴보면, 연애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험 없음 19.6%, 자주 13.2%, 가끔 11.5% 순으로 나타났다.

1)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항

가정생활과 관련한 질문은 총 5문항으로 출신고교 지역,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종교, 가정분위기, 가정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이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 인천지역이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 30.9%, 대전·충청 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64.1%, 남학생이 57.6%가 경기, 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신입생들의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는 2020년도가 61.7%로 가장 많았고, 2019년 30.6%, 2018년 4.5% 순이었다.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 33.4%, 천주교 5.5%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는 기독교 100%로 나타났으나 다른 학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신입생들 대부분 자신의 가정 분위기는 비교적 화목하다 47.2% 매우 화목하다 46.8%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9.1%,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8.1%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53.3%, 여학생 51%로 가정에 대해 불만없음으로 응답했고 이어서 남학생의 경우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가 9.5%, 여학생의 경우 경제적 곤란 및 용돈부족 9.5%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불만사항에 차이가 나타났다.

2) 기타 생활과 관련된 사항

기타 생활과 관하여는 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수경험, 군 입대 예정시기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군 입대예정시기에 관해서는 군 입대 예정자에게만, 아르바이트에 관한 2문항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응답을 요구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수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25.3%로 전년도 25.5%와 비슷했다.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하여는 남학생 172명 중 150명이 응답했으며 응답하지 않은 22명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 군대를 이미 다녀왔거나 면제로 보여진다. 또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학생이 65.7%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의 22.5%와 매우 큰 차이로 보이고 있다.

3) 대학 생활과 관련된 사항

대학 생활과 관련한 문항은 18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 진학동기 및 학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 학부선택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대학생활과 관련된 사항, 졸업 및 취업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4.2%)가 장래직업준비라고 답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적성과 소질개발(17.5%), 남들도 진학 하니까(11.9%)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았는지와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사전에 알고 지원했는지에 대해 전체의 84.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년도 8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1.7%가 대학진학정보지, 21.3% 학원선생님, 20.2%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했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신입생 64.7%가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75.7%보다 감소하였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87명 중,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41.2%,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6%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21.4%,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 하겠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성이 맞아서 24.0%, 합격할 가능성 23.6%,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22.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 선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망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선택 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지망학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충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접수 기간 중이 38.1%, 고3초~원서접수 전이 37.2%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고3초~원서접수기간 중(고3초~원서접수 전, 원서접수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8.4%, 73.9%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의 도움, 복수전공의 이수, 어학연수, 교수, 하고 싶은 것과 걱정거리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것과 졸업 및 취업 관련 사항으로 졸업 후 진로계획,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 취업에 대해 학교에 바라는 도움, 졸업 후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고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경우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37.7%)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27.7%) 전문적인 상담 순으로 응답했다. 신입생들이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2.6%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5.8%가 이수할 용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전년도와 다른 응답을 하였다.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43.6%,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56.4%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29.8%)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23.2%)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20.9%),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14.5%)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36.6%)라고 응답해 2019년(50.9%)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취직준비(16%), 취미 등 다양한 활동(11.5%),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8.5%)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1.5%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11.1%), 기타(6.8%), 유학(5.7%), 사

업(4.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은 '적성'(50.4%)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일의 내용'(15.1%), '안정성'(11.3%), '보수'(10.2%)순이었다.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40.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관련교육'(29.2%), '진로관련 자기이해도움'(12.3%)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진로취업문제'(4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문제'(24.5%), '대인관계'(13.4%), '경제문제'(5.8%)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진로취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17%),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3.6%), '학교명성이 없어서'(13.2%) 순이었다.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가 29.7%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21.2%), 예술학부(19.8%) 순이다. 신학부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15.0%), '경제적 어려움'(15.0%)가 가장 높았고 IT학부는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22.6%)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의 응답이 18.5%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 응답이 25.6%로 높게 나타났다.

4)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3문항으로 핸드폰 이용시간과 주된 용도,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에 대해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의 핸드폰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 (32.5%)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시간(32.1%), 2-3시간(25.3%)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멀티미디어(47.0%), 인터넷(24.5%), 연락(18.3%)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정보검색(54.0%)과 채팅(24.2%)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게임(11.5%), 기타(6.2%) 순으로 나타났다.

5) 이성 및 성(性)과 관련된 사항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82.1%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12.3%),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4.0%),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1.3%),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0.4%)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는다' (30.5%)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28.4%), '친구와 상의'(20.0%), '기타'(8.4%)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

다’(21.3%),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7.5%),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9.1%), ‘전혀 모른다’(2.8%) 순으로 나왔다.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피임지식’(3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성 지식’(21.3%), ‘성에 절’(20.0%), ‘성폭력예방교육’(12.6%), ‘기타’(7.0%) 순이다.

6) 상담센터 관련된 사항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7문항으로 그 중 최근 3개월 간의 심리적 상태에 관련된 문항은 5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51.9%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1.9%), ‘자주 그렇다’(13.0%), ‘거의 항상 그렇다’(3.2%)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6.4%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혀 없다’(33.6%), ‘자주 그렇다’(17.2%), ‘거의 항상 그렇다’(2.8%)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7%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44.3%), ‘자주 그렇다’(9.8%), ‘거의 항상 그렇다’(1.1%)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2.6%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4.3%), ‘자주 그렇다’(18.7%), ‘거의 항상 그렇다’(4.3%)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충동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88.5%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가끔 그렇다’(9.8%), ‘자주 그렇다’(1.5%), ‘거의 항상 그렇다’(0.2%) 순이다.

신입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8.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79.4%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없다’라는 응답에는 20.6%가 응답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신입생의 응답 중 ‘화목한 가정’과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돈’(22.1%), ‘신뢰할만한 친구’(10.9%)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는 ‘부모’라는 응답이 전체의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친구’(41.3%), ‘형제’(8.9%), ‘전문가’(1.9%) 순이다.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1.9%가 ‘진로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학업문제’(14.2%), ‘정서문제’(9.6%) 순이었다. 신입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진로상담’(37.5%), ‘개인 심리상담’(33.4%), ‘심리검사 및 해석’(21.5%), ‘심리학 관련 학습’(5.1%) 순이었다.

7) 자살과 관련된 사항

자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6문항으로 질문하였는데 마지막 문항을 제외하고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질문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에게 과거 또는 최근에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84.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있다고 답한 학생은 16.0%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29.5%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학업 문제’(16.5%), 대인관계(14.1%), ‘정신건강문제’(12.9%)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37.6%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했다(23.5%)’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10.6%), ‘인터넷사이트를 찾아보았다’(8.2%),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8.2%)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37.6%)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어서 ‘잠을 잔다.’(16.5%),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12.9%), ‘인터넷을 돌아다닌다.’(12.9%) 순으로 나타났다.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대처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약간 있다’(37.6%), ‘사실 거의 없다’(20.0%), ‘보통으로 있다’(16.5%), ‘꽤 있다’(16.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72.3%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함께 술을 먹어 주겠다’(9.6%),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8.3%),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4.9%)’,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2.8%) 순으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한 세 대 학 교
상 담 센 터

이 설문지는 한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실상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문항을 잘 읽어본 후, 중복 체크 없이 해당되는 한 가지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 개인 신상 관련

1. 학부 (꼭! 체크해주세요)

- ① 신학부 (기독교교육 · 상담)
- ② 인문사회과학부 (국제경영, 미디어영상광고, 경찰행정, 국제관광, 영어, 중국어)
- ③ IT학부 (전자소프트웨어, ICT융합, 산업보안)
- ④ 간호복지학부 (간호, 사회복지)
- ⑤ 예술학부 (음악, 공연예술)
- ⑥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섬유패션디자인)

2. 성별 : ① 남 ② 여 ③ 기타

3. 연령 : 2020년 3월 1일 기준 (* 00년 2월생 만 20세)
- 만 () 세

*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현재 심리적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4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5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성격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외모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지금 안함	경험 없음	하고 싶음
8	흡연	①	②	③	④	⑤
9	음주	①	②	③	④	⑤
10	연애	①	②	③	④	⑤

◆ 가정 생활 관련

11. 출신 고교 소재지

- ① 서울 ② 경기 · 인천 ③ 강원도
- ④ 대전 · 충청도 ⑤ 부산 · 대구 · 경상도
- ⑥ 광주 · 전라도 ⑦ 제주도 ⑧ 국외
- ⑨ 기타

12.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 ① 2020년 ② 2019년 ③ 2018년
- ④ 2017년 ⑤ 2016년 ⑥ 2015년 이전

13. 본인의 종교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 ④ 기타 ⑤ 없음

14. 가정의 분위기

- ① 매우 화목 ② 비교적 화목
- ③ 약간 불화 ④ 심한 불화

15. 가정에 대해 불편한 점 (한 가지 선택)

- ① 부모 사이의 불화 ② 형제간 불화
- ③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④ 대화부족
- ⑤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⑥ 편애 · 차별
- ⑦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것 ⑧ 부모의 지나친 기대
- ⑨ 부모와의 의견충돌 ⑩ 불만 없음 ⑪ 기타

◆ 기타 생활 관련

16. 재수경험

- ① 없음 ② 재수 ③ 삼수 ④ 사수 이상

17. 군 입대 예정 시기(군 입대 예정인 사람의 경우)

- ① 입학 전 ② 1학년 ③ 2학년
- ④ 3학년 ⑤ 4학년 ⑥ 졸업 후

◆ 대학생 생활 관련

18. 대학 진학의 동기

- ① 학문과 진리 탐구 ② 인격도야
- ③ 장래직업준비 ④ 적성과 소질 개발
- ⑤ 사회·경제적 높은 지위 획득 ⑥ 남들도 진학하니까
- ⑦ 기타

19.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⑤ 학교 명성이 없어서
- ⑥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
- ⑦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몰라서
- ⑧ 중요한 타인(부모나 형제 등)과의 갈등
- ⑨ 우유부단한 성격
- ⑩ 경제적 어려움

◆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36.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은?

- ① 거의 사용 안함(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 ③ 1시간~2시간 ④ 2~3시간
- ⑤ 3~4시간 ⑥ 5시간 이상

37.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는?

- ①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② 인터넷
- ③ 오락 ④ 연락
- ⑤ TV·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⑥ 기타

38.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 ① 정보검색 ② 이메일 ③ 채팅
- ④ 게임 ⑤ 동호회활동 ⑥ 파일받기
- ⑦ 전자상거래 ⑧ 기타

◆ 연애 및 성 관련

39. 이전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61번 문항으로)
- ②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 ③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 ④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 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40. 59번 문항에 대한 당신의 대응방법은? (문항 59의 ①번 선택자는 제외)

- ① 참는다 ②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
- ③ 친구와 상의 ④ 학내기관, 관련기관에 도움요청
- ⑤ 법적 대응 ⑥ 여성단체와 상담
- ⑦ 기타

41.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 ③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 ④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 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42. 성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 ① 성지식 ② 피임지식
- ③ 이성교제 방법 ④ 성폭력 예방교육
- ⑤ 성 예절 ⑥ 기타

◆ 상담실 관련

43. 최근 3개월간 다음의 심리적 상태를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표시하십시오.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외로움	①	②	③	④
2)	불안	①	②	③	④
3)	분노	①	②	③	④
4)	우울, 무기력	①	②	③	④
5)	자살충동	①	②	③	④

44.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 ① 있다.
- ② 없다 (없다면 그 이유는?)

45. 대학 내에 심리적 고민 해결과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 ① 있다
- ② 없다 (없다면 그 이유는?)

46.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① 화목한 가정 ② 건강
- ③ 깊은 신앙심 ④ 신뢰할 만한 친구
- ⑤ 진실한 사랑 ⑥ 돈
- ⑦ 명예 ⑧ 권력
- ⑨ 학벌 ⑩ 사회적 지위 ⑪ 기타

47.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① 부모 ② 형제 ③ 담임교사
- ④ 선배 ⑤ 친구 ⑥ 성직자
- ⑦ 상담교사 ⑧ 전문가 ⑨ 가까운 친척
- ⑩ 인터넷

48. 만약 상담실을 방문하여 개인 상담을 받게 된다면, 상담을 희망하는 내용은?

- ① 학업문제 ② 진로문제 ③ 신앙문제
- ④ 정서문제 ⑤ 대인관계 문제 ⑥ 가족문제
- ⑦ 이성문제 ⑧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문제
- ⑨ 성격문제 ⑩ 행동 및 습관의 문제

49.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 ① 개인 심리 상담 ② 진로 상담
 - ③ 집단 상담 ④ 심리 검사 및 해석
 - ⑤ 심리학 관련 학습 ⑥ 기타

◆ 자살 관련 문항

50.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 ① 있다(51번으로) ② 없다(55번으로)

51.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 ① 성격 문제 ② 가정 문제
- ③ 대인관계 문제 ④ 이성 관계 문제
- ⑤ 경제 문제 ⑥ 학업 문제
- ⑦ 진로(취업)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 ⑩ 기타 _____

52.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 ② 구체적 방법을 생각하였다
- ③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 ④ 며칠씩 식사를 안 하거나 잠을 못 잤다
- 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 ⑥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하였다
- ⑦ 기타 _____

53.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잠을 잔다
- ②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 ③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
- ④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 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 ⑥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 ⑦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 ⑧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54. 위에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사실 거의 없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보통으로 있다

- ④ 꽤 있다
- ⑤ 항상 있다

55.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 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 ②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
- ③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주겠다
- ④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
- 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 ⑥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신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학생지원처의 상담센터는 본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자기이해와 진로, 가정 및 대인관계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으며, 전문 상담 인력을 위한 인턴쉽 과정과 실습,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를 겸하고 있어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교생 반성폭력 캠페인,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 연계 활동으로 군포·의왕 교육청 지원 청소년상담, 지역아동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그리고 교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1) 재학생 상담

(1) 개인상담

대학생활 중 겪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 대인관계 갈등, 정서 및 성격상의 문제, 신앙 및 가정의 위기, 진로 선택,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2) 집단상담 및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문상담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집단원들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나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도구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적성 및 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는 성격검사(MBTI, TCI, 에니어그램, 표준성격진단검사, 방어기제검사)와 적성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적성진단검사)가 있고, 기타 검사들로는 MMPI-2와 K-WAIS 대학생 간이정신진단검사 등이 있다.

(4)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접수를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정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성희롱 예방 주간에 성희롱 추방 캠페인을 도와주고 있다.

2) 지역 연계 상담

(1) 군포·의왕 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상담

「 초·중등교육법 」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및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에 의거하여 군포·의왕 지역의 초·중·고 학생학생 교육 및 학부모 교육 실시 하고 있다.

(2) 인근 초등학교의 개인 상담 지원

본교 인근의 초등학교(당정초교)와의 협약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3)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상담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돕고 있다.

(4) 기타 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

기타기관(서울분류심사원, 고봉 중·고등학교, 수원보호관찰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황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5)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군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상담실 이용 안내

■ 이용시간 : 월~금 (09:00 - 21:00), 토 (09:00 ~ 17:00)

■ 이용절차 : 심리검사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한주 후에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면접 후 상담이 진행되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예약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매 학기 집단상담이 개설이 되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전화/ 031) 450-5173, 5056

e-mail / kimhs@hansei.ac.kr

3. 주요 업무 실적

1) 재학생 월별 방문자 수 (2019년 3월 ~ 2020년 2월)

(단위 : 명)

년도	월	심리검사 인원(검사횟수)	개인상담인원(회기수)
2019년	3월	716 (804)	95 (237)
	4월	315 (401)	87 (219)
	5월	45 (63)	75 (211)
	6월	14 (20)	57 (118)
	7월	4 (5)	18 (47)
	8월	0 (0)	10 (19)
	9월	300 (485)	54 (154)
	10월	21 (31)	88 (207)
	11월	78 (90)	91 (245)
	12월	11 (15)	48 (155)
2020년	1월	13 (14)	27 (61)
	2월	0 (0)	16 (30)
합계		1,517 (1,928)	666 (1,703)

2) 교육청 심리검사 및 상담 (2018년 3월 ~ 2019년 2월)

년도	월	심리검사			상담진행건수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2019년	3월						
	4월					6	
	5월					3	1
	6월					2	1
	7월				1	2	2
	8월					2	3
	9월					3	
	10월					2	
	11월				1	6	
	12월					6	
2020년	1월						1
	2월					2	
합계					2	34	8

3) 상담 및 심리검사 (2019년 3월 ~ 2020년 2월)

(1) 학부별 심리검사 방문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재 학 생	IT학부	69	53	4	1	1	0	16	2	2	0	1	0
	간호복지학부	126	166	5	2	1	0	44	0	4	2	2	0
	인문· 사회과학부	255	36	11	5	1	0	149	10	47	4	8	0
	디자인학부	122	16	4	4	1	0	41	6	11	2	1	0
	신학부	53	39	19	0	0	0	30	3	7	2	0	0
	예술학부	91	5	2	2	0	0	20	0	7	1	1	0
	합계	716	315	45	14	4	0	300	21	78	11	13	0

(단위 : 명)

(2) 심리검사 종류별 실시 및 해석 (20019년 3월 ~2020년 2월)

		MBTI	TCI	HLCT	홀랜드	에니어 그램	이화 방어 기제	표준화 성격 검사	표준화 적성 검사	MMPI -2	SCT	HTP/ KFD	간이 정신 진단
재 학 생	IT학부	33	8	5	31	2	0	2	8	24	7	1	53
	간호 복지 학부	189	7	3	51	85	8	7	6	13	13	5	68
	인문· 사회 과학부	118	22	22	191	13	7	29	15	30	30	11	195
	디자인 학부	36	15	3	51	6	7	9	7	8	11	9	107
	신학부	24	6	0	46	1	33	3	2	16	16	6	40
	예술 학부	15	4	1	21	1	0	1	2	6	9	5	89
	합계	415	58	33	370	107	55	51	740	91	77	32	463

(단위 : 건)

(3) 개인상담 방문자 및 회기 (2018년 3월 ~ 2019년 2월)

(단위 : 명(회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IT학부	4	7	10	6	1	1	1	3	2	1	0	0
간호 복지학부	43	19	17	12	2	1	6	4	9	11	2	1
인문· 사회과학부	24	34	26	16	6	0	28	39	45	33	12	9
디자인학부	6	10	7	7	4	1	7	18	21	21	4	1
신학부	16	11	10	9	4	2	6	11	9	10	5	2
예술학부	1	6	5	7	1	1	4	6	6	8	4	3
합계	94	87	75	57	18	6	52	81	92	84	27	16

4) 집단상담

프로그램명	지도	총인원 (수료인원)	총시간	만족도
집단상담(미술심리) ‘흙으로 나를 표현하자’	김향란	21 (10)	10	4.28
제2기 한세우리친친 또래상담자 양성 교육	손광민외 2	36 (21)	12	4.6
2019-1 힐링시네마, “영화 톡(talk), 톡(talk)”	임선정	59 (31)	8	4.8
2019-2 한세인을 위한 영화심리치료	임선정	56 (46)	10	4.6
싱글남녀를 위한 연애학개론	김향란	23 (12)	8	4.2
기숙사 생활자를 위한 집중상담	김혜선외 4	31 (31)	10	-
한세우리친친 또래상담	강선미	22 (19)	16	4.6
발표불안	신미경	33(10)	6	

5) 특강

프로그램명	강사	참여인원 (교육인원/대상인원)	일시 및 시간	비 고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상훈	560	2019.02.21 09:00~10:00	
실습학기제 1차 O.T/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장각자	6	2019.02.26	
전교생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1차)	정영주	44	2019.03.09	
외국인유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정영주	38	2019.03.14	
경찰행정학과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김현주	38	2019.03.25	
전교생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2차)	이상훈	925	2019.03.26 11:00~12:00	
전교생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4차)		40	2019.04.03	
교직원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김희수	184 / 238	2019.04.16 10:00~12:00	
전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5차)		74	2019.05.03	
전교생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6차)		55	2019.05.15	
전교생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7차)	박경진	35	2019.05.31 10:00~11:00	
실습학기제 2차 O.T/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손원빈	33	2019.06.10	하계직무체험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직무교육학생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3차)	장각자	17	2019.06.15	
실습학기제 3차 O.T/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장각자	16	2019.06.20	하계직무체험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전교생 대상 스마트폰 / 인터넷 과다사용 및 자살예방교육	한상미	53	2019.09.10	
전교생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8차)	김현주	498 / 588	2019.09.17 15:00~16:00	
교직원 대상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허성열	160 / 238	2019.10.15. 10:00~12:00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정영주	60	2019.11.08	
전교생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9차)	우명순	59 / 60	2019.11.21 10:00~11:00	
실습학기제 4차 O.T/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장각자	38	2019.12.11,13	동계직무체험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합계		2,969		

6) 집중 심리검사 주간 실시

일주일간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실시하고 친구끼리, 연인끼리, 선후배끼리, 룸메이트끼리의 커플 해석을 통해 본 센터를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7) 연구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활, PC사용, 이성 및 성(性), 상담실 이용, 자살과 관련된 사항 등을 설문 조사한 후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5년간의 신입생 실태조사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8) 교육

본 학생상담센터는 인턴 수련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인턴교육은 심리검사, 상담기법, 상담사례 집단 Supervision이 진행되었다.

9) 출판물

신입생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매년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며 2017년에는 제 권을 발간한다. 또한 최근 3년간의「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본교 신입생의 특징을 파악 한 「신입생실태조사 비교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집」을 발간하였다.

2019년도 상담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주요 활동 내용
3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19 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실시, 신입생 전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학사경고자 상담실시 (2018-2학기) 전교생대상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1차 실시 (3/26)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4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교직원대상 폭력예방 통합 교육 1차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신입생 대상) -4주 과정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5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 학부 대상, 5주 과정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 (4주 과정)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6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 협의회 하계연차대회 참가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7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하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2019년 2학기 인턴 전문 상담사 양성과정 OT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8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 연수 참석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구분	주요 활동 내용
9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중 심리검사주간 실시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재학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2차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0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단상담 III (집단상담) - 학부 대상 (3주과정) 집단상담 IV (집단상담) - 학부 대상 (4주과정) 전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2차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20학년도 예산 계획 수립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 협의회 동계연차대회 참가 연간 개인심리 검사, 상담 및 업무 종합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연간 활동 계획 수립 월례회 및 동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2019년 인턴 수료식 2020년 인턴 전문 상담사 모집 및 선발
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인턴 전문 상담사 양성 과정 OT 신입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신입생 OT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학생생활연구 발간규정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이상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 분야, 상담학 분야의 연구 논문과 관련 자료 및 실증논문을 게재합니다.

본 학회지는 신입생 실태조사보고서로 1998년에 창간되었으며, 2018년 제 21권부터 학생생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구결과를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게재논문 선정논문

논문 공모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의거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논문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료 30,000원(심사위원 3인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논문의 분량은 기본 15쪽 이내, 15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 게재연구 초과시 초과면수 1면당 10,000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고체계

- ① 국문제목
- ② 투고자 성명 및 소속(한글)
- ③ 국문초록
- ④ 본문 (예,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 ⑤ 참고문헌
- ⑥ Abstract

* 단, 질적연구에서는 ④ 본문 (예,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로 형식을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 게재신청서 작성

게재신청서의 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논문 신청, 수정, 게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국과 연락을 취할 자
- 교신저자: 논문이 게재된 후 논문에 대한 내용 문의 등을 교신을 담당할 자
- 연구자: 논문 작성에 참여한 자. (작성 순서는 반드시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록)

☐ 논문 제출처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세대학생생활연구 편집국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T.031-450-5173).

학생생활연구 투고규정

1.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자료(연구용 및 상담학사 관계) 및 논설이며, 주제가 '학생생활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게재희망자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을 통하여 제출하며, 학생생활연구의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논문투고,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 편집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출판 후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 다른 저자나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교신이 진행될 경우의 혼란으로 인하여 저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A4 용지 규격으로 한 페이지 당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5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5. 제출된 원고는 무기명으로 편집위원의 요건 사전심사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반드시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7. 경험적 연구논문에서 본문의 형식은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문의 글자는 신명조체(크기 10)로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신명조체, 크기 9)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8.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9. 영문 초록은 페이지를 분리하여 제시한다.
10. 원고는 학생생활연구 원고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출판지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미국 심리학회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11.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20부에 한하여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초과분의 별쇄본은 저자의 사전요청과 부담에 의하여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한 세 대 학 교

2020년 12월 일 인쇄

2020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김 희 수

발행처 :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전 화 : 031)450-5173, 5056

E-mail : kimhs@hansei.ac.kr

<Abstract>

The Effect of Dating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Levels of Understanding·Acceptance·Open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eong, Young-Joo

Kim, Hee-sue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ating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levels of understanding·acceptance·open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targeted students from H University in Gyeonggi-do. Among twelve students,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e experiment, six students were placed in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remaining six ones were placed in a control group. The dating group counseling program consisted of total three sessions, and each session was conducted for two hours once a week from November 9th 2020 to November 23rd 2020.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levels of understanding·acceptance·open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measured in both groups.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analyzed using SPSS 21.0, and for verifying the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ann-Whitney U test, a nonparametric test method, was carried out. Also, the differences in pre- and post-test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analyzed through Wilcoxon Signed Rank Test, which is a nonparametric test method as wel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dating group counseling progra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improvement in the levels of understanding·acceptance·open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demonstrating that the dating group counseling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levels of understanding·acceptance·open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Key Words : *Dating Group Counseling, University Student, Levels of Understanding·Acceptance·Openness,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